

신앙과 학문

제23권 제2호 (통권 75호)

기독교학문연구회

신앙과 학문

제23권 제2호 (통권 75호), 2018년 6월호.

발행일/2018년 6월 30일
발행처/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유재봉(성균관대학교)
편집인/손병덕(충신대학교)

편집, 제작/석종준
인쇄/진흥인쇄랜드
등록/문화 바02789
ISSN 1226-9425
주소/08807 서울 관악구 과천대로
939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02-3272-4967
팩스/0303-0272-4967
전자우편/gihakyun@daum.net
홈페이지/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 일반 논문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 유아교육의 의미와 방향 | 권미량 / 하연희 / 계영희 · 5

The Meaning and Direction of Christia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 Mee-Ryang Kweon / Yeon-Hee Ha / Young-Hee Kye

영성교육 도입 통로로서 직관의 이해 | 김보경 · 29

Understanding Intuition as a Way
to Introduce Spiritual Education | Bo-Kyeong Kim

군 장병의 군복무 중 종교변화와

군 선교전략에 대한 혼합연구 | 김성훈 / 임세현 · 65

Mixed Methods Research on the Change of Religion
Occurring in the Army and Strategy on Military Missions
| Seong Hun Kim / Se Hyeon Lim

산업혁명의 변화에 따른 기독교교육

: 산업혁명과 주일학교운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 류은정 · 91

Industrial Revolution & Christian Education
- Sunday School Movement - | Eun Jeong Ryu

아름다움과 안식: 예술의 역할에 대한 신학적 고찰 | 서나영 · 119

Beauty and Sabbath: A Theological Study on the Role of the Arts
| Na Young Seo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 음선필 · 149

Relig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nd Alternative Service
| Sun-pil Eum

절대자를 만나는 예배로서의 미술

: 신학적 미학을 통한 오의석 작가의 스토리텔링 | 이소명 · 185

Art as Worship to the Absolute Being

: A Storytelling of Oh Ui-Seok Artist through Theological Aesthetics
| Somyeong Lee

4차 산업혁명 시대, 코딩 기술과 교회 교육 | 이영미 / 이윤석 · 215

Coding Skills and Church Educat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 Young-Mi Lee / Yoonseok Lee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 유아교육의 의미와 방향

The Meaning and Direction of Christia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권미량 (Mee-Ryang Kweon)*

하연희 (Yeon-Hee Ha)(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계영희 (Young-Hee Ky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what are the meaning and direction of Christia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 and South Korea.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selected 2 parents and 2 teachers from South Korea, and 2parents and 2 teachers from the United States. Each of them was interviewed in depth to gather data of opinions, and 4 institution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were selected to gather data of activitie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It was analyzed using data source triangle measurement.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the special approach and the general approach, the demand about practices based institutions and the necessary about practices based families, the education focused worship and the education focused spirit, The curriculum separated with the culture and the curriculum in connection with the culture, the urgent need for changes and easygoing attitude for changes.

Key Words : education institu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Christian early childhood education

* 고신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Kosin University),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194, mykidlove@kosin.ac.kr

** 고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Kosin University),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194, frersh-525@kosin.ac.kr

*** 고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Kosin University),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194, yhkye@kosin.ac.kr

2018년 06월 03일 접수, 06월 26일 최종수정, 06월 27일 게재확정

1. 들어가는 말

한국 유아교육의 역사적 설립과 확산에서 기독교의 영향은 지대하다. 일제 강점기 시기인 1915년에 공포된 ‘개정사립학교규칙’의 배경은 교육의 규제를 강화하고 독립운동을 위한 발판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했던 유치원은 선교의 목적과 독립 운동의 필요에 의해 확대 설립 운영되어졌고(이상금, 1991), 이것은 한국 유치원 역사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어왔다.

우리나라 최초의 유치원이 어디인가에 대한 논의는 논란의 여지를 포함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1914년 브라운 리(Brown Lee) 선교사가 설립한 이화학당의 이화유치원으로 소개되어 왔다. 물론 이운진(2005)의 주장대로 이화유치원보다 앞서 평양에서 선교사들에 의해 개척된 유치원이 있었다는 역사적 흔적들이 있지만 문헌적 가치에 대한 논란으로 공식화되지 못한 점이 있다. 이러한 초기 유치원 설립의 배경에는 기독교 선교사가 주도적 역할을 해 왔고, 그 영향 또한 컸다고 볼 수 있다. 선교의 사명으로 설립된 초기 한국 유치원의 배경에는 미국 선교사에 의한 기독교 유아교육의 실천 의지가 강하였다.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유아를 교육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권미량, 2015). 이러한 목적에 기초하여 초기 유치원이 확대되어졌다. 1971년 『문교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유치원 설립 주체가 기독교 225개, 천주교 118개, 불교 12개 등이었고, 보육에서도 그 출발점은 선교의 목적 하에 있었던 1921년 태화기독교사회관의 탁아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이덕주, 1994; 이상금, 1991).

그러나 현재 한국의 기독교 유아교육에 대한 논의는 극히 제한적일 뿐 아니라 지원체제의 부족으로 실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미화(2014)는 기독교 유아교육이 현재 기독교적 성격 표방의 어려움, 부족한 재정과 환경, 교사의 역량 한계, 교회와의 부족한 연계와 갈등 등으로 실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한국의 기독교 유아교육이 독자적이기 보다는 교회 안의 주일 학교 교육으로 기독교 교육의 맥락 안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지적(오인택, 2002)과, 기독교 유아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부흥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자 유아교육 관련 연구동향을 새롭게 조명하여 분석(권미량·김민정·이숙희, 2016; 정희정·김남임, 2013)하는 시도들이 있어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한국 유치원 설립 초기에 선교사들에 의해 개인을 성장시키고, 사회개혁을 위한 통로로서 평가되었던 기독교유아교육(이상금, 1991)이 현재 약화

되고 축소되고 있다는 현실과 맞닿아있다(권미량, 2015; 김학영, 1997). 따라서 최근 교육현장과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 개혁을 외치고 있는 시점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반성적 논의와 더불어 역사적 배경 속에 있었던 기독교 유아교육의 가치와 그 정체성을 재논의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의 개혁과 더불어 유아기를 위한 교육적 현상을 국제적 측면에서 비교하고 검토하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한국 유치원 초기에 결정적 영향을 받았던 미국의 유아교육과 현상적 측면에서의 비교를 통하여 문제점과 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유아교육에서도 원칙적으로 종교에 의해 차별되지 않는 교육적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적 차원에서의 기독교교육이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Missouri Learning Standard, 2018). 하지만 한국과 비교해서 영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에 따른 다양한 논의들이 있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다(김성원, 2012; Cloyd, 2000).

Barrett & Richert(2003)은 준비가설을 통해 유아기는 발달적으로 인간과 신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보았던 입장(Goldman, 1964; Oser & Gmuender, 1991; Piaget, 1929)을 반박하며, 유아기에 신을 인간과 구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크래커박스 실험연구는 크래커박스에 돌을 넣어두고 하나님과 엄마, 자신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5세와 6세의 유아의 경우 엄마와 자신은 크래커가 들어있다고 인식하지만 하나님은 돌맹이가 들어가 있음을 아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Barrett, Richert & Driesenga, 2001). 즉 유아도 인간과 신의 능력을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유아기 신앙교육의 발달적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또한 Rizzuto(1979)는 영아의 경우 ‘어머니 이미지’와 ‘이상화된 어머니 원형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의 개념을 형성한다고 보고 주 양육자의 신앙교육에서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독교 유아교육에 있어서는 ‘영성’에 대한 강조가 단지 유아뿐 아니라 유아를 양육하는 양육자에 이르기까지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의들이 미국사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신앙교육으로서의 ‘영성’교육을 부모나 조부모처럼 주로 자녀를 양육하는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왔고(Barna, 2003; Cloyd, 2000; LaHaye, 1978), 더불어 성경내용을 유치원 생활과 연계하여 시도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제시하기도 하고, 기독교의 절기를 중심으로 한 유아교육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기도 했다(Fritz, 1964; Mangelsdorf, 1923; Montague, 2014; Schmauk, 1906).

또한 발달적으로 유아기는 부모나 자연 현상 등을 통해 하나님의 개념을 표상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논의(Barrett & Richert, 2003; Rizzuto, 1979)들은 기독교 유아교육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고, 유아기 신앙교육의 방법론적 논의에 있어서는 놀이중심의 교육적 접근이 논쟁의 중심에서 있다(Berryman, 1991). 이러한 논의들은 기독교 유아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유아기 특수성을 고려한 실천방안이 논의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권미량, 2012).

따라서 한국 유치원의 초기 설립 시기에 영향을 받았던 미국 선교사의 기독교 유아교육의 접근은 현재 위축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국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독교 유아교육의 가능성과 필요에 대한 논의들은 한국의 유아교육현장에서 기독교 유아교육의 실천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유아교육기관의 기독교 유아교육 접근의 실천 가능성을 대외적 관점에서 비교하여 분석하고, 그 실천적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한국의 초기 유치원과 기독교 유아교육에 영향을 미쳐왔던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 유아교육에 대한 현상을 탐색하고, 그 의미와 실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한국 유아교육 현장의 기독교 유아교육 실천을 위한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 유아교육의 의미와 방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과 미국의 교사와 부모 사례를 질적으로 탐색하여 분석하였고, 두 나라 간의 유아교육현장에서 시도하는 기독교 유아교육 접근의 의미와 방향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는 두 나라의 특정 사례를 중심으로 심층적 의미를 탐색하는 질적 연구라는 측면에서 대상적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 유아교육에 대한 접근의 차이를 고찰할 뿐 아니라 두 나라의 문제나 실천 가능성을 탐색하여 바람직한 기독교 유아교육의 의미와 방향을 세울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2017년 6월에서 2018년 1월 사이에 미국의 유아교육기관 2곳과 유아교사 2인, 부모 2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2017년 6월에서 2018년 2월 사이에 한

국의 유아교육기관 2곳과 유아교사 2인, 부모 2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미국의 경우 미주리(Missouri)주에 위치한 L유치원과 K유아원의 교사 각 1인과 유아기 부모 2인을 임의 선정하였고, 지속적으로 레포를 형성하기 위하여 사전 모임을 가진 후에 면담을 실시하였다. 미주리주에 위치한 L유치원은 공립초등학교 부설 유치원의 K학년으로 서로 함께하고 놀며 탐구하는 유치원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K유아원은 놀고, 탐색하고 배우는 과정 속에서 적절한 발달의 기회를 제공하는 비전으로 이루어진 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아원이다.

한국의 B시에 위치한 U유치원과 J어린이집의 문서를 연구 자료로 설정하였고, 교사 1인과 부모 2인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U유치원은 자연과 함께하는 유치원으로 숲교육을 시도하고 있는 유치원이며, J어린이집은 교회부설 어린이집으로서 맘껏 뛰놀며 건강한 정서와 올바른 품성을 기르는 교육의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다.

Table 1 About study participants

Name	Sortation	Nationality	Gender	Age	Special Note
A	Parent	Korea	Female	32	A parent of a child of five years old, a Christian
B	Parent	Korea	Female	36	A parent of a 5-year-old child, a Christian.
C	Teacher	Korea	Female	42	Has a career in the Christian infant education institution and 17 years of experience and a current kindergarten teacher
D	Teacher	Korea	Female	39	Has five years of experience in infant education, holds a master's degree, taught at a daycare center, and is currently on leave.
E	Parent	America	Female	46	A parent of five girls, a Christian
F	Parent	America	Female	29	A parent of four years old and attend church several times a year.
G	Teacher	America	Female	31	Has 11 years of experience in education, is currently in charge of Preschool 2, the U.S., and has a career at the Christian Foundation
H	Teacher	America	Female	39	Has 14 years of experience in education, and I am currently in a K grade class in elementary school in the U.S.

2. 자료수집

(1) 문헌고찰

본 연구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유아교육과 관련된 기독교 유아교육관련 문헌을 수집하였고, 문헌을 전체적으로 탐색한 후 의미있는 문헌은 종류별로 범주화하여 최근 연구나 논의점들을 정리 분석하였다.

(2) 문서자료

한국과 미국의 유아교육과 관련된 실제 유아교육기관의 활동 문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우 B시에 위치한 U유치원과 J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여 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계획안, 수업자료, 교육활동 학습지, 부모자료 등을 수집하였다. 미국의 경우 미주리주에 위치한 W시의 L유치원(Kindergarten)과 K유아원(Preschool)을 대상으로 하여 L초등학교의 K학년 만 5세 학급과 K유아원의 만 4세 학급의 교육계획안 수업자료, 교육활동 학습지, 학부모 안내문 등을 수집하였다.

(3) 면담

면담은 Fetterman(1989)이 제시한 면담 절차를 기초로 하여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출발하여 심층적 내용으로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면담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기독교 유아교육 실천 가능성, 필요성, 내용, 방법, 효과성, 실천의 제한점, 대안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고, 각 면담의 내용에 추가적인 쟁점을 찾아내어 추가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면담한 내용은 면담일지를 작성하여 기록하고, 부분적으로 녹음하고 전사하는 과정을 거쳤다. 질문은 일련의 질문 혹은 쟁점들을 기초로 하여 이끌어지지만 순서나 언어화는 구조화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추가 면담을 심층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Fetterman(1989)이 제시한 분석과정과 Spradly(1980)

의 영역분석과 분류분석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절차를 적용하였다.

첫째, 문헌자료 및 면담자료는 전체적 내용을 거시적으로 분석하여 중요 쟁점을 설정하였다. 둘째, 쟁점에 따라서 사고와 논의의 패턴을 찾아가는 과정을 반복해서 거치면서 주제를 분석하였다. 셋째, 주제별 중요 핵심 단어를 추출하고 하위영역을 찾아서 내용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내용패턴을 찾는 방식으로 질적 연속성을 발견해 나갔다.

편견을 최소화하고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료원 삼각측정(data triangulation)을 사용하였다. 면담자료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기관의 문서자료를 수집하여 상호분석하는 방식을 통해 자료원 삼각측정(data triangulation)을 하였다. 그 후 문서자료를 최대한 분석하여 면담의 내용과 상호 연결되는 분석내용을 쟁점으로 찾아내는 과정을 거쳤다.

III.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 유아교육의 의미와 방향

1. 특수한 영역으로의 접근 : 보편적 영역으로의 접근

한국의 경우 유아교육현장에서 기독교 신앙교육의 실시는 특수한 기독교교육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 현상은 아니라는 인식이 컸다. 따라서 특수한 기관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이로 인하여 현재 실천이 어렵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기독교 유아교육은 특별한 부분이 있어야 하지요.. 기독교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교회부속 유치원이라든가 특별한 모양으로 나타나야 하잖아요.. 별로 없어요.. 제 주변에 기독교 유치원이라고 할만한 곳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부속 유치원은 찾기가 너무 어렵고...(2017. 10. 13. 한국, A부모 면담 중에서).

신앙교육프로그램이나 어떤 개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깐 실천하기 힘들죠. 누리과정은 그런 내용을 포함시킬 수 없도록 되어도 있고.. 저는 아이들에게 기독교 유아교육을 하고 싶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2017. 11. 3. 한국, D교사 면담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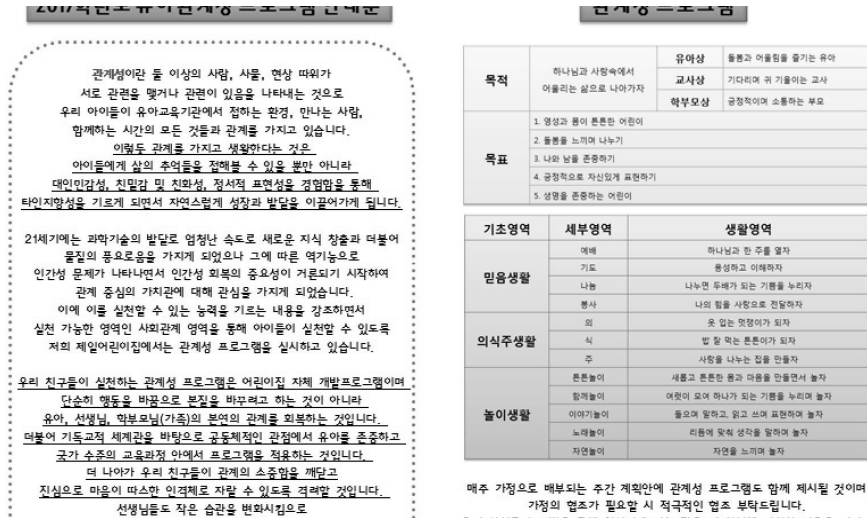


Figure 1. Parents correspondence of J kindergarten school in Korea that practice Christian infant education as a relationship program

반면에 미국의 부모와 교사는 기독교 교육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적 현상이고 그것이 그렇게 특별해야 한다고 여기지 않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 미주리주의 경우, Missouri Learning Standard(2018)에 기초하여 유치원이나 유아원 교육 프로그램이 종교에 의해 편향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어서 구체적 접근이 실제적으로는 일어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나 교사는 기독교라는 것이 매우 보편적이고 특별히 접근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여유로운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그림 2와 같이 크리스마스, 부활절과 같은 주제가 자연스럽게 교육활동의 주제로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은 그림 1과 같이 특정 프로그램을 시도하여 구체적으로 접근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기독교 유아교육은 선택의 문제이지요. 모든 아이들은 기독교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많은 기관들이 그런 접근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독교유아교육이 아니더라도 선생님들은 사랑과 존중으로 아이들을 대하겠지만요.(2017. 7. 20. 미국, G교사 면담 중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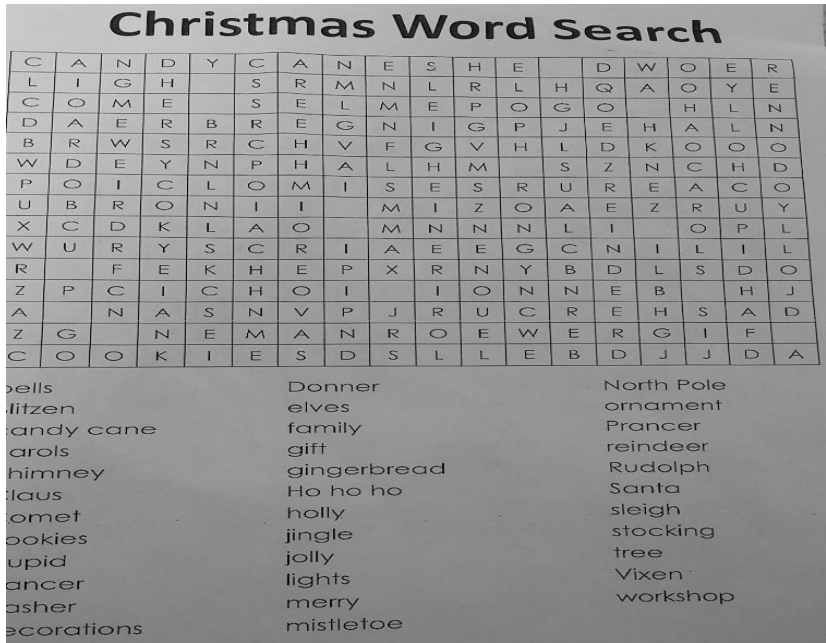


Figure 2. American L kindergarten correlates christmas terminology with activities

2. 기관중심의 실천 요구 : 가정중심의 실천 요구

기독교유아교육에 대한 한국의 부모나 교사의 요구가 기관중심에 초점을 둔다면 미국의 경우 가정중심의 실천을 강조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국의 어머니나 교사는 다음에 제시한 것 같이 기독교유아교육은 기관이 없어서 실천이 힘들다고 생각하며 기관중심의 제공에 의존하고 있었다. 반면 그림2와 같이 미국의 경우 가정에서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가정에서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기독교 유아교육을 하는 유치원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했죠. 그런 프로그램이 제공되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기관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선생님도 원장님도 크리스찬이어야 하고, 프로그램도 있어야 하나까.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서 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보낼 수 있는데....(2017. 10. 16. 한국, B어머니 면담 중에서).



Figure 3. Parents correspondence of K kindergarten school in America that more specific guidance on home activities

미국의 유아교육 자체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이 부모나 가정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독교유아교육에 있어서도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의 교사 면담에서와 같이 기독교유아교육에서 가정과 부모의 중심성을 강조하고 학부모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미국인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유아교육기관의 프로그램 보다는 가정교육과 기관의 분위기를 강조하는 것이다.

교육은 가정과 부모가 먼저예요. 기독교교육도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Preschool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이곳에 오기 전에 기독교 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교사를 했습니다. 가정은 교육의 책임이 있고, 우선되어야 합니다(2017. 7. 20. 미국, G교사 면담 중에서).

기독교교육은 유치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유치원에서도 그런 교육을 받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교육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가정에서 태도와 행동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2017. 7. 12. 미국, E부모 면담 중에서).

3. 예배중심의 교육 : 영성중심의 교육

한국 부모의 경우 기독교 유아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인식에 있어서, 연구 참여자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나 기도 생활이 포함된 것을 강조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유치원에서 성경을 가르쳐주기를 원하고 있었으나 미국 부모와 교사의 경우 기독교 유아교육은 자녀들의 삶의 태도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한국의 경우 성경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동화나 관련 내용을 들려주고, 예배와 같은 구체적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반면, 미국의 교사들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성을 강조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그렇게 잘 두드러지게 잘 하는 곳이 없잖아요. 그게 문제죠. 유치원에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하는 곳이 잘 없어요. 잘 찾을 수가 없어요. 교회 부속에서는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나요? 옛날에는 선교원이 있었는데. 집에서는 가정예배도 힘든데 원에서 이루어지면 좋지요(2017. 10. 13. 한국, A어머니 면담 중에서).

사실은 예배를 드리고, 성경 동화를 들려주려주는 활동들을 하려고 하지요. 영성교육을 생각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요, 그래서 관계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2017. 11. 3. 한국, D교사 면담 중에서).

미국의 경우는 성경의 지식과 내용을 기독교재단 유아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하지만 일상적 생활 속에서 영성을 돌보는 내용 위주의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그림4는 부활절과 연계하여 에그헌팅(egg hunting)을 하면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소통하고 그 속에서 아이들의 영성을 돌본다는 취지를 드러내고 있었다. 반면 한국의 기관은 예배, 성경동화와 같은 성경지식을 포함하는 것이 기독교유아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시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이러한 영성교육을 위한 구체적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최성진, 2018)이 연구되어지면서 영성교육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구체적 실행을 힘들어하는 것으로 보였다.

** As the weather gets warmer, the children's clothing becomes shorter. Please be sure to have your girls wear shorts under their dresses. Please bring in a weather appropriate change of clothes, labeled with your child's first and last name.

Our spring party is next Friday, April 21st from 3:00-4:00 p.m. All Parents are welcome to attend and celebrate. We will be putting up sign up sheets on Monday, April 10th. Please see your child's door for more information. We will be having an egg hunt that day also. Please see your child's teacher for more information.

Upcoming Events:

** We hope everyone has been practicing their smiles for our Picture Days coming. Pictures will start on Tuesday April 18th for children in Suites 100-350, all sibling sets will be photographed on this day as well. All other students, and graduation photos will be taken on Wednesday, April 19th. If your child only attends part time, they will be photographed on their normal attendance day. If you have any questions regarding which day your child will be photographed on, please see your child's teacher or Ms. Aliza.

* Pre-K Graduation is quickly approaching. Please make plans to attend on May 18th, at 7 p.m. This will be held at Peine Ridge Elementary School. There is no need to reserve spots, there is plenty of seating for as many family and friends as you want!

Figure 4. Parents correspondence of K kindergarten school in America that engaged in egg hunting activities in connection with Easter

		6월1주 ~2주	6월3주 ~5주	7월1주 ~2주	7월3주 ~4주	8월1주 ~2주	8월3주 ~5주	9월1주 ~2주
1	1)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2	2)에덴동산의 아담과 하와	사랑가득	파란하늘	푸른바다	행복나래	맑은샘물	산들바람	밝은누리
3	3)가인과 아벨							
4	4)노아의 방주							
5	1)바벨탑							
6	2)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초록풀잎	사랑가득	파란하늘	푸른바다	행복나래	맑은샘물	산들바람
7	3)소돔과 고모라							
8	4)하나님께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9	1)에서와 아람							
10	2)진사와 씨름한 아람	산새소리	초록풀잎	사랑가득	파란하늘	푸른바다	행복나래	맑은샘물
11	3)이집트로 간 요셉							
12	4)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13	1)형들을 용서한 요셉							
14	2)이집트 왕자로 자란 모세	금빛초원	산새소리	초록풀잎	사랑가득	파란하늘	푸른바다	행복나래
15	3)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16	4)이집트에 내린 열 개의 재앙							
17	1)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18	2)만나와 매추라기	밝은누리	금빛초원	산새소리	초록풀잎	사랑가득	파란하늘	푸른바다
19	3)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20	4)열두 명의 정탐꾼							
21	1)어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22	2)기드온과 삼백 명의 용사들	산들바람	밝은누리	금빛초원	산새소리	초록풀잎	사랑가득	파란하늘
23	3)삼손과 들릴라							
24	4)룻과 보아스							
25	1)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26	2)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맑은샘물	산들바람	밝은누리	금빛초원	산새소리	초록풀잎	사랑가득
27	3)골리앗을 이긴 다윗							
28	4)다윗과 요나단							
29	1)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30	2)다윗왕과 밧세바	행복나래	맑은샘물	산들바람	밝은누리	금빛초원	산새소리	초록풀잎
31	3)지혜로운 왕 솔로몬							
32	4)물로 나눠버린 이스라엘							
33	1)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푸른바다	행복나래	맑은샘물	산들바람	밝은누리	금빛초원	산새소리
34	2)엘리아와 엘리사							
35	3)하나님의 말씀을 여긴 요나							
36	4)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37	1)밀음이 깊은 용의 이야기							
38	2)하나님께 순종한 다니엘	파란하늘	푸른바다	행복나래	맑은샘물	산들바람	밝은누리	금빛초원
39	3)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40	4)밀음의 여인 에스터							

Figure 5. Data of J Kindergarten School in Korea that working by writing a Bible fairy tale list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Bible

기독교유아교육.. 영성교육에 기초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요. 중요해요. 아이의 영성을 케어하는 중요한 교육이 될 수 있으니깐요. 어릴 때부터 시도해야해요. 그래야만 아이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깐요(2017. 6. 5. 미국, H교사 면담 중에서).

나의 딸이 다니는 곳은 기독교에 베이스를 둔 기관은 아니지만 교육은 가능해요. 유치원에서 아이의 영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늘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에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유치원이 경험을 주고 생활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어요 (2017. 7. 12. 미국, E교사 면담 중에서)

4. 문화와 다른 독립적 구성 : 문화와 연계된 일상적 구성

한국의 기독교 유아교육은 한국 문화나 일상과 다른 교육내용을 구성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은 한국 전통사회의 세시풍속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의 유산을 누리과정에서 제시하고 있으므로 유치원 대부분이 세시풍속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해나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이 주요한 절기이며 미국사회의 특징을 나타내는 문화이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유아원의 활동과 행사, 교육내용 및 주제가 자연스럽게 성경중심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치원의 대부분 행사는 세시풍속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사계절과 연계되어서 여러 가지 풍속이나 절기가 아이들의 생활과 연결이 잘 되니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좀 기독교적이지 않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만들려면 일반 교육에 이걸 어떻게 엮어야 하나 하는게 숙제인거 같아요. 자꾸 따로 놀 수 밖에 없고...(2017. 11. 3. 한국, D교사 면담 중에서).

㉔

한국의 전통사회는 뚜렷한 사계절에 따른 세시풍속이 있었으므로, 이를 유아교육의 주제와 삶에 연계시키는 경우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유아교육을 접목하기에 힘들어하는 고민이 드러났으며, 이는 그림7처럼 세시풍속은 기독교적으로 접목되기 힘든 내용이므로 그림6과 같이 특별 행사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될 수밖에 없었을 수 있다.

<아기예수님 생일잔치>


여느마리 미안하잖아미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 미미들과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거라 남리생시로
생략인사를 드렸습니라.
고리니

몇 번 시미 미미도 수편 및 궁리미미 남리생시를 진행하미미
시향문미, 소용문편 민편발성이 있어 고민하미미
미미들과 함께 하는 작은 궁연을 준비하며 생략잔치를 보내려 합니다.
올해부터 미미미미 남리생시를 축하하거
고시들과 미미미미 함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도록
미미미미미미 작은 궁연을 가리겠습니다.

고시들과 유미미미미미(일일이 미미미미미미~),
미미미미의 합창, 악기 연주(미미미미)를 미미미미 미미미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 미미미미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생일잔치는
2017년 12월 21일(목)에 미미미미미미 미미미미 미미미미

(아기예수님의 생일잔치 행사일정)

1부	1) 유미미미(미미미미미미 교사) 2) 미미미미 미미(미미미미 미미미) 3) 미미미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4) 미미미미(미미미미)	
2부	5) 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 6) 미미미미미미	

*미미미미미미 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
-미미미미미미 미미미미미미 미미미미 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 미미미미미미 미미미미미미미미-

Figure 6. Parents correspondence of J kindergartens school in Korea that holding pogress a differentiated event for the concept of Christmas

	봄		
		· 석가탄신일 (음력 4/8) - 유래 알기 - 종이접기로 연등 만들기	· 옛놀이: 풍요 - 여우야, 여우야
	여름	· 단오 (음력 5/5) - 창포 머리감기 - 화채먹기 - 단오선 만들기	· 옛놀이 - 우리 집에 왜왔니 - 단오맞이 씨름 · 전래 풍요 - 꼬마야, 꼬마야
		· 유두 (음력 6/15) - 유두절 유래 알기 - 유두 구슬 꿰기 - 등롱하기 - 유두 국수 먹기	· 옛놀이 - 비석치기 · 전래 풍요 -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 칠석(음력 7/7) - 견우직녀 이야기	· 전통음식 - 수박화채 · 옛놀이 - 두꺼야, 두꺼야

Figure 7. An annual plan for the three seasonal customs of U kindergarten school in Korea

반면에 미국의 절기는 기독교적 배경에 기초하여 자연스럽게 문화와 연계된 일상으로서 기독교유아교육의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8과 같이 추수감사절은 단지 교회의 행사가 아니라 전 미국 가정의 가장 중요한 절기이므로 교육활동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활동의 자원으로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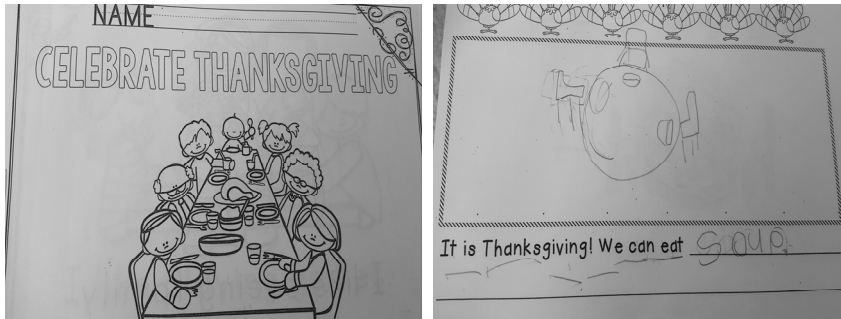


Figure 8. Activity sheets of L kindergarten school in America that connecting thanksgiving with language activities

기독교 기관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경험이 되어요.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고, 추수감사절을 즐겨요. 우리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쓰기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특히 음악이나 미술이 아이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크리스마스에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노래할 수 있어요(2017. 6. 5. 미국, H교사 면담 중에서).

5. 시급한 변화의 요구 : 느긋하고 안일한 인식

한국의 부모나 교사는 기독교 유아교육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요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부모나 교사의 경우, 기독교적 개념이나 생각을 가진 교사나 유치원의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도 기독교 유아교육은 가능하고 어느 정도는 접근이 되고 있다고 인식 하고 있다.

진짜 큰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교육에서 신앙적으로 교육시켜야 하는데 교회 주일 학교에서만 하지요. 그런데 교육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교회부설로 보내기는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유치원이 거의 없는 것 같고, 기독교인 숫자도 준다고 하고. (2017. 10. 16. 한국, B어머니 면담 중에서).

기독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요. 이걸 교회나 기독교.. 응.. 교육에 있어서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크리스찬 교사들끼리 얘기하다보면 기독교 유아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서 그런 곳에서 일하면 정말 좋겠다는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런 곳을 찾기 너무 힘들니까요. 이런 연구가 빨리 많아져서 기독교 유아교육이 확대되면 좋겠어요.(2017. 10. 27. 한국, C교사 면담 중에서)

한국은 현재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와 더불어 교회와 기독교유아교육의 쇠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기독교유아교육의 기관이 증가해야 하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교사들은 대부분의 미국 교육은 기독교유아교육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큰 변화의 요구가 표면화되지 않았다.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이러한 현상으로 할로윈 데이(Halloween day), 세인트 페트릭스데이(St. Patrick's day)와 같은 귀신이나 요정 문화가 기독교문화와 섞여서 일상화되고 있고 이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단일한 인식의 문제가 오히려 미국의 기독교유아교육에서는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크리스찬 중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의 교육에서 기독교 교육의 강조가 약해지고 있고, 좋지 않은 문화가 활발해지고 있어요. 할로윈데이라든지 세인트 페트릭스 데이라든지 잘못된 영성을 자극할 수 있는 문화가 많아지고 있어요.(2017. 10. 20. 미국, E부모 면담 중에서).

Our teachers are requesting that all parents be sure their children have a weather appropriate change of clothing. This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shirt, pants, socks, shoes, and underwear.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see your child's teacher.

Soccer Shots was here last Thursday and did a trial with all older 2 year olds through pre-k. If you would like to sign up, please do so. Here is the website where you register: www.SoccerShots.org/greaterstcharles. Classes start on March 16th.

In honor of St. Patrick's Day on Friday, March 17th, we are encouraging all students and teachers to wear green.

Pre-K parent teacher conferences will be wrapping up with Suite 500. Ms. Judy will be holding conferences Monday thru Thursday. Please see the sign up sheet for times.

SAVE THE DATE: Pre-K graduation will be held on Thursday, May 18th at 7 p.m. More information to come at a later date.

Figure 9. Parents correspondence of K kindergarten school in America that encouraged to wear a dress painted on St. Patrick's Day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유아교육의 의미와 방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과 미국의 부모와 교사 각 2인씩 총 8명의 면담을 실시하고, 미국의 M주에 있는 2개 유아교육기관과 한국의 B시에 있는 2개 유아교육기관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유아교육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인식은 특수한 영역으로의 접근과 보편적 영역으로의 접근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기독교 유아교육은 특수 기관이나 특별한 프로그램 접근의 한 양상이라고 인식한 반면 미국의 경우 기독교유아교육은 보편적 영역으로서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자연스런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미국이 기독교국가라는 자국적 인식에 기초하여 이러한 기독교유아교육이 실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크게 논란의 여지가 된다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시각이었다. 물론 미국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기독교적 배경을 가진 루터란 유치원이나 기독교 유아원 등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의 접근이 시도되고 있지만(Mangelsdorf, 1923; Schmauk, 1906), 일반 유아원의 경우에도 기독교유아교육의 실천적 접근에 부정적이지 않다는 반응이다. 한국의 경우 초기 유치원이 기독교적 배경에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아교육기관의 배경에 이러한 인식은 희석되고, 특수한 접근으로서 시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한국의 경우 기독교유아교육이 기관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미국의 경우 가정중심의 실천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하였다. 한국의 경우 유아교육 자체에 대한 기관 의존도가 크며, 더불어 기독교유아교육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회에서 이러한 교육을 담당해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반면 미국의 부모나 교사 모두 기독교유아교육은 유아교육기관에서도 시도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 출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고 부모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즉 미국의 경우 기독교유아교육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에는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논의가 다각적으로 나타났다(Borgo, 2015; Elliot, 2005; Fritz, 1964; Harris, 2004; Wilson, 2008).

셋째, 한국은 기독교유아교육을 예배중심의 교육으로 시도하는 경향이 나타난 반면 미국의 경우 영성중심의 교육으로 이해하고 접근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기독교유아교육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인지적 특성으로서 이해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미국의 경우 대부분 영유아기의 영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기독교유아교육 프로그램이나 접근의 특성이 영성(spirit)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빈번할 뿐 아니라 그것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큰 것이 특징이었다(Barna, 2003; Borgo, 2015; Callaway, 2000; Cloyd, 2000; LaHaye, 1978; Pearl, 2011).

넷째,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특성에 기초하여 보았을 때 한국은 기독교유아교육을 문화와 다른 독립적 구성으로서 시도해야 하지만, 미국의 경우 문화와 연계된 일상적 구성으로서의 실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한국은 일반적인 연간, 주간, 일간의 연계 선상에서 기독교유아교육과정을 시도하기 보다는 단편적이고 분절적 특성으로 기독교유아교육을 시도하는 경향이 클 수밖에 없고 오히려 한국의 세시풍속 중심의 교육과정(유안진, 1992; 하정연, 2004)은 기독교유아교육과정의 시도와 연계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중요 절기나 문화와 기독교유아교육이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으므로 일상적 구성과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 미국사회가 가지는 자연스럽고 일상적 기독교유아교육을 강조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었다(Froehlich & Wells, 2003; Wilson, 2008).

다섯째, 한국의 부모와 교사는 기독교유아교육에 대한 실천이 시급한 과제이며, 이러한 실천이 기독교와 기독교교육의 장기적 발전에 중요한 고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사회가 가지는 유아교육적 문제를 기독교유아교육에 기초하여 변화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오히려 느긋하고 안일한 인식이라는 자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의 기독교 유아교육은 기독교유아교육의 정확한 실천에 대한 고민을 강조하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드러나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 대체로 기독교적 문화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실천되어지고 있다는 안일한 믿음에 기초하여 오히려 다양한 문화와 전설을 생활 문화에 혼합하여 나타내고 있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었다. 가령, 할로윈데이(Halloween day)나 성패트릭데이(St. Patrick's day) 등의 유행이 이러한 문화적 특성과 접목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Borgo(2015)는 이러한 문화적 현상을 염려하며 일상에서 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생활하고 나누는 삶이 중요하며, 이것을 위해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혼란스러운 문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유아교육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현상적 인식 차이에 기초하여 현실을 직시하고 실천방향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사례를 중심으로 한 분석이므로 종합적으로 더 다양화된 현장의 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독교유아교육의 접근, 요구, 실제적 구성에 있어서 앞서 살펴본 국가간의 특성에 기초하여 문제점을 직시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해나가는 할 것이다. 추후 현상에 기초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현장 가능성을 가진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 방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현장에서 기독교 유아교육의 실천 가능성을 탐색하고 나아가 기독교 유아교육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이 교회, 유아교육기관, 부모를 중심으로 연계하여 실천되어지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용원 (2008). **기독교교육 방법론**.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기독교.
- [Kang. Y. W. (2008). *Teaching methods of Christian education*. Seoul: The Korean Society of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Publishing Christian Han-kyo]
- 권미량 (2015). **기독교가정과 영유아교육**. 고양: 공동체.
- [Kweon., M. R. (2015). *Cristian famil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Goyang: Kodongchea]
- 권미량 · 김민정 · 이숙희 (2016).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한국의 유아교육 현황과 쟁점에 관한 연구. **생태유아교육연구**, 15(4), 43-70.
- [Kweon M. R., Kim M. J. & Lee S. H. (2016). The status and issue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Korea based on the Christian worldview. *The Journal of Eco-Early Childhood Education*, 15(4). 43-70.]
- 최성진 (2018). **기독교 유아교사를 위한 영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Choi, S. J. (2018). *The Development of Spiritual Education Program for Christian Early Childhood Teachers*. Ewha Womans University.]
- 김학영 (1997). 유아교육에서의 기독교교육의 문제. **신앙과 학문**, 2(4), 99-112.
- [Kim. H. Y.(1997). The problem of Cristian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Faith & Scholarship*, 2(4), 99-112.]
- 오인탁 (2002). 한국 기독교교육학 연구사. **기독교교육논총**, 8, 43-127.
- [Oh I. T.(2002). The history of research of Korean Christian Education.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8, 43-127.
- 유안진 (1992). **한국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Ryu. A. J.(1992). *Early childhood education of Korea traditional society*.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이덕주 (1994).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의 역사**. 서울: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 [Lee. D. J. (1994). *The history of Taiwha Chritian Social Welfare Center*. Seoul: Taiwha Christian Social Welfare Center Press]
- 이윤진 (2006). **일제하 유아보육사 연구**. 서울: 혜안.
- [Lee. Y. J. (2006). *The history of children's edu-care during the Japan's coccupation of Korea*. Seoul: Hyean.]
- 이상금 (1991). **한국 근대 유치원 교육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Lee. S. K. (1991). *History of Korea Modern Kindergarten Education*.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정희정 · 김남영 (2013). 기독교 유아교육 관련 연구동향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7(4), 113-138.
- [Chung H. J. & Kim N. Y. (2013).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Christian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7(4), 113-138.]
- 하정연 (2004). 생태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일과운영과 환경구성에 관한 실천 사례연구. **유아교육연구**, 24(3), 95-118.
- [Ha. J. Y. (2004). A Case Study of an Eco-centered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gram.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4(3), 95-118.]
- 한국교육개발원 편집부 (2007).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7). *Education statistical year book*.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Press.]
- Barrett J. L., Richert, R. A., & Driesenga, A. (2001). God's beliefs versus mother's beliefs: The development of nonhuman agent concepts. *Child Development*, 72(1), 50-65.
- Barrett J. L., Richert, R. A.(2003). Do you see what I see? You children's assumptions about God's perceptual abilities.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15(4), 283-295.
- Goldman, R. (1964). *Religious thinking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Montague, W.(2014). A review of "Educating all God's children: What Christians can—and should—do to improve public education for low-income kids". *Religious Education*, 109(2), 222-224.
- Piaget, J. (1929). *The child's conception of the world*.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Rizzuto, A. M. (1979). *The birth of the living God - A Psychoanalytic Stud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 Cloyd, B. S.(2000). *Parents and Grandparents as Spiritual Guides Nurturing Children of the Promise*. Tennessee: Upper room books.
- Callaway, P.(2000). *Parenting: Don't try this at home*. Oregon: Harvest House Publishers.

- Elliot, E.(2005). *The Shaping of a Christian Family: How my parents nurtured my faith*. Grand Rapids: Fleming H. Revell Company.
- Froehlich, M. N. & Wells, P. (2003). *What to Do When You Don't Know What to Say to Your Own Family*. Tennessee: AMG.
- Wilson, R. (2008). *The Parent Adventure*. Tennessee: Lifeway Research.
- Pearl, M.(2011). *Training Children to Be Strong in Spirit*. Pleasantville: NGJ.
- Fritz, D. B.(1964). *Christian Teaching of Kindergarten Children*. Virginia: The CLC Press.
- Harris, L. C. (2004). *It All Starts at Home: 15 Ways to put family first*. Grand Rapids: Fleming H. Revell Company.
- Barna, G. (2003). *Transforming Children into Spiritual Champions*. Grand Rapids: Baker Books.
- LaHaye, T. F. (1978). *Spirit-controlled Family Living*. Grand Rapids: Fleming H. Revell Company.
- Mangelsdorf, R. A. (1923). *Curriculum for Lutheran Kindergarten*.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 Schmauk, T. E.(1906). *The Christian Kindergarten*. Philadelphia: General Council Publication House.
- Bevis, E. O. & Watson, J. (2000). *Toward a Caring Curriculum*. Sudbury: Jones and Bartlett Publishers.
- Holicky, R. (2000). *Taking Care of Yourself while Providing Care*. Colorado: Craig Hospital.
- Borgo, L. F. (2015). *Life with God for Children*. Lexington: Renovare.
- Kindergarten & First Grade Entry.
<https://dese.mo.gov/governmental-affairs/kindergarten-first-grade-entry> 에서 2017년 12월 인출.
- Missouri Learning Standard(n.d).
<https://dese.mo.gov/college-career-readiness/curriculum/missouri-learning-standards#mini-panel-mls-standards1> 에서 2017년 12월 인출.

논문초록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 유아교육의 의미와 방향

권미량 (고신대학교)

하연희 (교신저자/고신대학교)

계영희 (고신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유아교육의 의미와 방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교사와 부모를 사례로 면담을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B시에 있는 교사와 부모 각 2인과 미국의 M주에 있는 교사와 부모 각 2인씩 총 8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 B시에 소재한 2개 유아교육기관과 미국 M주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 2곳의 교육관련 문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면담자료와 문서자료를 수집하여 상호분석하는 자료원 삼각측정(data triangulation)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유아교육의 의미와 방향을 분석하여 특수한 영역으로의 접근과 보편적 영역으로의 접근, 기관중심의 실천 요구와 가정중심의 실천 요구, 예배중심의 교육과 영성중심의 교육, 문화와 다른 독립적 구성과 문화와 연계된 일상적 구성, 시급한 변화의 요구와 느긋하고 안일한 인식으로 그 현상적 실체가 분석되었다.

주제어 : 교육현장, 유아교육, 기독교 유아교육

영성교육 도입 통로로서 직관의 이해

Understanding Intuition as a Way to Introduce Spiritual Education

김보경 (Bo-Kyeong Kim)*

Abstract

A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has worked well in many broad area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 has been one ontological question, “what would be different between human beings and machines in education areas?” It would be hard to tell future education without considering that human beings are spiritual existence, unlike machines, because spirituality is an intrinsic human nature of which could not be coded. Although making students have spirituality would be more important, it has been difficult to introduce spiritual education in a regular school curriculum, because it has been considered that the spiritual education has been only related to specific religions.

In this article, as a strategy or a method to introduce the spiritual education in school, having had intuition in her mind, this author has defined the intuition, studied characteristics of intuition and discussed how intuition could work and its relationship with spiritual education and how it would be necessary for the present times. For this purpose, this author has examined as follows: First, this author has studied its necessity for spiritual education and intuition as a significant aspect of intelligence. Second, this author has examined how students could obtain spirituality with the concept of intui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intuitive thinking. Third, the intuition is not only purpose, but also method to implement spiritual education through subject-matter education. In the meanwhile, this author has had the following outcomes.

Human beings have intuition, the ability to see invisible things. However, machines are unable to even imitate the intuition. Intuition is an intrinsic human privilege, of which people cannot mandate to machines. In addition, intuition would develop human spirituality and build an important bridge to make people closer to God. While considering our educational environment, the real alternative for spiritual education is non-religious spiritual education

* 전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Jeonju University),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bokim@jj.ac.kr

2018년 03월 25일 접수, 05월 30일 최종수정, 06월 03일 게재확정

and its acting actor could be general curriculum. In general curriculum, intuition would be creative eyes to see the hidden secrets in every academic area and help reach the God's intelligence in the academic area. In addition, finding the highest good and practice it would bring out the spirituality through intuition. Therefore, intuition would be a way to develop spirituality in general curriculum and it shall be understood as a purpose and method of curriculum to do good to ourselves as well as our neighbors.

Key Words : intuition, intuitive thinking, intelligence, spiritual education, subject-matter education

본 논문은 2017 추계 기독교학문학회 교육분과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토론을 통해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신 최지은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삶을 다시 한 번 새롭게 바꾸어 가고 있다.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 CPS)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빅데이터 처리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은 물리적 영역, 디지털 영역,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를 불명확하게 만들면서 인간의 삶의 공간을 무한대로 확장해 가고 있다. 일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일 뿐이라고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이들도 있다(Rifkin, 2011). 그러나 다수는 4차 산업혁명이 사회 전반에 걸쳐 이전 산업혁명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과 규모의 혁명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한다(Schwab, 2016). 무엇보다 딥러닝 기술로 인공지능이 획기적으로 발달하자 일반인들조차도 기계의 지능과 인간의 지능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전숙경, 2016). 이러한 고민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기계와 무엇이 다른가?’ 라는 존재론적 질문을 보편적으로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 특별히 교육의 영역에서는 과학적·논리적 언어로 포착되지 않는 인간의 영성을 배제시킴으로 인간에 대한 본질적 물음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신에 대한 총체적이고 온전한 이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인간의 과편화,

기계화, 내면의 목마름, 인간성 상실과 인간소외, 교육의 많은 오류 등을 낳게 되었다(김정신, 2002: 54; 유재봉, 2013: 98; 허영주, 2010: 262).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을 하게 되는 시대적 상황은 인간은 기계와 달리 영, 혼, 육을 가진 존재(창 2:7, 히 4:12)라는 것을 인정하고 영적인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의 문제가 기술로 다 해결될 수 있게 된다는 착오는 기술천국의 테크노피아(Technopia)에서 기술이 관료화 되어 인간을 통치하는 테크노크라시(Technocracy)로 진행되어 기술에 대한 예측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윤화석, 1999: 82). 이로 인해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궁극적 행복인 하나님과의 만남은 관심에서 더 멀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허영주(2010: 58)는 영성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통해 인간의 본질적 특성으로서의 영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영성이란 ‘인간의 보이지 않는 정수(精髓)’, ‘본질인 부분으로서의 본성’, ‘동물과 구분되는 잠재성’으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와 더불어 기계성에 대비된 인간을 강조한다면, 인간의 영성이란 ‘측정되지 않으며 때로는 초월적이어서 기계가 흉내낼 수 없으며,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다가온 인간 존재 규명에 대한 질문을 해결해나가며 인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성에 대해 알아가고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요한, 2011; 김정신, 2002; 유재봉, 2013; 한영란, 2004; 허영주, 2009). 그러나 학교에서 영성교육은 종교적 도그마로만 오해되어 정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주관적·인격적 앎을 평가절하 하는 시대적 사조는 영성이 교육의 현장에서 인간 형성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유재봉, 2013: 100).

인간의 사고방식 중 하나인 직관은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인지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일상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모든 선택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상대방의 의도, 감정,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과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것 등 대부분의 인지적 작용은 논리적인 작동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Duch, 2007: 41). 일반적으로 직관은 논리·분석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여겨진다. 직관은 감각, 경험, 판단, 의식적 추론 등의 사유작용 없이 대상을 직접적이고 재빠르게 파악하는 작용이다. 직관은 창조성의 핵심에 있는 현상이며, 문명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다. 온기찬(1995: 75)은 뉴턴의 사과, 목욕탕의 아르키메데스, 경사진 벽면을 응시한 피타고라스 등의 창조적인 인간들이 직관을 통해 인류의 문명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하였다. 현 시대에 가장 창의적이라고 평가되는 스티브 잡스(Steve Jobs)도 직관의 중요성에 대해 자주 언급하였다. 그는 “직관은 이미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직관을 따르라”고 하였고, “직관은 이성적 사고보다 강력하다”고 하였다(Isaacson,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관은 외부로부터의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인식의 주체자 내면에서 갑자기 떠오른 그 무엇으로 알아차리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주관적이면서도 인격적인 인식의 작용이다. 때문에 객관적으로 증명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객관화의 한계는 직관이야말로 인공지능이 흉내 낼 수 없는 사고작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전숙경(2016: 64)은 인공지능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인간의 직관력과 통찰력이 인간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특징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직관은 우리의 영성과 관련되어 있기에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 직관은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알게 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바르트는 계시를 ‘직관을 통한 하나님의 직접성, 즉, 직접적 관찰, 직접적 전통,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 경험을 추구하는 종교의 길이라고 정의하였다(배시은·안윤경·김용태, 2015: 179). 근대 이전에는 인간의 지성에 대한 가치는 하나님의 지성과 어느 정도 닿아 있는가를 통해 결정하였는데, 이때 이 두 지성은 직관을 통해 연결될 수 있다(최은순, 2016). 인간이 자신의 직관을 이해하고 발현하는 것은 기계와 다른 자아, 더 나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자아를 만날 수 있게 된다. 이는 직관이 다양한 층위의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교육에서 직관적 사고에 대한 시대적 관심을 인간의 영성과 영성을 함양할 수 있는 직관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우리 사회가 아직 영성에 대해 신비하고 초월적이며 종교적인 영역으로만 개념화하기 때문에 교육에서 영성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때문에 영성에 대한 관습적 개념화의 두터운 경계를 허무는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더 많은 이들이 교과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학생들의 영성회복임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직관을 영성교육 도입의 통로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직관은 매개체 없이 대상을 직접 인식할 수 있으며 경험과 관습을 돌파하는 창조적 사고작용이다. 또한 학습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성을 가지고 그와 매개체 없이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직관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교과에서 실현될 수 있다면 교육이 개인과 사회에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 영성교육을 도입하기 위한 전략이나 통로로서 직관을 염두해 두고, 직관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인간지능과 기계지능의 차이를 통해 직관의 발현과 영성교육의 시대적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직관이 교과의 목표나 방법이 되어 교과교육을 통한 영성교육을 실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성교육과 직관의 시대적 필요성을 지능의 의미 측면에서 고찰한다.

둘째, 직관의 개념과 직관적 사고의 특성을 통해 직관이 영성교육 도입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밝힌다.

셋째, 직관이 교과교육에서 영성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임을 밝힌다.

II. 4차 산업혁명과 인간의 지능

1. 4차 산업혁명과 교육

사회는 종교 및 인종 갈등, 자연과 국제적 환경변화, 인간의식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변화한다. 그리고 교육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의 목표와 인재상을 재설정하고 있다. 근대사회를 가장 급변시키는 요소 중 하나는 기술발전이다. 인류는 1차에서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기계화, 산업화, 정보화된 사회를 경험하였다. 여기까지의 변화는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문제를 논외로 하여도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화두는 ‘지능화’이다. 이제는 인간의 고유한 속성이라 생각되었던 ‘지능’이나 ‘학습’ 등의 용어를 인간이 아닌 사회 또는 기계에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인공지능, 기계학습과 같은 용어가 주는 언어적 뉘앙스는 기술의 진보로 인한 삶의 질 개선으로만 치부되던 이전 산업혁명기술과 달리 우리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주고 있다.

교육에서도 이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반증으로 4차 산업혁명과 한국교육의 변화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논문들이 출판되고 있다(김진수, 2016; 류성장, 2016; 박남기,

2017; 성태제, 2017; 이해정, 2016; 장슬기, 2016). 이해정(2016: 15-16)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현상들이 인간과 자아,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하게 만들며, 인간지능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과제가 인공지능에 의해 수행될 때, 가상현실이 더 현실 같아지는 이때에 ‘무엇이 나를 인간으로 만드는가?’와 같은 질문을 제기 한다고 하였다. 한국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많은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교육패러다임과 인재상, 교육목표, 교육모형, 교육과정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이 제안한 것으로는 성찰적 사유가 가능한 인간(이해정, 2016), 협력하는 피짜(KAIST 문술미래전략원, KCERN, 2017), 세계시민교육(박남기, 2017; 성태제, 2017), 비선형적·다차원적 학습모형(조상식, 2016), 인성교육과정(류성창, 2016; 박남기, 2017; 성태제, 2017; 정제영, 2016), 무학년제(정제영, 2016) 등이 있다. 류성창(2016)은 미래교육의 방향이 지성교육인지 인성교육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는 사회가 변화더라도 지식의 본질적 의미를 해석하며 사고를 훈련하여 교과를 교과답게 가르치는 본질적 지성교육과 사회적 교류와 심신의 안정을 위해 인성을 발현해야 한다는 도구주의적 인성교육을 제안하였다. 많은 연구들에서 미래교육의 정책과 방향은 보다 본질적이며 거시적으로 제안하면서도 동시에 지능형 교육과정, 지능형 평가, 인공지능 매체와 같이 기술적인 문제들을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볼 때 교육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미래교육 정책들을 개발하여 제안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논의는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가?’이다. 이 논의의 결론에 따라 미래교육 방향은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영성을 제외하고 새로운 인재상이 또 다시 제시된다면, 교육의 파편화와 기계 종속 현상은 이전 보다 심화될 것이다. 심은주와 이경화(2012)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영성연구 논문 237편을 분석하여 교육학 분야의 영성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에서 영성교육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다.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이 신학적·철학적이어서 방대하고 난해하여 일선 교육의 현장에서 영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도되기 어렵다면, ‘인간과 기계는 어떻게 다른가?’와 같이 기계와 대비되는 인간의 속성으로 좁혀서 생각해볼 수 있다. 과거에는 인성이 동물의 수성(獸性)의 상대적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기계성의 상대어로서의 인성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박남기, 2017).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화두 중 하나인 ‘지능화’에 초점을 두어 지능의 측면에서 인간과 기계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즉 ‘인간의 지능과 기계의

지능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논의를 ‘지능’으로 좁혀보는 것은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하는 영역을 명확하게 하여, 교육현장에서 그 영역에 대한 작지만 실천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하기 위함이다.

2. 욕구와 지능

인간의 지능과 기계의 지능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본 학자 중 한명인 Hubert Dreyfus는 인공지능에 회의적이다. Dreyfus(1972)는 『What Computers Can't Do: A Critique of Artificial Reason』에서 만일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려면 세 가지 대안적인 가정(alternatives to the traditional assumptions)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첫째로, 지능적인 행위에는 몸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기계에 인간의 신체가 필요하다. 둘째는, 상황을 규칙으로 만들지 않고 상황에 처해져서(be situated) 적절하게 행동해야 한다. 셋째로, 인간의 욕구는 계속 변화하고 그 욕구가 상황을 다르게 규정하게 되므로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기 위해서 기계에 욕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계에는 몸이 없다. 기계는 상황을 규칙으로 처리하여 인식하려 하나 Dreyfus는 상식을 규칙화하는 작업은 프로그래머가 무한회귀(infinite regress of context)에 직면하게 된다고 하였다(Dreyfus, 1972: 133). 또한 인공지능에는 문제해결의 목표가 있어 수행하지만, 욕망이나 욕구는 없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완벽하게 모사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세 가지 가정 중 ‘욕구’의 의미를 다시 고찰해 보면서 인간의 지능과 인공지능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욕구와 요구는 어떤 대상이나 상태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로 보인다. 그러나 욕구와 요구가 시작되는 공간과 시간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요구(needs)는 공간적으로는 외부 상황을 판단하여 외부로부터 출발된 필요성이다. 시간적으로는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경험한 것과 얻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필요성이다. 때문에 사회적이며 보편적이다. 반면에 욕구(want)는 공간적으로는 내부에서 출발하며, 시간적으로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요구는 이성의 작용에 의해 판단하여 발생하는 필요이지만, 욕망은 이성의 작용만으로 발생되지 않는다. 현재 자기 속에 무엇인가 건달 수 없어서, 결핍되어서 발생하는 필요이다(廣中 平祐, 2009: 154-155).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요구는 충족되면 사라지지만 욕구는 충족되었을 때 그 욕구가 더욱 명확해지고 새로운 욕구로 재창조 된다는 것이다. 즉 만족감을 느끼지 않고서는 욕구를 명확한 것으로 만들 수 없으며, 어떠한 욕구에 대한 충족은 새로운 창조적 발견이 된다. 기계에는 욕구가 생길 수 없으며, 오로지 외부로부터 입력된 요구만이 있을 뿐이다. 요구는 과거로부터 누적된 데이터의 분석으로부터 예측될 수 있지만, 욕구는 현재와 미래의 필요성이므로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파악될 수 없다(Dreyfus, 1972: 188-189).

인간의 욕구는 개인적이며 충족된 형태에 따라 새로운 욕구로 재창조되기도 하고, 도덕적 판단에 따라 욕구가 절제되기도 한다. Aristotle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7권에서 욕구가 바람직하게 작동되는 상태인 ‘절제’, 그렇지 못한 상태인 ‘자제력 있음’, ‘자제력 없음’, ‘방종’에 관해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자제력 없음’과 ‘방종’은 행위자 자신의 노력에 의해 개선될 수 있으며, 그것들에 대해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다(박장호, 2015: 207에서 재인용). 인간은 욕구를 느끼고 그 욕구를 절제하기도 하고 자제하기도 한다. 때로는 자제하지 못하여 비도덕적 행위를 하기도 하나 이것이 인간의 특징이다. 그리고 욕구를 자제하지 못한 책임도 인간이 지어야 한다. 이것은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에 관한 법률적 해석에 참고할 수 있는 준거로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미래사회에서 기계와 인간의 역할은 요구의 문제인가? 아니면 욕구의 문제인가?에 따라 분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회적으로 합의된 요구의 해결은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인간의 욕구와 그 욕구의 충족의 과정에 필요한 지적 노력과 도덕적 판단과 책임은 인간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욕구를 느낄 수 없는 인공지능에게 이 문제를 양도하는 것은 욕구를 요구로 바꾸어 정의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반대로 인간에게 매일 새롭게 창조되는 욕망과 욕구는 무관심한 채로 사회적 요구만을 해결할 것을 요청한다면 자신의 독특한 본성과 특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사회적으로만 정의된 자아를 인식하게 된다. 이는 인간이 문제해결의 도구로서만 자신을 인식하게 하여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외견상 동일한 수행 또는 더 뛰어난 수행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인공지능에게는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내면의 욕구가 없으므로 그 내적 과정은 인간의 지능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욕구가 없는 인공지능의 지능은 절반의 지능, 불온전한 지능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지능’이라는 용어를 기계에게 동일하게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된다.

3. 영성으로서의 지능

인간지능이 기계의 지능과 다르게 보이는 또 하나의 예로 ‘지능’에 대한 개념사적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1956년 다트머스 컨퍼런스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 회의는 한달 동안 진행되었으며, John McCarthy, Marvin Minsky 등이 참석하여 브레인스토밍 형태로 진행되었다(“Artificial intelligence,” n.d., “History,” para. 1). 여기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으며, 하나의 학문 분야로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인간의 독특한 특성 중 하나인 ‘지능(intelligence)’라는 용어를 기계에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은 아니지만 지적인 인공적 존재에 대한 생각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즉 인간은 신화를 통해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하였고, 또한 신과 같은 존재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한 욕망이 신화, 전설, 이야기 등에 기계인간, 인공적인 존재, 지성이 있는 존재, 자동화된 존재(automatons) 등으로 표현되었다. 예를 들어, 헤카이토스가 금으로 만든 여자 조수¹⁾를 만들어 자신의 대장장이 일을 돕게 하였다. 또한 여성형오자였던 피그말리온이 갈라테아 상을 만들고 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자 갈라테아 상이 생명을 얻게 되어 피그말리온과 같이 살게 되었다는 신화가 그러하다(McCoduck, 2004).

현재 지능을 의미하는 단어인 ‘intelligence’의 라틴어 어원은 ‘사이’ 또는 ‘내부’라는 의미의 ‘inter’와 ‘가져오다’, ‘선택하다’, ‘눈으로 포착하다’, ‘읽다’라는 의미의 ‘legere’가 결합된 동사인 ‘intelligere’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intelligere’는 ‘행간을 읽다’, ‘사이에서 선택하다’, ‘분별하다’의 의미가 있다(Troy, 1991: 433-437). 근대 이전 고대와 중세까지, 지능이란 지금과 같이 개별적 존재에 속한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지능은 초월적 존재와 관계하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으며 이들만이 지성인이라고 생각하였다. 고대 플라톤은 정신을 감각 위에 규정하는 사조에 기반하여 이데아와 이데아의 인식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파생하

1) 헤카이토스는 대장장이들의 신으로 손재주가 좋아 자신의 의족, 다리 셋 달린 식탁로봇, 조수 로봇을 만들어 자신이 맡긴 일들을 척척 해결하게 하였고, 대화도 하였다. 이들은 ‘퀴르베네테스(Cybermetes), 즉, 키잡이(steersman)가 내장되어 있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한다. 1948년 노버트 위너가 자신의 학문 이름 즉 인공두뇌학을 키잡이, 즉, 퀴베르네테스로 결정하여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라고 부르게 되었다(이윤기, 과학동아, 2001년 6월호).

는 정신의 능력들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의 지성을 말하였다. 중세의 지성은 신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서의 ‘*intelligentia*’라는 개념이 사용되었다(김형주, 2016: 173-174). 허희옥 등(2017: 114-115)은 근대 이전 목적론적 세계관에 기초한 지성(*intelligere*)의 의미는 영원불변하고 참으로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형이상학적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며, 인간이 바라고 지향하지만 모두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신적인 지성의 계시를 통해 실재와 진리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경험과학적 근대문명 이후 초월적 의미의 지능이 거부되고 경험가능한 현실세계의 인식을 가리키는 ‘*understanding*’이 지성의 개념으로 번역되어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인간의 지능을 영성의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할 때에 아퀴나스(T. Aquinas)와 칸트(I. Kant), 마리탱(J. Maritain)은 좋은 답을 제공한다. 아퀴나스는 ‘지성은 영혼의 능력인가?’ 라는 문제를 신의 경우와 피조물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신의 경우 지성은 자신의 고유한 본질 이외의 그 어떤 것에 의해 규정되거나 상술될 수 없다고 하였다. 신의 지성은 능동지성이며, 빛을 비추며, 알게 하는 마음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를 현실태의 지성이라고 표현하였다. 반면에 지성적 피조물의 경우 지성은 수동 지성이며, 빛을 받아 빛나는 지성, 아는 마음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지성은 현실태의 지성으로 나아가는 미완성의 가능태의 지성이라고 하였다. 마리탱 또한 인간지성의 활동 구조를 중층구조로 설명하였다. 즉 영혼 그 자체와 그 영혼의 작용, 위층으로서의 전의식과 아래층으로서의 의식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영혼은 본성상 창조된 찰나를 두고 볼 때, 지성, 감각, 생물학적 작용의 순서로 창조되고, 영혼의 작용은 생물학적, 감각적, 지성적 작용의 순서로 일어난다고 하였다(최은순, 2016: 60-62에서 재인용). 칸트의 경우 원형지성(*intellectus archetypus*)과 모형지성(*intellectus ectypus*)으로 구분하였다. 원형지성은 우회적으로 신적지성을 말하며, 신적지성은 그 안에 이미 직관을 함축하고 있다. 즉 신은 대상을 그 자체로 인식하는 지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인간의 지성인 모형지성은 제한적이어서 직관과 사고가 분리되어 있으며, 대상을 직접적으로 포착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형지성은 현상만 인식할 수 있으며, 감성에 의존적이며, 대상은 감성, 지성의 선형적 종합을 통하여 인식되고 지식이 산출된다. 즉 인식의 과정이 직접적이지 않다(김형주, 2016: 174-175에서 재인용).

Table 1 Layers of Intellectus

	God's Intellectus	Human's Intellectus
	Intellectus agens	Intellectus passive
Aquinas	Illuminating intellectus	Intellectus shining with light
	The known	The knower
	Intellectus archetypus	Intellectus ectypus
Kant	Intuitive intellectus	Isolation of intuition from thinking
	The essence of spirituality	The affect of spirituality
	Preconscious	Conscious
Maritain	Intellectual action → sensible action → biological action	Biological action → sensible action → intellectual action

위의 논의에서 중요하게 파악될 수 있는 것은 첫째,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지성은 신의 지성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빛을 받아 빛나는 지성은 빛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모형지성은 원형지성을 전제한다. 의식은 전의식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성은 신의 작용을 통하지 않고는 규정지을 수 없다. 둘째, 신의 지성은 이미 그 안에 직관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지성과 다르다. 에크하르트(Eckhart)는 수동지성을 가능지성이라고도 표현하였는데, 이는 능동지성의 인식상을 수용함으로써 모든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능동지성의 인식상이란 외적인 사물들의 질료와 우유성을 벗겨내어 그것들로부터 인식상을 추상하는 것이다(이상섭, 2014: 198). 이러한 추상화는 대상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재빠르게 인식하는 능력으로 곧 직관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상을 수용할 때 수동지성은 어떤 것도 될 수 있다.

이러한 지능의 개념사적 변화를 고찰해 볼 때 근대 이후의 지능의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어 왔는지 간에 이는 인간의 지적활동을 설명하기에는 온전하지 못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즉 인간지능을 규정하기 위한 원형인 신의 지성을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거 인간의 지성은 초월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성으로서의 능력이었으나 지금의 지능은 신의 지성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개념의 축소라고 보기보다는 불온전한 개념 또는 영성으로서의 지성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인간에 대한 불온전한 이해와 인식이 인간을 설명하는 개념까지 불온

전하게 하는 현상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III. 직관과 직관적 사고

그동안 교육에서 직관과 직관적 사고는 논리 또는 분석적 사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신적지성이 직관을 함축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그러한 직관을 흉내낼 수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직관에 대한 관심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직관이 논리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논리와 분석을 관장하는 보다 더 포괄적이고 상위의 기능을 한다는 점은 직관이 영성으로서의 지능을 함양하는데 논리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 교육에서의 직관

직관은 하나의 심리현상으로 어떤 추론이나 감각적 경험이 없이 순식간에 지식을 얻는 능력을 말한다. Oakeshott는 우리가 흔히 개념을 통해 대상을 한정하는 것을 ‘매개적 사고’ 또는 ‘역류된 경험’이라고 표현하였고, 직관은 ‘비매개적 사고’ 또는 ‘구체적 경험’이라고 표현하였다(Isaacs, 2006: 52-53). Burnham(2011)은 ‘직관은 생각하기와는 다르다. 그것은 논리나 분석과도 다르다... 그것은 앎이 없는 앎이다.’라고 하였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직관을 라틴어 ‘intueri(look; 보다)’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이대현, 2008: 364). 형태주의 심리학자들은 직관에 관한 과학적인 접근을 시작하면서 체계화시켰는데, 이들은 직관보다는 ‘통찰(insight)’이라는 용어를 더 즐겨 사용하였다. 인지심리학 분야에서 직관을 연구하던 초기에 Helmholtz가 예상과 감각 사이의 절충이라는 무의식적 추론(unconscious inference)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직관은 이 무의식적 추론과 동일한 개념으로 분류되어 문헌상에서 용어가 사라지기에 이르렀으나, 형태심리학자들의 통찰연구에서 그 명맥을 이어갔다(온기찬, 1995). 직관과 통찰은 구분되어야 하는데, 통찰이 일어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느끼는 아하 경험(aha-experience)을 느끼기 직전의 단계를 직관이라고 한다. 즉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없이 즉각적 확신을 가지고 문제 상황을 인식하게 되는 단계를 직관이라고 한다(이대현, 2008: 365).

그러나 형태심리학자들은 직관과 통찰의 개념적 구분은 있으나 때때로 서로 호환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직관이라는 용어 대신 ‘통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연구하였다. 통찰이 일어나기 위해서 전체를 보려는 노력을 하여야 하는데, 문제의 구조에 대한 통찰이 일어나면 직관적 사고가 작동하여 문제해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직관적 사고는 수학문제해결의 한 가지 방법론으로 여겨져 수학교육자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류희찬·류성립, 1997; 이대현, 2001, 2008; 최경아·강문봉, 2016; Fischbein, 1987; Fischbein, Tirosh, & Melamed, 1981).

Dewey(1934)는 비록 창의성의 90%는 노력이며 10%만이 영감이라고 하였지만, 창의성에서 직관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Bruner는 분석적 사고와 직관적 사고가 특성상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직관적 사고는 특성상 사고 과정의 단계가 잘 정의되지 않는다. 단계보다는 문제 전체를 인식하는 기술을 수반한다. 직관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가 도달한 과정을 거의 인식하지 않고 답에 도달하는데, 그 답은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다. 그는 어떻게 그 답을 얻었는지 적절한 설명을 하기 어렵고, 문제의 어떤 측면은 거의 인식하지도 못한 채 답을 얻는다. 직관적 사고는 사용된 특정 영역 지식의 유사성과 구조에 근거한다. 그리고 사고를 도약하고, 단계를 생략하고, 지름길을 선택하는데, 이것은 후에 연역적이든 귀납적이든지 보다 분석적인 방식으로 결론을 재확인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Bruner, 1960: 58).

직관의 개념이 애매하고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동안 교육에서 다루기 어려웠다. Bastick(1982)이 확인한 직관의 속성들은 상상력과 창의성 등의 개념들과 혼동되기도 한다. 그리고 Bruner(1960)의 직관적 사고에 대한 설명은 Polanyi(1966)의 암묵적 학습의 정의와도 유사하다. 인지적인 추론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에 대해서 그동안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빈번하게 간과하였고 평가절하 하였다. 직관은 충분한 점검을 하지 않고 단지 주관적인 예감만으로 사고를 꺼려하는 보통 사람들에 의해 오용되기도 한다(Reid, 1986: 28). Addison과 Burgess(2000: 39)는 직관이 로고스 중심적인 교육과정을 잘 학습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두리몽실하게 사용되곤 한다고 하였다. 그러한 학생들은 학습 곤란이 있다고 진단되기도 한다. Bruner(1960: 154)는 이러한 우려로 직관의 결과로 나온 오류-즉, 그릇되기는 하나 재미있는 도약-와 단순히 무지나 어리석음에서 나온 오류를 올바르게 분간하는데 교사의 감수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Ehrenzweig(1970)는 창의성에 관한 무의식 과정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는데

공헌하였다. Ehrenzweig은 직관이 무의식적 스캔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Bruner가 단계를 생략하고 지름길을 선택하여 도약하는 것이라고 한 것과 유사하다.

교육의 영역에서 직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교육에서는 직관 그 자체보다는 직관적 사고능력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문명사적 발전과 창의적 문제해결에 직관적 사고가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육에서 아직까지 인간 그 자체로서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보다 문제해결자로서의 학습자에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직관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설명이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직관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분명히 분류할 수 있다. 이는 직관적인 사람들의 특성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2. 직관적 사고

Bastick(1982)은 직관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문헌들을 통해 조사하면서, 많은 문헌들에서 직관과 통찰을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직관이라는 이론적 용어가 통찰보다 더 역사적이고 포괄적이며, 중립적이라고 하였다. 통찰은 실험적 환경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용이하다. 그러나 직관은 일상에서 누구나 경험 가능한 보편적 현상을 말한다(온기찬, 1995: 83에서 재인용). Bastick이 정리한 직관의 여러 속성들은 주로 대상을 총체적으로 빠르게 인식하며, 비언어적, 전의식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본능적이며 이성을 초월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속성은 아마도 직관이 교육에서 논의되기 어려웠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Bruner(1960)는 직관을 교육의 과정을 설계할 때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그의 저서 『교육의 과정(The Process of Education)』에서 직관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교육의 내용을 선정하고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학생의 직관적 사고가 과소평가 되어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사고는 직관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의 상보적 작용이 필요하므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직관적 사고에 매우 큰 비중을 두어 말하고 있다. 그는 직관적 사고의 성격을 아는 것은 교육과정의 구성과 실제 수업에 중요한 시사를 줄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고 하였다(Bruner, 1960: 135). 그가 직관적 사고를 설명하면서 사용한 용어들은 과감한 사고

의 도약, 자신감, 원리의 발견과 시각적인 증명이다. 박준형과 송진웅(2017: 525-526)은 과학교육에서 학생에게 직관적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적 특징과 학생이 직관적 사고를 하였을 때 나타나는 특징을 제시하였다. 먼저 직관적 사고는 다양한 경험(varied experience)이 축적된 경우, 시각적 상징(image)을 통해, 불충분한 정보(insufficient data) 속에서 논리적 추론이 어려울 경우에 일어난다. 또한 직관적 사고를 하였을 때에는 학습자의 인지구조에 새로운 지식의 연결(knowledge connection)이 일어나고, 주어진 상황의 핵심 요인을 전체적인 느낌(gut feeling)으로 판단하며, 자명함(self-evidence)으로 도달하게 된다. 위의 세 연구에서 직관 또는 직관적 사고의 특징에 대해서 제시한 표현을 인식할 때의 특징과 학습자가 인식한 내용을 사고할 때의 특징으로 각각 구분하여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Intuition and Intuitive Thinking

	Intuition	Intuitive Thinking
Bastick (1982)	Immediate, sudden appearance	Understanding by feeling-emotive
	Emotional involvement	Transfer and transposition
	Preconscious process	Sense of relations
	Need not be correct	Pre-verbal concept
	Re-centring	Association with egocentricity
	Empathy	
	Kinesthetic	
Bruner (1960)	Innate, instinctive knowledge or ability	
	Global knowledge	
	Hypnagogic reverie	
	Implicit perception of the total problem	Drastic leaps as a tentative conclusion
	Visual proof	Yields hypotheses quickly
Park & Song (2017)	Self-confidence	Drastic and intelligent conjectures
	Based on knowledge structure	Permitting thinking to make occasional leaps
		Finding principles
Park & Song (2017)	Varied experience	Knowledge connection
	Visual symbols	Gut feeling
	Insufficient data	Self-evidence

직관과 직관적 사고를 구분하기는 모호할 수 있다. 특히 직관적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점에서 더욱 구분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관은 대상에 대한 ‘인식’,

직관적 사고는 ‘인식 후 일어나는 인지적인 변화’ 라고 구분하고자 한다. 이는 앞서 통찰현상의 아하 경험 직전의 인식의 단계를 직관이라고 본 것에 근거한 것이다(이대현, 2008: 365). Bruner가 제시한 직관적 사고의 속성은 Bastick이 직관의 속성으로 제시한 것에 비해 비교적 일반 또는 교육에서 수용하기 쉽다. 그는 직관적 사고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든지 사고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하였다(Bruner, 1960: 63). 그리고 그가 자주 예로든 수학과 물리학에서는 직관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수학과 물리학에서 혁명적인 발견을 한 많은 학자들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는 초기에 직관을 사용하였다. Bruner가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은 수학자처럼, 물리를 공부하는 학생은 물리학자처럼 공부하라는 말은 분석적 사고만이 아닌 직관적 사고를 해야 한다는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전숙경(2016: 65)은 경험과 통계에 의한 분석과 사고는 예측을 벗어나기 어려우나 직관적인 사고는 창의적인 사고의 초석이 된다고 하였다. 노벨상 수상자들의 다수가 연구 대상에 대해 직관적 사고를 한다고 하는 것(Marton, Fensham, & Chaiklin, 1994)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3. 상위기능으로서의 직관

직관을 영성교육 도입의 통로로서 논하기 전에 과연 직관적 사고가 논리적 사고와 대조되는 성격의 것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직관적 사고는 논리적 사고와 대응되는 성격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박준형·송진웅, 2017: 526; Bruner, 1960: 55). 논리적 사고는 주어진 정보에서 추론되며, 언어와 기호가 사용되며, 이미 규정된 규칙과 패턴에 근거하여 천천히 계열적으로 사고한다는 점에서 직관적 사고의 성격과 상반되어 보인다. 또한 사실상 논리적 사고가 더 중요시 되어 교육에서 그 두 균형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가 서로 상보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칙상으로 두 가지를 중요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대현, 2008; Bruner, 1960).

그러나 이 두 사고에서 어느 것이 더 상위의 기능을 하는지 또는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논리적 사고가 계열적 정보처리의 과정을 거친다면, 직관적 사고는 병렬분산 처리의 과정을 거친다(이대현, 2008: 373). 또한 논리적 사고가 참인 전제에 근거한 삼단논법에 따라 결론에 도달한다면 직관적 사고는 정보들의 새로운 연결을 시도한다(박준형·송진웅, 2017). 또한 논리적 사고는 지엽적인 사고를 하지만, 직관적

사고는 포괄적이고 전체를 파악한다. 논리적 사고가 외부의 정보와 환경에 의존하는 사고라면 직관적 사고는 사고자가 자신의 내면세계를 확신하는 것에 근거한다. 생물학적인 뇌의 구조를 통해서도 직관적 사고가 상위기능을 한다는 것을 추리해 볼 수 있다. 합리주의와 과학주의는 인간의 좌뇌인 논리적·분석적 사고만을 사용하게 하여 인간 사고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생물학적인 뇌의 구조는 우뇌가 훨씬 더 우세해 보인다. 뇌 전체를 관장하고 가장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두엽 쪽으로 우뇌가 더 많이 돌출하였고 면적도 넓은 편이다(정병국, 2015: 28). 반면에 주로 시각 자극을 처리하는 후두엽 쪽으로는 좌뇌가 더 돌출하고 면적도 넓다. 이러한 좌뇌와 우뇌의 비대칭은 창조주가 상위인식 기능으로 우뇌를 창조하였다는 섭리를 추리해 볼 수 있다.

직관과 논리는 각각 약점을 서로 상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어느 것을 더 상위의 기능으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직관적 사고가 논리적 사고를 관장한다고 볼 수 있다. 부분을 보는 사람이 전체를 보는 사람을 안내할 수 없다. 전체를 보는 사람은 필요에 따라 부분의 논리적 타당성과 정확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의 지능이 인간 지능의 지능을 불온전하게 모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직관을 흉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직관은 전의식의 과정이며 주관적 느낌과 내면의 욕구가 있을 때 발현된다. 또한 인간은 직관을 사용할수록 기계의 지능이 흉내 낼 수 없는 경지로 높아지며 원형지성인 신의 지성에 가까워진다. 그러므로 직관이 논리보다 더 포괄적이고 상위의 기능을 한다는 것은 직관이 영성으로서의 지능을 함양하는데 논리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IV. 영성교육의 통로로서의 직관

직관적 사고가 과소평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Bruner, 1960), 직관은 통찰이나 창의성과 유사한 속성(Bastick, 1982; Bruner, 1960; Duch, 2007)을 가졌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완전히 간과되지는 않았다. 다만 그것을 교육과정에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달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며, 직관에 대한 논의는 형식적 교육에서 환영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직관에 대한 비교적 우호적

인 사회적·교육적 환경은 직관을 영성교육 도입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1. 직관과 영성

앞에서 직관을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그러나 직관은 형이상학적 개념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영성의 개념에 포함된 직관을 통해 직관이 영성 함양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논하고자 한다.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직관은 라틴어 ‘visio’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며 ‘보는 행위’ 즉 관조(觀照)를 가리키며, ‘계시(啓示)’ 또는 ‘묵시(默示)’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최은순, 2016; 53). 바르트는 계시는 직관을 통한 직접성을 추구하는 종교의 길이라고 정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강조하였다(김명용, 2006; 69-96). 즉 visio는 intueri와는 달리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의미가 더 강하며 이성의 한계 너머의 것에 관한 인식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Palmer(1990: 43)는 관조란 우리가 실상으로 변장한 환상의 베일을 벗기고, 가면 뒤에 있는 실상을 드러내는 것을 일컫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예고와 문화의 교묘한 속임수가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관조는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플라톤은 지식이란 현상을 초월해 있는 것 또는 형이상학적 차원의 것이라고 하였다. 때문에 최은순(2016: 49)은 직관에 대한 논의는 플라톤의 인식론에서 최고 정점에 있는 논의라고 하였다.

직관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개념과 형이상학적 개념을 살펴본 것을 직관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를 통해 비교해볼 수 있다. 인지심리학에서 직관은 무의식 또는 전의식이 의식으로 드러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무의식 또는 전의식은 인간이 출생 이후 외부로부터 경험한 총체이며 인간은 이것을 의식하고 있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작용하면서 대상을 인식하게 되는 의식과 무의식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다. 무의식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은 나의 밖에 존재하는 것들로부터 주입(tuition)된 자극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거로부터 주입된 경험들이 문제해결의 욕구와 만나면서 감각스럽게 현재의 수면 위로 올라와 꺼내어지며(intuition)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직관이다. 반면에 기독교의 직관은 인간이 영, 혼, 육으로 초월적 절대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메시지를 통해 인식하는 것을 말

한다(배시은·안윤경·김용태, 2015: 186). 이것은 과거 경험의 축적인 무의식이 아닌 인간 내부의 성령이 ‘현재’, ‘여기에’ 주는 생생한 자극이자 계시이다. 이러한 계시는 개인에게 문제해결의 욕구가 없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직관을 통해 인식될 수 있다. 또한 인간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김명용, 2006: 78). 이러한 계시의 직접성 때문에 인간은 직관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관의 두 개념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서의 직관이 인지심리학적 직관보다 보다 높은 차원의 것으로 보고자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둘은 어떤 형태로든지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이는 기독교적 인간론에서 인간은 영, 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영, 혼, 육은 단일체라고 보기도 하며(Peursen van, 1956; 손봉호·강영안 역, 1988), 개념적으로 구분되나 실제에서는 하나로 작용한다는 기능적 전체주의(functional holism)로 보기도 하지만(송인규, 2002) 분명한 것은 이 세 가지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인지심리학적 직관은 계시로서의 직관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계시로서의 직관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며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면 이것은 영성과 관련된다. Nye와 Hay(1996)는 영성이란 한쪽 끝에는 ‘도덕적 민감성’에서 다른 쪽 끝에는 ‘신과의 신비적 일치’에 이르는 스펙트럼에 놓일 수 있다고 하였다(김정신, 2002: 55에서 재인용). 이는 영성이 개념화 되는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관 또한 인지심리학적 영역뿐만 아니라 초월심리학적, 형이상학적으로도 개념화되어 매우 광범위한 개념을 형성하고 있다. 영성의 개념에서 ‘직관’을 언급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허영주(2010: 265)는 영적 성숙이란 개인적 수준의 자아의 확립, 실존적 자각, 자아의 실현을 넘어서는 것으로 자아가 신비하고 놀라운 어떤 거대한 것과의 연결성과 통합성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는 영적 성숙을 직선적 사고와 직관의 연계와 조화, 정신과 몸의 연계와 조화, 다양한 지식 영역간의 연계와 조화, 자아와 공동체간의 연계와 조화, 지구와 우리의 연계와 조화, 자아와 더 큰 자아와의 연계와 조화에 대해 각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스피노자는 인식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 상상력이 1종 인식, 지성이 2종 인식, 직관지(直觀知)가 3종 인식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직관지는 상상이나 추론 없이 대상에 즉각 도달하는 방식의 인식인데, 신의 관념에 도달하는 데는 직관지와 지성을 통한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이진경, 2013). 즉 직관

지는 상상력이나 지성보다 상위의 인식이며 이는 영적인 삶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이다. 신을 보는 것을 직관이라고 본 용어로 지복직관이 있다. 지복직관(至福直觀, Visio Beatifica)이란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의미이다. 인간의 감각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시각과 유비(類比)를 통해 정신적으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똑똑히 보면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행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카톨릭 대사전). 티벳 불교에서는 입사체험의 경험자들을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이라는 의미로 ‘델로크’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것이 바로 지복의 상태이다. 즉 에고를 벗어나 평화롭고 지극히 행복한 전체와 하나가 되는 체험을 말한다(정재걸, 2017: 194).

앞에서 언급한 아퀴나스, 칸트, 마리땡, 에크하르트 등의 논의에서 지성은 신의 지성과 인간 지성의 중층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신의 지성과 인간의 지성은 서로 대등하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상부층이 하부층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아퀴나스가 지성을 능동지성과 수동지성으로 구분한 것의 의의는 양자를 별개의 영역으로 취급하던 관점에서 양자를 통합적으로 해석하였다는 데 있다(최은순, 2016: 52). 즉 수동지성은 능동지성이 있기에 가능하며, 빛을 비추는 존재가 있기에 빛을 받아 빛날 수 있다. 인간이 무엇을 안다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성은 신의 지성을 전제하여야 정의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은 직관을 통해 신의 지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 신의 지성은 피조물의 지성이 최고 수준으로 발달한 경지이다. 칸트 또한 신의 지성과 인간의 지성을 구분할 때 직관과 지성의 결합 또는 분리를 말하였다(김형주, 2016: 174에서 재인용). 이는 신과 인간은 모두 직관을 사용하지만 신은 직관을 이미 함축하여 지성이 곧 직관이나, 인간은 직관과 지성이 분리되어 있어 직관이 발현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신과 인간의 직관은 질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가진 속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직관은 신의 지성과 인간의 지성을 연결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를 볼 때 신적 지성, 즉 영성은 인간의 지성의 정점이며, 이 정점으로 도달하기 위한 한 가지 통로가 직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직관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영성을 함양하게 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영성과 직관을 모두 언급한 진술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진술들에서 인간이 자신의 영성을 함양시킬 때 직관이 항상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보이지 않는 대상과의 연결과 앎을 시도할 때 인간은 직관적 사고를 한다. 이때의 직관은 논리적·분석적 사고의 대안으로 선택되기 보다는 모든 사고의 작용을 포괄하거나 그 상위에서 인식되는 사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허락한 모든 사유와 지성을 초월한 것으로 창조주의 지성과 가장 근접한 방식으로 직관을 생각할 수 있다. 형이상학에서의 직관은 이성, 논리, 분석, 상상, 감정, 신체, 환경 등을 포함하되 자신을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시켜 마침내 자신과 하나님의 연결을 직접 보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직관의 사용은 어찌보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경험이자 행복감을 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직관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의 도구이자 영성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2. 직관의 발현과 영성교육

직관은 외부의 지식에 의존하지 않은 인식이므로 인간 내면의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직관은 훈련되기보다 발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직관의 속성 중 하나가 ‘본능적이고 타고난 것’이라고 한다면 직관의 발현은 직관을 사용하는 것은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마치 창의성을 구조화되고 형식적인 교육과정에 담아서 학생에게 제공하려 노력할수록 학생의 창의성이 사그라지는 원리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직관의 발현을 위해 훈련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 있다면 대상을 본질 그대로 인식할 수 있는 인식자의 왜곡되지 않은 마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에크하르트가 능동지성의 인식상을 수용한 가능지성이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걸여한 비어있는 칠판(tabula rasa)의 상태여야 한다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이상섭, 2014: 198). 즉 학생이 직관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정결한 창조 당시의 마음으로 회복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교육을 의미하는 독일어 *Erziehung*은 불완전한 상태에서부터 완전한 상태가 되기 위해 ‘밖으로 끌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직관이란 안의 것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며, 그 힘으로 대상의 본질을 인식하는 것이다. 안의 것을 밖으로 꺼내어 사용하게 하므로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자신에게 내재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알아차리며 주체적으로 학습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으로 다시 설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학습자를 불완전한 인식자로 가정하고 다양한 교수적 지원과 테크놀로지를 통해 학습

자의 학습의 과정을 돕고 지원해야 한다는 학습자관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습자관 속에서 학습자는 피교육자로 있는 동안 자기인식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직관은 옳음에 대한 주관적 확신과 자신의 방식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 발현된다(Bastick, 1982; Bruner, 1960).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을 사용하신 것처럼(요 14:9), 가설 검증의 증거로 자기를 기꺼이 제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Clement, 2008; Fensham, & Marton, 1992; Medawar, 1969; Stavy & Tirosh, 1996). 학습자의 직관적 사고가 발현되는 교육을 위해 학습자의 온전성을 신뢰하며, 아직 계발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내재된 온전함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드러내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재정립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직관을 위해 인식자의 온전한 형상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이는 영성에 관한 관심으로 귀결된다. 유재봉(2013: 111)은 교육에서 영성을 다룰 때 영성훈련이라는 용어보다 영성교육이라는 용어를 제안하였다. 그는 프로그램화된 영성훈련은 영성의 복잡한 양상을 단순화하거나 프로그램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영성훈련 프로그램은 이수한 사람은 영성의 외양을 마치 실재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삶과 동떨어진 훈련은 영성을 함양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때로는 영성이 아닌 것을 영성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성은 교육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직관은 영성보다 직관자의 내부에 더 의존한다. 그러므로 ‘교육’이라는 용어보다는 ‘발현’이라는 용어가 현재로는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학생의 직관을 발현하게 하는 형식적 방법론 보다는 직관과 직관적 사고의 속성을 훼손하지 않는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교육일 것이다. 즉 직관교육에 있어서 최소한의 형식이 최선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직관교육은 직관발현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영성과 직관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직관은 영성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에 대해서 베르그송의 ‘직관적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베르그송은 철학을 하는 방법으로 직관적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는 철학적 탐구의 대상은 지적 개념에 의해 인식되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역동적이고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직관만이 그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직관은 위대한 성자 혹은 기독교 신비가들이 체험했다고 한 신비한 직관에 근거한 것이다. 그는 신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지각되는 것이라고 하였다(송영진, 2005: 234). 즉 인간이 직관을 사용할 수 있다면 살아 움직이는 대상의 본질을 지각할 수 있게 되며, 이것은 인식자로

서의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일 것이다. 김봉제(2017)의 연구에서도 영성과 직관의 관계를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는 영성의 속성을 통해 영성의 인지적 기능, 정의적 기능, 행동적 기능을 도출하였다. 인지적 기능은 영성의 대상인 궁극적 실재, 신, 우주, 인간, 자연의 관계를 이해하고 통찰하는 기능이다. 정의적 기능은 변화와 성취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행동적 기능은 깨달음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추구하게 한다(김봉제, 2017: 286-288). 이 세 가지 기능 중 직관은 인지적 기능에서 작용할 수 있다. 그가 제시한 영성의 인지적 기능의 특성 중 ‘인간의 자기초월적 경험에 대한 통찰력 제시’, ‘궁극적 혹은 초월적 실재와 이상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획득’, ‘일상적이거나 표면적인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파악’은 앞에서 살펴본 직관과 직관적 사고의 작용이 개입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직관은 영적이고 초월적인 것을 보게 하고 알게 하는 인지적 기능을 하게 하는 인식이다. 박영만과 송민영(2003: 165)은 존재의 전체성과 관계성을 명료하게 보기 위해서 직관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물론 직관이 발달하였다고 모두 영성이 함양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영성이 높은 사람은 직관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직관은 영성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으나 필요조건은 될 수 있다. 직관은 인간의 지성과 신의 지성을 연결하는 통로이며, 인간이 신의 지성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자신의 지성에 비출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직관의 통로가 넓어지면 인간의 지성은 신의 지성을 보다 더 닮게 되어 영성이 함양될 수 있다.

3. 교과교육의 목표로서의 직관

영성훈련 또는 영성함양을 위해 사용된 방법들이 있다. 연구들에서 제안한 방법들은 묵상, 성찰, 침묵, 시각화, 예술활동, 개방성, 상호침투(inter-penetration), 질문, 기도, 관상,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경험(고요한, 2011; 김정신, 2002; 옥장흠, 2013; 허영주, 2010; Palmer, 1993; 이종태 역, 2008)등 이다. 이 방법들은 우뇌를 사용하는 직관적 사고를 더 필요로 한다. 인식자 내면의 의식을 꺼내어 들어 대상을 인식하고 사고한다.

유재봉(2013: 110-113)은 영성교육의 그릇된 형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학교에서 종교교과를 지식과 정보만으로 가르치는 것, 종교기관에서 특정 종교의 교리나 신조를 교과서 삼아 주입시키거나 맹목적으로 고백하게 하여 교화시키는 것, 영성교육기관에

서 영성함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투입하는 것이다. 계시로서의 직관은 타인으로부터 강요되는 것도 아니며 일정기간 진행되는 영성 프로그램의 활동으로 단순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우리의 학교 현실을 고려하면 학교에서의 영성교육은 삶의 총체적 이상이나 초월적 혹은 형이상학적 신념을 추구하는 비종교적 영성교육이 현실적 대안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비종교적 영성교육의 주체는 비종교 교과 즉, 일반교과가 되어야 한다.

일반교과에서 영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과의 목표설정, 교과내용의 선정, 교수학습 방법의 선택, 평가의 방법에서 과거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채택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영성이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연결한다. 또한 영성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초월이다. 영성이란 이성적 담론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과 직관과 같은 대안적이고 비이성적인 이해와 경험 양식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다(Webster, 2003: 56). 이것은 대상의 합리적인 속성과 비합리적 속성을 모두 이해하게 하는 총체적 안목을 가지게 한다. 그러므로 일반교과에서 영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가르침과 배움의 영역과 방식이 이전보다 더 포괄적이며 때로는 이전 것을 초월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Capra(1995: 24)는 시스템적 사고가 과거에 이성적, 분석적, 환원주의적, 선형적인 것에만 초점을 두다가 직관적, 통합적, 총체적, 비선형적 사고를 포함하는 것을 지향하게 되었다고 한다. 최은순(2016: 57)도 직관을 이성에 의한 경험적 인식과 동일한 평면 위에 나란히 두었을 때 지식교육의 의미를 그 자체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직관이라는 인간의 독특한 사유방식은 일반교과에서 영성교육이 실현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직관(visio)은 교과교육의 감추어진 의미를 드러내고 교과교육과 가치교육 및 인성교육의 관련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풍부한 사고의 틀을 제공해준다(최은순, 2016: 62). 이러한 직관이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끌어 온 창의성의 동력이라는 점에서 직관은 각 교과와 학문의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있다. 직관은 곧 신적 지성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이며 신적 지성을 마주 대하므로 곧 자신이 그 빛을 받아 빛나게 된다. 각 교과와 학문에서 인간이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 동시에 직관은 교과에서 신의 지성에 도달하게 하는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직관이라는 방법이 비논리적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에서 그동안 폄하되어 왔다(Bruner, 1960). 그러나 인간의 지성은 신의 지성과 달리 직관을 함축하고 있지 못하므로 대상을 직접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 ‘방법’이나

‘매개물이 필요하다. 때문에 목적과 수단이 구분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신적 지성은 이미 그 안에 직관을 함축하고 있어 대상을 그 자체로 인식한다. 우리가 교육에서 직관의 발현을 자주 사용 또는 허용하게 될 때 우리 교육 또한 목적과 수단의 합일을 이루어 그 자체가 목적이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교육의 도구적 가치만 강조되고 있어 발생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이처럼 직관은 교과교육의 목적이자 방법으로 소개될 수 있다. 직관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지성을 닮으려는 영성교육이 논리성과 합리성의 결여를 의미하고 발전으로부터 도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좋은 습관과 관습을 형성하는 교육이었다면 직관을 발현으로 때로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돌파하는 것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영성 함양이다. 영성이란 논리와 합리, 비논리와 비합리를 모두 포괄하거나 모두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직관은 교과에서 영성을 도모하는 통로가 되며 이것은 자신과 이웃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교과의 목표이자 방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교과에서 영성교육을 주체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V. 결론

201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한국의 무교자 비율은 56.1%로 산업화 시대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었다(국가통계포털, KOSIS). 2010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5%로 중국(47%), 일본(31%), 체코(30%), 프랑스(29%)에 이어 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 퓨리서치센터의 조사 결과 미국에서 자신이 무교자라고 응답한 사람은 22.8%, 무신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1%, 불가지론자는 4.0%로 나타났다(Pew Research Center, 2014). 위의 통계를 볼 때 우리나라는 무교 또는 무신론자들이 많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한 무관심은 학교에서 과편화된 지식을 가르치게 되어 학생이 아무리 많이 배우더라도 그것들을 통해 사물을 전체적·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형성되지 않는다. 문제는 학생 스스로도 자신을 통일성과 전체성이 없는 분절된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이다(유재봉, 2013: 100; Palmer, 1993; 이종태 역, 2008: 62). 무신론자가 증가하는 것과 인

공지능이 발달하는 것과 통계적 설명은 어렵지만 상관에 대해서는 직관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대두하면서 미래교육의 방향으로 지성교육보다는 인성교육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 감성교육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교육의 방향은 지성과 인성의 위층에서 작용하고 있는 영성을 알고 교육하는 것에 있다. 인간의 지성은 영성의 빛을 받아야 작용하며 인성은 기계성과 구분되기 위해 기계로 구현될 수 없는 영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영성과 교통하지 않는 지성과 인성교육은 비인간화와 기계화를 더욱 가속시킬 것이다. 지성교육과 인성교육을 배제한 영성교육이 아니라 영성이 고려된 교육, 즉 교과외의 궁극적 목표가 학생 영혼의 회복과 영적 안녕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교육이 새로운 변혁을 추구하고자 하는 시점에 교육에서 온전한 인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영성에 대한 관심을 이끌 통로로서 직관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영성교육과 직관에 대한 시대적 필요성을 지능의 의미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그리고 직관의 개념과 직관적 사고의 특성을 통해 직관이 영성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연결고리가 됨을 논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영성교육은 교과교육에서 직관을 수용할 때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일선 학교에서 영성이나 계시로서의 직관이 수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직관적 사고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강조된 지금, 사고방식으로서의 직관은 합리적 사고만이 가치롭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또 다른 모습을 보려고 하는 노력이 뒤따를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인간의 영혼과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과 마주하는 영성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면 학교에서 영성교육을 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인간의 뇌량의 역할에 비유할 수 있다. 뇌량(腦梁)은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신경다발로 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뇌량이 두껍게 잘 발달된 사람은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고, 전체와 세부의 정보를 종합하고, 맥락과 과정을 동시에 고려하여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 마치 플라톤이 이데아를 설명하기 위해 처음부터 초월적 직관을 제시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는 최대한 논리적으로 이데아를 설명하다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직관을 사용하였다. 즉 이데아는 사물을 초월하는 영원한 이성의 논리를 전제한다. 그러나 영원한 이데아와 시간적 사물들과의 연결은 논리로 관련지을 수 없으므로 이데아의 모형 혹은 그림자로 직관된다(박순경, 2014: 25-26). 마찬가지로 심리학적 직관에서 시작된 교육은 어느 순간 한계를 느끼게 되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직관을 도모하

고자 할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미래 사회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모든 지적 행위들이 정보로 저장되고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계산되어 활용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 지성의 극단의 경계에서 영성이 지성을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그 경계의 너머에 있는 영성의 작용은 언어나 데이터로 표상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그곳은 인공지능으로 구현될 수 없으며, 오로지 경험과 체험으로만 개인에게 주관적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 그 경계를 드러내게 하는 뇌량 중 하나가 직관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그 직관의 통로를 걸어보게 하는 것은 근대 이전 철학자들이 말한 지능(intellectus)-즉 신적 지성의 계시를 통해 전 우주적 진리를 인식하는 것-에 도달하게 한다. 이러한 지능이 바로 인간이 지향해야 할 지능이며 인공지능으로 구현할 수 없는 광활한 그 무엇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고요한 (2011). 가르침과 배움에서 영성형성의 의미와 방법에 대한 교육인간학적 고찰. *교육철학연구*, 33(3), 1-23.
- [Go, Y. H. (2011). A Pedagogical Study on Meaning and Methods of Spirituality Formation in Teaching and Learning.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3(3), 1-23.]
- 김명용 (2006). 칼 바르트의 계시론. *장신논단*, 25, 69-96.
- [Kim, M. Y. (2006). The Doctrine of Revelation in the Theology of Karl Barth.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Journal of Presbyterian Theology*, 25, 69-96.]
- 김봉제 (2017). 영성의 기능적 특성 이해와 도덕교육 적용 가능성 탐색. *윤리교육연구*, 44, 277-309.
- [Kim, B. J. (2017). A Study on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Spirituality and the Applicability of Moral Education.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44, 277-309.]
- 김정신 (2002). 영성교육을 위한 탐색적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5(1), 53-78.
- [Kim, J. S. (2002). An Exploration of the Spirituality Oriented Education. *Anthropology of Education*, 5(1), 53-78.]
- 김진숙 (2016).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의 역할. *월간교육*, 7, 104-113.
- [Kim, J. S. (2016).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Role of Educational. *Education Monthly*, 7, 104-113.]
- 김형주 (2016). ‘인공지능’과 ‘인간지능’ 개념에 대한 철학적 분석 시도: 맥카시와 칸트의 지능개념을 중심으로. *철학탐구*, 43, 161-190.
- [Kim, H. J. (2016).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Intelligence - with Emphasis on Intelligence-Concept in MacCathy and Kant. *Philosophical Investigation*, 43, 161-190.]
- 류성창 (2016). 미래교육의 방향은 지성교육인가 인성교육인가?. *교육철학연구*, 38(3), 49-68.
- [Ryoo, S. C. (2016). Which Should be the Aim of Future Education between Knowledge and Character?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8(3), 49-68.]
- 류희찬·류성림 (1997). 수학교육에서 직관에 대한 고찰. *수학교육학연구*, 7(2), 103-116.
- [Lew, H. C., & Lew, S. L. (1997). A Study on Intuition in Mathematics Education.

-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7(2), 103-116.]
- 박남기 (2017). 제4차 산업혁명기의 교육개혁 새 패러다임 탐색. *교육학연구*, 55(1), 211-240.
- [Park, N. G. (2017). New Paradigm for Education Reform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5(1), 211-240.]
- 박순경 (2014). *삼위일체 하나님과 시간: 제1권 구약편*. 서울: 신앙과 지성사.
- [Park, S. K. (2014). *Trinity God and Time: vol. 1. Old Testament*. Seoul: Faith and Intellect.]
- 박영만 · 송민영 (2003). *통합교육과정과 전인교육*. 서울: 학지사.
- [Park, Y. M., & Song, M. Y. (2003). *Integrated Curriculum and Holistic Education*. Seoul: Hakjisa.]
- 박장호 (2015). 욕구 조절과 도덕적 치유-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 *윤리교육연구*, 38, 203-233.
- [Park, J. H. (2015). Desire Control and Moral Curing - From Aristotle's View Point.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38, 203-233.]
- 박준형 · 송진웅 (2017). 열 현상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직관적 사고의 특징 - 발현의 맥락 및 논리적 사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7(3), 523-537.
- [Park, J. H., & Song, J. W. (2017). The Features of Intuitive Thinking Emerged During Problem Solving Activities About Thermal Phenomena: When Intuitive Thinking Appears and How it is Related to Logical Thinking.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37(3), 523-537.]
- 배시은 · 안윤경 · 김용태 (2015). 직관의 이해에 대한 확장적 연구: 기독교 상담적 접근으로. *복음과 상담*, 23(2), 163-194.
- [Bae, S. E., An, Y. K., & Kim, Y. T. (2015). Study on the Expanded Understanding of Intuition: Based on Christian Couns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ling and Gospel*, 23(2), 163-194.]
- 성태제 (2017).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간상과 교육의 방향 및 제언. *교육학연구*, 55(2), 1-21.
- [Seong, T. J. (2017). Suggestions for the human character and education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5(2), 1-21.]
- 송영진 (2005). *직관과 사유: 베르그송의 인식론 연구*. 서울: 서광사.
- [Song, Y. J. (2005). *Intuition and Thoughts: A Study on Epistemology of Bergson*.

Seoul: Seogwangsa.]

심은주 · 이경화 (2012). 교육학 분야 영성연구의 동향과 과제 - 2000년부터 2011년 까지 발표된 국내 논문을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20(4), 137-158.

[Sim, E. J., & Lee, K. H. (2012). Educational Research Trend and Implications on Spirituality.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0(4), 159-185.]

송인규 (2002). 이분설과 영육관계(2). **신학정론**, 20(1), 90-114.

[Song, I. G. (2002). Anthropological Dichotomy and Its Implications for Body-Soul Relationship(II). *Journal of Theology*, 20(1), 90-114.]

육장흠 (2013). 통전적 영성교육을 위한 교수방법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36, 343-367.

[Ok, J. H. (2013). A Study on Teaching Method for Holistic Spiritual Education.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6, 343-367.]

은기찬 (1995). 직관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과 교육적 의미. **교육학연구**, 33(5), 75-102.

[On, K. C. (1995). Current trends on intuition research and its educational implication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3(5), 75-102.]

유재봉 (2013). 교육에서의 영성회복: 학교에서의 영성교육을 위한 시론. **교육철학연구**, 35(1), 97-117.

[Yoo, J. B. (2013). Spirituality in Education: Towards a Recovery of Spirituality in School.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5(1), 97-117.]

윤화석(1999). 기독교교육 인간론의 기독교교육 신학적 의미. **기독교교육논총**, 4, 47-107.

[Yoon, H. S. (1999). The theological significance of Christian education based on Christian education human theor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4, 47-107.]

이대현 (2001). 초등수학에서 직관적 원리에 의한 교육 내용 분석.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 15(2), 283-300.

[Lee, D. H. (2001). An Analysis on the Instructional Contents by Intuitive Principles in Elementary Mathematics. *Journal of Elementary Mathematics Education in Korea*, 15(2), 283-300.]

이대현 (2008). 직관에 관한 연구 역사와 수학교육적 의미 고찰. **한국학교수학논문집**, 11(3), 363-376.

[Lee, D. H. (2008). A Study on the History of Intuition Research and its Mathematics Educational Implication. *Journal of Korean School Mathematics*, 11(3), 363-376.]

- 이상섭 (2014). 13, 4세기 도미니코회에서의 가능지성의 가능성 개념의 변화: 알베르투스부터 에크하르트까지. *카톨릭철학*, 23, 177-211.
- [Lee, S. S. (2014). The Changing Face of the Possibility of the Possible Intellect within the Dominican Order in the 13th and in the 14th Centry - From Alberus Magnus to Meister Eckhart. *Catholic Philosophy*, 23, 177-211.]
- 이진경 (2013). *히치하이커의 철학여행*. 서울: 휴머니스트.
- [Lee, J. K. (2013). *Hitchhiker's Philosophy Travel*. Seoul: Humanist.]
- 이혜정 (2016.10).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제도 혁신**. 경기도교육연구원,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교육 쟁점과 해법(54-68)**. 경기도교육연구원 개원 3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 [Lee, H. J. (October 2016). *Educational System Innovation for Future Society. Gyeonggi-do Institute of Educati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ssues and Solution of Korea Education(pp. 54-68)*. Proceedings of GIE 3 Years Anniversary Symposium.]
- 장승기 (2016.10). **한국의 교육현장 속에서 미래학교를 찾다**. 경기도교육연구원,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교육 쟁점과 해법(70-93)**. 경기도교육연구원 개원 3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 [Jang, S. G. (October 2016). *Finding Future School Model in Context of Korean Education. Gyeonggi-do Institute of Educati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ssues and Solution of Korea Education(pp. 70-93)*. Proceedings of GIE 3 Years Anniversary Symposium.]
- 전숙경 (2016). 초연결사회의 인간 이해와 교육의 방향성 탐색. **교육의 이론과 실천**, 21(2), 55-80.
- [Jeon, S. K. (2016). Understanding of Human-being and the Orientation of Education in Hyper Connected Society.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21(2), 55-80.]
- 정병국 (2015). **두뇌발달 자녀교육법**. 경기: 좋은땅.
- [Jung, B. K. (2015). *Child's Brain Development and Education*. Kyeonggi: Goodworld.]
- 정재걸 (2017). 인공지능 시대의 가상현실과 교육. **사회사상과 문화**, 20(1), 191-217.
- [Jung, J. G. (2017). The Virtual Reality and Education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Journal of Social Thoughts and Culture*, 20(1), 191-217.]
- 정재영 (2016.4.8).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미래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학회(KERA) 정책포럼: 지능정보사회 대비 미래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 자료집.
- [Jung, J. Y. (April 8, 2016). *Educational Polices and Issues for Intelligent*

- Information Society*. Proceedings of Korea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Forum.]
- 조상식 (2016).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 교육의 과제. **미디어와 교육**, 6(2), 152-185.
- [Cho, S. S. (2016).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Issues in the Future of Education. *Media & Education*, 6(2), 152-185.]
- 최경아 · 강문봉 (2016). 수학문제해결 측면에서의 Haidt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에 관한 고찰. **수학교육학연구**, 26(3), 565-581.
- [Choi, K. A., & Kang, M. B. (2016). A Study on Social Intuitionist Model of Haidt in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26(3), 565-581.]
- 최은순 (2016). 교육에서의 직관의 위치: 아퀴나스 신학의 메타프락시스적 해석. **도덕교육연구**, 28(2), 49-71.
- [Choi, E. S. (2016). The Place of Intuition in Education: A Metapragmatic Interpretation of Thomas Aquinas’ Theological Theory. *The Journal of Moral Education*, 28(2), 49-71.]
- 한영란 (2004). **교사와 영성교육**. 서울: 내일을 여는 책.
- [Han, Y. R. (2004). *Teachers and Spiritual Education*. Seoul: Books Opening Future.]
- 허영주 (2009). 비이원적 삶의 필요성과 교육과정의 변화 방향. **교육과정연구**, 27(2), 33-61.
- [Hur, Y. J. (2009). A Study on the Non-dualistic View of “Knowing: as a Limitation & Alternative of Existing Curriculum.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7(2), 33-61.]
- 허영주 (2010). 교사의 영적성숙을 위한 교사교육과정의 변화 방향 탐색. **교육과정연구**, 28(1), 261-290.
- [Hur, Y. J. (2010). A Study on changed curriculum of teacher education for teacher’s spirituality development.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8(1), 261-290.]
- 허희옥 · 양은주 · 김다원 · 문용선 · 최종근 (2017).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지능과 학습. **교육철학연구**, 39(1), 101-132.
- [Huh, H. O., Yang, E. J., Kim, D. W., Moon, Y. S., & Choi, J. G. (2017). Human Intelligence and Learning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9(1), 101-132.]
-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KCERN (2017).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서울: 창조경제연구회.
- [KAIST Moon Soul Graduate School of Future Strategy, KCERN (2017).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of Korea*. Seoul: Korea Creative Economy Research Network.]

- 廣中 平祐 (1992). **학문의 즐거움**. 방승양 역(2009). **학문의 즐거움**. 서울: 김영사.
- [Hironawa, H. (1992). *Joy of Learning*. Seoul: Gimmyoungsa.]
- Addison, N., & Burgess, L. (2000). *Learning to Teach Art and Design in the Secondary School: a companion to school experience*. New York: Routledge.
- Anderson, J. R. (1982). Acquisition of cognitive skill. *Psychological Review*, 89, 369-406.
- Artificial Intelligence. (n. d.). In *Wikipedia*. Retrieved March 19, 2018, from https://en.wikipedia.org/wiki/Artificial_intelligence
- Bastick, T. (1982). *Intuition: How we think and act*. New York: Guilford Press.
- Burnham, S. (2011). *The Art of Intuition: Cultivating Your Inner Wisdom*. New York: Tarcher/Penguin
- Burke, L. A., & Miller, M. K. (1999). Taking the mystery out of intuitive decision making.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13, 91 - 98.
- Bruner, J. (1960). *The Process of Education*. 이홍우 역(1973). **교육의 과정**. 서울: 배영사.
- Capra, F. (1995). *Deep Ecology: A new paradigm*. In G. Sessions (Ed.), *Deep Ecology for the 21st Century* (pp. 19-25). Boston & London: Shambhala.
- Clement, J. (2008). *Creative model construction in scientists and students: The role of imagery, analogy, and mental simulation*. Dordrecht: Springer.
- Dewey, J. (1934). *Art as Experien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Dreyfus, H. L. (1972). *What Computers Can't Do: The Limi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New York: Harper & Row.
- Duch, W. (2007). Intuition, Insight, Imagination and Creativity. *IEEE Computational Intelligence Magazine*, 2(3), 40-52.
- Ehrenzweig, A. (1970). *The Hidden Order of Art: A Study in the Psychology of Artistic Imagination*.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Fensham, P., & Marton, F. (1992). What has happened to intuition in science education? *Research in Science Education*, 22(1), 114-122.
- Fischbein, E. (1987). *Intuition in science and mathematics: An Educational Approach*. Dordrecht: D. Reidel Publishing Company.
- Fischbein, E., Tirosh, D., & Melamed, U. (1981). Is it possible to measure the intuitive acceptance of a mathematical statement? *Educational Studies in Mathematics*, 12, 491-512.

- Isaacson, S. (2006). *The Politics and Philosophy of Michael Oakeshott*. NY: Routledge.
- Isaacson, S. (2015). *Steve Jobs*. Simon & Schuster; Reissue edition.
- Marton, F., Fensham, P., & Chaiklin, S. (1994). A Nobel's eye view of scientific intuition: discussions with the Nobel prize-winners in physics, chemistry and medicine(1970-86).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16(4), 457-473.
- McCorduck, P. (2004). *Machines Who Think: A Personal Inquiry into the History and Prosp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2nd ed.)*. Natick, MA: A. K. Peters, Ltd.
- Medawar, P. B. (1969). *Induction and intuition in scientific thought*. London: Routledge.
- Palmer, P. (1990). *The Active Life: A spirituality of work, creativity, and caring*. 홍병룡 역 (2013). **일과 창조의 영성** 서울: 아바서원.
- Palmer, P. (1993). *To Know as We Are Known*. 이종태 역 (2008).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서울: IVP.
- Peursen, C. A. van (1956). *Lichaam, ziel, geest: de mens als oriëntatie vanuit zijn wereld*. 손봉호·강영안 역 (1988). **몸, 영혼, 정신: 철학적 인간학 입문**. 서울: 서광사.
- [Peursen, C. A. van (1956). *Lichaam, ziel, geest: de mens als oriëntatie vanuit zijn wereld*. B. Son, & Y. Kang, Trans. (1988) Seoul: Seokwangsa.]
- Pew Research Center. (2014). Religious Landscape Study. Retrieved from <http://www.pewforum.org/religious-landscape-study/>
- Polanyi, M. (1966). *The Tacit Dimens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eid, L. A. (1986). *Ways of Understanding and Education*. London: Heinemann Educational Books.
- Rifkin, J. (2011).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안진환 옮김 (2012). **3차 산업혁명**. 민음사
- Schwab, K. (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how to respond*. World Economic Forum.
- Stavy, R., & Tirosh, D. (1996). Intuitive rules in science and mathematics: the case of 'more of A more of B'.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18(6), 653-667.
- Troy, T. F. (1991). The Correct Definition of Intellig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5(4), 433-454.

Webster, R. S. (2003). *An Existential Framework of Spirituality for Education* (Doctoral dissertation). Griffith University, Australia.

인터넷 자료

카톨릭대사전. <http://dictionary.catholic.or.kr> (2018.3.20)

[Catholic Dictionary. <http://dictionary.catholic.or.kr> (2018.3.20)]

한국갤럽. <http://www.gallup.co.kr> (2018.3.20)

[Korea Gallup. <http://www.gallup.co.kr> (2018.3.20)]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2018.3.20)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http://kosis.kr> (2018.3.20)]

논문초록

영성교육 도입 통로로서 직관의 이해

김보경 (전주대학교)

4차 산업혁명과 인간의 수행을 훨씬 뛰어넘는 인공지능의 활약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교육에서도 인간이 기계와 무엇이 다른가? 라는 존재론적 질문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인간이 기계와 달리 영적인 존재라는 점을 간과하고 미래교육을 선불리 논하기 어렵게 되었다. 왜냐하면 영성은 디지털 형태로 코딩할 수 없는 인간의 독특한 본질이기 때문이다. 영성을 함양하는 교육이 더욱 중요해짐에도 영성교육이 특정 종교에 국한된 것으로 인식되어 교육과정에 쉽게 도입되기 힘든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 영성교육을 도입하기 위한 전략이나 통로로서 직관을 염두해 두고, 직관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인간지능과 기계지능의 차이를 통해 직관의 발현과 영성교육의 관계와 시대적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성교육과 직관의 시대적 필요성을 지능의 의미 측면에서 고찰한다. 둘째, 직관의 개념과 직관적 사고의 특성을 통해 직관이 영성교육 도입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밝힌다. 셋째, 직관이 교과교육에서 영성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임을 밝힌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간은 인공지능이 흉내 낼 수 없는 직관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 있다. 이것은 기계에게 위임할 수 없는 인간의 특권이자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특성이다. 그리고 직관은 인간의 영성을 계발하고 초월적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한다. 우리의 교육환경을 고려한 영성교육의 현실적 대안은 비종교적 영성교육이며 이를 실행할 주체는 일반교과가 되어야 한다. 일반교과에서 직관은 해당 학문 분야에 감춰진 비밀을 밝히는 창의적인 눈이며, 해당 분야에서 하나님의 지성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 인간이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을 찾아 행하는 것이 직관을 통한 영성의 계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직관은 일반교과에서 영성을 도모하는 통로가 되며 이것은 자신과 이웃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교과목의 목표이자 방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직관, 직관적 사고, 지능, 영성교육, 교과교육

군 장병의 군복무 중 종교변화와 군 선교전략에 대한 혼합연구

Mixed Methods Research on the Change of Religion Occurring in the Army and Strategy on Military Missions

김성훈 (Seong Hun Kim)(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임세현 (Se Hyeon Lim)**

Abstract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in order to propose a strategy concerning the change of religion that occurs in the military in South Korea.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from July of 2014 to March of 2016 over 4 intervals (of 6 months) with 362 Korean soldiers as the subjects. The research period began from when a soldier first arrived at the base as a private first class (PFC) and was carried out with a term of six months ever since for three more periods to observe other rank as well. This was done in order to have an overall understanding on the flow of the military and the changes that occur during the passage of time. There have been researches that were carried out in a more political sense, but researches that have utilized active soldiers as subjects are very few in numbers. Especially, on the topic of how the military missions are to approach the issue of change of religion, the research was poorly done. Therefore, this research has traced down soldiers over a period of two years for the data and analyzed the factors that have caused the change of religion.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as a mixed methods research covering the quantity and quality.

As the research result, the majority were soldiers who maintained no-religion or Christianity. A change from non-religious to Christianity or vice-versa was rare. In terms of quantitative research, the important factor in change from no-religion to Christianity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KRIVET),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Yonsei University), 세종시 시청대로 370, auctor21@krivet.re.kr

** 고든 칼리지 청소년학(Gordon College), 255 Grapevine Rd. Wenham, MA, limsehyun@gmail.com
2018년 05월 01일 접수, 06월 23일 최종수정, 06월 25일 게재확정

turned out to be the percentage of Christian soldiers in that respective base and the amount of training being carried out. In terms of qualitative research, the important factor that brought the change from no-religion to Christianity turned out to be the comforting and optimistic environment of the base along with the bonding found in the church.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above research, a military mission strategy was proposed.

Key Words : military mission strategy, change of religion, logistic regression, mixed methods research

이 논문은 기독교학문연구회 2018년 춘계학술대회(2018.05.26.)에서 발표한
“군 장병의 군복무 중 종교 변화와 군선교에 대한 혼합연구”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I . INTRODUCTION

Korean churches chose Military Missions as an important means of young adult ministry. Beginning from the baptism carried out by the Korean Army Training Center to helping the soldiers decide and keep their faith during the time in their allocated bases and finally helping them maintain their faith after they return to society is the method Military Missions have been using in the past. Especially the Strategies used in the Korean Army Training center has been a topic of debate in terms of theological senses (Nam, 2007:65-68; Lee, 2010: 144-146;Kwon, 2011:8-10) and whether group baptism follows the teaching of the Bible is still an ongoing debate. However, this phase in Military Missions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steps and is supported by many believers and churches.

After the incoming soldiers receive their baptism at the training center and move on to be posted at various bases, the Military Mission utilizes strategies of various scales. In terms of small scale strategies, it refers to the ministry carried out by the chaplains of that particular base. Their ministry contains of worship services, bible studies, and small groups which can help the soldiers maintain their faith. In terms of large scale strategies, main examples would be events like Vision2020 and

Sunshine Campaign carried out by Korean Military Missions Organization. Vision2020 actively kicked off in 1996 and has been the most important project since “All nation evangelical movement” in 1972 until the “United Military Missions Associations” was found in 1999 (Oh, 2004:128-130).

However, the Vision2020 project failed to meet its expectations. As a countermeasure, project called Sunshine Movement was carried out. Sunshine Movement was started in 2011 under the moto of sharing the love of Jesus like the Good Samaritan to the soldiers in the base in order to prevent accidents and improve the environment.

But researches on how these movements and missions have influenced the soldier's decision on religion have not been studied so far. The Korea Gallup(2015: 10) shows the change in religion in the country but does not show the change of religion that occur in the army nor the influences the military mission have in the military bases. Instead, the missionaries, pastors, and the military mission associations observe and experience the small changes that occur around them providing meaning and potential to the missions.

Kim (2016: 351-354) tracked down the influential factors that alter faith and religion through data collected over the years at national level and have suggested various mission strategies through analyzing the influential factors. The results show that with the faith of soldiers on the concept of Christianity as foundation, strengthening worship services and innovating missions associations that could lead to personal growth in faith and transformation in the army that fits the current generation was suggested. Other studies also show that the impact of military missions on soldiers is required in order to propose more effective strategies.

Due to the specific features of the data, Kim (2016:354-355) could not observe the change of religion among the soldiers. The military missions work with a time limit of 21 months per soldier as Korean soldiers are discharged after completing 21 months of service. With this in mind, respective military bases need to come up with an effective way to keep track of the change of religion.

Therefore,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in order to come up with a response

towards the change of religion that occurs in the army using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es.

In terms of quantitative research, data over the past two years on change of religion were collected.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in order to verify what influences change of religion among the soldiers.

In terms of qualitative research, the reason behind maintenance of same faith was found out through personal interview and the reasons were analyzed.

II. Methodology

The research subjects are in midst of complicated situations and therefore there may be limitations to go through the subjects and the data. Thus, a method based off from quantitative research will be required. With the core factors of the quantitative research along with qualitative research, an equal combination of the two will be designed for the research (Morse & Niehaus, 2012: 10-12).

1. Research Subjects

(1) Quantitative Research Subject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against 362 soldiers belonging to the First Engineering Brigade who joined the army between July to December of 2014. The research subjects were interviewed and observed a total amount of 3 times in April and October of 2015 and March of 2016. In other words, they were observed during their ranks of PFC, specialist, and sergeant periods which could provide an overall change among the soldiers. The research was limited to only the 1st Engineering Brigade which covers a very minor portion of the Korean Army, but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difficulty in gathering the information of all the bases in Korea, this research could remain as an important contribution.

(2) Qualitative Research Subject

After the first survey regarding the change in religion or maintaining one's religion, a brief conversation and a personal interview were conducted. Out of the research subjects, 16 of them were interviewed in more depth with 8 of them having changed from no-religion to Christianity and 8 of them having changed from Christianity to no-religion. The following interview was recorded by the researcher for further use in the research.

2. Key variables

(1) Dependent variables

In this research that targets to analyze the influence in change of religion among soldiers,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change or maintenance of religious status across four different check points. The change in religious status from no-religion to Christianity, Christianity to no-religion, and maintaining one's religious status were all coded as 0 and 1 accordingly. The dependent variable, through this coding, will undergo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2) In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were divided into 3 large sections. First would be the personal psychological change which includes self-esteem, purpose of life, and despair. The personal psychological variables were checked through the tool introduced in Kwon and Kim (2014: 238-239). Second was the ratio of Christians in the base and also the religion of the commander. Third would be the casual environment of the base in terms of basic training that affects the daily routine of the soldiers. A more detailed explanation is provided in Table 1.

Table 1 Explaining variables

Variables		Solution to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no-religion→ no-religion	Coded as 0 in analysis 1 and 2	Having stayed non-religious throughout all the ranks.
	no-religion→ Christianity	Coded as 1 in analysis 1	Having started as non-religious but changed to Christianity during one of the ranks.
	Christianity→ Christianity	Coded as 1 and analysis 2 and as 0 in analysis 3	Having stayed Christian throughout all the ranks.
	Christianity→ no-religion	Coded as 1 in analysis 3	Having started as Christian but changed to no-religion during one of the ranks.
Personal psychological variable	Self-esteem	Likert scale on the score of 5 regarding 10 questions on self-esteem	
	Purpose of Life	Likert scale on the score of 5 on 16 questions regarding purpose of life	
	Despair	Likert scale on the score of 5 on the 10 questions regarding despair	
Base religion variable	Ratio of Christians	Ratio of Christians in the base the soldier belongs to	
	Religion of the 5Commander	Christian = 1, others = 0	
Base training variable	Platoon sized training	Likert scale on the score of 5 regarding the intensity of training (1=very low, 5= very high)	

3. Data Analysis of quantitative research

In this research, in order to explore the various effects military service has on the selection of religion,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tilized.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carried out three times and in analysis 1 where no-religion was maintained, was given 0 while no-religion to Christian was give 1. In analysis 2, maintaining no religion was given 0 while maintaining Christianity was given 1. In analysis 3, maintaining Christianity was given 0 and the change from Christianity to no-religion was set as 1.

If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to be displayed as an equation it would look

like the following.

$$\ln\left(\frac{p_i(Y=1)}{1-p_i(Y=1)}\right) = \beta_0 + \beta_1 F_i + \beta_2 S_i + \beta_3 X$$

$p_i(Y_i = 1)$ is the change from no-religion to Christianity in analysis 1, the maintenance of Christianity in analysis 2, and change from Christianity to no-religion in analysis 3.

$1 - p_i(Y_i = 1)$ is the maintenance of no-religion seen in analysis 1 and 2 and the maintenance of Christianity in analysis 3.

F is the vector representing personal psychological variable (self-esteem, purpose of life, depression)

S is the vector representing the state of religion in the base (ratio of Christians in the base, the religion of the commander)

X is the vector representing the casual routine of the base (base training)

With the above analysis, a preview of the primary and secondary strategy of military mission could be provided. In other words, through religious activities in the base, the reasons why one becomes a believer or how one maintains one's faith until the end of service, and the reason how one maintains that faith even in society can be observed.

4. Data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

(1) Personal Interview

The researcher carried out in depth interviews with 16 soldiers and the interviews were carried out at a random interval of time in places like church, counselor's room, book cafe etc. The time spent in a single interview was about 30 minutes and was carried out once per person. The questions asked in the interview

included normal army life and reasons behind having or not having a religion and how one maintained that status. The interview was carried out in a very informal manner so the soldiers could talk with a free mind and was a one on one interview. The researcher summarized the interview after every session.

(2) Process of analyzing qualitative data

In order to find out the reasons why the religion changes or is maintained during military service, the following method of analysis was carried out. The analysis that was conducted as member checking, as a whole, had three steps with the first being reading out the various cases in order to clearly summarize the content. Second is the researcher coding and finding out the core key words while forming the data base. While summarizing the data and examples, a situation that was encountered by numerous soldiers were tied up as joint example. Also, as the key words, words such as rest, growth, optimism, comrades, and mission were focused on which represents specific situations or emotions. With the key words, main concepts were set and then the words were dispersed into the matching concepts accordingly. Third, during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the data, the researcher's thoughts, interpretation, and opinions were noted.

III. Results of Analysis and Interpretation

1. Transition of Change of Religion

The change of religion among the soldiers during their various rank were observed. The change of religion that was observed beginning from the fall of 2014 to spring of 2016 is displayed in Table 2. Since the research subjects do not represent the entire organization or the nation, there might be miscalculations and

minor faults in the result. However, the data was collected over 2 consecutive years and can provide the basic flow of change. According to a research from 2011, 48.3% had a religion while 51.7% had no religion in the army. This research also shows a similar ratio of religion. Also, in terms of the ratio of religions, leaving out the non-religious, Christianity made up 54.30% while Buddhism had 26.93%, and Catholicism had 17.96%. In this particular research, when the subjects were first asked about their religion, 67.80% were Christians, 15.25% were Buddhist, and 16.95% were Catholic. The reason behind the difference between this research and the nation-wide research (2011) in terms of religion could be due to the different method of research, and as mentioned before, because this research covers only a specific population of the military. Especially, the data used in this research was obtained by the researcher through visiting every base belonging to the 1st Engineering Brigade and the religion was not filled by others but by the subjects themselves.

If the change of religion is observed with the Private as the standard, as the ranks go up, it can be noticed that the number of non-religious soldiers increase. Surprisingly though, during the last several months of the service, as soldiers embark towards time of fulfilling their service, they seem to return to religion (in this case Christianity).

Table 2 The change of religion of research subjects.

Religion (numbers, %)	Private (1st period)	PFC (2nd period)	Corporal (3rd period)	Sergeant (4th period)
Christian	120(33.1)	112(30.9)	110(30.4)	118(32.6)
Buddhist	27(7.5)	23(6.6)	24(6.6)	22(6.1)
Catholic	30(8.3)	32(8.9)	31(8.6)	31(8.6)
No-religion	185(51.1)	194(53.6)	197(54.4)	191(52.7)
Total	362	362	362	362

Table 3 shows how the religion of the Private changed or remained by the time

they turned sergeants personally. The number of non-religious Private who remained non religion was 157 while the number of those who maintained Christianity was 99. Also, the number of PFC's who became Christians from no-religion was 17 while the opposite case had 19.

Table 3 Change of religion

	No-religion→ No-religion	No-religion→ Christian	Christian→ Christian	Christian→ No-religion
Christian	120(33.1)	112(30.9)	110(30.4)	118(32.6)
Buddhist	27(7.5)	23(6.6)	24(6.6)	22(6.1)
Catholic	30(8.3)	32(8.9)	31(8.6)	31(8.6)
No-religion	185(51.1)	194(53.6)	197(54.4)	191(52.7)
Total	362	362	362	5362

Table 4 shows the value of the self-esteem, purpose of life, depression, ratio of religion in the base, the religion of the commander, and the amount of training in the base for the four types of change of religion. In terms of self-esteem, the group that changed from Christianity to no-religion was the highest while the group who maintained their Christian faith had the lowest self-esteem. But this cannot be a reason to assume that every soldier who attends church has a low self-esteem. In terms of meaning of life, those who maintained Christianity and those who changed from Christianity to no-religion had the highest while those who changed from no-religion to Christianity had the lowest. In terms of despair, the group that maintained Christianity had the highest and the group that changed from Christianity to no-religion had the lowest. The percentage or the ratio of Christians in the base obviously was the highest among those who maintained the religion. There were often cases where the commander was a Christian but non converted from no-religion to Christianity during their service. Training intensity was found to be highest among those who changed from Christianity to no-religion.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by type of religions change

	No-religion→ No-religion		No-religion→ Christian		Christian→ Christian		Christian→ No-religion	
	M	SD	M	SD	M	SD	M	SD
Self-esteem	41.05	6.217	42.06	7.066	40.49	6.280	43.69	5.872
Purpose of life	54.90	11.104	54.38	8.648	55.33	10.736	55.34	13.552
Despair	17.52	7.339	17.13	7.293	19.39	7.551	17.06	6.773
Ratio of Christian	25.57	3.139	24.49	2.581	26.54	3.231	24.58	2.770
Religion of the Commander	.08	.276	.00	.000	.07	.258	.06	.232
Platoon Training	3.96	.913	4.38	.619	3.94	.923	4.44	.619

2. Analysis on the change of religion according to quantitative research

In order to explain the change in religion through a person's individuality by analyzing them, three groups were made for comparison and analysis. Analysis 1 was a comparison between group that maintained no-religion and group that changed from no-religion to Christianity, analysis 2 was a comparison between those who maintained no-religion and those who maintained Christianity, and analysis 3 was a comparison between those who maintained Christianity and those who changed from Christianity to no-religion. Analysis 1 is expected to provide a solution in bringing soldiers towards Christianity while analysis 2 is expected to provide the difference between the soldiers who have a religion and who do not. Finally, analysis 3 is likely to show the reason behind why soldiers switch from Christianity to no-religion.

(1) Analysis 1 : Change from no-religion to Christianity and the causes

Table 5 compared those maintaining no-religion and those who switched from no-religion to Christianity. The influential factors related to this were ratio of Christians in the base and base training. Whenever the ratio of Christians increase

by 1, the likelihood of no-religion switching to Christianity increases by 1.206 times. In other words, if a base increases their Christian ratio, the likelihood for soldiers to switch to Christianity increases as well. On the other hand, the harder the training, the more chances of maintaining no-religion. In other words, the harder the training gets, the likelihood of soldiers switching to Christianity decreases by time 0.807.

In conclusion, Christian ratio in the base increases the percentage of soldiers switching to Christianity while hard training increases the chances of soldiers remaining no-religious.

Table 5 Result of analysis 1 : Influential factors leading to change from no-religion to Christianity

		log odd (no→no vs no→christianity)					
		B	S.E.	Wald	df	p	Exp(B)
Constant		-1.824	3.723	.240	1	.624	.161
Personal Psychological variable	Self-esteem	.069	.080	.732	1	.392	1.071
	Purpose of life	-.039	.036	1.196	1	.274	.962
	Despair	.019	.051	.145	1	.703	1.019
	Ratio of Christians	.216 *	.110	3.340	1	.048	1.206
Base Training Variable	Platoon Training	-.741†	.402	2.692	1	.090	.807
† p<.1, *p<.05, **p<.01, ***p<.001							R ² =.122

(2) Analysis 2 : Factors that lead to maintaining No-religion and Christianity

Table 6 compared the groups that maintained no-religion and Christianity.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is was the despair and ratio of Christians in the base. Whenever despair increases by score of 1, the likeliness of it's belonging to group that maintained Christianity was 1.038 times higher. Also, whenever the ratio of Christians rose by 1, the likeliness of it belonging to the Christian group was 1.105 times higher.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despair and anxiety in a soldier, the more likely

they are to seek help and prayer thus maintaining their Christian faith. But to look at it from a rather negative view, it might look better if those who maintained Christianity had low amount of despair, but looking at the longitudinal change, those who maintained Christianity could do so because of their despair which helps them seek and desire religion. Like the earlier factors, the proportion of Christians in the base plays a huge role in helping soldier maintaining Christianity.

As a conclusion, the higher the despair, the higher the chances of maintaining Christianity and the ratio of Christians increases the chances of maintaining Christianity.

Table 6 Result of analysis 2 : Influential factors leading to maintain Christianity.

		log odd (no→no vs christianity→christianity)					
		B	S.E.	Wald	df	p	Exp(B)
Constant		5.040 *	2.134	5.576	1	.018	.006
Personal Psychological variable	Self-esteem	-.001	.038	.001	1	.977	.999
	Purpose of life	.018	.018	1.020	1	.313	1.018
	Despair	.043†	.026	2.819	1	.093	1.044
	Ratio of Christians	.116 *	.054	4.545	1	.033	1.123
Base religion variable	Religion of the Commander	-.700	.587	1.424	1	.233	.496
Base Training Variable	Platoon Training	-.039	.164	.056	1	.812	.962
† p<.1, *p<.05, **p<.01, ***p<.001							R ² =.157

(3) Analysis 3 :Factors that lead to change from Christianity to No-religion

Table 7 compared those who maintained Christianity and those who changed from Christianity to no-religion. The influential factors were self-esteem, ratio of Christians in the base, and base training. When the self-esteem increased by 1, the chances of belonging to the group that changed from Christianity to no-religion was 1.127 times higher. When the ratio of Christians in the base increased by 1, the likeliness of belonging to the group that changed from Christianity to no-religion,

compared to the group that maintained Christianity, were 0.770 times lower. Also, as the base training increased in numbers, the likelihood of changing from Christianity to no-religion was 1.985 times higher.

In other words, soldiers with high self-esteem seemed to change from Christianity to no-religion. This, however, does not lead to a conclusion that every Christian soldier has a low self-esteem, but instead, this could lead to another thought that lower the self-esteem, the more likely to depend on God rather than man. Also, the higher the ratio of Christians in the base, it was more likely to maintain Christianity rather than changing to no-religion. Just like in analysis 1 and 2, the ratio of Christians in the base seems to have an immense influence in maintaining Christianity. Along with this, the intensity of the training lead to a similar conclusion as seen in analysis 1, that is, intense and frequent training leads soldiers to no-religion than to Christianity.

Concluding the analysis, high self-esteem and frequent intense training leads to no-religion while high Christian ratio in the army leads to maintaining the faith.

Table 7 Result of analysis 3 : Influential factors leading to change from Christianity to no-religion

		log odd (christianity→christianity vs christianity→no)					
		B	S.E.	Wald	df	p	Exp(B)
Constant		-1.211	3.631	.111	1	.739	.298
Personal Psychological variable	Self-esteem	.120†	.067	3.157	1	.076	1.127
	Purpose of life	-.029	.026	1.212	1	.271	.972
	Despair	.028	.046	.360	1	.548	1.028
Base religion variable	Ratio of Christians	-.261 * *	.086	9.272	1	.002	.770
	Religion of the Commander	.985	1.008	.954	1	.329	2.678
Base Training Variable	Platoon Training	.686 *	.341	4.050	1	.044	1.985
† p<.1, *p<.05, **p<.01, ***p<.001						$R^2=.270$	

3. Analysis of change in religion according to qualitative research

In the earlier parts of the research, the change of religion during the military service was keenly looked at. This is like an individual, who had no religion, finding the necessity of a religion during the service and becoming a Christian or a Christian individual, losing the necessity of the religion during the service and deciding to be a non-religious person. In order to find out the reason behind such changes, personal interviews were carried out to figure out the factors that helped them make their decisions.

(1) Change from no-religion to Christianity

① Comfort

For the young men in their early 20's, the sudden change in environment and social status brings discomfort and chaos in their minds. In order to find a safe and comforting environment, many attend religious events. The Christian service especially managed to provide a comfort that was never experienced before. Soldier 'A' emphasizes this factor.

“After entering the army, curiosity lead me to church and after being placed in to the brigade, I began liking the church environment, especially because I could keep my guard down and stay relaxed” (Soldier 'A')

“In the Army Training Center, I chose church after attending a few religious events. Though I never went to church back in the society, church to me was fun and comforting” (Soldier 'B')

② Positive mind set

For the soldiers oppressed by the army life, the smallest incidents can lead to a negative emotion. If such negativity continues, it can affect self-esteem and can lead to difficulty in the army where confidence is an important requirement. However,

those with a positive mind find their peace more easily and carry out their service with more confidence and ease.

“During hard times, praying in the church often provides optimism. The reason I began going to church in the army is also because of this very reason” (Soldier ‘C’)

“I went to church from a very young age, but as I grew older, I lived more like an atheist. However, it was not the negative thought of religion not being my cup of tea that sustained me from going to church. In the beginning it was purely because I wanted to rest more. However, when I was highly stressed, going to church made me peaceful and optimistic and that is the reason I continued going” (Soldier ‘D’)

③ Bonding

Soldiers can choose a religion on their will, but often are influenced by the environment such as the company around. Especially, an invitation from a fellow soldier, or commander can become an important reason why one decides to attend a church.

“Back in society I had no religion and therefore I had nothing to do during the weekends. However, being in the army, provided me with an opportunity to go to church. The reason was because my fellow soldiers attended church and I liked singing the worship songs” (Soldier ‘E’)

“I started going to church after joining the army. The reason was because my commander recommended it, telling us it would be worthwhile. After attending church, I realized that this was better than spending my weekend in idleness and thus I continued attending church ever since” (Soldier ‘F’)

For soldiers, the bond between each other is very special. This emotion takes place to form a community. This is the reason why bonding plays an important role in helping soldiers attend religious activities. The two soldiers interviewed above prove that.

(2) Change from Christianity to no-religion

① There is no spiritual growth

The reason one continues going to church is being able to fulfill one’s spiritual

goals. In other words, one's faith keeps growing and therefore attending church every week becomes joyful. However, the soldiers attending military churches often stop in the middle because there is no spiritual growth to keep them going.

“When I first arrived at base, I went to church with my superior, however, even when I have been attending church for a while, there was no faith growing in me so I decided to stop attending” (Soldier ‘G’)

“Before entering the army, I attended church because of my parents. However, just like in society, faith did not grow in my time in the army as well. This is the reason I decided to stay non-religious” (Soldier ‘H’)

In order to grow spiritually, one must try in various ways but the church too should be able to provide a spiritual worship and group sessions that can nurture the faith of soldiers. Various programs could be one way to grab the attention of many new comers.

② Tasks that continue throughout the weekend

After being placed into a certain base, not all soldiers carry out similar task, there are certain positions that require to stay dedicated even during the weekend. In such situations, the soldiers naturally are unable to attend church and therefore turn to no-religious.

“When I first entered the army, I went to church at the training center and I really liked it, however, after being placed into my current base, I work as the cook and don't have the time to attend church” (Soldier ‘I’)

“During the early days of my service, I was able to attend church without a difficulty, but as my rank went up, I was asked to stand the weekend duty making me unable to attend church at all. I naturally became non-religious” (Soldier ‘J’)

Soldiers serving near the Korean borders, GOP, and DMZ along with those who

are continuously asked to stay on duty during the weekend find it very hard to maintain their faith. Even though churches try their best to make the worship time suitable, it is still a difficult task to cover all the soldiers. Even the ministers fail to pay attention to soldiers who miss out due to duty and therefore they naturally move away from the church.

③ Desire to rest

While some come to church seeking for rest, some decide not to come to church because they want to rest. Continuous training during the week makes soldiers want to spend personal time during the weekend and therefore stay in their bunkers to sleep and rest. As this resting habit keeps repeating, attending church on a Sunday morning becomes very difficult.

“When I was a kid, I went to church with my parents, however, beginning from middle school I decided not to go to church. Still, in the army I came back to church but skipping once or twice lead to almost not going and eventually I decided no-religion. The main reason probably is laziness. My desire to rest outweighs the desire to go to church” (Soldier ‘K’)

“When I first entered the army, I put down my religion as Christian because my parents are believers, however, as I began my military life, I decided that I like resting better and stopped going to church” (Soldier ‘L’)

Like seen above, many chose Christianity in the beginning but fall out due to various difficulties in the army. There are certain parts that can be approached with a effective strategy while there are parts that just needs to be accepted. However, just being able to look at the various factors and causes can be a help in setting the strategy towards the right direction.

IV. Conclusion

In this research, in order to response to the change in religion occurring in the army, 362 soldiers from the 1st engineering brigade were observed from July of 2014 to March of 2016 over four periods. The research periods were divided starting from when the soldier first arrived at the base to 6 months, covering the various ranks of the soldier. This was done in order to be able to observe the overall flow of the changes.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es in the past regarding new military mission strategies, but researches that directly studied the soldiers were not common. Kim(2016) with the longitudinal data provided by KEEP, came up with a military mission strategy suitable to today's society but did not provide a change in religion among the soldiers. Military mission works with a short time span of 21 months and requires an effective strategy capable of handling various situations. For this, the data was collected for 2 years and the factors that caused the changes were analyzed. Especially in this researc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es were combined. As quantitative research,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figure out what factors influence the change of religion while qualitative research was carried out through personal interviews with soldiers who maintained or changed their religion.

The result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those who maintained no-religion and Christianity were 157 and 99 respectively which is a high number. On the other hand, the change from no-religion to Christianity and from Christianity to no-religion was 17 and 19 which was comparatively low. The overall number of change in religion might be low, but this provides the number of soldiers open to conversion. There were 157 who decided to stay non-religious while 36 out of 362, roughly 10%, were open to change of religion, meaning that more effort and better strategy could lead to increase in number of change of religion.

Second, the analysis on the reason behind the change of religion is as follows. While comparing the group that maintained no-religion and the group that changed from no-religion to Christianity, the ratio of Christians in the base and the amount of training turned out to have high influences. High ratio of Christians leads to increase in number of no-religion to Christianity while hard training lead to maintaining no religion. Among the group that maintained no religion and Christianity, ratio of Christians and amount of despair turned to have influences. Soldiers with high amount of despair maintained Christianity and the high proportion of Christians in the base lead to the chances of maintaining Christianity. Lastly, in comparing the group that maintained Christianity and those who changed from Christianity to no-religion, self-esteem, ratio of Christians, and the amount of training seemed to have the most influence. High self-esteem and frequent training lead to increase in switch from Christianity to no-religion while high ratio of Christians leads to high maintenance as well.

Third, the influential factor in change of religion observed through qualitative study is as follows. The reason behind the change from no-religion to Christianity was the comfort, optimism, and bonding found through Christianity. While going through a major transition, the soldiers find peace of mind through Christianity and find refuge in it. Along with it, the positive mind set adds in more zeal to life. It was also observed that many attended church with subordinates and superiors, bringing the community together. Military is a community life and likewise, religion seemed to follow the flow of community. Among those who changed from Christianity to no-religion, their reason of change was lack of spiritual growth regardless of attending services, continuous duty throughout the weekend, and the desire to rest during the weekend.

With the following result, the proposed military mission strategy is as follows.

First, for the soldiers still open to change, military mission is a mandatory tool. Although the number of soldiers maintaining no-religion is very high, there are still 10% of soldiers who switch either to Christianity or no-religion and the military

missions should target this 10%. Of course a research that uses the data covering the entire military would be the best at coming up with an over-all strategy and utilizing a single brigade such as this research might face many limitation. However, even this amount of data and research, carried out for 2 years with active soldiers as subjects, can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military and the direction needed to be taken than having no data at all. Therefore, with these results, mission strategies need to be designed, aiming the soldiers open to change as fruits to be harvested.

Second, a strategy related to ratio of Christians in a base need to be set in the right direction. I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es, high ratio of Christians in the base leads to high maintenance of the religion among the soldiers as well. In qualitative research, it was observed that going to church with fellow soldiers lead to continuous attendance. The Sunshine Movement is one of such strategies where a soldier brings positive influences to his fellow soldiers. Utilizing and supporting such strategies can become the most effective strategy in the military where community life is the foundation. If such strategies do succeed, bases with good Christian soldiers can influence their comrades to change as well. On the other hand, bases with low number of Christian soldiers might face difficulties, but even if one individual is capable of carrying out strategies such as the Sunshine Movement, a meaningful result will definitely be produced.

Third, regarding the personal psychological state, a strategy dealing with self-esteem and despair need to be set. In this research, high self-esteem was an obstacle in maintaining faith while despair had positive input in maintaining faith. This can be acknowledged as a feature found in the young soldier's psychological factor while choosing a religion. Many research report a positive relation between psychological state and religion. According to a research by Suh, Chung, and Koo (2005: 1085-1086) on psychological state and spirituality, faith showed negative relation with anxiety, depression, and stress while showed passive relation with self-esteem. According to a research by Donahue and Benson(1995: 155) spirituality

lead to increase in self-esteem and lead to active social life preventing suicide and delinquency. However, in a research that states the negativity of religion (Hunsberger, Alisat, Pancer, & Pratt, 1996: 2015) it stated that religion leads to inability to adapt to society. In other words, like the research mentioned above, in order to escape from inability to adapt to society, soldiers with high self-esteem might choose not to maintain or select Christianity. Individuals with high self-esteem choosing no-religion might be a statement saying they adapt well to the society. Along with this, for individuals seeking for comfort and solution to despair, religious healing and comfort must be provided. Also, if through religious education and services, the emphasis on trusting God instead of raising one's self-esteem is made strong, many more soldiers will choose and maintain Christianity.

Fourth, a strategy to maintain and continuously provide peace and optimism is required.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it was observed that peace and comfort were one of the main reasons why soldiers chose Christianity. There can be peace found through the worship itself, and there can be peace found through the relationships made at church. Especially in the military, if the warm environment provided by superiors and the relaxing environment between superiors and subordinates are well maintained, then the number of soldiers choosing and maintaining Christianity will increase as well. Also, continuous religious education aiming for growth in optimism among the soldiers can also become a huge influence.

Fifth, a strategy regarding the decrease of Christianity through intensive training needs to be set. Training for soldier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s of being in the military. Through mock training, the soldiers are prepared for any situation that might bring threat to the country. However, the more intense the training becomes, it becomes more likely that the soldiers chose no-religion in order to rest during the weekend. The desire to rest among the soldiers observed in the qualitative research is related to this factor. Therefore, a military strategy targeting the soldiers tired from their training and desiring a weekend's rest need to be created. The training cannot be stopped or altered and therefore, by making the

weekend services more active or creative, grabbing the interest of the soldiers is required by moving the worship timing for the comfort of the soldiers, preparing a hot meal for them, providing a more relaxing worship environment and so on.

This research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First, to make the results of the research standard, there are shortcomings. The research subjects were not selected from the entire Korean military but from a single brigade representing a single base and single region and therefore cannot represent the military as a whole. However, to carry out a longitudinal study, the data was tracked down for 2 years and therefore, the quality of the research can be said to be high.

Second, there is limitation in analyzing the data obtained from qualitative research. An assistant research is required and a professional's feedback on the interview is required but this research was unable to do so.

Third, for further researches, with this research as the base, more data covering the military need to be collected. Kim (2016:332) discussed about collecting a nation-wide data of soldiers for the purpose of military mission strategy, however, collecting such large data requires large effort and time, but for an overall understanding and for an effective strategy, such procedure is required.

**“This article is neither published nor planned to be published
in any other journal.”**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Bibliography

- Donahue, M. J., & Benson, P.L. (1995). Religion and the well-being of adolescent. *Journal of Social Issue*. 51. 145-160.
- Gallup Korea Research Institute (2015). *The Religion of Koreans 1984-2014*. Seoul: Gallup Korea.
- Hansberger, B., Alisat, S., Pancer, S. M, & Pratt, M. (1996). Religious fundamentalism and religious doubts: Content, consciousness and complexity of thin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Psychology of Religion*. 6. 39-49.
- Kim, Seong Hun (2016). Strategy on Military Mission policy using longitudinal data.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48(2). 331-358.
- Kwon, Chang-mo & Kim Seong Hun (2014). Testing Effects of Vision Camp 3.0 for Healing Enlisted Soldiers Having Adjustment Difficulties. *The Quarterly journal of defense policy studies*, 105, 227-253.
- Kwon, Oh-Min (2011). *The military ministry for new-generation soldiers*. Doctoral Dissertation.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Lee, Seok-Woo (2010). Missiological Study on Military Mission in Religious Plural military Culture. *Mission and Theology*. 26. 141-179.
- 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 (2011). *The 40th Annual Report of 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 Seoul: MEAK.
- Morse, J. M., & Niehaus, L. (2009). *Mixed method design*. CA: Left Coast Press.
- Nam, Song-Hyun (2007). *Missional Analysis of Korean Soldiers Ministry through Vision 2020*. Doctoral Dissertation.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Oh, Deok-Kyo (2004). *A History of Soldiers Evangelization 50 years*. *Military Mission and Theology 1*. Seoul: MEAK.
- Suh, Kyung Hyun, Chung, Sung Jin, & Koo, Ji Hyun (2005). Spiritual Well-Being, Life Stress, Depression, and Self-Esteem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7(4), 1077-1095.

논문초록

군 장병의 군복무 중 종교변화와 군 선교전략에 대한 혼합연구

김성훈 (교신저자/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임세현 (고든 칼리지)

이 연구는 군대에서 일어나는 종교적 변화에 관한 전략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조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362명의 군인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조사 시점은 병사가 소속 부대로 전입 온 이등병시점과 6개월 단위로 일병, 상병, 병장 시점에 각각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군 생활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 변화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다. 그 동안 군선교 전략은 시대에 따라 정책적으로 적절히 진행되어왔지만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 조사하여 정책을 제시한 전략은 미비하였다. 특히 종교 변화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하는 지에 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2년 동안 병사를 추적하여 종교 변화를 일으킨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포함하는 혼합분석으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대다수는 무종교 또는 기독교를 유지하였다. 무종교에서 기독교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하는 것은 적었다. 둘째, 양적 연구에서는 무종교에서 기독교로의 변화에 중요한 요소가 각 부대의 기독교인 비율과 훈련의 양으로 밝혀졌다. 셋째, 질적 연구측면에서, 무종교에서 기독교로의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요인은 교회 내 유대관계와 위안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밝혀졌다.

주제어 : 군선교전략, 종교변화, 로지스틱 회귀분석, 혼합연구

**산업혁명의 변화에 따른 기독교교육
: 산업혁명과 주일학교운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Industrial Revolution & Christian Education
- Sunday School Movement -**

류은정 (Eun Jeong Ryu)**

Abstract

This study is to view the Sunday School Movement that has been affected by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beginning of the Sunday School Movement in Korea, and the context and method of the education that is in need in the field of the Sunday School of these days, where we are fac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study starts with looking into the books of Christian Education history, where it tells about the Sunday School movement that is related to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n the issues that the fields of Sunday Schools are having in this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the Sunday School Movement was to reform the phenomenon of absurdity that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had as a result, this study will define the needs of reformations which the Sunday School is having from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will put up a foundation for the Christian Education of the next generation.

Through the historical consideration, the Sunday School Movement of England in the 18th century had a meaning of social reform, and the Sunday School in the Korean church, which is the representative institute of Christian Education, should also have a meaning of social movement. So, this study will focus on viewing and groping the mission and tasks of the Sunday Schools, as a field of Christian Education in this kind of context. The Sunday School Movement will not remain just as an objective knowledge through the history, but it will assign meanings and motives to the future of the Christian Education by being reflected in the modern time contextual system and become a true

* 주일학교운동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 기독교교육의 대표기관인 교회학교와 주일학교를 혼용(混用)함을 일러둔다.

**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 학술연구교수(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5길 25-1 장로회신학대학교, gracecomes@naver.com

2018년 02월 13일 접수, 03월 20일 최종수정, 04월 03일 게재확정

history. This study will bring up a clue for it.

Key Words : Industrial Revolution, Sunday School Movement, church school, 4th Revolution, social movement

이 연구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1. 서론

인간의 삶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져 내려오고 역사가 된다. 인간의 삶을 보다 더 양질로 이루도록 도와주는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이 보다 더 인간답게 삶을 향유하도록 도와주고 하나님나라의 백성으로서 공고히 자리하며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기독교교육은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과거의 전통과 오늘의 기회와 미래의 가능성을 담지하고 하나님나라의 시민직과 제자직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기독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기록으로 남는 것을 넘어서서 현재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하고 미래를 위한 비전을 심어주는 만남의 자리가 된다면 새로운 기독교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지름길이 되어줄 것이다.

기독교교육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자리, 주일학교운동이라는 역사로 들어가고 그 역사적 획의 배경을 이끌고 있는 산업혁명을 들여다보며 한국의 주일학교운동과 흡사한 교육의 장면을 정리하려고 한다. 산업혁명, 주일학교운동, 한국의 초창기 주일학교운동의 역사를 오늘이라는 장면에서 만나며 새로이 다가오는 미래의 도전, 4차 산업혁명을 마주할 때 품어야 할 교회학교의 비전을 품고자 한다. 교회학교가 당면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삶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세대가 누리는 삶의 현장이고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하기 때문이다.

과거 18세기에 일어난 산업혁명과 오늘날 맞이하는 4차 산업혁명의 모습은 무엇이 다른가? 산업혁명의 결과로 일어난 주일학교운동이 한국의 교회학교운동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산업혁명의 변화에 따른 교회학교운동의 변화된 모습과 오늘날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교회학교의 모습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담지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따른 교회학교현장의 새로운 변모를 모색하는 것이

미래의 교회교육을 위한 새로운 전망을 위한 단서가 되어줄 것이다. 아울러 사회개혁 운동의 모판이 되었던 처음 주일학교운동이 시대에 따른 새로운 운동(movement)을 기획하는 발걸음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II. 주일학교운동의 태동과 발전

오늘날 교회학교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일학교(Sunday School)는 1780년 영국의 글루스터(Gloucester)에서 로버트 레익스(Robert Raikes)에 의해 시작되었고, 미국으로 건너가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세계적으로 전파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교회교육의 상징적인 모델로 정착하게 되었다(박상진, 2017: 160).

1. 주일학교운동의 시작

주일학교운동은 19세기의 시대적 주요 흐름이 되었던 산업혁명의 여파로 일어난 교육혁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당시에 새로운 교육운동(new education movement)과 그에 따른 사회개혁운동으로도 자리한 주일학교운동은 특별히 산업혁명과 연관하여 정리할 수 있다.

(1) 산업혁명과 주일학교 운동

산업혁명은 중세 말 이후 이루어졌던 소규모의 수공업 구조를 방적기나 방직기, 증기기관과 같은 기계의 도움으로 대량생산 구조로 전환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농업 중심의 경제가 공업 중심의 경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혁명은 실제로 신분과 직업의 부를 대물림하던 기존의 사회체제를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 농부가 농토를 버리고 도시로 와 공장의 노동자로 취직함으로써 이농현상과 대도시 중심의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의 변화는 신분이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결정 하였던 과거의 구조에서 개개인을 능력 중심으로 평가하는 능력 중심 사회로의 점진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고, 사회적 계층 간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

가 되었다(양금희, 2000: 399).

영국을 근대화시킨 공장제도는 크게 향상된 생산력과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거리를 메운 신흥 중산계급을 낳았다. 이 상향적 사회이동은 상류계급의 평형을 깨뜨렸다. 교육에 의해 지원받던 중산계급은 실용적인 사고 판단을 계속하면서도 사회계급의 사다리를 놓지 않고 머뭇거리면서 자리를 찾았다(Gangel & Benson, 1992: 287).

18세기 말은 영국뿐만 아니라 서구유럽에 산업혁명 직후 초기 자본주의 환경에서 오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규모의 이농현상과 부의 불균등한 분배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현상, 대도시 극빈계층의 교육복지 및 범죄의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그러한 환경 안에서 대도시의 어린이들은 고아로 버려지거나 무교육 상태로 방치되고 혹은 공장의 노동자로 기용되기도 하였다(양금희, 2000: 430).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18세기말에는 교회나 사회의 차원에서 어린이 복지운동이 다양하게 일어났다. 독일 경건주의 목사인 프랑케가 할레(Halle)에서 고아학교를 설립하고 후에 대규모의 종합학교로 발전하게 되었고, 영국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자선학교가 세워졌다. 로버트 레익스가 시작한 주일학교운동도 이와 같은 자선학교의 한 유형으로서 시작되었다. 평신도 언론인이었던 로버트 레익스는 교도소 선교를 통해 사회를 개혁하려는 노력을 하다가 ‘교육’을 통해서 사회의 악을 예방하고 사회개혁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신념으로 ‘주일학교’를 설립하였다. 주일에만 모인다고 하여 붙여진 ‘주일학교’(Sunday School)에는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어린이들이 와서 읽기와 쓰기를 배우고 성경, 요리문답을 함께 배웠다. 언론인이었던 레익스가 신문에 ‘주일학교’를 소개하면서 이 운동은 영국 전역에 알려지고 그 운동이 확산되었다. 주일학교는 이처럼 교회 밖에서 시작되어 점차 교회 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양금희, 2000: 431). 글루스터 주간지 1783년 11월 3일자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Lynn & Light, 1980: 24).

도시와 시골에 사는 농부들과 다른 주인들은 주간의 다른 어느 날보다도 주일에 재산피해를 더 입고 있다고 불평을 한다. 이것은 이날(주일), 모든 속박에서 해방된 무법(無法)의 젊은이들이 범하는 실로 막대한 양(量)의 손해인 것이다. 이 악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주 적절한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읽을 줄도 모르는 이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채용되었으며, 또한 읽을 줄 아는 어린이들이게는 교리문답을 가르치고 교회로 인도하기도 한다. 이 계획이 이미 채택되고 있는 교

구(敎區)에서는 어린이들의 품행이 크게 교화(敎化)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2) 주일학교운동의 확장

주일학교운동의 시작 10년 만에 영국 주요도시 36곳 중 26개 지역에서 주일학교가 세워졌고, 30여 년이 지난 1814년에는 모든 주요도시를 포함해서 전국에 140개의 주일학교가 세워졌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 중 창립자가 불분명한 20개의 학교와 도시 시민들이 세운 28개의 학교를 제외한 88개의 학교는 교회나 평신도 또는 신앙그룹을 통해 세워졌다는 것이다. 레익스로부터 시작된 주일학교가 당시 사회의 시급한 필요라는 것을 발견한 것은 대중들이었지만, 그것을 실제로 충족시킨 것은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품은 사람들이었다. 학교들 중에는 웨슬리의 복음주의의 영향 아래 자라난 장로교, 감리교 등을 통해 세워진 주일학교도 상당수에 이른다. 1803년에는 이런 다양한 배경으로 세워진 주일학교를 발전시키는 연합운동도 시작되었다. 이 연합운동은 아동과 젊은이의 종교적 가르침을 위해 교사들이 서로 격려하기 위하여, 서로의 가르침을 증진하기 위한 성숙한 대화를 위하여, 영향력과 개인적 노력을 통해 새로운 학교의 증설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였다. 이들의 노력과 영향 속에 주일학교는 급여제에서 자원제로 바뀌게 되었고, 수많은 교육받은 평신도들이 참여하기 시작하였다(백성우, 2008: 59).

이처럼 일종의 항의와 개혁운동으로 출발한 주일학교운동은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Little and Big School의 모습을 가진다(Gangel & Benson, 1992: 287). 주일학교는 미국 개신교의 훈련장이다. 비록 미국 흑인의 종교 경험과 문화에서 차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주일학교는 개신교인의 종교문제 측면에서는 커다란(Big) 학교이다. 대중교육과 비교하자면 주일학교는 미국 사회의 변두리에 자리함에도 불구하고 전 민족을 양육하는 측면에서는 귀중한 작은(Little) 학교이다. 주일학교는 미국의 크지만 작은 학교이다(Lynn & Wright, 1980: 15-16).

2. 교육운동으로서의 주일학교

산업혁명의 여파로 시골에서 도시의 공장으로 일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은 하루 종일 공장의 기계와 함께 지내야했고 그들의 자녀들도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흔한 일상이 되곤 했다. 아동노동법이 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값싼 노동력으로 많은 어린

이들이 공장에서 일하기 일쑤였다. 그나마 부모가 공장에 일하러가고 난 후 집에 있는 아이들은 거리로 나와 노숙인과 같은 생활을 하기가 십상이었던 그 시절, 아이들은 거의 부랑자 같은 생활로 비참하게 아동기를 보내야했다. 먹지도 못하고 공부할 기회, 배움의 시간을 누리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그 시절에 마냥 이렇게 두면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사회적인 변화, 교육변혁을 일으키는 힘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한 평신도, 로버트 레익스에 의하여 아이들이 모여지고 그 아이들을 가르칠 여자 교사가 등장하고 인간다운 인간으로 제대로 살아가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명감을 불태우며 배움터가 생겼는데, 이곳이 바로 주일학교 운동이 펼쳐진 지점이다(백성우, 2008: 57).

주일학교운동은 지역사회 안에 있는 평신도들이 의기투합하여 헌신한 결과로 일어난 운동이다. 영국에서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는 교육내용으로 시작하여 공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사회교육의 방법을 담아 이루어졌다면,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이루어진 주일학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학교교육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게 된다. 미국에서는 평신도들의 헌신과 특별히 주일학교교사들이 여성교사들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공적인 교회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려들지 않았다. 심지어 교회건물에서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후에 주일학교연합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비로소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서부개척시대에는 개척자들을 따라 고스란히 주일학교도 서부로 함께 움직였고 개척자들의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게 된다. 그리고 동부에서도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공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미국의 남부에 주로 많이 자리했던 흑인들을 위한 교육에 앞장서는 데 공헌하며 사회개혁의 원동력이 되는 복음교육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다.

주일학교운동의 선한 영향력을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전도의 역할을 수행한 모습이다. 영국에서 초창기에 주일학교운동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오지 않으면 교사들이 가가호호(家家戶戶)방문하면서 아이들을 배움의 자리, 학교로 출석하도록 권면하였고 때로는 강권하여서 부모들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했다고 한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한국의 교회학교 교사들이 반 아이들이 오지 않으면 전화심방하고 SNS를 활용하여 출석을 독려하는 모습을 통하여 엿볼 수 있다.

둘째는 성경공부를 제대로 하고 교리공부를 할 수 있는 배움터의 역할을 했다. 공식적인 교과서를 성경으로 두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공중도덕, 생활규범들을 가르치는 공

교육을 실시했다. 생활신앙의 훈련을 주일학교는 충실히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백성우, 2008: 58).

셋째는 평신도 지도력 훈련의 통로로 필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김동주, 330). 평신도들이 자원봉사의 형식으로 공휴의 마음을 안고 교사로서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했던 주일학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교육 지도력의 맥락을 이어가고 있음을 교회 교육 현장 속에서 잘 알 수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이러한 지도력을 기억하며 교육 목회를 책임지는 교역자가 자리할 수 없는 형편일 때 평신도 교회교육지도사 과정을 교사세미나의 형식으로 각 노회단위로 개최하고 있는 모습과 일맥상통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의 공헌점들을 가진 주일학교운동은 후일에 한국에 미국 선교사들이 건너오면서 그 자취를 이어가게 되었다.

넷째는 초기 주일학교운동은 가정과의 연계가 있었다. 주일학교에 나오는 어린이들에 의해 그 부모가 영향을 받아 종교적으로 훈련되었다. 정해진 시간에 어린이들이 주일학교에 출석하면서 그들이 차츰 읽기와 쓰기를 익히게 되자 아이들의 변화에 영향 받은 부모들에 의해 주일학교가 지지를 받게 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정웅섭, 1991: 33; 박상진, 2017: 162 재인용).

다섯째로 로버트 린과 엘리엇 라이트(Robert W. Lynn & Elliott Wright)는 『작지만 큰 학교: 주일학교 200년』에서 “주일학교는 비록 작지만 큰 학교”로서 그리고 주일학교가 죽은 학교이거나 죽어야 할 학교가 아니라 계승할만한 가치가 있는 학교임을 주장하고 있다(Lynn & Wright, 1980: 16). 초기의 주일학교는 당시의 영국의 시대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가장 심각한 고민에 응답하는 형태의 교육운동으로 자리했다. 당시 주일학교는 일종의 자선학교로서 노동과 가난에 시달리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무지를 일깨우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주일학교가 시작된 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은 1787년에 이미 25만 명의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등록할 정도로 이 운동은 확산되었다(정웅섭, 1991: 28; 박상진, 2017: 162 재인용). 영국 산업사회 속에서 학생들의 진정한 필요인 교육적 무지를 깨우치는 성격을 지닌 주일학교는 단지 오늘날의 교회교육처럼 교회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폐쇄적, 분리적 교육이 아니라 교회와 학교가 연계되는 교육이었다(박상진, 2017: 163).

이처럼 가정과 학교와 연계된 교육의 영향력은 당시 주일학교가 기독교교육의 영향력 있는 기관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고 후일 한국의 주일학교운동에

도 나타남을 III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III. 한국의 주일학교 운동 : 사회교육으로서의 주일학교

산업혁명 후 사회적 상황 속에서 영국의 주일학교가 시작되었듯이 한국의 주일학교 운동도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 속에서 시작되었고 영국의 주일학교와 마찬가지로 사회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움직이게 된다.

한국의 주일학교운동은 교육선교의 태동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초기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시작한 선교사역은 교육선교와 의료선교로 크게 두 가지 흐름을 가진다. 양반의 전유물이었던 교육, 여성들이 철저히 소외되어 있던 교육의 현장에 일대 개혁을 일으킨 교육선교사역 중 하나가 ‘주일학교 운동’이었다.

한국의 주일학교운동의 역사에 대하여 정리하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조선에서 주일학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888년으로부터 시작하여 일제로부터 한국이 해방되던 해(1945년)까지로 설정한다. 주일학교 자체의 변화에 따라 정리한 손원영(손원영, 158)에 따르면 제1기는 “신앙 교육적 주일학교와 사회 교육적 주일학교의 내적일치의 시기”(1888-1911)로, 제2기는 “사회 교육적 주일학교에서 신앙 교육적 주일학교로의 전환의 시기”(1912-1932)로, 그리고 제3기는 “조선적 주일학교의 형성의 시기”(1933-1945)로 구분된다. 여기에서는 본고의 연구목적에 따라 영국의 주일학교태동과 비견되는 한국의 ‘주일학교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 제1기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신앙 교육적 주일학교와 사회 교육적 주일학교의 내적 일치의 시기로 알려진 제1기는 한국에 주일학교가 들어와서 하나의 교육제도로써 자리를 잡기까지의 시기로, 주일학교의 성격이 신앙 교육적 측면과 사회 교육적 측면이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정도로 절묘하게 조화된 시기로 볼 수 있다. 교회교육의 특성 중 하나가 기독교학교교육과의 연계 속에서 시작된 사회 교육적 성격을 가지는데 주일학교가 교회학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스크랜튼(Mary F. Scranton)은 1886년 7명으로 이화학당을 시작하게 되고, 여기에 모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후에 일요일마다 성경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최초의 ‘주일학교’가 시작되었다. 처음에 입

학한 학생들은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이거나 혹은 거리를 배회하는 부랑인들이었다. 이들은 쓸모없는 자들로 취급되어 여학교에서 데려가지 않았더라면 종으로 팔려가거나 거지가 되거나 굶어죽었을 것이다. 그야말로 소외계층 중의 소외계층인 여성들이 이화학당의 학생들이 되었고 또 주일학교 교육의 대상이 되었다(손원영, 159). 이것은 이화학당 설립자 스크랜튼 부인이 언급한 교육목표에 잘 담겨져 있다(Paik, 1970: 127-28).

우리의 목표는 여아들을 우리 외국인의 생활, 의복 및 환경에 맞도록 변화케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한국인을 보다 나은 한국인으로 만드는 것으로 만족한다. 우리는 한국이 한국적인 것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게 되기를 희망한다.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통하여 완전무결한 한국인을 만들기를 희망한다.

이 시기의 주일학교는 ‘유년주일학교’로 불리워졌다. ‘유년주일학교’의 시작은 1900년 평양의 남산현 감리교회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노블목사의 부인이 ‘유년주일학교’라는 명칭 하에 5세로부터 15세까지의 아동을 모아다가 가르치기 시작한 바, 이것이 유년주일학교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의 아동 수는 200명, 교사는 20명이며, 공과는 통일공과를 사용하였다(정달빈, 1957: 52). 노블 부인(Nobel, 94)의 보고에 의하면, 두 명의 학생이 마태복음을 제외한 신약전체를 암송하였고, 3명의 소녀는 4000개의 요절을 외웠다. 그리고 1910년 노블 부인 친구들이 주일학교를 방문하였을 때 매우 활발한 유년주일학교에 감명을 받아 기금을 마련하여 교육건물을 지었는데, 이것이 한국최초의 주일학교 건물이다. 유년주일학교는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주일학교로서 후에 한국 주일학교의 대명사가 되었다(손원영, 162).

주일학교는 ‘이교도 주일학교’(Heathen Sunday School) 또는 ‘확장주일학교’(Extension Sunday School)의 형태로 존재했다. 이교도 주일학교는 1907년 전주지방에서 불신자 자녀들을 모아다가 가르친 것이 그 효시로 알려져 있다. 1915년경부터 이것은 ‘확장주일학교’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다. 이교도 주일학교는 광주지역 주일학교 운동 중 독특한 것으로서 선교를 목적으로 비신자 아동들의 전도를 목적으로 개설, 운영되었다(이운진, 101-118). 광주에서 스와인하트(Swinehart) 부부는 길거리 마을로 나가 더럽고 무지한 비기독교 집안 아이들을 모아서 노래 부르기, 요리문답, 성구암송, 초신자를 위한 교육을 했다(Preston, 110-113). 교회가 설립되지 않은 곳에 전도의 제 일진으로 앞장섰던 확장주일학교는 교회 청년들이 주로 주일 낮에는 자신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인근 촌락의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주일학교를 운영함으로써, 후에 이것이 기초가 되어 교회가 설립되었다. 결과적으로 주일학교 출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손원영, 163). 제중원의 의사였던 에비슨(Avison, 96)이 말한 것을 통해 이를 엿볼 수 있다.

교사 모두는 시작 전 약 30분 동안 나가서 길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
한 교사가 주일학교가 열리는 진료소에 있다가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다.
나중에 아이들을 가장 많이 데려온 소년과 소녀들에게 상을 준다.

당시에 비신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니만큼 이들이 지속적으로 주일학교에 출석하도록 교사들은 수업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자칫 지루하기 쉬운 교사의 언어에 의존하는 강의식 수업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와 발달단계에 맞도록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수업을 시도하였다. 또 주일학교 교사들은 긍정적 강화물이라 할 수 있는 그림카드, 성경책, 선물과 같은 ‘상장제도’를 학생전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근대적 학교제도가 완비되지 못한 열악한 당시의 교육상황에 비추어볼 때,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교사로 양성된 한국인들에게는 서구 근대 교육학을, 제도권 학교교육과는 거리가 먼 가난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서구식의 새로운 교육방식을 접할 수 있었던 ‘근대적’ 교육공간이라 볼 수 있다(이윤진, 116).

IV. 주일학교운동의 새로운 방향모색 : Welcome 4차 산업혁명

초창기 주일학교 운동은 산업혁명시대에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던 아동들을 대상으로 인간적인 삶의 기본으로부터 교양교육, 신앙교육까지 함께 이루어졌고, 그 주일학교 운동이 선교사들을 통하여 한국의 근대화교육의 모판이 되어주고 나아가 교육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개혁운동으로까지 나아갔다.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된 주일학교운동처럼 이제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한국의 기독교교육은 어떻게 새로워져야 하는지를 전망함에 있어서 주일학교로부터 시작하여 교회학교의 모습으로 자리하는 교회교육현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차 산업혁명시대에 교회가

당시 지역사회의 교육을 등한시켰을 때 일어난 주일학교운동은 오늘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교회가 새로운 교회교육의 기회를 간과하지 않고 시대의 교육과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임무를 되새겨줄 수 있을 것이다. 산업혁명의 내용과 방법들은 다른 모습이지만 산업혁명의 결과로 일어난 교육의 모습을 통찰하며 오늘날 시대적 상황에서 이루어야 하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귀한 단초가 될 것이다.

1. 산업혁명의 성격과 주일학교운동의 영향

한국에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점점 더 증가 추세라는 암울한 소식을 이제 익숙하게 듣고 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움츠러진 교회의 모습이 더 이상 낫설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인구절벽, 고령화, 학령기인구의 절대감소, 혼밥시대,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교육에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이 교회교육현장을 무겁게 휘감고 있는 시간 속에서 교육지도자들은 교회교육을 새롭게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무겁게 떠안고 있다.

새로운 상황은 새로운 의무를 부여한다는 말대로 우리는 새로운 시대상황에 발맞추어 새로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먼저 시대적 정황으로 4차 산업혁명에게 말을 건넨다. 산업혁명시대에 주일학교가 이루었던 사회교육의 모습, 한국초기주일학교운동이 시작되었을 때에 시도했던 사회교육적인 교육과정들과 내용들을 통해 오늘 교회학교가 현재의 상황 속에서 미래를 향한 비전을 교육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어떤 지침을 주고 있는지 보다 더 구체적인 숙고가 필요하다.

(1) 산업혁명의 변화 :

1차부터 4차까지 산업혁명을 크게 구분하면 1,2차 산업혁명은 물리적, 육체적 영역에서 산업변화이고, 3,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지적 영역에서 일어난 산업변화이다. 1차는 증기기관이 인간 근육에 의해 만들어지는 힘을 대신하기 시작하였고, 2차는 컨베이어벨트로 생산이 자동화되면서 노동집약적인 대단위의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였다. 3차는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정보와 지식을 소통, 전달, 이해하는 지적 영역에서의 큰 변화가 일어났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뇌가 하는 판단, 추론, 예측하는 일을 기계가

담당하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류지성, 2017: 110).

1차 산업혁명은 물과 증기기관을 이용하여 생산의 기계화를 이룩하였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로 생산의 기계화를 이룩하였고 3차 산업혁명은 전자공학과 정보공학으로 생산의 자율화를 가져다주었다. 4차 산업혁명은 사회의 전체적(holistic) 디지털화가 인류의 생활, 노동, 관계 등 모든 것을 송두리째 근본적으로 대체하고 있는 기술공학적 혁명이기 때문에 글로벌한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해석학적 디지털 이해능력을 인간들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산업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학문, 교육, 예술 등 사회생활전반을 디지털화하여 이로써 생활의 형태와 색깔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오인택 b, 2017: 417-420).

(2) 주일학교운동의 영향 : 19세기와 21세기의 만남

1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도시로 모여든 노동자들의 엄청난 증가는 자녀교육이 방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거리의 아이들로 전락하고 교육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던 아이들에게 교육의 소외현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준 주일학교운동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적 삶의 모습을 견지하고 교양지식을 갖추도록 격려해 주었다. 평신도 교사들의 헌신과 수교의 열정을 더하여 신앙교육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을 도모했던 흔적들이 쌓여서 주일학교운동으로 진일보하였다. 이러한 주일학교 운동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미국의 상황에 맞는 주일학교운동으로 변모하면서 한층 발전하여 선교사들에 의해 한국의 교육선교에 큰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사회개혁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사회의 변화를 안정적으로 도모하고 교육개혁의 현장으로 발돋움한 주일학교운동은 1차 산업혁명이후 지역교회가 미처 감당하지 못했던 역할을 이루어내었던 기독교교육사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움직임이었다.

이러한 19세기의 주일학교운동이 오늘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있는 21세기 한국 교회교육현장에 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처음 주일학교운동의 모습을 오늘 교회학교현장에서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여전히 교회학교는 평신도교사들의 헌신으로 힘을 내고 있다. 교회안의 주방봉사, 차량 안내 등의 3D봉사로 분류되는 교사로서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 교회학교현장의 모습을 주일마다 목도할 수 있다. 또한 19세기 산업혁명이후의 현장처럼 부모와 연계되는 교육

과정 가정과 지역사회의 학교와 연계하려고 노력한다. 자녀들이 주일학교에 가서 교육 받는 것으로 인하여 부모들도 삶의 격려를 받아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교육현장에서도 가정의 부모들과 연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의 목소리를 담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만 19세기의 주일학교운동에서는 빈민들의 자녀들이 주요대상이었다면 지금 한국의 교회학교현장에서는 보다 더 나은 다음 세대의 삶을 위한 양질의 신앙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는 모습이 있다. 1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자리하는 주일학교운동의 긍정적인 측면들이 지금 21세기,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교회학교 현장에도 여전히 숨쉬고 있다.

구한말, 개화기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처음 시작한 교육선교의 큰 모판이 되어 준 주일학교운동은 당시 교육의 소외계층이었던 여성들을 위한 교육, 가난과 무지몽매한 삶으로 내몰렸던 계층의 계몽을 위한 교육, 나아가 확장된 사회개혁을 위한 움직임의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이러한 교육운동의 역동성은 고스란히 한국의 교회교육현장의 큰 기둥이 되어주었다면 이제 21세기의 한국의 기독교교육의 큰 현장이 되고 있는 교회교육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1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처한 교육의 대상자들, 학습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배려한 교육운동이 주일학교운동이었다면, 지금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교회학교현장이 대면하고 있는 교육장면이 나타난다. 4차 산업혁명의 움직임에서 소외되어진 사각지대에 처한 학습자들, 노인들, 다문화가족들을 비롯한 소외계층들이 분명히 자리한다. 이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며 나아가 새로운 교육의 대상 함께 해야 하는 교육의 대상 학습자들을 교육의 장으로 초대해야한다. 다문화가족들, 노인들과 더불어 교회가 자리하는 지역사회를 마을교육공동체로 거듭나도록 교회교육이 손을 내밀어주어야 한다. 급박한 현실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지대에서 배제되어지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는 교육공동체의 움직임이 보다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

2. 4차 산업혁명과 교회학교의 변화

21세기에 들어서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수준은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상황과 대상에 따른 전략적인 전도의 필요성과 섬김의 태도와 영성이 생활 속에서 실천

되어야 함을 절감케하고 열정적인 신앙과 교양을 갖춘 신앙인으로서의 양육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임성빈, 443-44). 시대의 사조에 따른 교육적 책무와 더불어 섬김의 태도, 생활 속 영성, 열정적인 신앙과 교양을 갖춘 신앙인으로서의 양육과 사회적 섬김을 강화하는 것이 대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게 될 것이다. 시대의 사조로 부각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회학교의 변화를 통하여 이를 통찰하고자 한다.

이제 점점 더 고도로 지능화되는 4차 산업혁명의 내용들이 성큼성큼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저 무방비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며 4차 산업혁명의 내용들을 좀 더 세밀하고 엄격하게 분석하는 성경적 세계관의 틀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표적인 기독교교육기관으로 자리하는 교회학교는 보다 더 기민하고 섬세하게 대처해야 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의 도구나 방법은 변한다고 할지라도, 교육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교육은 성경적 중심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기술과 문화가 디지털로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의 육체적 본질이 디지털화되는 것은 아니다. 감각의 확장과 소통이 디지털로 바뀐 것일 뿐, 인간은 여전히 어린 아이로 태어나서 원자로 된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들여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사람으로서 가치를 한다. 집을 멀리 떠난 나그네가 고향을 그리워하듯, 소통이 극대화되고 관계가 넓어질수록 사람은 본질적인 것을 갈망하고 되돌아오려고 한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문화도 다음세대의 특징을 잘 이해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고, 관계형성을 통한 통전적인 영향력이 필요하고 다음세대의 영적 탐구에 대한 응답을 해주고 스마트 미디어를 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를 형성해야 한다(정기목, 2017). 이를 위하여 디지털 네이티브들을 만나며, 4차산업혁명의 새로운 시대적 도전과 이에 대한 응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회학교현장을 돌아보고 주일학교운동의 새로운 시대에 따른 새로운 운동을 정리하기로 한다.

(1) 디지털 네이티브의 등장

지금 현재 교회학교 안에 자리하는 다음세대들은 이른바 디지털을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디지털 네이티브’이다. 개인용 컴퓨터, 휴대전화, 인터넷, MP3와 같은 디지털 환경을 태어나면서부터 생활처럼 사용하는 디지털 네이티브는 교회학교 현장에서도 새

로운 변화를 요구한다(이병훈, 2016: 21).

디지털 네이티브를 위하여 보다 활발한 미디어, SNS의 사용을 넘어서서 디지털화된 교육기자재를 준비하고 이를 다룰 수 있는 공교함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인간을 존중하고 나와 다른 한 사람에 대한 공감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온유하고 겸허한 하나님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교육하는 장을 열어주어야 한다. 우리 삶의 현장을 한번 들여다보자면, 실컷 디지털 휴대폰으로 열심히 통화하고 나서 마지막에 꼭 하는 말이 있다. “아 그래,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디지털을 열심히 만지작거리고 있으면서 아날로그로 회귀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다음세대의 모습도 인지해야 한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계화되어지는 세상을 헤엄치는 성도들이 보다 더 영적인 기민함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자신의 그리스도인 됨을 자신 있게 표명하며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나라 시민,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손을 힘있게 내밀어주는 영성훈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한국의 주일학교운동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학생 한명 한명의 이름을 부르며 가가호호 방문하며 손잡고 교회로 이끌었던 평신도교육지도자들, 교사들의 깊은 헌신과 열정을 과거의 자리에서 오늘의 자리로 불러내고 미래를 위한 비전을 새로이 붙들고 소명의식의 떨기나무로 사명의 불꽃을 안고 들어가야 한다.

(2)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현실과 교회학교의 새로운 과제

4차 산업혁명은 특별히 교육계에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마당을 열어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경제와 사회의 가치창조자로서 인간의 중심적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으며, 교육에서 개인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교육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개인의 자아개발역량이 중요해졌다. E학습, blended learning, 학습플랫폼과 같은 디지털 학습을 넘어서서 디지털화되고 있는 교육전체를 새롭게 생각하는 것, 새로운 교육의 형식과 제도를 여는 것, 여기서 빚어지는 다양한 의미들로 새로운 삶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대의 도전이다(오인택, 2017: 429)

이러한 시대적 도전 앞에서 한국의 주일학교, 교회학교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영적 역량을 양육하기에 힘써야 하는 교회학교 본연의 사명을 되새겨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

의 창조 질서 안에서 빛어진 피조세계들의 신비로운 법칙과 규범들을 발견하고 발명하며 하나님의 의도하신 천지창조의 질서들을 겸허하게 소개하고 안내하는 창조적 책임(creative responsibility)을 가지는 존재이다. 4차 산업혁명의 요란한 울림 가운데서도 인간은 이러한 창조적 책임을 수행하는 능력을 교회교육을 통해서 양육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타고난 본연의 공감(empathy)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생득적인 공감력을 아름답고 씩씩하게 가꾸고 일구어갈 수 있도록 말씀교육과 기도훈련을 통하여 영적역량기반을 강화하여 4차 산업혁명의 기계적이고 논리적인 울림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간의 창조적인 책임감과 공감의 능력은 청지기 정신(stewardship)을 함양하는 모판이 된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다른 피조세계를 돌아보고 챙겨주어야 하는 책임이 청지기 정신이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잘 다스리고 가꾸며 돌보아 주어야 하는 청지기의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몫이다.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강점을 최대한 선용(善用)하고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간고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관점, 하나님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의 문명과 지식을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특별히 공감과 소통의 교육이 더 정밀하게 요구되어질 것이다. 심방을 회피한다고 하는 교인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좀 더 정교화된 목회적 돌봄을 요구하고 있다. 시대적 필요에 따라 마을목회의 개념도 부각되고 있는 이때에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되어지는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교회도 한걸음 내디뎌야하는 시대적 소명을 필연적으로 떠안고 있음을 인정해야만 한다. 복음의 역동성을 증명하는 모습을 오늘 세상은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기독교교육의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교회교육, 주일학교 교육은 이제 새로운 운동(movement)을 시도해볼직하다.

3. 주일학교 운동의 새로운 움직임 : New Movement

이미 일반교육현장에서는 2017년과 2018년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미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고 학부모들에게 지침서를 배부하고 코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집밖에서 집안의 전자제품을 조정하며 다루고 냉장고를 향

해 말하면 문이 열리고 스스로 요리까지 해주는 시스템이 제공되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3D프린터 등의 용어가 낯설지 않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런 삶의 환경 속에서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움직여야 하는 새로운 방향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전망할 필요가 있다.

(1) 변화하는 교사의 역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결과로 빚어지는 교육혁명은 가장 먼저 교사의 역할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상호연결, 대화와 협력으로 교수학습활동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교사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 학생은 스스로 자신의 관심과 학습속도에 따라서 학습한다. 교사는 학습의 동반자요 협력자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학습자중심의 학습문화는 함께 문제를 토론하며 지식의 세계를 ‘전체적으로’ 모험하는 디지털 학습의 습관을 형성하고 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학습자의 개별화, 차별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오인택, 2017: 437).

이러한 교사의 역할변화는 교회학교 현장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성경지식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읽은 성경말씀’ 속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교사 자신이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단순한 성경지식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 내용을 넘어서서 성경 말씀 속에서 만난 삼위일체 하나님을 학생들과 나누며 학생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나누며 함께 하는 성경공부방법이 좀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디지털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3D프린터를 이용하여 성경 시대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타임머신 성경공부방법을 기획해 볼 수 있다. 성경 속 인물들을 교수학습활동을 통하여 인공지능을 통하여 만들어내어 대화하며 성경말씀을 만날 수 있는 가상환경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말하고 학생은 청중이 되어 일방적으로 듣기만 강요당하는 현실세계를 이제 벗어나 함께 토론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관리하며 가상의 세계로 들어가 성경을 체험하는 테마 현장학습장을 교수(教授)자와 학습자,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가꿀 수 있는 교회학교 현장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교회학교교사들을 위한 강습회, 교사대학을 비롯한 교육지도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새로운 내용으로 거듭나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교회학교’ ‘4차 산업혁명과 교회 선생님’ ‘4차 산업혁명과 학부모’ ‘4차 산업혁명과 기질’ 등의 주제를 담은 교회학교의 계획이 새로이 기획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3040세대’ ‘4차 산업혁명과 청소년’ ‘생애주기와 4차 산업혁명’ 등 각 발달단계별로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이 자리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사의 변화된 역할, 나아가서 가르치는 교육지도자로서 학부모와도 관련된 교육과정(curriculum)이 계획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1차 산업혁명당시 헌신한 교사들의 위대한 힘과 같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는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한 교사들의 헌신을 새롭게 평가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 시대의 변화를 맞이하며 새로운 교수방법을 모색하며 신앙교육의 본질을 보다 더 강도 있게 세우는 영적역량의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가 필요한 4차 산업혁명시대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속에 교회는 자신이 자리한 지역사회, 마을공동체를 교육공동체로 세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과거 1차 산업혁명당시 지역교회가 마을공동체를 위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주일학교운동이 일어나서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했듯이 오늘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시대에는 교회가 그 자신이 자리매김하는 지역사회, 마을과 함께 연계하는 교육 목회적 안목을 키우고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하여 사적신앙뿐만 아니라 공적신앙을 함양하는 교회학교의 교육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강영택, 2016: 153).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사립과 공동체에 대한 필요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깊이 갈구하게 만들 것이다(설은주, 2017: 316). 하나님나라 백성 공동체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공동체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며 지역사회를 교육을 모판으로 하는 마을교육공동체로 세우기 위해 힘써야 한다. 1차 산업혁명시대에 주일학교운동이 더욱더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교양교육이 포함되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교회학교가 마을교육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속의 시민으로서 기본역량을 배우는 학습장으로서 교회와 지역사회를 선한 의도와 목적으로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다.

도시환경에서 마을 교육공동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관점을 진정성과 지속가능성의 특징을 담지하면서 세워야 한다. 공동체라는 관점에서는 특정인이 우월한 위치를 점하지 않고, 주종의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교회도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 중 하나라는 생각으로 다른 구성원들을 존중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교회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서 사람들을 존중하며 이들과 협력하고 연대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을 단순히 전도대상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 관심을 가지고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며 삶의 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는 진정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운동을 당장의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여기고 이 운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슈자체를 공익성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 해야 지속가능성이 있다. 단기간의 이익보다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한 이슈를 선정해야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마을 교육공동체 활동으로 진일보 하게 하게 될 것이다(정재영, 2018).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교회학교의 교육은 이 땅 위에서 시민으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나라의 시민직을 감당하는 제자직의 수행을 위해서도 힘 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향하며 세상 속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면서도 지역사회 주민들, 마을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 안에서 고결한 인격으로 빛나는 도덕의식으로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헌신하고 섬기는 한 사람을 키워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삶의 스타일을 형성하는 공동체의 힘을 지니고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하여 참여 속 행동과 반성적 숙고를 통하여 지역사회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움직임 가져야 한다. 세대 간의 연결을 강화시키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능력, 미래의 비전(vision)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 자연스러운 사회화의 장으로 부모세대들, 성인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다(설은주, 2017: 326). 이러한 일련의 노력으로 교회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한 아이를 교육하는 필요한 마을전체를 일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제자직교육과 시민직교육을 중요한 사명으로 삼는 교회 교육은 성경과 교리교육을 통해 신앙교육을 시키는 동시에 사회에서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신앙의 바른 실천을 교육해야 한다(박상진외, 2016: 182). 사회에서의 중요한 이

슈는 오늘 교회학교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모습이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이슈들에 대하여 교육함으로 4차 산업혁명의 파도를 지혜롭게 탈 수 있도록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삶의 모습과 시대의 도전에 대한 응전을 교육해야 한다.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와 마을과 지역을 있는 교육생태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를 섬기는 복지활동을 통한 복지생태계, 교회학교와 마을 도서관, 지역아동센터를 있는 학습생태계, 셋째 교회의 성서교육과 함께 지역의 인문학 교육과 시민교육을 함께 하는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생명망(life-network)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목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교육현장이 지역사회가 서로 소통하고 함께하고 지역을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플랫폼(platform)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플랫폼은 인터넷에서 다양한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온라인 공간을 가리키는 용어이며, 연결기능으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만나는 거점으로서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며 상호성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 플랫폼은 지역교회의 교육현장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와 다양한 방식에서 관계와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며, 공교육, 농업, 마을주민과의 화해, 소외 노인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며 필요성에 부응하는 다양한 활동을 격려한다(한국일, 2018: 94-95).

(3) 4차 산업혁명시대와 고령화시대

한국사회는 이제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위기에 당면하고 있다. 지역교회의 오후예배시간에 아이들, 젊은이들보다는 노인세대의 성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쉽게 목도할 수 있다. 교회 밖에서는 4차 산업혁명, 교육혁명시대가 도래했음을 요란한 소동 속에 알리고 있지만 교회 안은 여전히 그와 상관없는 분위기로 일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교회 안 노인세대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와 무관한 세대로 자리하며 나아가 소외된 사각지대에 처해 있어야 하는 것일까? 지금까지 기도하며 다음 세대의 자녀들과 손자손녀들을 위하여 힘쓰고 애써왔던 저들의 신앙의 자취들, 삶의 흔적들은 그냥 자리지킴만 하는 채로 지나가야 하는 것인가? 남은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기며 교회 안 구석으로 내몰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아야 한다. 노인세대들도 분명히 교육목회의 대상으로堂堂하게 자리매김해야한다. 이들을 위

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교회학교가 성인교육의 한 영역으로 나서야 하는 교육운동의 새로운 모습을 기획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세월이 있기까지 믿음의 삶으로 수고한 그들의 인생을 존중해주는 디지털 교육을 개발해야 한다. 컴퓨터에 관심 있는 노인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 센터에서 실시하는 노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컴퓨터교육과정으로 연결해줄 수 있으며, 가장 손쉽게는 스마트폰사용법을 효율적으로 안내하면서 SNS를 통한 가족들 간의 소통을 지켜낼 수 있는 역량을 기반으로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역전학습(Flipped Learning)을 통한 성서학당”을 운영할 수 있다. 성경공부를 하기 원하는 노인세대들이 함께 모여 성경 공부반 지도자의 안내에 따라 성경의 내용을 미리 동영상으로 시청하고 와서 성경공부에 임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노인들이 시청할 수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미리 지정하여 공지하고 가정에서 시청한 후 소감을 함께 모였을 때 발표한다. 드라마를 비롯하여 노인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들과 인문학적 내용을 담은 Talk Show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청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고 생각한 바를 정리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누는 것은 노인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가족들과 함께 인증샷을 통하여 공감과 소통을 훈련하는 장을 열어감으로 장년성경공부를 넘어서는 노인 교회학교, 노인주일학교운동을 새로운 모습을 시도할 수 있다.

노인세대만 따로 떨어져서 가르침과 배움이 이루어지는 교육공간도 있어야 하지만 이보다 더 시급하게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교육장면이 있다. 격대교육, 조손(祖孫)간에 이루어지는 교육현장을 들여다볼 수 있다. 부모세대가 일터로 나간 사이에 손주를 돌아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세대들의 모습이 적지 않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주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위한 교회의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디모데와 외조모 로이스의 모습을 떠올리며 ‘디모데-로이스’교육을 제안한다. 기획되어져 나온 교재들이 벌써 자리하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 속에서 좀더 디지털화된 움직임으로 나아가야 한다. 로봇을 좋아하는 손자들과 아날로그적인 놀이움직임에 더 익숙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을 모두 배려한 교회놀이터를 조성해주고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는 할머니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아빠를 키우는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등 신앙의 역사들을 엮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과 공간을 정돈해준다면 디지털시대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는 미디어의 위력 앞에서 아날로그의 대력(大力)을 누릴 수도 있다. 아이들이 놀이하는 공간속에 디지털화된 놀이현장들안

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함께 할 때 공감하며 소통하는 능력과 기술을 의외로 더 많이 함양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자손녀들이 열심히 집중하며 몰두하는 디지털 놀이터를 바라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세대들은 그저 기특하고 예쁘고 신기해하면서 자연스럽게 디지털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된다.

노인세대들을 더 이상 교회안의 소외된 사각지대로 몰아내지 않고 이들을 당당한 교회학교의 구성원, 학습자로 세워드리고 계속해서 공부하는 성인학습자로 예우하며 디지털의 엄청난 위력과 속도 앞에서 갖추어야 할 인간의 존엄과 권위를 배우는 통로로 삼아야 한다(임애경, 2016: 128).

V. 결론

기독교교육사에서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주일학교운동은 오늘 기독교교육의 대표기관이며 현장으로 자리하면서 역사화에 머물지 않고 과거의 객관적 사실을 기록하는 차원이 아니라 끊임없이 되물어보고 성찰하며 기독교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며 새로운 역사를 이끌고 있다. 맨 처음 일어난 산업혁명의 여파로 자리한 주일학교운동을 성찰하고 특별히 한국의 초창기 기독교교육운동을 돌아보며 오늘 현재 교회교육현장이 맞닥뜨리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크나큰 파장을 대비하는 미래의 교회교육현장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발걸음을 내디더보았다. 초창기 주일학교운동의 저력이 되었던 역사적 의식, 정열, 진실된 마음으로 행한 헌신과 열정을 담지하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거대한 시대적 도전 앞에서 더욱더 강력한 영성을 품고 교회교육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대적 상황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호기(好機)로 삼아 역량기반을 향상시켜 재도약하는 모습을 보일 기독교교육의 사명을 되새길 수 있다. 기독교교육은 일반교육과는 달리 영적 역량기반이 우선시된다. 영적 역량기반을 세우기 위하여 영성훈련과 더불어 시민직을 감당하는 세상 속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하여 공동체성과 개체성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민주시민교육도 담아내는 교회교육과정도 요구된다. 나아가 교회교육의 원심력과 구심력을 공교하게 이루어야 한다. 교회교육의 대상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으로 모여들어 열심히 성경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며 영성훈련으로 각성하는 것도 필

요한 동시에 교회 밖으로 나가서 이루어야 하는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역량기반을 조성해주는 원심력의 사역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루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주일마다 이루어지는 교회학교에서의 작은(Little) 움직임이 거대한(Big)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삶으로 복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교육이전에 영성을, 기술이전에 기도로 삶의 전 영역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교육공간을 상상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육이 교육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가 세상을 스펙을 능히 이겨내는 복음적 영성과 성경적 신비를 회복하는 건강한 교육의 결과가 숨 쉬고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교회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영택 (2016). 미래세대 교육을 위한 교회와 지역사회의 연계. 박상진(편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교육 생태계(pp. 148-183)**.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Kang, Y. T. (2016). Uniting Church and Local Community for Next Generation Education. *Christian Educational Ecosystem* edited by Park, S. J. Seoul: Yeyoung Communication.]
- 김동주 (2008). 주일학교 운동의 아버지, 로버트 레이크스의 사역에 대한 역사적 고찰, **기독교교육정보논총**, vol.20, 315-341.
- [Kim, D. J. (2008). The Father of Sundayschool Movement, Robert Raikes' ministry.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onology*, 20, 315-341.]
- 류지성 (2017). 제4차산업혁명시대, 교육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신학논총**, vol 16, 107-138.
- [Ryu, J. S. (2017). 4th Industrial Revolution, How to do in Educational Renovation? *Korean Theology*, 16, 107-138.]
- 박상진 (2017). **기독교교육과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 [Park, S. J.(2017). *New Paradigm of Christian Education Curriculum*. Seoul: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Press.]
- 백성우 (2008). 산업혁명 시대에 밝혀진 빛 주일학교 운동, 그 첫 100년의 부흥 (1780-1880). **교육교회**, Vol.369, 55-60.
- [Baik, S. W. (2008). Sunday School Movement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Era (1790-1880). *Education Church*, 369, 55-60.]
- 설은주 (2017).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도의 교동이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 김도일 (편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목회(pp.283-314)**. 서울: 도서출판 기독교.
- [Seol, E. J. (2017). Koinonia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Educational Ministry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edited by Kim, D. I. Seoul: Press KidokHankyo.]
- 손원영 (2008). 한국초기 주일학교의 특성에 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Vol 18, 153-178.
- [Sohn, W. Y. (2008). The Study of the properties in the earlier Korean Sunday School. *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18, 153-178.]
- 양금희 (2000). **근대기독교교육사상**.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Yang, K. H. (2000). *Christian education thoughts in modern time*. Seoul: Korean

- Presbyterian Press.]
- 오인탁 (2017a). **우리 교육의 잃어버린 차원들**. 서울: 학지사.
- [Oh, I. T.(2017a). *The Lost Dimension of Our Pedagogy*. Seoul: HakJiSa.]
- 오인탁 (2017b). 4차 산업혁명과 교육의 과제. **기독교교육논총**, 52(30): 417-445.
- [Oh, I. T. (2017b). 4th Industrial Revolution & the task of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2(30), 417-445.]
- 이병훈 교육연구소 (2016). **트렌드 에듀 2016**. 서울: 다산에듀.
- [Lee, B. H. Education Institution, (2016). *Trend Edu 2016*. Seoul: DasanEdu.]
- 이윤진 (2008). 1910년대 개신교 주일학교의 교육활동. **한국교육사학**, 30(2), 101-118.
- [Lee, Y. J. (2008). Educational Activity in the 1910's Korean Sunday School. *Korean history of education*, 30, 101-118.]
- 임성빈 (2017). **21세기 한국사회와 공공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 [Yim, S. B.(2017). *21C Korean Society & Public Theology*. Seoul: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Press.]
- 임애경 (2016). 초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교육. 김도일(편저). **교회교육현장으로 나아가다(pp. 123-150)**. 서울: 동연.
- [Im, A. K.(2016). Aging Senior Education preparing for a super-aged society. *Toward Church Education Field* edited by Kim, D. I. Seoul: DongYeon.]
- 정기목 (2017).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시대의 선교. **장로회신학대학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연구지원처.
- [Jeong, K. M.(2017). 4th Industrial Revolution & Mission in AI era. Presbyteria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International Conference, Seoul: PUTS Research Support.]
- 정달빈 (1957). **주일학교지도법**. 서울: 기독교서회.
- [Jeong, D. B. (1057). *Sunday School Teaching Method*.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정용섭 (1991). **현대기독교교육의 과제와 방법**. 서울: 기독교서회.
- [Jeong, W. S. (1991). *Task & Method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Modern Era*.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정재영 (2018). 교회가 마을공동체에 참여하려면. **데일리굿뉴스**, 3월6일.
- [Jeong, J. Y. (2018). The Participation of Church in Local Community. *Daily Good News*, March. 6]
- 한국일 (2018). 선교적 교회로서 지역교회의 역할 연구. **선교와 신학**, 44: 71-107,

- [Han, K. I. (2018). The Role of Local Church as Missional Church. *Mission & Theology*, 44, 71-107.]
- Gangel Kenneth O. & Benson, Warren S . *Christian Education Its History and Philosophy*. 유재덕 역. (1992). **기독교교육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Avison Oliver R (1913). A New Sunday School in Seoul, *Korea Mission Field*, April.
- Lynn Robert W. and Elliott Wright. (1980). *The Big Little School*. Birmingham: Religious Education Press.
- Noble, W. A. (1929). Some personal reminiscences of 35 years of Sunday School Work in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May.
- Paik, L. G. (1970).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in Korea 1832-1910*.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 Preston, J. F. (1919). The extension Sunday school, *The Korea Mission Field*. April.

논문초록

산업혁명의 변화에 따른 기독교교육 : 산업혁명과 주일학교운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류은정 (장로회신학대학교)

본 연구는 산업혁명시대에 자리한 주일학교운동을 고찰하고 한국의 주일학교운동의 시작과 관련된 일련의 움직임들을 정리하며 오늘 4차 산업혁명을 마주하는 교회학교, 주일학교현장에 필요한 교육의 방법과 내용을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독교교육의 역사를 정리한 문헌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일학교운동의 움직임을 18세기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오늘 교회교육현장이 당면하고 있는 제 문제들을 정리한다. 그리고 1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나타난 사회적 부조리 현상들을 개혁하기 위해 자리한 주일학교운동처럼 오늘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 교회교육의 개혁을 정의하며,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모판을 세우고자 한다.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18세기 영국의 주일학교 운동이 사회개혁의 의미를 담고 있듯이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기독교교육기관인 주일학교운동도 사회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정리한다. 그리고 오늘 시대적 상황에서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기독교교육의 현장으로서 이루어가야 하는 교육적 사명과 과제를 새롭게 전망하고 그 방향을 모색한다. 주일학교운동이 기독교교육의 역사 안에 객관적 지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기독교교육생태계로 등장하여 교육의 미래를 향하여 의미와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교육의 역사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하나의 단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산업혁명, 주일학교운동, 교회학교, 4차 산업혁명, 사회운동

아름다움과 안식: 예술의 역할에 대한 신학적 고찰

Beauty and Sabbath : A Theological Study on the Role of the Arts

서나영 (Na Young Seo)*

Abstract

This study argues that the need of beauty for human is ultimately fulfilled by God in the form of peace here on earth and ultimately heaven. It specifically suggests that memorializing God's creation of the Sabbath builds the foundation of aesthetic theory. Sabbath was given to humanity before the fall of humanity into sin (Gen 1) and as a commandment (Exod 20, Deut 5) that preceded the entry into the Promised Land; it is a sign of the delights awaiting believers in the new heavens and earth. In the keeping of the Sabbath, therefore, believers celebrate the fact that God's works of creation and redemption are finished.

As an aspect of Sabbath, beauty has the analogous meaning of foreshowing the glory of God as a break from the tyranny of this world. The experience of both the Sabbath and beauty are future-directed and lead one beyond his or herself to the transcendent and the eschatological. Christians contemplate the complex beauty of his works and are refreshed in communion with him, and they delight in the splendor of God's beauty as they anticipate eternity spent with him.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refore, is to provide a right understanding of beauty and the arts through an observance of the Sabbath. For this reason, a theology of Sabbath is observed in the first part. For the following part, a biblical and theological examination of beauty and art, its essence, and the roles in this world as a facet of the Sabbath is given.

Key Words : theology of beauty, the Sabbath, Christianity and the arts, creation and the arts, transcendence of art

이 논문은 기독교학문연구회 2018 춘계학술대회(2018. 5. 26) 공연예술분과에서 발표된 “아름다움과 안식: 예술의 역할에 대한 신학적 고찰”을 수정, 보완한 것임.

* 남침례신학대학원 기독교 예술학 박사(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2825 Lexington Rd. Louisville, KY, ghjmom@gmail.com

2018년 06월 05일 접수, 06월 25일 최종수정, 06월 26일 게재확정

1. 서론

성경은 예술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며, 인간에게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느끼며 예술을 창조하고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말한다.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보기에 좋았고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찬란함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함으로 이를 바라본다. 그러나 현 시대는 도덕적으로 미학적으로 길을 잃은 듯하다. 현대의 예술이 더 이상 아름다움과 미적가치를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리 낯선 일이 아니다. 예술이 이상시 되고, 도덕과 상관없이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로 여겨지며, 아름다움을 의도적으로 멀리한 추한 형태에 미적 기준과 가치를 두는 이 세상의 예술적 흐름은, 기독교의 윤리와 아름다움의 의미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모더니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러한 ‘예술을 위한 예술(art for art’s sake)’¹⁾의 흐름은 4차 산업혁명 시대²⁾를 맞으며 그 가치와 기준을 정의하기에도 벅찰 만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시작되며 인간의 자율이 예술의 모든 것이 되었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미술, 음악, 비디오 등 엔터테인먼트와 문화콘텐츠를 창작하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제는 실제로 인간의 창의력을 뛰어넘은 인공지능과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³⁾이 인간의 마음을

1) ‘예술을 위한 예술’은 19세기 초반부터 시작된 프랑스어 슬로건인 ‘l’pour l’art’를 표현한 것이며, 그 어떤 교훈적, 도덕적 또는 공리주의적 기능과도 분리되어 있어야 예술의 본질적 가치가 있고 이것이 유일하게 ‘진정한’ 예술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철학적 표현이다. 1835년에 테오필 고티에(Théophile Gautier, 1811-1872)에 의해 저술된 책 <모팽 양(Mademoiselle de Maupin)>의 서문에서 이 구절이 처음으로 표현되었고, 빅토르 쿠쟁(Victor Cousin), 뱅자맹 콩스탕(Benjamin Constant), 에드거 앨런 포(Edgar Allan Poe)의 작품에 등장하며 본격적으로 슬로건이 되기 시작했다(Poe, 1850).

2)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창립자겸 집행 위원장인 슈밥(Klaus Schwab)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은 이전의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방법으로 우리가 살고 일하고 서로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슈밥은 4차 혁명과 이전의 혁명을 구별하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그것은 속도, 범위, 그리고 시스템 영향으로, (1)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움직이며, (2)몇 개가 아닌 거의 모든 산업 부문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3)마지막으로 이러한 혼란의 폭과 깊이는 생산, 관리의 전체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는 네 번째 산업 혁명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직 볼 수도 없는 속도이지만, 인공 지능(AI), 사물의 인터넷(IoT), 빅 데이터, 3D 인쇄,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생명공학, 나노기술, 로봇공학 및 양자 컴퓨팅 등이 4차 산업혁명을 특징 짓는다(Schwab, 2016).

3) 인간의 사고방식을 컴퓨터에게 입력하여 기계학습을 증강시키는 ‘심층학습’을 의미한다. 데이터나

깊이 터치하는 감동적인 예술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4차 산업시대의 순수예술은 이미 자원위기를 체감하고 있으며 수익성이 없는 순수예술에 투자를 망설이는 것을 바라만 보아야 하는 암울한 시대라 결론짓는다(김선영, 2018: 16, 19).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많은 우려 속에,⁴⁾ 예술은 이제 창의성 또는 예술적 창조성의 이름으로 새로운 산업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 주목되고 있는 능력 중 하나로,⁵⁾ 기업의 조직 내의 실용성과 창의적인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예술기반 구상(Application Binary Interface)의 형태로 쓰여지고 있다(Giovanni Schiuma, 2017). 그러나 반델리(Andrea Bandelli)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서 예술의 역할을 네 가지 분야에서 관찰 한 후, “디자인의 아름다움은 의심스러운 현실을 은폐한다”고 결론짓는다.⁶⁾ 논자의 눈에는 결국 4차 산업혁명이 그토록 지켜내려는 인간의 자율과 예술적 창의성이 정작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인간은 모른다.

북미 베네딕트 신학자인 조앤 치티스터(Joan Chittister)는 이 기술의 시대에 아름다움의 상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고도로 기술적인 세계에서 가장 미흡한 것은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움 대신 우리는 효율성에 가치를 둔다. 우리는 예술을 덧입은 기능주의를 원한다. 우리는 쓰레기를 만들고, 키치(kitsch)⁷⁾를 즐기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들에서의 올바른 비례, 우주 속 우리 삶의 조화, 보이는 것 안에 있는 진실로 설명되는 아름다움을 우리를 피한다. 우리는 좋은 나무 위에 페인트칠을 한다. 우리는 야생 꽃보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꽃을 선호한다. 우리는 플라스틱으로 피에

복잡한 자료들 속에서 핵심적인 내용 또는 기능을 요약하는 작업을 시도하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의 집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Bengio, et al, 2013).

4) 이 4차 산업으로 인해 앞으로의 기술 발전이 실업률 증가, 국가 및 지역 내 공동체들의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거라 예상한다(Schwab, 2016: 1-2).

5)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최근 보고서인 “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미래의 직업, 고용, 기술 및 인력 전략”은 세계 유수의 글로벌 고용주가 제공하는 최고 인력 및 전략 담당자의 정보를 토대로 2020년에 필요한 10대 기술을 이와 같이 나열한다. 복잡한 문제 해결(Complex problem solving),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창의력(Creativity), 인력 관리(People management), 다른 사람들과의 협조(Coordinating with others), 감성 지능(Emotional intelligence), 판단과 의사 결정(Judgement and decision making), 서비스 방향(Service orientation), 협상(Negotiation), 인지 유연성(Cognitive flexibility)으로 정리된다(Watson, 2018: 121).

6) 반델리는 ‘기술격차 축소,’ ‘기술에 관한 신뢰,’ ‘프로토타이핑에 예술과 디자인 포함하기,’ ‘건강의 미래형성’의 네 가지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 속 예술의 역할과 그로 인한 우려를 관찰한다(Bandelli, 2018).

7) 질 낮은 예술품, 가치없는 물건

타(Pietà)⁸⁾를 재현한다. 우리는 천박하고 포장된 것들을 위해 자연스럽게 진실한 것들을 포기한다. 우리 인간들은 진부함 속에 빠져있다.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과 의무의 상실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렸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아름다움이 없이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놓친다(Chittister, 2001: 40).

치티스터가 주장하듯이 기독교 신학에서 ‘아름다움’과 ‘신앙’의 관계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논제다. 그러나 에드워드 팔리(Edward Farley, 2001: 6)는 “세상 문화에서 아름다움의 쇠퇴 또는 결핍은 기독교 신앙 공동체들 안에서도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아름다움에 관한 개념적 이해는 결코 복음주의 기독교 철학 또는 신학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높은 수준으로 발전되지 않았다(Walton, 1988: 68-69). 슈밥(Schwab)은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4차 산업으로 점점 양극화 되어가는 세상의 더 큰 종교적 소양은 필수적이라 결론짓고 종교와 윤리와의 연합을 강조했다(Schwab, 2016: i), 세상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예술적 아름다움의 의미를 아직 알지 못한다. 플라톤(Plato, 304e)은 “아름다운 모든 것은 어렵다”는 오랜 속담을 인용하며 그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것들을 찾으려 노력했다. 아름다움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는 것은 마일즈(Margaret R. Miles)가 경고했듯,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기 때문에, 무엇이 아름다운가를 잘못 판단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Miles, 1997: 47-49). 이 시대의 슬픈 현실을 감안할 때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현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성경은 예술과 아름다움의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준다. 본서는 많은 신학적 교리들 중 아름다움의 목적과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의 신학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narrative)로 설명될 수 있고, 창조와 타락과 구속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포함한다. 그리고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인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already but not-yet)”의 개념은 이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칼슨(D. A. Carson)은 “안식일은 인류 역사의 목표이자 창조에서 완성까지의 큰 움직임의 뼈대로 볼 수 있다”고 그 중요성을 언급했다(Carson, 2000: 199). 최초의 안식일은 인간의 타락 이전이고, 우주의 생성 리듬의

8) 피에타(Pietà, 1498 - 1499)는 바티칸 시의 성 베드로의 바실리카에 보관되어 있는 미켈란젤로의 르네상스 양식의 조각품이다(Pietà, <http://en.wikipedia.org/wiki/Pietà> (accessed May 31, 2018)).

일부이며,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기념하고 그의 구속사역을 기념하는 중요한 기관이 된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아 고된 일에서 벗어나 쉼을 얻는 날이며, 창조주의 창조를 기념하고 축하하고, 노예생활에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인류에게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맛볼 수 있는 즐겁고 아름다운 날이다.

이와 유사하게, 예술의 ‘아름다움’은 이 세상의 고난과 압제에서 벗어나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저명한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 1788-1860)는 미학적 경험을 묘사할 때 “익시온(Ixion)⁹⁾의 바퀴가 멈추지 않을 때,” 즉 끝없이 돌아가는 세상의 고통 속 “기꺼이 하는 형벌 노역의 안식일”이라 표현했다. 예술이란 고통의 세계에서 잠시나마 안식을 경험하게 해주는 신으로부터의 선물이라는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 아름다움이라는 것의 경험은 이 땅에서 누리는 평화와 앞으로 임할 천국을 통해 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 예술인들은 예술을 단순하게 고통을 줄여줄 마취제가 아닌,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는 미적 경험을 소망하고 그들의 신앙 속에 구현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것이 미적 이론의 가장 중요한 토대를 구축한다고 주장한다. ‘안식일’과 ‘아름다움의 경험’은 미래 지향적이며, 그 종말론적 소망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타나고, 창조주와 그의 아들과 성령의 구속사역 안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 할 수 있음을 관찰해 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문화 속에서 아름다움을 정의할 수 있고, 예술의 길을 제시 할 수 있으며, 진리와 함께 예술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가치관을 위한 기독교 미적 이론을 제시한다. 첫 번째 절에서는 안식일 신학이 창조와 구속을 중심으로 관찰되어질 것이며, 두 번째 절에서는 안식일의 핵심 교리에 기초하여 기독교 미학과 예술의 역할이 연구되어질 것이다.

9) 익시온(Ixion)은 그리스 신화의 등장인물로, 존속살인을 하고 헤라를 강간하려 시도하여 제우스에 의해 지옥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회전 바퀴에 매달리는 형을 받았다(Schopenhauer, 2000: 220).

II. 안식일 신학

십계명 중 네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며, 자신의 창조와 애급의 종된 생활로부터의 구출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다(출 20:2, 신 5:15). 그러므로 안식일에서의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안식’과 ‘구속의 안식’을 의미하고, 이 두 가지 형태의 안식은 안식일 법의 양식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클라인(Meredith Kline)은 안식일의 목적과 이의 종말론적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다.

언약의 삶의 안식년 주기는 신성한 행동의 특징인 완성 원리를 상징한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기뻐하시고, 휴식하신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은 안식일의 원래 모형을 창조 때의 완성 패턴의 전시임을 나타낸다.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구속의 표명을 언급하는데, 하나님의 업적은 그의 택한 자도 자신의 안식을 취하게 하심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애급의 속박에서 구속받고 나머지 가나안 땅을 상속 받은 백성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로 임명받았다(출 31:13-17). 안식일에 대한 신명기의 구속사역의 진행 관점 해석을 유지하는 신약의 중심은, 구속받은 백성들이 그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하는 구세주의 부활하신 승리이다(Kline, 2006: 63).

클라인이 주장하듯이, 안식일은 억압으로부터 해방의 상징으로 창조를 기억함으로써 안식과 평화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종말론의 강력한 예표라 할 수 있다. 또한 유대인 신학자 아브라함 밀그램(Abraham Milgram)은, 유대인의 안식일 전통에서 안식일은 완전한 휴식의 날 일뿐만 아니라 잔치의 날, 즉 진정한 기쁨의 날로 묘사된다고 강조한다(Milgram, 1944: 219). 안식일은 안식과 기쁨으로 이스라엘의 창조와 구속을 기념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표적’ 또는 ‘통로’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속한 영원한 안식의 그림을 주셨고, 기뻐하시며, 그의 나라에 들어서기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음을 뜻한다.

안식일의 신학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많은 신학적 교리와 안식년의 실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광대하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두 가지 기본 목적, 즉 창조(creation)와 구속(deliverance from sin)의 기념으로 초점을 맞추어, 태초의 창조로부터 다가올 새로운 세상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종말론적 비전’과, ‘하나님의 구속사역,’ 그리고 ‘창조의 아름다움 안의

즐거움과 기쁨'의 관계가 안식일의 잔치의 개념으로 관찰될 것이다.

1. 안식일과 창조

안식일의 의미와 조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왜 쉬셨는지 이해해야만 한다. 시나산에서 안식일 법을 주실 때가 안식일을 기원이라고 추정하기 쉬우나 십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은 새로운 것으로 소개되지 않고 있다. 조엘 비키(Joel Beeke)는 안식일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관찰된 사실임을 주목했다(Beeke, 2006: 113). 안식일은 단지 모세의 의식이 아니라 역사의 시작과 함께 제정되었고, 그 기원은 천지창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인간의 타락 이전의 시간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안식과 이에 대한 리듬을 제정하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키는 “안식일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제도의 하나”라고 강조한다(Beeke, 2006: 113).

그러므로 안식일은 창조 직후 하나님의 안식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와 함께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정되었고, 이 날이 그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출 20:10) (Beeke, 2006: 112-13). 창조주는 일곱째 날에 쉬셨고, 자신이 쉬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쉬라고 명령하며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쉼을 상기시키며 일곱 번째 날마다 휴식을 취하고 그와의 언약관계를 지키라고 명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는 바람과 그들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언약을 세우신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에 대한 기쁨(joy)과 즐거움(delight)을 표현한다. 안식일에 유대인과 가톨릭,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와 그의 능력을 기념하는 ‘안식일의 아름다움’을 기념하며 축하한다. 여섯째 날 끝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라고 말씀하시고, 이레 째 되는 날에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의 아름다움과 그것들의 완성을 즐거움으로 바라보셨다. 즉, 창조주는 안식일에 휴식함으로써 완성된 창조물의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인해 기쁨을 얻으신 것이다.

로리(Richard Lowery)는 창세기를 여는 창조에 대한 설명 가운데 이어지는 안식에 대한 이야기는 “독자로 하여금 기쁨과 찬양으로 동참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Lowery, 2000: 81). 이 안식일의 기쁨과 관련하여 앨런더(Dan Allender)는 ‘메뉴하(מְנוּחָה)’라는

히브리 단어를 소개한다. 앨런더는 많은 유대인 주석가들이 창조주가 일곱 번째 날에 메뉴하를 창조했다는 주장에 주목한다(Allender, 2009: 28). 메뉴하는 ‘휴식’을 위한 히브리 단어로 허셸(Abraham Heschel)은 이 단어를 “평화와 조화와 같은 행복과 고요와 동일하다... 즐거운 휴식, ‘평온함’ 또는 ‘즐거움’으로 번역 될 수 있다... 투쟁과 싸움이 없고 두려움도 없고 혐오감도 없는 상태”라고 설명한다(Heschel, 2005: 23). 이 메뉴하에 대해 하트(David B. Hart)는 이렇게 서술한다.

창조의 존재는 하나님의 기쁨이며 창조의 아름다움은 창조되지 않은 빛의 빛을 드러낸다... 창조는 오직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지식의 삶에 매달려있는 화려한 광채이다. 그것은 영원의 빛나는 영광의 표면이며, 그 가장 깊은 진리는 신성한 사랑의 아름다움에 대한 미적 일치이다... 그것은 창조를 구성하는 즐거움이며, 그리하여 기쁨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올바르게 볼 수 있으며, 그 안에 새겨진 문법을 이해할 수 있다. 오직 사랑스러운 창조물의 아름다움에서, 즉 창조물이 실제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봄으로, 창조물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Hart, 2004: 252-53).

하트는 피조물은 창조주의 영광을 반영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유일한 길은 ‘즐거움’을 통해서라고 강조한다. 그의 백성은 경외와 기쁨으로 창조 앞에 서야함을 나타낸다. 앨런더의 표현처럼, 창조주의 최고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이 뒤로 서서 그 자신의 창조물에 놀랐던 것처럼 기쁨의 아름다움을 맛보아야 한다(Allender, 2009: 44).” 이렇게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의 창조물과의 교제 속에서 기쁨을 누린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약속된 영적 기쁨이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야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사 58:13, 14).

마지막 창조에 관한 세 번째 고찰은, 안식일에 내포된 종말론적 구속사역의 의미이다. 존 프레임(John Frame, 2008: 529)은 “안식일은 종말론을 처음으로 성경에 소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일곱 번째 날에 쉼으로 약속된 ‘영원한 안식의 그림’을 그리셨다는 것이다. 그분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안식의 날은 매주의 약속이 되었고,

죄인들에게 구속과 안식을 제공 할 것이라고 상기시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창조의 6일을 연구하며 클라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무엇보다 가장 명백한 것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세상의 성전의 완성을 축하하는 날로서, 안식일은 창조주의 이름을 ‘완성자(consummator)’라고 선언한다. 일곱째 날에 도달하여 완성하는 창조주가 되려고, 또한 창조주가 존재하는 안식일이 되기 위해, ‘처음’이라는 이름과 함께 ‘마지막’이라는 이름을 함께 지니는 것이다(Kline, 2006: 22).

따라서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셨던 것과 관련된 ‘이미(already)’의 측면과 앞으로 성취되어야 할 것에 관한 “아직 아닌(not-yet)”측면이 함께 존재한다(Frame, 2008: 529). 몰트만은 이에, “하나님의 초기 창조, 역사적 창조, 그리고 완벽한 창조”를 구별함으로써 창조의 개념을 사용하여 종말론을 발전시켰다. 몰트만은 이 일련된 과정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창조역사에 대한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앞으로 미래에 완성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케 하며 확인해 준다”고 설명한다(Moltmann, 1988: 55). 그러므로 안식일은 과거와 미래, 즉 궁극적으로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의 개념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종말론적 상징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안식일과 죄로부터의 구속, 그리고 세상에서의 효과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지속적인 역사적 행동으로 현재에도 미치고 있음을 몰트만의 주장에 빚대어 언급한 바 있다. 안식일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개념과 축하의 의미라면, 이 날은 현재의 시간 속에 해방의 역사를 불러 넣어주는 하나님의 의지의 확신이기도 하다. 러쉬두니(Rousas Russhoony, 1973: 136)가 확신했듯이 “안식일은 휴식과 구속과 해방의 날이다.” 그리고 이 안식은 창조주로부터 직접 내려진 명령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잘 알려진 유대인 학자이자 문화 해설자인 프래거(Dennis Prager, 1981: 54)는 안식일에 라디오, 텔레비전 및 기타 기계류의 사용을 제한한다. 프래거는 안식일에 여러 형태의 기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던 것처럼 안식일에 아직도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출 20:2)”라는 성명서를 붙이셨다. 프래거에 따르면,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의 말씀은 이 해방의 개념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프래거의 주장처럼, 이 구절들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그들의 백성에게 제도로 주셨을 뿐 아니라 이 안식의 당위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시킨다.

인간의 타락은 땅 위에 저주를 가져왔고 이것이 사람의 노동을 어려운 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식일의 의미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창 3:17-19). 타락 이후 고통스러워진 일은 인간에게 고단한 삶을 가져다주었고 이 휴식은 저주로부터 부분적인 구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프레임은 다음과 같이 구속의 주제를 요약한다.

신명기 5장 15절에서 안식일 명령은 이집트에서의 노예생활의 가혹함을 회상한다. 이 가혹함으로부터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셨다. 진도서 2장 9-11절은 사람의 수고를 ‘헛됨’이라 말하고 시편 90편은 비슷한 세상의 수고와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다. 악인에게는 실제로 진정한 평강이나 안식이 없지만(사 48:22),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구속의 언약과 축복으로 안식을 주셨다(시 127:2). 예수님은 그에게로 오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마 11:28),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그치게 하시고 영광을 얻은 성도들에게 안식을 주신다(계 14:13) (Frame, 2008: 543).

하나님의 안식은 일시적으로 인간의 노동으로부터 저주를 풀어 주며, 이는 그들의 일에서 가장 값진 보상을 상징하는 휴식인 것이다.¹⁰⁾ 그리고 이 안식일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규례에 반대하는 장면들이 나오지만, 그는 언제나 안식일을 충실히 지키셨으며(눅 4:16), 율법을 파괴하려고 오지 않았다고 선언하시며 안식일을 폐지하지 않으셨다(마 5:17).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셨다는 사실이다(마 12:8) (Beeke, 2006: 115).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을 받아들이고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 안식

10) 프레임은 “이 구속적 휴식의 의미는 특별한 죄사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에 의한 지상의 나머지 부분이다... 안식일의 주된 의미가 죄로부터의 휴식을 상징한다면, 그것은 칼빈의 ‘안식일은 이제 폐지되었다’의 언급이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상징의 의미가 현실이 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며 안식일의 상징성을 강조한다(Frame, 2008: 543-44).”

일의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선언하신다. 마태복음 11장 28-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안식일에 ‘멍에’가 금지된 바리새인들의 멍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멍에’는 매우 다른 멍에의 의미이다. 그것은 예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운’ 것이기 때문이다(마 11:30) (Beeke, 2006: 116). 그는 구속의 성취로서 안식을 약속하며 그의 은혜는 “우리의 눈을 열고 죄의 열병을 꾸짖으며, 우리를 고통스러운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며, 악마와 그 군대를 이기고 죄로부터 짓밟혔던 모든 것을 회복하며, 우리 몸과 마음의 모든 병을 치유한다(Beeke, 2006: 116).” 그러므로 안식일의 목표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보이고 선포하는 것이다(Beeke, 2006: 117).

복음의 은혜 아래서, 안식일은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의 하나님 나라의 징표로 계속되고 있다. 가네(Roy Gane, 2011: 14)는 이 신약에서의 변화를 안식일을 통한 성화로서의 해방과 관련된 거룩함으로 표현한다. 유월절 어린양(고전 5:7)에 의해 새로운 삶으로 해방된 거룩한 백성(벧전 2:9)이기 때문에(고전 6:11; 살전 3:12-13), 창조주께 영광 돌림(계 14:7)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식일을 우리의 거룩함의 표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히 4:9)”라고 확신하며 안식일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다가올 영원한 주의 나라의 표징이고, 아직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저명한 20세기 유대인 신학자인 아브라함 헤셸(Abraham Heshel, 1951: 73)은 안식일을 “다가올 세상의 예시”로서 구속의 완성을 확장하기 위한 예고편이라 표현한다. 또한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믿는 자들의 ‘마지막 보상의 표식’으로 안식일의 휴식을 설명하고 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의 예언으로 대서사시를 마치고 있다(사 65:17).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며 주의 백성의 노동은 저주로부터 완전히 구속될 것을 선포하며 그 다음 23절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는 약속을 되새긴다. 개핀(Richard Gaffin, 1986: 39)은 그의 용어해석을 통해 이 약속된 안식에 대하여 연구하여 ‘종말론적 구속과 안식’은 하나님 창조의 안식의 의미와 같은 것임을 밝히고 후자는 단순히 전자의 모델을 아님을 주장한다. 즉, 성경에서는 창조 직후 시작된 ‘하나님의 안식’과 함께 모든 것이 완

성되고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안식’이 하나의 같은 개념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다른 모든 피조물과 함께 그의 언약에서 약속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번영과 기쁨을 기대하며, 창조의 아름다움과 구속의 은혜를 베푸는 자비에 있어서 창조주의 선하심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가 주시는 안식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안식일은 이 진리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주며 소망을 주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다. 안식일은 이미 성취 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속약속의 표식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사역이 끝났음을 축하한다. 이 날은 주의 작품의 신묘막측한 아름다움을 깊이 묵상하며 그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Ⅲ. 아름다움의 신학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숨을 쉬며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날이다. 몰트만은 이에 대하여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생태적이다. 또한 미적 측면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Moltmann, 1972: 5). 즉 아름다움은 인간의 영혼을 위한 휴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안식일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중요한 것이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것처럼 인류의 예술적 창조성도 기념한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지어지지 않았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제정되었다면(막 2: 27-28), 안식일은 인간에게 예술적 표현을 위해 기회를 주며, 일로부터 그들에게 쉬을 얻게 해 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한 신성한 이미지를 가능케 한다. 베르자예프(Nicholas Berdyaev, 1950: 218)의 주장처럼, “인간의 창의력은 인간의 주장이나 권리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와 부르심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에 대한 반응으로 인간의 창조적 역할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창조성은 예술 안의 미적개념으로 이해된다.

오늘날에는 아름다움에 대한 엄청난 욕구가 있다. 그리고 기독교 미학은 쉽지 않은 도전들에 직면해있다. 미국의 저명한 음악신학자인 제레미 벅비(Jeremy Begbie)는 현

시대의 미학경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현상들을 관찰하고 통탄한다; 칸트파의 숭고함(Kantian sublime)의 아름다움을 거부하고, 키에르케고어(Kierkegaardian) 철학의 심미적 영역을 비하함과, 과장된 문화는 아름다움을 상품화하고, 가부장적 착취의 흔적으로서의 페미니즘 비평과, 현대 예술의 반미학적 성격, 그리고 아름다움의 진실을 경시하고 행동을 유발하는 감정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많은 화가들과 작곡가들이 그들의 직업을 잃을 것이라고 예견되고 컴퓨터가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포용하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가 요구하는 예술적 창의성은 다른 지적 능력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인간의 마음과 관련 있는 것임에 주목해야 한다. 예술의 아름다움을 지켜내는 것은 이처럼 심각한 도전의 홍수에서 거대한 작업으로 남아 있다. 하트(David Bentley Hart)는 수사학 승화에 대해 의심스러워하고 끊임없이 파괴적인 붕괴로 운명지는 일부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에 대하여 그의 글 <무한한 아름다움>에서 통렬한 비판을 하며 이렇게 묻는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폭력이나 속임수가 없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움’이 대안으로 여겨지는 권력의 전략에 이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Hart, 2003: 4-5)... 기독교의 평화와 복음 전도자는 그 평화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미적으로 수사학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복음주의적 호소의 ‘재능’은 평화로운 몸짓인가, 아니면 설득 자체를 설득하기 위해 폭력에 맞서 숨기고 꾸미는 가장 독창적인 전략인가?¹¹⁾

위 현상의 뿌리는 다름 아닌 인간의 ‘자율’이다(신국원, 2005: 102). 자아를 향하는 이 시대의 진보는 창세기의 타락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에덴의 정원에서 아담과 이브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 3:5)”라는 유혹에 현혹되어 ‘신성한 나무’에서 돌아서서 ‘선한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를 택한다. 빛나는 선악과 속에 아담과 이브에게 끌렸던 것은 단순한 열매의 맛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습과 직면함으로 끌린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빛이었다. 웨이넘(Gordon Wenham, 1987: 63)은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잠 1:7)”임을 저버리며 인간의 자율권을 주장하려는 욕

11) 하트는 그의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존재론(ontology)에 뿌리를 둔 평화의 전도자로서의 기독교식 표현에 대한 니체의 공격을 지적한다. 니체는 기독교 문화를 향해 “가장 저속하고 쇠퇴한 상태에서 권력을 행사할 것이다. 권력을 거부하는 것으로, 투쟁의 부정으로, 완전한 평화의 전도자로서, 스스로를 강하게 하기위해서만 더 무서워지고 무적화된다”고 비판했다(Hart, 2003: 148-149, 202).”

망이라고 해석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의 제약을 버리려는 현대의 매혹적인 아름다움의 근원이며 DNA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모든 질서에서 아름다움의 충만함을 발견하는 대신, 자율적인 자아는 자신의 의미를 찾아 헤매게 되도록 내버려졌다.

그러나 비록 인간이 타락하여 죄 중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왕국에 들어가는 길을 친히 제시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들 속에 특별히 ‘안식일’은 이 땅에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구속의 표적과 언약을 통해 천국을 맛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예표라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인간의 타락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 하나님의 창조에 기초한 아름다움을 관찰하고 그 신학적, 미학적인 의미를 엿볼 것이다. 또한 창조된 모든 아름다움은 삼위일체 하나님, 즉 창조주의 웅장한 광채를 반영하고 이에 참여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의 근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종말론적 희망으로서의 아름다움이 고난이나 억압으로부터의 휴식 또는 안식의 개념으로 검토되어 인간의 예술의 참된 목적과 방향성을 제시 할 것이다.

1. 창조의 아름다움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의 6일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4, 10, 12, 18, 21, 25, 31)”라고 여러 번 읽게 된다. 창조의 아름다움이 좋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Hans Urs von Balthasar)는 “아름다움이 없는 세계는... 좋은 것 또한 힘을 잃어버리고 왜 그 좋음이 수행 되어야만 하는지 스스로 증거한다”(Balthasar, 1982: 19)고 주장하며 역설적으로 그 중요성을 드러낸다. 하나님이 어둠의 혼돈에 빛을 비추시자 어둠과 빛의 경계가 주야로 구별되기 시작하였고, 형태가 없는 혼돈에 조화가 생겨났다. 맥코믹(Patrick McCormic, 2012: 15)은 “형상이 없는 황무지와 어두운 심연이 풍부하고 다양한 삶으로 가득 찬 잘 정돈 된 우주로 만들어졌음”을 강조하며, 이 피조물의 아름다움은 개별적인 부분들과 전반적인 대칭과 조화에서 처음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창조의 아름다움은 의심할 여지없이 “구성들의 조화와 일치, 밝음 또는 광휘, 완전성 또는 온전함, 그리고 그것을 묵상함에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Begbie, 2011: 84). 또한 아름다움은 서로 다른 것들 간의 형태,

방식, 수량, 가시적 경계와 디자인들의 동의 또는 합의하는 것으로, 이 현상들은 규칙, 질서, 통일성, 대칭성, 비율, 조화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Edwards, 1960: 3). 즉, 창조주의 피조물의 아름다움은 ‘조화로운 온전함’을 드러내며, 이 완벽함은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한다.

더니스(William Dymess)는 사람이 창조의 조화로움에 대해 생각할 때 그리스 철학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Dymess, 1985: 420-421). 피타고라스학과(Phytagoreans)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질서와 비례가 아름답고 적합하다”라고 정의했고, 플라톤(Plato)은 “정도와 비율의 유지는 항상 아름답다”며 “정도의 부재는 추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아름다움은 규모와 질서 정연함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름다움의 주된 형태는 ‘질서, 비례 및 명확성’”이라고 동의했고, 스토아 학파(Stoics)는 “신체의 아름다움은 부분과 상호간과 전체에 대한 팔다리의 비율에 있다”고 이를 지지한다(Tatarkiewicz, 1972: 167). 더니스는 이 모든 것은 우주적 질서를 반영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가깝다고 주장한다(Dymess, 1985: 422). 그러므로 자연의 완전은 그 질서, 대칭, 일치, 조화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인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창조된 질서는 이 조화로운 아름다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안식일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조화롭고 아름다운 피조물은 그 자체로 즐겁고 윤택하다. 창세기 2장에 창조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아름다움을 즐거운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에덴에 심어놓으신 정원은 특히 아름다운 걸작품이었다. ‘에덴’은 ‘비옥한 평원’을 의미하며 히브리 단어 ‘기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에덴의 정원은 ‘기쁨의 정원,’ ‘즐거움의 정원,’ 또는 ‘낙원’을 의미한다(Suggs, 1992: 12). 에덴은 풍요롭고 물이 풍부하며 사랑스럽게 손질된 정원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특별히 창세기 2장 9절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고 설명하고 있다. 맥코믹은 이를 “눈과 미각을 위한 즐거움의 조화(McCormick, 2012: 17)”라고 표현하고 그루쉬(John Gruchy, 2008: 111)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사람들을 끌어당겨 즐거움을 주고, 그들 안의 기쁨과 경이를 깨우고, 창조를 향한 열망을 창조한다”라고 묘사한다. 이렇듯 타락 전 창조주의 피조물은 완벽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는 시편 89편을 설교하면서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한다: “나무와 식물 그리고 꽃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이 지구의 얼굴을 아름답게 꾸며 반짝거리는 것들로 박아주신 것은 즐거운 일이다. 특히 인간의 몸의 아름다운 구조와 그 완전함이 놀라우며, 달과 별의 아름다움은 훌륭하고, 가장 높은 하늘의 아름다움은 탁월하며, 천사들과 성도들의 빛은 영광스럽다(Turnbull, 1958: 77).” 에드워즈에게는 창조의 주된 신학적 목적이 즐겁고 유쾌한 ‘하나님의 영광’이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암시한다. 칼빈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 대한 자신의 주석에서 했던 표현처럼, “세계는 신성한 거울(the mirror of divinity)”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the theater of God’s glory)”이라 표현될 수 있다(Calvin, 2005: 266). 몰트만에 의하면 이러한 칼빈의 표현이 오로지 창조된 세계가 지니는 “존재의 명시적 가치(Moltmann, 1972: 18-19)”를 나타낸다. 즉 창조하심으로 기쁨을 얻는 창조주는, 피조물을 비추는 아름다움의 그 근원으로써 자신의 아름다움을 창조를 통하여 존재케 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다(손호현, 2009: 173).

2.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움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아름다움을 반영하기 때문에 예술을 알려면 그 아름다움들의 자체를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한다. 가톨릭 학자인 내본(John Navone)은 하나님을 행복한 아름다움 그 자체라고 선포한다.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주이시라는 역사적인 계시를 기반으로 한 기독교 신학은 창조주께서 먼저 모든 피조물을 알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고 선한 것을 사랑하며 모든 것의 아름다움을 즐거워한다고 가정한다. 창조주, 곧 행복 그 자체이신 분은, 진리를 알고 선을 사랑하며 아름다움을 즐기는 분이심으로, 결과적으로 창조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으며 즐길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의 시선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만물의 진리와 선하심과 아름다움으로 창조주를 볼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사랑하고 기뻐함으로써 행복 그 자체와 교체할 수 있는 것이다(Navone, 1996: v).

그러므로 내본은 창조주의 진리와 선함, 기쁨과 즐거움, 아름다움을 긍정함으로 피조물으로써 조물주와의 관계의 토대를 세운다. 그리고 이 토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 속에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영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즉, 하나님은 삼위일체

존재의 영원한 진리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또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학적 개념은 아름다움의 특성을 그 무엇보다 잘 나타낸다. 폴레(Joseph Pohle)는 “진정한 삼위일체에서의 절대적인 일치는 절대적인 아름다움으로 절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Pohle, Preuss, 2007: 270). 바르트(Karl Barth, 1957: 661)는 또한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그의 아름다움의 비밀이다”라고 확신한다. 이에 다양성 또는 다중성의 요소는 신성한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의 개별성으로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름다움 그 자체라 표현한 내분은, 그의 묘사에서 하나님 자신은 온전히 영광스럽고 아름답도록 절대적이고 독특한 방법으로 화합의 요소를 나타냄을 주장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자신을 반영하는 우주를 창조한다. 삼위 하나님의 외적 공유는 창조에서 시작된다. 인간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우주는 이를 반영한다, 그리고 구속역사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계속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언약공동체를 존재하게 하실 때 구속역사가 계속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의 성육신 안에서 강화되었으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령의 성전에서 성숙된다. 그리고 영광스럽고 완벽하게 아름다운 완성, 즉 하나님의 왕국, 천상의 도시의 새로운 천국과 소통한다(Navone, 1996: 43-44).

삼위일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완전한 형상으로, 히브리서 1장 3절에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와 그분의 형상을 나타내는 밝은 빛”으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된다. 그러므로 아름다움으로서의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한다. 예수님은 아름다움 그 자체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서 “그리스도는 그의 진리를 아시고 그의 선하신 것을 사랑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즐겨하시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와 소통하신다(Navone, 1996: 43-44).” 내분의 성경 요약은 이의 중요성을 잘 나타낸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즐거움을 강조한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은 기쁨의 충만함(3:29)이었다(15:11). 그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다(16:20). 예수님은 새로운 탄생, 새 생명의 기쁨과 깊이 관련이 있다(15:1). 그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충만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16:22). 그 분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다(16:24).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1:14; 17:17),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요일 4:8, 16)을 라고 인식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린다. 아름다움 자체 이신 그 분은 모든 인류에게 영광과 은혜와 진리와 기쁨으로 나타난다(Navone, 1996: ix).

내본은 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창조의 아름다움 그 자체이신 분의 성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신학과 영성에 영감을 불어 넣는다(Navone, 1996: ix)”라고 강조한다. 또한 위대한 교부 다마스쿠스의 존(John of Damascene, 2003: 101)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형상이었고, 그 자신의 살아있는 상, 그의 자연적이고 변화할 수 없는 영원의 이미지”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의 이별 설교는 아름다움의 신학의 다른 요소, 즉 종말론적 목표를 가리킨다(요 14-17).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인류를 위해 목숨을 바칠 때 그의 삶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의 삶의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신다(요 17). 내본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한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사랑에서 드러난 아름다움 자체에 대한 자애로운 사랑은, 만물의 참된 아름다움과 영원한 기쁨을 주는 창조주의 은혜와 부르심에서 우리를 삶과 사랑이 충만한 아름다움 그 자체로 이끌어준다(Navone, 1996: vi).”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몸에 입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함으로써 기쁨과 즐거움을 향한 인간의 삶을 빚어간다. 성령, 곧 삼위일체의 제 3인은 아들의 완전한 계시자이다. 이 성령께서는 ‘회합의 영’으로, 유일무이한 특수성을 가능하게 하고 촉진시킨다. 즉, “창조된 개개의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하여 아버지와의 구속관계로 가져옴으로써 참된 존재로 풀어내는 것이 성령의 임무인 것이다(Gunton, 1993: 189).” 그러므로 성령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분으로 아들 안에서 성취하시며 미래에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름답다(Begbie, 2011: 92). 백비는 이 아름다움을 성령의 종말론적 소망으로 풀어나간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인지하고 있는 아름다움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영광을 기대하면서 탄식하며 부패에 속박되는 피조물의 한 가운데서 여전히 ‘성령에 의해 주어지고 있는 아름다움의 맛보기’인 것이다(롬 8:20-22). 그러므로 우리는 숨을 죽여 눈부신 산의 경관의 순간을 붙잡고 그 순간을 열어 붙이려고 노력해서는 안되며,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찬란한 아름다움이 있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을 내다보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름다움은 그 나라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극히 작은 것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그것의 일시적임을 슬퍼하지만 세상의 아름다움을 기쁘게 생각한다(Begbie, 2011: 92).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영원한 희망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아름답다. 또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기쁨을 성령 안에 나누기 때문에” 이 아름다움은 ‘즐거운 경험’이라 말한다(Navone, 1996: 75). 논자는 도스토예프스키(Fyodor Dostoevsky, 1992: 402)가 자신의 소설 <백치>에서 표현한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할 것이다”의 유명한 표현에 한 단어를 덧붙여 ‘삼위일체의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할 것이다’라고 완성한다. 인간이 영원과 죄로부터의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얻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3. 아름다움과 인식의 예술을 향하여

궁극적 아름다움의 본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현재와 과거를 초월하여 우리를 영원한 소망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아름다움의 의미는 지금 이 세상에서 ‘영원을 향한 열망’을 불러일으킨다(Chittister, 2001: 179-80).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사역이 아름다움과 즐거움이라면, 그 소망 안의 인간의 예술의 활동은 잠시나마 찬란한 영원의 나라를 맞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치티스터(Chittister)는 아름다움의 초월적 힘을 이렇게 묘사한다.

아름다움은 우리를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의식의 높이까지, 평범한 일상을 신비적으로, 잠시의 방편을 벗어나 끝없는 진실로 이끌어준다. 아름다움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인간의 마음을 지탱해 준다. 진부한 세상의 어리석음이 깊어도, 결국 아름다움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관통하여 값싸고, 진부하고, 모방적이고, 과도하고 잔인한 세상의 추악함을 뚫을 수 있다. 아름다움이 나오는 아름다움을 조금이라도 본 것은 깊은 영적경험이다.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소리 친다. “자세히 [보고 느껴라], 아직 [당신이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이] 더 있다(Chittister, 2001: 179-180).”

즉, 예술적 아름다움은 인간의 삶을 억압이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예술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눈, 귀, 그리고 결국 곤고한 영혼이 휴식을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치티스터는 “투쟁의 한 가운데, 깊은 어두움, 추악함의 늪지대에서 아름다움은 그것을 실현한다”고 확신한다(Chittister, 2001: 179).

그러나 세속적 심리학에서도 이 강력한 예술의 유혹의 힘을 말하고 있다.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예술은 가장 오래되었고 아직도 가장 깊숙이 느껴지는 문화적 포기들에 대한 대리적 만족들(Substitutive Satisfactions)을 제공한다. 그러한 이유에서

예술은 인간이 문명을 위해서 치른 희생과 인간 자신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효과적으로 화해시키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Freud, 1961: 17). 프로이드는 예술의 이러한 심리학적 기능을 “온화한 마취제”에 비교한다(Freud, 1961: 31). 신학자 쾰트너(Günther Pöltner)는 이에 대하여 “아름다움은 일종의 마취제가 되며, 예술은 대리적 만족과 보상의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예술의 마취제적 역할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다(Pöltner, 1985: 9). 이는 창조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들의 자율성에 의해 주도되었던 예술의 역사를 생각하면 당연한 시각일 것이다. 예술을 통해 인간들은 타락으로부터 온 고뇌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불순종 후에 아담과 이브가 결국 발견 한 것처럼 이 ‘탈출’은 행복과 자유의 삶으로 이끌지 않았고 오히려 빛과 쉬운 멍에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아름다움을 정의 할 수밖에 없고, 매력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의 매력을 받아들이며, 이 매혹적인 아름다움은 자신을 궁극적인 불행과 파괴로 유혹하는 수단이 되어왔다(Navone, 1996: vi).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사역이 끝난 것을 기념하며 축하하며, 그들이 만드는 또는 즐기는 예술작품의 복잡한 아름다움을 깊이 생각하여 지켜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예술 활동에 있어 ‘자신을 하나님의 초월성에 내어맡길 것’을 제안한다. 인간의 자율과는 달리, 아들러(Mortimer Adler, 1981: 129-30)는 ‘아름다움’은 인간을 목상하고 스스로를 초월하여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는 ‘자신을 초월한 휴식’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머독(Iris Murdoch)은, 인간은 아름다움으로 산만해지거나, 아니면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양도하여 이기심을 버린다고(unselfed) 설명하며, 자신을 양도하고 내려놓음이 버겁거나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일이라고 강조한다(Scarry, 1999: 112-13). 자기 자신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일은 맥코믹의 “아름다움은 우리를 즐겁게 한다”는 확신의 전제조건인 것이다(McCormick, 2012: 7).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영향력 있는 러시아 철학자 니콜라이 베르샤예프(Nicolai Berdyaev)는 그의 작품 <꿈과 실제>에서 창조, 죄, 구속에 대한 의미를 예술의 자아초월성에 빗대어 반영하고 있다.

인간이 외적인 영향으로부터의 억압과 노예적 삶을 뛰어 넘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창조적 행위 안에 있다. 창조적인 행위는 대상에 대해 ‘자신이 아닌’ 것보다 주체인 ‘자아’의 절대적 우

선순위를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중심의 지붕에 부딪히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보다 높은 곳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창조의 경험은...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준비될 새로운 하늘과 땅을 예시(foreshadows)한다(Berdyayev, 1950: 219).

베르자예프는 자기 자신이 중심일 수밖에 없는 예술 활동의 성질과, 자기 자신을 버리고 초월해야만 하는 예술의 본질적 특성과의 관계를 잘 설명한다. 이 관계는 리코르(Paul Ricœur)의 현상학에 의해서도 지지될 수 있다. 리코르는 미학적 상징이란 ‘수여하는 것’과 ‘부여받는 것’이라는 이중적 측면을 지님을 관찰한다(Ricœur, 1974: 288; 손호현, 2009: 105). 즉 미학적 상징은 내가 부여하지 않은 의미를 추가로 수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부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사유의 측면 안에서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Ricœur, 1974: 288).” 그리고 논자는 이 부여된 의미를 창조주가 예술의 아름다움 안에 주신 신비와 그의 아들과 연합함으로 나타나는 진리의 초월성이라 표현한다.

내본은 “진실하고 거짓된 친구, 그리고 진실과 가짜를 구별하는 것은 유사하다”고 탄식하지만, 결국 “아름다움과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이끌어 내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 아름다움은 기쁘고 즐겁다”고 확신한다(Navone, 1996: vi). 하나님은 슬픔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이시며, 진정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창조주 임과 그의 구속사역이 궁극적인 아름다움이심을 인정함으로써 실현됨으로 그 밝은 빛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빌라데서(Richard Viladesau, 1999: 213)는 “영적 영역에 대한 슬픔 즉, 진정으로 좋은 것에 대한 경험의 부족, 거룩한 것에 대한 ‘맛’의 부족이, 물질적 쾌락을 추구하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의 가치에서 멀어진다”고 지적한다.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함으로써 예술의 진정한 아름다움의 원천을 이해할 수 있고, 비로소 이기심에서 벗어나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이 보이며, 그들의 예술적 능력으로 남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20세기의 위대한 작곡가 올리비아 메시앙(Olivier Messiaen)은 음악의 초월성이 다른 과학적 또는 철학적 설명보다 예수의 성육신과 그의 신비로운 영원과 시간의 연합을 이해하는 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학적 연구, 수학적 증명, 축적된 생물학적 실험은 우리를 불확실성으로부터 구하지 못했다. 반대로 그들은 현실로 믿어지는 것 위에 또 다른 새로운 현실을 끊임없이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무지를 증가시켰다. 사실 유일한 진실은 다른 순서로부터 온다... 다른 존재(Being)와 만남으로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거쳐야한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들로부터 도약을 의미한다. 이상하게도 음악은 우리를 그림으로, 반사(reflections)로서, 상징으로 준비시킨다. 음악은 시간과 공간, 소리와 색깔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며, 통일로 이끄는 대화이다. 시간은 공간, 소리는 색상, 공간은 겹쳐진 시간, 소리, 색상의 복합체이다... 음악가는 이러한 기본 아이디어를 통해 어느 정도 다음 세계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그리고 성 토마스(St. Thomas)가 말한 것처럼: 음악은 우리 자신을 '진리의 초과(an excess of truth)'로 인도시킬 날까지 '진실의 불이행(default of truth)'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를 데려간다. 그것은 아마도 음악의 중요한 의미이자 또한 방향적인 의미일 것이다(Messiaen, 1978: 10).

메시아는 고딕성당(Gothic Cathedral) 안의 스테인 글라스(Stained Glass)를 보며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의 초월성을 깊이 묵상했다. 메시아는 갖가지 색의 유리창을 보며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지구와 태양 너머의 단어, 생각, 개념을 초월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주위를 돌고 있는 수천 개의 별을 초월한 것을 보여준다(Rüßler, 1986: 41)”고 고백한다. 그는 실제로 음악을 시작과 끝이 있는 ‘알파요 오메가인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고, 그의 음악작곡 경력의 70여 년 동안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작품 중 일부를 남겼다. 그의 곡들은 하나같이 신비하고 역동적인 리듬과 생생하고 다채로운 화성으로 특징 지어지고, 암펠트(Nicholas Armfelt)는 “메시아의 음악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음악의 모든 것이 더 큰 맥락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만든다... 모든 움직임 뒤에는 정적의 인식, 모든 소리 뒤에 침묵에 대한 인식, 그리고 모든 측정된 시간 뒤에 ‘영원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것이다”라고 표현했다(Armfelt, 1966: 857). 메시아는 창조주의 창조와 구속사역, 그리고 그의 영원성을 깊이 묵상하여 이를 음악으로 그의 시대 사람들과 교류하였고, 많은 신학자들의 우려의 대상인 반기독교사상이 만연한 모더니즘의 중심에서, 모던음악 테크닉으로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종말론적 소망을 전 세계에 울려 퍼트렸다. 그의 음악은 많은 신학자들과 후대의 기독교 음악학자들에게 “모더니즘의 마법(re-enchant of modernity)”이라 불리며 메시아의 음악의 근원이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한다(Sholl, 2011: 189).

바야스(Jerram Barrs, 2013: 28)는 “예술적 교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술이 단순히 자기 자신의 표현 일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진정한 예술의 역할은 이 세상의 현실을 바로 보고 나란히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의 삶과 접촉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을 기쁘게 하는 것이란 의미이다. 즉, 예술 활동은 자기중심을 벗어나 자신의 예술적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자신의 부여받은 아름다움의 은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일하고, 다른 예술가들 안에 부여하신 창조주의 은사의 다양함과 찬란함을 찬양하며, 타인의 삶의 안식과 소망의 풍요로움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사명을 함께 가지고 있다. 안식일에 그러하듯,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을 약속하는 것이다(엡 1:6).

IV. 결론

순수예술이 계속적으로 쇠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의 예술은 인간의 자율성을 주장할 가장 강력하고 고유한 능력 중 하나로 인정받았다. 그리하여 예술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창의성’의 혁명의 실용성 안에 예술적 디자인을 담당하며, 기계에 의해 위협받는 인간의 가치를 보존케 하고 기계의 폭주를 제어할 중요한 ‘도덕적 나침반’들 중 하나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함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 포스트모던의 예술적 민낯이 자율성으로부터 오는 혼란과 투쟁과 고통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하다. 사람들은 예술의 진정한 역할을 발견했다고 생각하며 예술에서 끊임없이 아름다움을 갈망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예술의 진정한 아름다움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아름다움이란 것은 인간의 영혼의 희망을 키우고 추악하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휴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여전히 아름다움에 목마르다. 만약 예술이 자신의 창조주와의 관계의 회복과 영원한 주의 나라의 예시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의 예술이 미적으로 그 길을 잃은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안식일은 인류가 죄에 빠지기 전에 인류에게 주어졌으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선포된 계명(출 20, 신 5)으로서, 그것은 새로운 하늘과 땅에서 믿는 자들을 기다리는 기쁨의 예표이다. 안식일은 창조를 기억하고 새로운 창조를 기대하며, 고통과 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세상의 그림을 주는 종말론적 기관인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 직후 안식함으로써 그가 창조의 활동을 끝내셨다는 것을 선포하셨으며, 인간에게 궁극적인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영원한 창조주임을 상기시켜 주셨다. 그는 완성된 피조물을 보시며 기뻐하셨으며, 지금 이 시간도 그의 백성들에게 창조의 아름다움과 구속의 자비에 있

어 자신의 선함을 깊이 묵상하며 자신의 안식을 기념하라고 부르신다. 이 기념과 축하를 통해 그의 백성에게 속한 영원한 안식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신다.

예술을 통해 인간의 죄스러운 본성으로부터 이 천상의 휴식을 맛보려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측면들을 검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안식일은 창조하고, 축복하고, 인도하고, 유지하고, 성화하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기념한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을 통해 “임마누엘 -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마 1:23)”을 기억하게 하고, 즐겁고 기쁜 휴식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의 다가올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상상하며 기뻐한다(Moltmann, 1978: 40). 안식일은 백의 이념적 아름다움의 해체에 대한 하나님의 극적인 응답인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선영 (2018). **예술로 읽는 4차 산업혁명**. 성남: 별출판사.
[Kim S. Y. (2018). *Art with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ung-nam: Byul Pressing.]
- 신국원 (2015). **니고데모의 안경: 쉽게 풀어 쓴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 서울: IVP.
[Sin, G. W. (2015). *Nicodemus' Glasses: A Story of Christian Worldview*. Seoul: IVP.]
- 손호현 (2009). **아름다움과 악: 제 1권 신학적 미학 서설**. 서울: 한들출판사.
[Son, H. H. (2009). *Beauty and Evil: Book 1 Theological Aesthetics*. Seoul: Handle Publishing.]
- Adler, Mortimer J. (1981). *Six Great Ideas*. New York: Macmillan.
- Allender, Dan B. (2009). *Sabbath*. Nashville: Thomas Nelson.
- Almut Rößler. (1986). *Contributions to the Spiritual World of Olivier Messiaen, with Original Texts by the Composer*. Trans. Barbara Dagg, Nancy Poland and Timothy Tikker. Duisberg: Gilles and Francke.
- Barrs, Jerram. (2013). *Echoes of Eden: Reflections on Christianity, Literature, and the Arts*. Wheaton, IL: Crossway.
- Barth, Karl. (1957). *The Doctrine of God. Church Dogmatics*. Vol. 2. Edinburgh: T. & T. Clark.
- Beeke, Joel R. (2006). *Puritan Reformed Spirituality*. Darlington, U.K.: Evangelical.
- Begbie, Jeremy S. and Stephen R. Guthrie. (2011). *Resonant Witness: Conversations between Music and Theology*. CICW Liturgical Studies Series. Grand Rapids: Eerdmans.
- Bengio, Y., Courville, A. and P. Vincent. (2013). Representation Learning: A Review and New Perspectives. *IEEE* (the world's largest technical professional organization), 1798–1828.
- Berdyaeu, Nicolas. (1950). *Dream and Reality: An Essay in Autobiography*. London: Geoffrey Bles.
- Calvin, John. (1958). *Calvin Commentaries*. Trans. Joseph Haroutunian. Philadelphia: Westminster.
- _____. (1960).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Ford Lewis Battle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s. 20–21. Philadelphia: Westminster.
- _____. (2005). *Commentaries o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Hebrews*.

- Trans. John Owen. Grand Rapid: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 Carson, D. A. (Ed.) (2000). *From Sabbath to Lord's Day: A Biblical, Historical and Theological Investigation*. Eugene, OR: Wipf & Stock.
- Chittister, Joan. (2010). *Monastic Wisdom for Seekers of Light*. Maryknoll, NY: Orbis Books.
- De Gruchy, John W. (2008). *Christianity, Art, and Transformation: Theological Aesthetics in the Struggle for Jus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ymess, William. (1985). Aesthetics in The Old Testament: Beauty in Context.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28, 420.
- Edwards, Jonathan. (1989). *Ethical Writings*.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series 1, vol. 8.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_____. (1960). *The Nature of True Virtue*. Ann Arbor, MI: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Farley, Edward. (2001). *Faith and Beauty: A Theological Aesthetic*. Hants, U.K.: Ashgate.
- Frame, John M. (2008). *The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A Theology of Lordship*. New Jersey: P&R.
- Freud, Sigmund. (1961). *The Future of Illusion*. NY: Norton.
- _____. (1961).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NY: Norton.
- Gaffin, Jr., Richard B. (1986). A Sabbath Rest Still Awaits the People of God. *Pressing Toward the Mark: Essays Commemorating Fifty Years of the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33-51. (Ed.) Charles G. Dennison and Richard C. Gamble. Philadelphia: Committee for the Historian of the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 Gane, Roy E. (2011). Sabbath and Sanctification. *Journal of the Adventist Theological Society*, 22, 3-15.
- Gunton, Colin E. (1993). *The One, the Three and the Man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ns Urs von Balthasar. (1982). *Seeing the Form*. In vol. 1 of *The Glory of the Lord: A Theological Aesthetics*. Trans. Erasmo Leiva-Merikakis. San Francisco: Ignatius.
- Hart, David Bentley. (2003). *The Beauty of the Infinite: The Aesthetics of Christian Truth*. Grand Rapids: Eerdmans.
- Heschel, Abraham Joshua. (2005). *The Sabbath: Its meaning for Modern Man*.

-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 _____. (1951). *The Sabbath*.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 John of Damascene. (2003). *Three Treatises on the Divine Images*. New York: St. Vladimir Seminary Press.
- Kline, Meredith G. (2006). *Kingdom Prologue: Genesis Foundation for a Covenantal Worldview*. Eugene, OR: Wipf & Stock.
- Lowery, Richard H. (2000). *Sabbath and Jubilee*. St. Louis: Chalice.
- McCormick, Patrick T. (2012). *God's Beauty: A Call to Justice*. Collegeville, MN: Liturgical.
- Messiaen, Olivier. (1986). Introduction to the Programme Booklet for Paris. in Almut Rössler, *Contributions to the Spiritual World of Olivier Messiaen*. Trans. Barbara Dagg and Nancy Poland (Duisburg: Gilles und Francke), 10.
- Millgram, Abraham E. (1944). *Sabbath: The Day of Delight*.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of America.
- Moltmann, Jürgen. (1985). *God in Creation: An Ecological Doctrine of Creation*. Trans. Margaret Kohl. San Francisco: Harper & Row.
- _____. (1978). *The Passion for Life: A Messianic Lifestyle*. Philadelphia: Fortress.
- _____. (1972). *The Theology of Play*. New York: Harper & Row.
- Navone, John S. J. (1996). *Toward a Theology of Beauty*. Collegeville, MN: Liturgical.
- Norman, Judith, Alistair Welchman, and Christopher Janaway. (Eds.) (2011). *The World as Will and Representation*. Vol. 1. 3r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e, Edgar Allan. (1850). The Poetic Principle. *E. A. Poe Society of Baltimore*, 1-6.
- Pohle, Joseph and Arthur Preuss. (2007). *The Divine Trinity*. Kessinger.
- Pöltner, Günther. (1985). Die Erfahrung des Schönen. *Theologie und Ästhetik*. Wien: Herder.
- Prager, Dennis, and Joseph Telushkin. (1981). *Nine Questions People Ask About Judaism: The Intelligent Skeptic's Guide to Judaism*. New York: Simon & Schuster.
- Ricœur, Paul. (1974). *The Conflict of Interpretations*, (Ed.) Don Ihde.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Rößler, Almut. (1986). *Contributions to the Spiritual World of Olivier Messiaen, with Original Texts by the Composer*. France: Gilles & Franke.
- Rushdoony, Rousas John. (1973). *The Institute of Biblical Law*. Phillipsburg, NJ:

-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 Scarry, Elaine. (1999). *On Beauty and Being Jus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openhauer, Arthur. (2000). *World as Will and Representation I*. Trans. E.F.J. Payne. New York: Dover Publications.
- Schwab, Kause. (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orld Economic Forum.
- Sholl, Robert. (2011). The Shock of the Positive. in *Resonant Witness: Conversation between Music and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Ed.) Jeremy S. Begbie and Steven R. Guthrie, 162-189.
- Suggs, Jack. (Ed.) (1992). *The Oxford Study Bible: Revised English Bible with the Apocryph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Tatarkiewicz, Wladyslaw. (1972). The Great Theory of Beauty and Its Decline.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31, 165-180.
- Treier, Daniel J., Mark Husbands, Roger Lundin. (Eds.) (2006). *The Beauty of God: Theology and the Arts*. Downers Grove, IL: Inter Varsity.
- Turnbull, Ralph G. (1958). *Jonathan Edwards, The Preacher*. Grand Rapids: Baker.
- Viladesau, Richard. (1999). *Theological Aesthetics: God in Imagination, Beauty, and Ar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atson, Tony. (2017). *Sociology, Work and Organisation: Seventh Edition* London: Routledge.
- Wenham, Gordon J. (1987). *Genesis 1-15*.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1. Waco, TX: Word.

인터넷 자료

- “4 ways art is sculpt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2018). Retrieved from <https://www.weforum.org/agenda/2018/03/here-s-how-art-activates-the-fourth-industrial-revolution/>
- “A Dissertation Concerning the End for Which God Created The World”, Retrieved from http://www.prayermeetings.org/files/Jonathan_Edwards/JE_A_Dissertation_Concerning_The_End_For_Which_God_Create.pdf (2013.5.31.)
- “Arts Catalyst of Creative Organisation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2017). Retrieved from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186/s40852-017-0072-1>
- “Pietà (Michelangelo)”, Retrieved from <http://en.wikipedia.org/wiki/Pietà> (2013.5.31.)

논문초록

아름다움과 안식: 예술의 역할에 대한 신학적 고찰

서나영 (남침례신학대학원)

이 연구의 목적은 안식일의 핵심교리를 통해 아름다움과 예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공하여 그 본연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인류의 예술에 관한 역사는 아름다움 향한 인간의 끊임없는 갈망을 보여준다. 낭만주의 이후로 예술은 자기표현의 수단이 되었으며 이제 아름다움의 의미는 변했다. 현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움을 위해 자신의 의지를 진리에 내어드리는 대신에, 예술의 아름다움이 인간의 혼란과 투쟁과 고통을 표현되어지는 자울에서 오는 것이라는 문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그들에게 희망을 열어주고 추악하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찾아 해매고 있으며 여전히 그것에 목마르다.

이에 본서는 인간에 대한 아름다움의 필요성은 궁극적으로 땅과 하늘의 평화의 형태로 하나님에 의해 성취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은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것이 미적 이론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안식일은 인류가 죄에 빠지기 전에 제정되었으며 (창 1),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으로 주어졌다 (출 20, 신 5). 안식일은 즐겁고 아름다우며 영원의 쉼이 있는 날인 것이다. 그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창조주가 심어두신 기쁨의 예표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의 창조와 그의 구속사역이 끝난 것을 기념하며 기쁨으로 그의 영원한 나라를 기대한다. 안식일의 한 측면으로서 예술은 그 아름다움을 통해 이 세상의 억압된 고통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한다는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서는 안식일과 아름다움의 경험은 미래 지향적이며, 그 종말론적 소망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타나고, 창조주와 그의 아들과 성령의 구속사역 안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 할 수 있음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절에서는 안식일 신학이 창조와 구속을 중심으로 관찰되어지며, 두 번째 절에서는 안식일의 핵심 교리에 기초하여 기독교 미학과 예술의 역할이 연구된다.

주제어 : 아름다움과 신학, 안식일 신학, 기독교 미학, 창조와 예술, 예술의 초월성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Relig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nd Alternative Service

음선필 (Sun-pil Eum)*

Abstract

In Korea,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has been done almost (about 99%) by the Jehovah's Witnesses. Therefore, the term of "relig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s more appropriate than the ordinary term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prescribe a right to refuse military service, while clearly indicating the obligation of national defense. It is unwise to adopt uncritically the interpretation theories of the countries whose constitutions clearly state th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However, if necessary, in order to harmonize the freedom of religion and military service obligation in legislation or to protect very exceptionally the religious freedom in materializing the duty of national defense, a "reasonable" substitute for military service could be designed. Because of the seriously unpredictable situation of Korean national security, it is important to maintain capability for national defense and to keep fairness of the obligation of national defense in designing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Consequently, it is more realistic to make religious objectors serve in non-combat fields rather than in the private area.

Key Words : military servic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freedom of religion, alternative service

이 논문은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할 것인가』 세미나(바른군인권연구소 등 공동주최, 2018.01.16.,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필자가 발표한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 처벌조항이 위험인가?”와 『종교적 신념과 관련한 문제를 법제화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국회운영위원회 정책연구개발용역 보고서, 2018.02.27.)의 필자가 집필한 부분을 대폭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College of Law, Hongik University),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94 홍익대학교, eumsp@hongik.ac.kr

2018년 04월 21일 접수, 05월 22일 최종수정, 05월 24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2018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1. 들어가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입영의 기피 등을 처벌하는 조항으로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일정한 기간(2일 내지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정당한 사유”에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상 또는 종교상 신념 등이 포함되느냐의 여부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날선 공방이 지속되었다. 특히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 규정만을 두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거듭 반복되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인식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위헌 여부가 한국에서 줄곧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4년, 2011년에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¹⁾ 대법원도 이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²⁾

병역거부자 처벌조항의 위헌성 문제는 양심의 개념, 양심 및 종교의 자유의 보호범위, 국방의무의 구체화 방안 등에 대한 인식 차원(헌법해석론)의 어려움에 종교적 확신과 국방정책의 의지가 합쳐지고, 헌법재판소의 기능적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묶여 있는 난제(Solomon's choice)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병역거부가 사실상 종교적 교리에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양심적 병역거부로 취급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앙에 의한 행위라도 개인의 주관적·윤리적 판단을 동반하는 것인 한 양심의 자유에 포함시켜 고찰할 수 있

1) 헌재 2004.8.26. 2002헌가1; 헌재 2004.10.28. 2004헌바61 등(병합); 헌재 2011.8.30. 2008헌가22 등(병합). 2004년 결정과 2011년 결정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주요 쟁점들을 다루었으며 양 결정 사이에 논리구성에 약간 차이가 있을 뿐 근본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들에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하여 7:2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2) 대표적인 판결로 대법원 2004.7.15. 2004도2965(전원합의체)를 들 수 있다. 이외의 많은 판결들을 통하여 대법원은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하급심에서 병역거부를 무죄로 선고하는 다수 판결들이 나타났다. 향후 대법원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가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으므로, 종교의 자유는 고려하지 않고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 족하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1.8.30. 2008헌가22등). 그러나 양심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필자는 후자의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도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근본적으로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 나아가 종교적 박해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현행 헌법은 국방의무를 국민의 기본의무로 명시하면서 ‘의도적으로’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와 같이 헌법에 국방의무를 명시하면서도 병역거부권을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려면 이를 헌법해석론으로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헌법해석에 있어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규범적 구조와 국가안보상황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외국 입법례를 주로 의존하여 해석론을 전개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험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의 해석론을 무조건 차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역사적으로 침략전쟁을 일으킨 국가에서 반전(反戰) 내지 병역거부는 종교적, 도덕적, 양심적으로 지지받았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갖지 않은 한국에서 추상적인 평화주의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규범적으로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고 본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병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한국 헌법규범체계와 부합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여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아주 제한적으로, 즉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하려 한다면 그 전제로서 ‘합리적인’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요구됨을 알아야 한다. 헌법에서 먼저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후 병역의무조항을 신설하면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였던 독일의 경우와 달리, 우리 헌법에서는 국방의무를 먼저 규정하였기에 병역의무 부담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가 설계될 수 있어야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해석론으로나 입법론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관련 규정의 해석론과 이를 보완하는 입법론을 전개해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병역거부의 유형과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고(II), 병역거부의 헌법적 근거로 제시되는 종교의 자유

의 한계를 검토한 후(III), 대체복무제 도입의 가능 여부를 모색하고(IV), 그 구체적인 설계도를 구상해보고자 한다(V).

II.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의 개념과 한국의 현실

1.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의 의의

통상 헌법상 문제되는 병역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Kriegsdienstverweigerung aus Gewissensgründen)”로 불리며, 신앙·도덕·철학·정치적 신념 등에 따른 양심상의 결정으로 무기를 휴대한 병역이나 일체의 군복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전쟁에 직·간접으로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³⁾

역사적으로 병역거부의 주된 동기는 종교적 이유였다. 교리에 순종하기 위하여 죽음을 불사하고 병역 기타 군복무의 수행을 거부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등을 거치면서 종교적 이유만이 아니라 평화적 사상 또는 윤리적, 정치적 신념 등에 기초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그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당시의 전쟁들이 정의롭지 않은 목적과 동기 가운데 발발되었다는 시대적 인식의 확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에 대한 반성으로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짐승병역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권리로 규정하게 되었다(독일기본법 제4조 제3항). 이에 따라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사상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가 병역거부의 근거가 되면서, 통상 ‘양심적’ 병역거부로 불리게 되었다. 학계에서도 이러한 입장에서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예컨대 류지영, 2016; 장영수, 2015; 강승식, 2013; 정연주, 2012; 오승철, 2009; 나달숙, 2008; 장복희, 2006; 김병록, 2003 등).

그런데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를 보통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번

3) 병역법 제8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것은 입영기피죄에 해당한다. 이에 의하면 어떠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도 병역기피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병역기피(draft dodging)와 구별한다.

역하여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 등에 근거한 병역거부를 총칭하는 용어로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신념적 병역거부)’로 의역(意譯)하여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첫째, 우리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별도의 조항에서 각각 보장되는 별개의 권리로 인식되므로 양심과 종교적 신앙은 상호 구별된다. 따라서 병역거부의 여러 동기 즉 양심상의 신념, 종교상의 신념을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신념적 병역거부)’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더 적합하다. 그렇다면 병역거부의 직접적 동기에 따라 양심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구분하여 각각의 특색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종교적 사유로만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대만의 경우(대만 대체복무조례 제5조),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만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 구체적 동기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다양한 병역거부를 포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로 단순화하여 주로 양심의 자유 관점에서 검토하는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과연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든다.

둘째, conscience의 번역어로서 쓰인 양심(良心)이라는 단어가 지닌 원래의 의미 이외에 통상 인식되는 뉘앙스[양심=양(良)+심(心)=착한 마음]로 인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병역수행을 자칫 ‘비양심적(부도덕한, unscrupulous)’인 것으로 오인케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병역거부와 관련한 양심은 법적 개념이기 때문에, 인식과 적용의 차원에서 그 의미에 오해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헌법상 양심은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바⁴⁾, 이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헌법체계에서는 ‘신념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본다.

셋째, 일상적인 용어가 아닌 법적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 그 의미가 법체계에 따라 달라짐을 주의하여야 한다. 예컨대 독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역사적 맥락 가운데 도덕적(윤리적) 당위성을 확실히 가지며 또한 헌법상 명문의 근거를 가진 매우 강력한 권리 개념이니⁵⁾, 우리의 경우 그렇지 아니한다. 후술하다시피, 우리의 경우 특정 종교의 교리에 따른 병역거부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통상 이해되는 양심적

4) 기본적인 자유 영역의 하나로서 양심의 개념에 관해서는 종교적 확신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종교적 신앙설, 도덕적 의무의 자각 또는 도덕적·윤리적 판단으로 인식하는 도덕적 윤리설, 세계관·인생관과 같은 일반적 신조로 이해하는 일반적 신조설 등이 있다(권영성, 2010: 480).

5) 독일에서는 헌법 자체에서 “양심에 반하여(gegen sein Gewissen)”, “양심상의 이유로(aus Gewissensgründen)”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제12a조 제2항).

병역거부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권을 헌법상 인정하고 있는 국가의 해석론을 우리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법적 개념을 상이한 법체계에서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맥락상의 혼동(contextual confusion)을 조심하여야 한다.

2. 병역거부의 유형

(1) 범위에 따른 구별

거부의 범위에 따라 ‘병역(수행 자체)거부’와 ‘집중병역거부’로 구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행위의 형태를 막론하고 군복무 자체를 거부한다. 후자의 경우, 비전투행위는 수용하나, 전투행위 즉 집중병역행위(무기를 사용하는 군복무, Kriegsdienst mit der Waffe)만을 거부한다. 따라서 전자의 입장을 취하는 자는 입영 자체를 거부하나, 후자의 입장을 취하는 자는 일단 입영한 후 훈련소에서 집총을 거부한다.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입법례 중에서도 집중병역거부만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⁶⁾

(2) 대상에 따른 구별

병역거부는 그 대상에 따라 ‘선택적(selective) 병역거부’와 ‘보편적(일반적) 병역거부’로 구별된다. 전자는 특정한 전쟁(예컨대, 베트남 전쟁), 전투(예컨대 민간인지구에 대한 공격)나 특정무기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양자를 구별하면서 병역거부권이 전자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밝힌 바 있다.⁷⁾

(3) 시기에 따른 구별

병역거부의 시점에 따라 ‘입대 전 병역거부’와 ‘복무 중 병역거부’로 나눌 수 있다.

6) 독일기본법 제4조 제3항 및 제12a조 제2항이 그러한다. 그런데 이를 직접 살상무기를 휴대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으며 상명하복의 군대조직과 복잡한 현대무기체계의 특징을 감안하여 전체적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7) Welch v. United States(1970); Gillette v. United States(1971). 한편 독일의 경우도 그러한다. BVerfGE 12, 45; 48,127.

통상 징병제 국가에서는 양자가 모두 문제되나, 모병제 국가에서는 후자가 문제된다.⁸⁾

(4) 동기에 따른 구별

현행 헌법상 병역거부의 근거가 되는 신념이 형성되는 동기(계기)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양심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양심적 신념 병역거부)⁹⁾와 제20조에 따른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종교적 신념 병역거부, 종교적 병역거부)로 구별할 수 있다. 관점에 따라서는, 병역거부가 양심상 결정에 따른 것인바, 그러한 양심상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 세계관 또는 기타 가치체계에 기초하든지 간에 모두 양심의 자유에 포함시켜 고찰할 수 있으므로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¹⁰⁾

그러나 병역거부는 그 동기에 따라서 등장배경 및 사회적 맥락, 대체복무 허용에 따른 수혜자의 범위 및 사회적 파급효과 등에서 적잖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본다.

종교적 교리가 병역거부를 요구하는 경우, 신도에 따라서는 자신의 개인적 양심(판단)과 달리, 교리에 대한 순종의 차원에서 병역거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병역의무에 따른 군사훈련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종교단체에서 배제(제명)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부득이하게 병역거부를 하는 경우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¹¹⁾ 이러한 경우 양심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순수한 양심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는 그 속성상 개인적인 것에 비하여,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는 대체적으로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을 지닌다.

8) 모병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이를 In-C.O.(In service Conscientious Objection)라고 한다. 복무중 병역거부자는 명예제대를 신청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명예제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영창에 보내진다고 한다.

9) 현행 헌법이 사상의 자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를 넓게 해석하여 사상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사상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0)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그러하다. 예컨대 헌재 2011.8.30. 2008헌가22등(병합).

11) 만약 병역거부가 ‘양심상 결정’에 기인한 까닭에 모두 존중되어야 한다면, 예컨대 여호와의 증인 내에서 양심상 결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신도에 대하여 제명조치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병역이행이 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양심에 따른 병역이행자를 종교집단에서 제명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는 종교적 공동체를 이루는 가족이 함께, 때로는 대를 이어서 반복하기도 한다.

3. 한국에서 병역거부의 현실

(1) 한국 병역거부의 특징

한국에서 병역거부는 통상 병역검사의 결과 현역판정을 받은 현역입영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은 922명으로, 기피요지별로는 현역입영기피 663명, 국외불법체류 155명, 사회복지무요원소집기피 62명, 병역판정검사기피 42명이었다(2017.2.22. 병무청 보도자료).

한국에서 병역거부는 거의 대다수(약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의하여 이뤄지고 있다.¹²⁾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병역거부는 사실상 양심적 신념 병역거부라기보다는 종교적 신념 병역거부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병역거부를 이해함에 있어서 종교집단으로서 여호와의 증인이 내세우는 교리적 특징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병역거부는 입영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징총 거부만이 아니라 병역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목할 점은, 한국에서 병역거부가 사회적 이슈가 된 2000년대 초반 이전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일단 훈련소에 입소한 후 징총을 거부하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아예 현역입영을 거부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입영 이후의 징총거부는 군형법의 항명죄에 해당하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나, 입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의 입영기피에 해당하여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통상적으로 전자의 경우에는 2-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다.

요컨대 한국에서 병역거부는 거의 대부분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12) 극히 예외적인 소수가 불교신자 또는 평화주의자의 입장에서 병역거부를 하고 있다.

(2) 한국의 특수한 상황

세계적으로 볼 때, 유엔 회원국 193개 국가 중에서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 21개국과 징병제를 취하지 않는 67개국을 제외한 가운데, 헌법이나 법률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나라는 57개국, 사법적·관행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나라는 12개국인데 비하여, 징병제를 취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나라는 36개국이다(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 <https://amnesty.or.kr/10835/>, 검색일 2018.04.17.). 한국은 징병제국가이면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은 국가에 해당한다.

2000년 이후 국가별로 기록된, 전 세계 병역거부로 인한 수감자의 약 90%에 해당하는 수감자에 한국에 있다(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 <https://amnesty.or.kr/10835/>, 검색일 2018.04.17.). 그 대부분이 종교적 교리에 기인함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이러한 통계수치로 인하여 한국이 병역거부자에 대한 차별이 심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병역거부로 인한 수감수가 한국에 많은 이유는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국가 중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¹³⁾과, 전쟁위기가 상존(常存)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국민개병의 원칙과 징병제를 채택한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다.

흔히 독일과 대만이 한국과 유사한 안보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병역거부 내지 대체복무제를 인정한 국가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정과 상황이 우리와 다름을 알 수 있다. 독일은 처음부터 헌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 오다가 냉전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군대를 창설하고 유지할 필요성 때문에 병역의무를 규정하다보니 부득이하게 그 절충안으로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한편 대만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 60만 규모의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 이래 중국과의 적대관계가 개선되고 국방정책이 현대화 및 소수정예화로 바뀜에 따라 대규모 감군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초과인원을 사회공공서비스로 투입하고 군복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즉, 군축상황에서 유희병력을 사회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게 되었고, 그러한 경로의 하나로서 종교적 사유에

13) 여호와의 증인 홈페이지(<https://www.jw.org/ko>)의 자료인 2014년 봉사연도 보고서에 의하면, 증인 10만 명이 넘는 국가가 24개국이다. 이에 의하면 한국의 증인 수는 100,641명이다.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국가 중에 상대적으로 한국에 여호와 증인 신도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의한 병역거부자를 대체복무역으로 징집하게 되었다.

요컨대, 일찍이 전쟁을 경험하였고 아직도 정전(停戰)상태이면서 전쟁발생의 위협이 상존한 안보상황에 처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한국도 다른 징병제 국가처럼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예외적인 특수한 상황에 따라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4. 소결론

한국에서 병역거부가 사실상 종교적 교리에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양심적 병역거부로 취급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종교적 신앙에 따라 현역복무라는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처벌조항에 의하여 이들의 종교의 자유도 함께 제한된다고 본다. 그러나 종교적 신앙에 의한 행위라도 개인의 주관적·윤리적 판단을 동반하는 것인 한 양심의 자유에 포함시켜 고찰할 수 있으므로, 종교의 자유는 고려하지 않고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 족하다고 판단하였다.¹⁴⁾

그러나 양심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필자는 후자의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도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 나아가 종교적 박해로 인식하고 있다.

요컨대, 한국에서 병역거부가 사실상 특정 종교집단 신도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양심의 자유 측면보다는 종교의 자유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사실에 더 부합하다고 본다.

14)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르면, 양심상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또는 그 밖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 결정은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종교관·가치관·세계관 등에 따라 전쟁과 그에 따른 인간의 살상에 반대하는 진지한 양심이 형성되었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결정은 양심에 반하여 행동할 수 없다는 강력하고 진지한 윤리적 결정이며, 현역복무라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은 개인의 윤리적 정체성에 대한 중대한 위기상황에 해당한다. 헌재 2011.8.30. 2008헌가22등(병합), 판례집23권 2집, 189-190면.

Ⅲ. 종교의 자유와 그 한계

1.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자신이 선호하는 종교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신봉하는 자유를 말한다. 종교의 자유의 내용에는 가장 핵심을 이루는 신앙의 자유를 비롯하여 종교적 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선교의 자유 등의 적극적인 자유만이 아니라 무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사·종교적 집회 및 결사·선교활동 등을 강제 받지 아니할 소극적 자유까지 포함된다(권영성, 2010: 490).

종교의 자유 중 신앙실행의 자유는 종교적 교리를 행위의 지침으로 삼고 종교적 확신에 따라 행동할 자유를 말한다(한수웅, 2015: 727). 병역수행에 따른 피해의식이나 두려움 등의 이유로 하는 병역기피와는 달리, 종교적 교리에 따른 병역거부는 ‘부작위에 의한 신앙실행의 자유’에 해당한다.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종교적 동기에 기인하는 행동이 그렇지 아니한 행동에 비하여 차별화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¹⁵⁾ 여기서 종교적 교리에 의한 병역거부가 일반적 병역기피와 달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더러 오히려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종교의 자유의 한계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신앙실행의 자유는 공익이나 제3자의 법익 보호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신앙실행의 자유로서 병역거부가 허용되느냐 여부는 신앙실행의 한계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인가의 여부를 묻는 문제로 나타난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병역법 제88조 제1항, 이하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하게 된다. 헌법

15) 종교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인간을 종교적 존재로 보는 관점을 전제로 한다. 특정한 행위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속하지 않고 종교에 따른 생활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자신의 종교적 계율이나 의무가 포함된 교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재판소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원칙에 따라 즉 목적정당성·수단적합성·피해최소성·법익균형성의 측면에서 처벌조항의 위헌성을 심사하면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헌재 2011.8.30. 2008헌가22 등).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은 매우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입각하여 처벌조항이 과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처벌조항은,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의 이행을 관철하고 강제함으로써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제도 하에서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영을 기피하는 현역 입영대상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현역복무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처벌조항이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되는가의 여부는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가능한가와 직접 관련된다.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인지의 문제는 결국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국가안보라는 중대한 공익의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문제로 귀결된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안보상황, 대체복무제 도입시 발생할 병력자원의 손실 문제,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 곤란성, 사회적 여론이 비판적인 상태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사회 통합을 저해하여 국가 전체의 역량에 심각한 손상을 가할 우려가 있는 점, 종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제시한 선행조건들이 아직도 충족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국가안보와 병역의무의 형평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의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쉽사리 내릴 수 없으므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조항이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법익균형성과 관련해서는, 종교의 자유와 병역의무 간에 가치의 균형을 따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병역거부의 근거가 되는 교리 자체의 참됨이나 정통성에 관하여 국가기관이 판단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이 영역에 대하여 국가가 중립을 지키는 것이 종교의 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러한 교리에 따른 병역거부행위가 헌법체계에서 수용될 수 있는가 여부는 따질 수 있다. 종교 자체는 현세의 질서와 가치를 초월하는 영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법의 영역에 들어오는 종교적 현상과 중

교적 행위는 국가적 질서와 가치와 연결되어 판단되지 않을 수 없다.¹⁶⁾ 이를 위해서는 교리에 따른, 즉 병역거부행위가 수반하는 결과를 공리주의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구약 전도서의 핵심적 표현인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인간세상에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법적 판단은 궁극적으로 공리주의적 판단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병역거부에 관하여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핵심 교리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http://www.hdjongkyo.co.kr/news/view.html?category=1004&no=15485§ion=22>, 검색일 2018.01.11). 병역거부에 관한 주요 교리로 그들의 왕국론과 아마겟돈 전쟁론을 들 수 있다. 그들의 교리서에 해당하는 『성서는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가』(2016: 76-85)에 의하면, 1914년 예수님이 하늘 정부의 왕으로 즉위하여 통치함으로써 하나님의 하늘 왕국이 시작되었고,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남으로써 현재의 악한 세상 제도의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하늘 왕국은 때가 되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정부를 제거하고, 여호와 증인의 하늘 정부가 이 지상을 다스림으로써 이 땅이 지상낙원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사단의 정부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의 군대에 입대해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국의 군대에 군인으로 활동하는 셈이 된다.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세상 정부의 군대에 소속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으로 볼 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기에 병역거부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을 하면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이는 그들의 왕국론과 아마겟돈 전쟁론에서 비롯한 것이다. 즉 그들의 병역거부는 일반적 평화주의에 근거한 양심적 결정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신봉하는 교리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¹⁷⁾ 대한민국을 포함한 이 세상의 정부가 사단의 정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일찍이 국가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 제창을 거부하였던 것이다.¹⁸⁾

16) 만약 종교적 교리가 국법질서와 충돌하게 될 경우, 국법질서를 반영(수용)하여 교리의 적용형태를 달리하든지, 아니면 교리에 충성을 다짐하면서 국법질서를 바꾸려고 시도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이를 거부·저항하든지 더 나아가 국가공동체를 떠나가든지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종교와 국가간의 긴장관계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존재하여왔다.

17) 이러한 점에서 “종교적 신앙에 의한 행위라도 개인의 주관적·윤리적 판단을 동반하는 것인 한 양심의 자유에 포함시켜 고찰할 수 있으므로, 종교의 자유는 고려하지 않고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 족하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스럽다.

18)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늘 왕국의 백성이므로 세상의 정치문제에 엄격하게 중립을 지킨다고 주장한

위와 같은 교리에 따라 여호와의 증인들은 입영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병역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정당하다고 규정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는 국군의 존재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까닭에 병역의 의무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국군의 헌법적 사명(과제)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거부권을 헌법이나 법률에서 명시하거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침략전쟁 아닌 정당한 전쟁(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한 전쟁)조차도 부인하고 군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까닭에 징총뿐 아니라 군복무 자체를 거부하는 종교적 교리를 우리 헌법이 당연히 보호해주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보호해 줄 것을 국가에게 요구하면서도 정작 국가의 안보에 가장 중요한 병력형성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주장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의심이 든다. 과연 이러한 주장이 ‘보편화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인가? 이러한 주장이 소수에 그칠 경우에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 만약 이러한 주장이 다수의 의견이 되는 경우에도 과연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동일한 종교적 교리가 소수의 것이라면 보호될 수 있으나 다수의 것이라면 부인되어야 한다면, 그러한 종교적 교리가 과연 헌법적으로 보호될 가치가 있다고 볼 것인가?

따라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일체의 군복무에 대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런 점에서 신앙실행의 자유의 보호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라고 본다. 그렇다면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형벌부과에 관한 헌법상의 원칙에 반하지 않은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¹⁹⁾

다. 그래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분쟁에 가담하지 않음은 물론, 정당가입이나 투표조차도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치문제에 대하여 엄격하게 중립을 지키는 대표적 근거로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요 18:36)”를 들고 있다(『성경은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2016: 149-150). 이처럼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대한 충성을 국가주의라고 거부한다.

19) 종교적 신앙을 이유로 환자인 가족에게 수혈을 하지 못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는 종교의 자유로 보호되지 못하고 이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80.9.24. 79도1378)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3. 결론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른바 양심상 결정에 따른 병역거부로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고 본다. 여기서 관건은 법익균형성에 관한 판단으로서 병역의무와 양심의 자유 간 가치의 충돌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이다. 병역의무와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되는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가치형량’ 아닌 ‘구체적인 비교형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병역거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한국의 안보상황과 병역거부자의 개인적인 양심을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엄중한 안보현실을 고려할 때, 그 내용이 어떠한 간에 이른바 ‘내면의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는 이유로 모든 양심상 결정이 과연 병역거부를 정당화할 정도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것인가? 만약 모든 양심상 결정을 동일하게 보호하여야 한다면, 일찍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나름대로의 사상이나 사이비종교의 교리를 양심상 결정의 근거로 내세울 경우, 과연 이를 막아낼 법적 근거가 있을 것인가?

생각건대, 전투영역이든 비전투영역이든 관계없이 입영 자체를 거부하면서 일체의 병역 수행을 거부하는 결정이, 양심실현의 자유로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부담하여야 할 병역의무의 가치보다 더 보호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²⁰⁾

IV. 대체복무제 도입의 가능 여부

1.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에 관한 현행 헌법의 입장

현행 헌법은 병역거부권은 물론 대체복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에 신

20)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형사처벌을 받는 불이익을 입게 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국가의 존립과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인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공익이고, 병역의무의 이행은 거부함으로써 양심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는 누구에게나 부과되는 병역의무에 대한 예외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의 관점에서 볼 때 타인과 사회공동체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익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헌재 2011.8.30. 2008헌가22(병합), 판례집 23권 2집, 175면.

념, 양심 또는 종교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헌법적 가치로 인정하는 국가는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를 헌법에 명시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국가로 독일을 들 수 있다 (자세히는 이재승, 2007: 43-66).

독일에서 대체복무제가 헌법에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독일 특유의 상황이 있었다. 나치독일의 패망 후에 수립된 독일연방공화국은 전승국의 영향 가운데 당연히 헌법에 평화주의를 선언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개인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독일은 재무장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소련과 동부유럽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방과제 역할을 맡게 되면서 군대를 창설, 유지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이외에 병역의무를 새로이 규정할 필요가 생겨났다.

그래서 제7차 개헌을 통하여 징병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부과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처럼 독일에서 대체복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병역의무를 조정하는 절충안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를 헌법에서 규정한 외국 입법례를 알면서도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상의 간과(看過) 내지 미비가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우리와 같이 헌법에 국방의무를 명시하면서도 병역거부권을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려면 이를 헌법해석론으로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헌법해석에 있어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규범적 구조와 국가안보상황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외국 입법례를 주로 의존하여 해석론을 전개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험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러시아헌법 제59조 제1항, 네덜란드헌법 제99조, 독일기본법 제12a조 제2항, 스위스헌법 제59조 제1항, 포르투갈헌법 제276조 제4항 등)의 해석론을 무조건 차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를 해석론으로 이끌어낼 수 없는 경우, 입법론으로 헌법에 병역거부권의 신설을 추진하거나 헌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병역법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의 허용 및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먼저 현행 헌법이 국가안전보장에 관하여 어떤 규범구조를 취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헌법 규정

(1) 헌법상 중대한 법의으로서 국가안전보장

국가안전보장은 국가의 존립과 영토의 보존, 국민의 생명·안전의 수호를 위한 불가결의 전제조건이자 모든 국민이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이는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는가와 관계없이 존중되어야 하는 헌법상 중대한 법의이라 할 것이다. 국가안전보장과 국민의 자유 및 권리 간에 가치의 우열을 추상적으로 따지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국가안전보장이 모든 자유 및 권리를 향유하기 위한 전제조건임은 분명하다. 병역거부의 근거가 되는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조차도 국가안전이 확보되어야만 비로소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안전보장과 자유 및 권리가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전자를 우선할 수 밖에 없다. 국가안전보장과 국민의 자유·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법익형량에 따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가치의 우열을 정하거나, 아니면 규범조화적 해석에 따라 양자를 존중하는 균형점을 찾되 그렇지 않을 경우 비례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여하튼 최종적으로는 양자 중에 우선할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모든 자유·권리를 보장하는 전제조건으로서 국가안전보장을 우선할 수 밖에 없음은 분명하다.

한편, 이와 같은 당연한 명제 외에도, 주권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 전쟁까지 경험한 한국의 현대사를 돌아볼 때, 국가안전보장과 영토수호가 헌법적 가치로 고양(高揚)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겠다.²¹⁾

(2)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군사제도와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

한국 헌법은 국가안전보장을 헌법상 중대한 법의으로 간주하여 다각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가 국군의 “신성한” 의무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의 수행이 국군의 헌법적 “사명”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국군은 침략적 전쟁을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제5조 제1항).²²⁾ 이처럼 국군은 국

21) 한국은 1948년헌법 이래 국토방위를 국군의 신성한 의무로, 또한 국토방위(국방)의무를 국민의 기본의무로 부과해 왔다.

가정책실현 수단으로서의 전쟁이나 침략적 전쟁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만 전념하는 신성한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평화사랑’ 등 반전(反戰)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전쟁의 수행은 헌법규범체계상 용납되지 아니한다.

헌법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실현할 수 있는 실제적인 수단으로 국군이라는 군조직을 제도화하며, 국군의 통수권을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수호의 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제66조 제1항 및 제2항, 제74조 제1항). 그리고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 제76조 제1항은 대통령에게 국가긴급권을, 제77조 제1항은 계엄선포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필수적으로 두고 있다(제91조).

또한 헌법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될 수 없다.

더 나아가 헌법은 국군의 조직·유지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제39조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의 기본의무(Grundpflichte)로 명시하고 있다.²³⁾ 국방의무라는 기본의무의 부과는 기본권의 제한 이상으로 강력한 국가안전보장의 수단이 된다.

오늘날 전쟁은 총력전 형태로 치러지기 때문에 국방의무는 국방을 위한 직접·간접의 병력형성(제공)의무를 내용으로 한다. 국방을 위한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는 병역법에 따른 징집에 응할 의무를 말하며,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에는 예비군복무의무, 방공·응급적 방재·구조·복구 및 노력지원 등이 포함된다.²⁴⁾

22) 헌법에서 침략적 전쟁의 부인을 명시하는 입법례가 세계적으로 소수이다. 일찍이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그러한 입법례의 대표적인 국가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이 1948년헌법 이래 줄곧 침략적 전쟁의 부인을 헌법상 명문으로 유지해 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하겠다.

23) 기본권과 함께 기본의무가 헌법에 명시된 것은 서구 헌법의 역사에서 볼 때 그 유례가 거의 없다. 우리 헌법은 독일 바이마르헌법을 모델로 삼아 1948년헌법 이래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기본권과 기본의무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양자간에 체계적 연관관계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기본의무는 공동의 정치적 생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국가에 대한 급부이행의무·수인의무·부작위의무 등을 부과함으로써 개인의 희생과 부담 등을 요구한다 (계희열, 2004: 804; 한수웅, 2015: 1075).

국방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 특히 현역입영의무가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입영 여부에 대해 결심해야 하는 양심의 자유뿐 아니라, 입영 후 군복무 중에 여러 기본권(특히 거주·이전의 자유, 의견표명·전파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의 제한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복무에 따른 여러 개별 기본권의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 헌법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권리와 자유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제37조 제2항 외에, 제39조 제1항(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을 별도로 두고 있다.²⁴⁾

이처럼 국민의 기본적 의무로 규정된 국방의무는 병력형성(제공)에 따른 기본권 제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필요성(적합성)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민주국가의 헌법에 있어서 국방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징집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가권력을 억제하고 제한한다는 소극적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국민이 스스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하여 병력을 유지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음(권영성, 2010: 715-716)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즉 국민이 기본권의 주체인 동시에 기본의무의 주체임을 확인시키면서 국민에게 기본권의 향유 못지않게 국가존립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3. 국방의무와 대체복무제

(1) 국방의무 구체화의 구조와 원리

국방의무는 통상 사인간의 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자유의 제한 차원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에 대한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이다. 주권자로서 부담하는 헌법상 기본의무의 부담은 통상 기본권의 제한에 따른 부담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24) 한편 헌법상 침략적 전쟁은 부인되기 때문에 국방의무에 침략전쟁을 위한 병력형성의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5) 이처럼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특히 병역의무관계에 있는 군인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한수웅, 2015: 352-353).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외에, 기본의무로서 국방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국방을 위하여 일정한 수준의 부담을 균등하게 감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성별, 종교, 나이, 개인의 주관적 신념이나 가치판단에 무관하게 이행되어야 한다(정종섭, 2015: 558). 또한 국민은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하여 기본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정종섭, 2015: 893; 한수웅, 2015: 1077). 그런 까닭에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겠다.

기본의무의 구체화는 의무의 ‘원칙적 부담’과 극히 ‘예외적인 감면’의 구조를 취한다. 이러한 구조는 통상 기본권의 ‘원칙적 보장’과 ‘예외적 제한’이라는 기본권의 구체화와 다름을 주의하여야 한다. 기본의무의 구체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본권의 제한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기본권제한의 법리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편할 수도 있고 또한 효과적일 수도 있다. 기본권 제한의 경우, 통상 개별 기본권의 제한의 정도를 따져 ‘합헌적인 제한’인가 아니면 ‘위헌적인 침해’인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기본의무 구체화의 경우에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만이 아니라 의무주체간의 형평성을 중요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담의 ‘내용’과 ‘수준’ 그리고 ‘형평성’이라고 본다.

이와 관련한 헌법원리로 인간의 존엄 및 가치의 존중(제10조), 평등원칙(제11조), 법치주의(제37조 제2항)을 들 수 있다. 첫째, 인간의 존엄 및 가치의 존중은 의무부과의 ‘내용’과 ‘수준’에 관한 입법의 지침이 된다. 의무부과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둘째, 평등원칙은 부담의 ‘형평성’을 요구하는바, 국방의무 중에 기본권제한의 정도가 가장 심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제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복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당화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셋째, 기본의무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입법자의 구체적인 형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입법자는 법률유보와 과잉금지원칙의 구속을 받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기본의무의 구체화는 법치주의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요컨대, 입법자는 헌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국방의무를 구체화하는 입법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에 언급한 헌법원리에 따라야 할 것이다.

(2) 국방의무 구체화와 입법재량

헌법 제39조의 국방의무는 추상적인 의무로서 여러 법률(병역법, 군형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탄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에 합목적적인 수단을 최적화하여 국방능력을 최고도로 갖춰야 하기 때문에, 입법자는 국방의무를 구체화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 국방에 필요한 각 군의 범위 결정과 적절한 복무기간의 산정 등을 비롯한 병력의 구체적 설계, 총량의 결정 및 그 배분, 안보상황의 예측 및 이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 재정능력의 확보 및 부담의 분배 등은 매우 전문적이고 정치적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또는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대체복무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구상할 것인지도 국회의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기능적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병역거부행위의 대체재로 여겨지는 대체복무제의 도입에 따른 득실을 공리적으로 따져보는 것이나, 병역의무 이행과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는 대체복무제로 어떠한 형태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에 적합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더군다나 대체복무제의 설계 작업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 가는 과정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작업은 헌법재판소에게 적절하지 않다(장영수, 2015:161-195).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처벌조항의 위헌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입법재량이 그 한계를 준수하였는가를 따져서 검토하는 것이 더 실제적이라고 본다.

4. 소결론

현행 헌법은 ‘의도적으로’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역사적으로 침략전쟁을 일으킨 국가에서 반전(反戰) 내지 병역거부는 종교적, 도덕적, 양심적으로 지지받았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갖지 않은 한국에서 추상적인 평화주의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규범적으로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고 본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병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한국 헌법규범체계와 부합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²⁶⁾

국방의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입법자가 갖는 입법재량을 생각할 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의무부과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과 내용이 기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입법자가 유의해야 하는 여타의 헌법적 가치를 충분히 존중한 것으로서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부과의 공평성 또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그럼에도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여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아주 제한적으로, 즉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하려 한다면 그 전제로서 ‘합리적인’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요구됨을 알아야 한다.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후에 병역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논리적인 순서로 보이지만, 우리 헌법체계에서는 병역의무를 이미 규정하고 있기에 병역의무 부담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가 설계되어야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²⁷⁾

V. 대체복무제의 설계

1. 대체복무제의 개념

먼저 대체복무제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체복무제는 군복무 대상자가 사회시설, 공공기관, 기업, 연구소, 대학 등 국가가 지정한 기관 및 시설에서

26) 아주 예외적으로, 군복무 중 참여하려는 전쟁이 헌법에 반하는 침략적 전쟁이라는 판단이 들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헌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국가의 침략적 전쟁 수행에 대하여 다룰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병역거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군을 해외파병할 경우에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원자들로 구성된 부대를 파병하여야 할 것이다.

27) 역사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에서 먼저 인정하였던 독일에서는 나중에 병역의무조항이 신설되자 양자의 타협으로서 대체복무제가 도입·설계되었다. 이에 반하여, 우리 헌법에서는 병역의무가 먼저 인정되었기에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양자의 조화를 피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즉 ‘피해의 최소화’에 입각하여 형사처벌 대신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허용될 수 있는 길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정기간 해당 업무를 종사하면 군복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현행 병역법상 병역의무자는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의 결과, 병력수급사정 등 국방여건, 특별한 자격요건의 구비에 따라 차별화되어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또는 면제의 판정을 받게 된다. 그래서 현역 복무 외에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익방역수의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병역을 복무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복무가 일종의 병역대체복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대체복무는 이미 1970년대부터 활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위의 다양한 대체복무형태는 병역의무자의 신체적 조건, 병력수급사정 및 병력자원의 효율적 배치 등을 고려한 국방력유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 병역의무자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점에서 현행 병역법상의 병역대체복무를 신념에 따른 병역대체복무와 동일시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취지, 요건, 판단절차, 파급효과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신청에 의하여 군복무를 대신하게 하는 대체복무를 허용할 것인가 여부이다. 즉 신념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가 여부가 문제된다.

2. 대체복무제 도입에 따른 위험

(1) 국방력 약화의 위험성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종교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든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대체복무자의 폭증으로 병력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매년 병역가용 자원이 약 30만 명인데 비하여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600명 정도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과연 현실적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 현역복무가 아닌 군 복무 형태가 연간 징집 인원의 10%가 넘는 상황에서 연간 징집 인원의 0.2% 정도인 신념적 병역거부자들이 현역에 종사하지 않는 것이 군

사력의 저하를 초래하여 국가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태롭게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대단히 비현실적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현역복무 여부를 전적으로(양심적, 종교적 신념에 따른) 개인의 결정에 따라 선택하게 할 경우, 편하고 쉬운 쪽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속성이기 때문이다. 현역복무 아닌 대체복무를 지원하는 자의 수가 급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독일에서 대체복무제 도입 초기인 1967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신청자가 약 6,000명이었으나, 10년 후에는 그 수가 약 70,000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아야 한다(W. Berg, 1982: 590). 이와 같은 사실을 참조할 때, 어설픈 대체복무제의 도입은 군복무의 형평성을 무너뜨림으로써 현역복무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국방인력수급의 불균형을 야기함으로써 국방력의 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본다.

(2)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적 결정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정될 경우, 자칫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역복무의 여건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지 않은 한, 현역복무의 대상자로서는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 선택’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2014.11.20. 병무청의 『입영 및 집총거부자 국민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체복무 허용에 반대의견(58.3%)로 찬성의견(38.7%)보다 더 많으며, 그 반대이유로는 병역의무 예외 불가 및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 가능성 때문이라는 의견이 63.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병역기피의 풍조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복무제의 도입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과 수단에 의하여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3) 특정 종교에 대한 사실상 혜택과 정교분리 원칙의 훼손 가능성

병역거부의 정당한 이유로 제시하게 될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적 신념 소유의 입증 문제가 현실적인 관건이 될 것이다. 나름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종교적 신념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입증이 가능한 반면에, 양심적 신념은 그렇지 아닐 것이다.²⁸⁾ 참고로,

28) 이에 따라 양자에 대한 관점에서 차별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순수한 양심적 신념의 소유자들이

대만은 병역거부의 사유로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면서도 양심의 결정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강현철, 2008: 101).²⁹⁾

위와 같은 이유에서 병역거부를 원하는 자들은 종교적 신념을 내세우기 쉽다고 판단하여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특정 종교에 입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그 결과,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의 허용이 특정 종교를 지원하여 사실상 혜택을 주는 셈이 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종교간 차별 문제를 야기하면서 종교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의 신념을 존중하려는 취지의 대체복무제 및 병역거부권의 인정이 사실상 특정 종교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내지 보호하는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정교분리의 원칙(헌법 제19조 제2항)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³⁰⁾ 정교분리원칙은 종교에 대한 국가의 중립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호와의 증인의 경우, 그 교리에 따라 국가의 존재와 권위를 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를 보호해주는 모순이 성립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3. 대체복무제 설계시 고려사항

(1) 대체복무제 도입의 전제로서 국방정책

무엇보다도 대체복무제의 도입 여부는 국방정책에 따라 결정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대만과 독일을 살펴본다.

대만의 경우, 대체복무제의 도입 취지는 ① 군대의 목표를 정예화(精), 소수화(小), 강력화(強)로 정함에 따라 생겨난 초과인력을 사회공공서비스에 투입함으로써 군복무

입증의 어려움으로 병역거부권을 인정받기가 까다롭게 되면 종교적 신념의 소유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29) 해당 종교에 2년 이상 속해 있었던 자로서 이미 본인의 심리적 상태가 군복무를 수행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고려될 경우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시에는 이유서, 이력서, 서약서 그리고 종교 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자의 신앙은 정부에 합법적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 종교 단체여야만 한다.

30)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나 정치에 대한 종교의 중립과 국가에 의한 모든 종교의 동등한 처우를 요구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종교평등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정교분리 원칙의 중요한 내용으로 '국가에 의한 특정종교의 우대 또는 차별의 금지'를 들 수 있다(권영성, 2010: 494).

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② 반전평화를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 등을 계속 처벌함에 따라 실추된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③ 탈법적인 병역기피수단을 통해 병역을 면제받는 자가 증가함에 따른 병역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함이었다. 그래서 대만은 ‘병력 인원 보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병력 인원의 자질을 낮추지 않는다’, ‘병역의 공평성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징병제 하에서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조화를 피하기 위하여 대체복무(Ersatzdienst)로서 민간복무(Zivildienst)를 허용하였으나,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함에 따라 종래의 대체복무제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현행 「병역거부자의 민간복무에 관한 법률(민간복무법, Gesetz über Zivildienst der Kriegsdienstverweigerer, Zivildienstgesetz)」은 긴장사태나 방어사태(비상사태)의 경우에만 관련조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엄중한 안보상황과 국방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범체계를 염두에 두고서, 기본권 보호(또는 제한)의 측면보다 국방력유지의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대체복무제를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관점에 따라서는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형사처벌보다 대체복무를 부과하는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되리라는 점을 들어 대체복무제의 타당성을 주장할 수도 있다. 형사처벌에 따른 비용을 줄이면서 오히려 대체복무를 통하여 공익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것을 주된 논거로 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대체복무가 적어도 현역입영과 동일한 수준의 부담일 때에만 타당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체복무로의 도피는 병역의무이행의 의지를 꺾으며 병역이행의 부담을 불평등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체복무의 부담수준이 현역복무에 준하는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통상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자들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민간대체복무제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한다.³¹⁾ 이는 국방부·병무청 등 군 기관의 관여가 없고, 복무 기간이 군복무에 비하여 지나치게 긴 징벌적 성격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가져오고 복무자의 양심을 침해하지 않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대체복무제를 말한다. 그러나 대체복무의 정당성 및 필요성은 궁극적으로 국방의무

31) 2017.7.7.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네 단체가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국방의무의 형평성이 평등원칙에 따라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체복무의 부담수준이 현역복무에 준하는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대체복무의 내용, 조건 및 기간

대체복무의 부담 수준은 업무의 내용, 조건, 기간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러한 구성요소를 적절하게 조합함으로써 부담 수준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업무의 내용은 대체복무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적으로 대체복무는 민간복무(civil service)와 비전투영역의 군복무로 나눌 수 있는바, 이에 따라 업무의 내용과 그 난이도 및 위험도(평시 및 전시) 등이 결정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체복무의 개념은 군복무를 대신하여 사회시설 등에서 공익목적으로 복무하는 민간복무로 이해되고 있다.³²⁾ 예컨대 제20대 국회에서 박주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 의하면, 대체복무는 국군·경비교도대·전투경찰대 및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인용 무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아니면서,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보호·치료·요양·훈련·자활·상담 등의 사회복지 관련 업무 및 소방·재난·구호 등의 공익관련 업무를 가리킨다. 즉 「대체복무=민간복무」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병역법상의 사회복지요원과 종교적 신념의 병역거부자의 실질적 차이는 사실상 4주간 군사훈련의 수료 여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대체복무의 내용을 민간복무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 부담 수준이 현역에 비하여 매우 낮다는 이유로 대체복무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대체복무의 유형으로서 비전투분야의 군복무를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업무의 조건은 근무지 및 숙소의 환경, 보상체계, 휴가체계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특히 단체합숙근무인가 아니면 자택근무인가에 따라 업무의 부담이 크게 달라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32) 독일의 경우, 아예 민간복무(Zivildiens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영역에서 공익에 기여하는 업무를 가리킨다. 민간복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배려, 보호, 간호 그리고 위급상황의 배제 또는 예방을 내용으로 하는 활동이다. 이외에도 제3의 복무형태로 '대안적' 대체복무가 있는데, 이는 민방위·재난구호, 개발봉사, 해외봉사, 자원봉사, 경찰근무, 자발근로제 등이 있다. 한편 대만의 경우, 대체복무는 치안분야(경찰, 소방), 사회서비스분야(사회복지, 환경보호, 의료, 교육서비스), 기타 정부 지정분야(문화서비스, 사법행정, 외교, 토지측량, 경제안전, 체육, 공공행정, 관광서비스)의 업무로 나뉜다.

셋째, 대체복무의 기간은 대체복무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체복무를 민간 복무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업무의 기간이 징벌적 차원이 아닌 한도에서 대체복무가 군복무보다 어느 정도 기간의 연장이 허용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대체복무 기간이 군복무 기간에 비하여 1.5배 이내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복무를 비전투분야의 군복무로 보는 입장에서는 복무기간이 현역의 경우와 동일하게 될 것이다.

(3) 판단기준의 객관성과 판단절차의 공정성

진정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인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되고 판단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단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4) 현역복무와 대체복무의 형평성

대체복무를 어떻게 설계하든 간에 군복무와 대체복무의 형평성을 최대한 구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체복무제의 실시와 병행하여(또는 상응하여) 군복무의 부담을 가능한 한 줄여나가거나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최대한 늘려가는 시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군복무자의 피해의식을 키우게 될 것이며 나아가 국방의무 부담의 형평성과 병역제도에 대한 신뢰감을 훼손시킬 것이다. 특히 현역복무자의 근무조건을 향상시켜야 한다. 아울러 현역복무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시험 등에서 군복무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제도의 시행을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4. 소결론

국민 대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간할 수 있는 합리적·객관적 판단기준의 설정, 판단절차의 공정성 확보,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간의 형평성 확보, 대체복무로 인한 병

력부족에 따른 안보약화의 방지, 현역복무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 내지 지원 마련이 관건이라고 본다.

한국의 엄중한 안보상황과 국방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범체계를 염두에 둘 때, 대체복무제를 설계함에 있어서 ‘국방력의 유지’와 ‘국방의무 부담의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민간복무보다는 비전투분야의 군복무로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즉 병역 자체의 거부와 집총병역의 거부를 구별하여, 평화를 중시하는 양심상 결정과 종교적 신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집총거부는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집총거부자로 하여금 일단 입영하도록 하되, 그 이후 별도의 기초군사훈련과정을 거치게 하고 비전투분야에서 복무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복무기간, 조건, 내용의 측면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별로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VI. 맺는 말

오늘날 자신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은 채 이들을 처벌하는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다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 병역거부는 거의 대다수(약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의하여 이뤄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병역거부는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라기보다는 종교적 병역거부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현실을 생각하면 통상의 ‘양심적 병역거부’보다는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신념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본다.

우리와 같이, 헌법에서 국방의무를 명시하면서 병역거부권을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려면 이를 헌법해석론으로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규범적 구조와 국가상황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의 해석론을 무조건 차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현재 한국에서 이뤄지는 병역거부는 거의 대부분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입영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일체의 군복무에 대한 거부이다. 이는 헌법이 정당하다고 규정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는 국군의 존재를 부정하는 까닭에 병역의무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국군의 헌법적 사명(과제)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거부권을 헌법이나 법률에서 명시하거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생명존중 및 평화를 위한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일체의 군복무에 대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런 점에서 허용될 수 없는 신앙실행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형벌부과에 관한 헌법상의 원칙에 반하지 않은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입법으로 종교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갈등을 규범조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거나 또는 국방의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고자 한다면, 병역의무의 ‘합리적인’ 대체제로 여겨지는 대체복무제의 구성 가능성이 관건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후에 병역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논리적인 순서로 보이지만, 우리 헌법체계에서는 병역의무를 이미 규정하고 있기에 병역의무 부담의 형평성을 인정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가 설계되어야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기능적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병역거부행위의 대체제로 여겨지는 대체복무제의 도입에 따른 득실을 공리적으로 따져보는 것이나, 병역의무 이행과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는 대체복무제로 어떠한 형태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에 적합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더구나 대체복무제의 설계 작업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 가는 과정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작업은 헌법재판소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처벌조항의 위헌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입법재량이 그 한계를 준수하였는가를 따져서 검토하는 것이 더 실제적이라고 본다.

여하튼 병역정책의 변화와 이에 대한 국민의 진지한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대체복

무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대체복무의 부담 정도가 현역복무에 준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 기간, 업무 내용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유형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한국의 엄중한 안보상황과 국방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범체계를 염두에 둘 때, 대체복무제를 설계함에 있어서 ‘국방력의 유지’와 국방의무 ‘부담의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민간복무보다는 비전투분야의 군복무로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현재 우리의 경우 입영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병역거부가 이뤄지고 있는데, 병역 자체의 거부 아닌 집총거부를 허용함으로써 평화를 중시하는 종교적 신념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집총거부자로 하여금 일단 입영하도록 하되, 그 이후 별도의 기초군사훈련과정을 거치게 하고 비전투분야에서 복무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복무기간, 조건, 내용의 측면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별로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승식 (2013).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원광법학**, 29(3), 69-93.
[Kang, S. S. (2013). The Restriction of the Freedom of Conscience and Its Limitation. *Wonkwang Law Review*, 29(3), 69-93.]
- 강현철 (2008). 대만의 병역법제와 대체복무제. **최신의국법제정보**, 2008-06, 101-108.
[Kang, H. C. (2008). Military Law and Alternative Service in Taiwan. *Issue Brief on Foreign Laws*, 2008-06, 101-108.]
- 계희열 (2007). **헌법학(중)**. 서울: 박영사.
- [Kay, H. Y. (2007). *Constitutional Law II*. Seoul: Pakyoungsa Publishing Co.]
- 권영성 (2010).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 [Kwon, Y. S. (2010). *Constitutional Law: A Textbook*. Seoul: Bobmun Sa.]
- 김병록 (2003). 양심적 병역거부의 헌법이론적 검토. **헌법학연구**, 9(1), 39-59.
[Kim, B. R. (2003). A Constitutional Theoretical Review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Constitutional Law Review*, 9(1), 39-59.]
- 나달숙 (2008). 양심적 병역거부의 국제적 논의와 현황. **토지공법연구**, 41, 453-479.
[Na, D. S. (2008). International Issues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Public Land Law Review*, 41, 453-479.]
- 류지영 (2016). 양심의 자유로서의 병역거부의 불법성. **법학논문집**,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40(2), 247-277.
- [Ryu, J. Y. (2016). The Illegitimacy of the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for the Freedom of Conscience. *Chung-Ang Journal of Legal Studies*, 40(2), 247-277.]
- 오승철 (2009).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 **헌법학연구**, 15(2), 301-333.
[Oh, S. C. (2009).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It Should Be Guaranteed with Little Qualification. *Constitutional Law Review*, 15(2), 301-333.]
- 워치타워성서책자협회 (2016). **성서는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뉴욕: 워치타워성서책자협회.
- [Watch 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of Pennsylvania (2016). *What Does the Bible Really Teach?*. New York, U.S.A.: Watch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of New York, Inc.]
- 이재승 (2007). 독일 대체복무제의 최근 동향. **인권과 공익법**. 1, 43-66.
[Lee, J. S. (2007). Current Trends of Civil Service in Germany. *Human Rights and Public Interest Law*, 43-66.]

- 장복희 (2006).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보호. **공법연구**, 35(2), 237-265.
- [Chang, B. H. (2006). Human Rights of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Public Law Review*, 35(2), 237-265.]
- 장영수 (2015).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 **헌법학연구**, 21(3), 161-195.
- [Chang, Y. S. (2015). A Review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n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88 Paragraph 1. *Constitutional Law Review*, 21(3), 161-195.]
- 정연주 (2012).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학연구**, 18(3), 402-434.
- [Jung, Y. J. (2012). Conscientious Objection, *Constitutional Law Review*. 18(2), 405-434.]
- 한수웅 (2015). **헌법학**. 서울: 법문사.
- [Han, S. W. (2015). *Constitutional Law*. Seoul: Bobmun Sa.]
- W. Berg (1982). Das Grundrecht der Kriegsdienstverweigerung in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AöR*, 107, 585-613.
-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인가?” <http://www.hdjongkyo.co.kr/news/view.html?category=1004&no=15485§ion=22> (검색일 2018.01.11.)
- “I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of the Jehovah’s Witnesses Conscientious?” Retrieved from <http://www.hdjongkyo.co.kr/news/view.html?category=1004&no=15485§ion=22> (2018.01.11.)
- “숫자로 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https://amnesty.or.kr/10835/> (검색일 2018.04.17.).
-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in Numbers” Retrieved from <https://amnesty.or.kr/10835/> (2018.04.17.)
- “각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 현황” <https://amnesty.or.kr/10835/> (검색일 2018.04.17.).
- “Allowance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Countries” Retrieved from <https://amnesty.or.kr/10835/> (2018.04.17.)
- “여러 나라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수가 10만 명을 돌파하다” <https://www.jw.org/ko/jehovahs-witnesses/activities/ministry/2014-%EC%97%AC%ED%98%B8%EC%99%80%EC%9D%98-%EC%A6%9D%EC%9D%B8%EB%93%A4-%EC%88%98/> (검색일 2018.04.17.).
- “Jehovah’s Witnesses Reach Membership Milestones”

Retrieved from <https://www.jw.org/ko/jehovahs-witnesses/activities/ministry/2014-%EC%97%AC%ED%98%B8%EC%99%80%EC%9D%98-%EC%A6%9D%EC%9D%B8%EB%93%A4-%EC%88%98/> (2018.04.17.)]

헌법재판소 2004.8.26. 선고, 2002헌가1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01Hunga1 Decided August 26, 2004.]

헌법재판소 2004.10.28. 선고, 2004헌바61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04Hunba61 Decided October 28, 2004.]

헌법재판소 2011.8.30. 선고, 2008헌가22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08Hunga22 Decided August 30, 2011.]

대법원 2004.7.15. 선고, 2004도2965

[Supreme Court Decision 2004Do2965 Decided July 15, 2004.]

논문초록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음선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이 논문은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가를 주된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 아울러 현행 헌법상 병역이행의 대체제로서 대체복무제를 과연 도입할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관련 판례를 분석하며, 기존 연구와 달리 종교적 자유의 관점에서 병역거부 문제를 살펴본다. 병역거부의 대다수(약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의하여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보다는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신념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 헌법에서 국방의무를 명시하면서 병역거부권을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려면 이를 헌법해석론으로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한국 헌법의 규범적 구조와 국가상황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의 해석론을 무조건 차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입법을 통하여 종교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갈등을 규범조화적으로 해결하거나 또는 국방의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를 설정하고자 한다면, 병역의무 이행의 ‘합리적인’ 대체재로 여겨지는 대체복무제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엄중한 안보상황 그리고 국방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범체계를 생각할 때, ‘국방력의 유지’와 국방의무 ‘부담의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대체복무제를 설계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민간복무보다는 비전투분야의 군복무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집총거부자로 하여금 일단 입영하도록 하고, 별도의 기초군사훈련과정을 거치게 한 후 비전투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병역이행의 부담을 가능한 한 줄이고, 병역이행에 따른 보상을 최대한으로 늘려가야 한다.

주제어 : 병역의무, 양심적 병역거부,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종교의 자유, 대체복무

**절대자를 만나는 예배로서의 미술
: 신학적 미학을 통한 오의석 작가의 스토리텔링**

**Art as Worship to the Absolute Being
: A Storytelling of Oh Ui-Seok Artist through
Theological Aesthetics**

이소명 (Somyeong Lee)*

Abstract

This dissertation elevates creative art activities of a Christian artist, which is expressed in the form of a profession of faith to God, into 'Art Worship' or 'Art as a worship to God'. This attempt may provoke many theological controversies, but for Christian artist, this attempt is to expand diverse ways to worship God by systematizing Art Worship. Christian art is the response of an artist to the calling of the absolute being. In this aspect, Art Worship involves three aspects.

Firstly, it i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ological aesthetics and aesthetic theology. Theological aesthetics opens the new possibilities for Christianity belief system to the point where imagination, beauty, and aesthetics elements can work as a passage to a revelation of God. Secondly, Art Worship is integrated with truth, goodness and beauty, which are ontological attributes of the absolute being. Art Worship leads the truth to beauty in art and to goodness as a daily worship in real life. These ont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absolute being have their own inherent characteristics and intermingle to each other, creating another diverse and unpredictable aspect. Lastly, Art Worship creates another new Art Worship that artist, their artworks and viewers involve in the process of its re-figuration.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communicational perspective that asserts Art worship, in which artist's life and faith is confessed through works of art, is completed in the process of interacting with the audience. In other words, the audience discovers the features of the absolute being expressed by the artist and

*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미술학 박사(Baekseok University).

서울 서초구 방배로9길 23 dmsvk3939@naver.com.

2018년 05월 09일 접수, 06월 15일 최종수정, 06월 25일 게재확정

experience the presence of God. In this process, another Art Worship is re-figured through integration of artists, artworks and the audience. An artist does not express or portray an absolute being itself through Art worship or works of art. It is rather more about extending characteristics of an absolute being to the realm of truth, goodness and beauty, and more about integrated approach with the imagination of the audience.

Based on these perspectives stated above, this study thoroughly investigates a case of Oh Ui-Seok. He is an artist who presents the world of artwork with Logos-ism in which the Logos is embodied with the image. His Logos-ism art goes beyond simply converting the Logos into the images, and shows 'Aesthetics of Embodiment' by creating artwork based on Logos with the Christian view of the world. In his artworks, an act of art and aesthetic expressions that appear in recognition of the truth lead to holy worship, and in combination with the aesthetic imagination of the viewer, Art Worship is created as a re-figuration process.

In conclusion, Art Worship that this study attempts is holy rituals that identify the ont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absolute being and experience the presence of god through worship performed in creative activities of artists. Therefore, Art Worship hold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extends the meaning and role of Christian art to a new prospect beyond instrumental use in religion.

Key Words: Art as a worship, Art worship, storytelling, visibility, invisibility, theological aesthetics, aesthetic theology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4312).

1. 서론

21세기 우리는 대중 매체의 확산과 개인의 개성과 감성, 다양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다. 또한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은 사회 전반에 걸쳐 미학과 신학, 철학 등 여러 학문을 비롯하여 문화와 예술, 실생활의 의식주 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여러 학문 간에도 서로 융합하고 새로운 주제를 연구하며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학제 간 연구(interdisciplinary studies)가 이루어지고 있다.¹⁾

1) 장 프랑소와 리오타르(Jean François Lyotard)는 『포스트모던의 조건』에서 서사담론의 구조형식에

이는 학문과 문화의 특징과 경계를 하나의 보편적인 정의로 쉽게 규정하기보다 통합적인 접근으로 서로 다른 영역을 연계하며 창의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시대에 적합한 21세기형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기독교 예술가가 신앙고백으로서 표현하는 그림예배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독교 예술가의 작품에는 개인의 정서나 감정, 내면세계, 가치관 등이 투사된다. 작품에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인간의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미적 양상들만을 나타내지 않는다. 작품은 단순히 물리적 대상을 넘어 존재론적 위상을 지닌다. 또한 예술이 삶과 분리되지 않고 삶의 연속선상에 놓이기도 한다. 이에 기독교 예술가로서 “삶과 작품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어디를 향해 가는가?”에 대한 질문은 거듭된다. 이는 삶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과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로 이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기독교 작가의 삶과 세계관이 작품에 어떻게 투사되는지 알아본다. 나아가 신학적 미학을 통한 그림예배의 스토리텔링을 살펴봄으로써 예술가의 내면적 요소가 작품으로 표현되는 과정과 완성된 작품을 통해 관람자에게 전달되는 영향에 대해 소통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예술가의 기독교 세계관 투사 방식을 근간으로 신앙고백으로서의 그림예배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우선 신학적 미학과 미학적 신학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그림예배와 진(眞)과 선(善), 미(美)의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본 그림예배, 관람자에 의한 재형상화 작업으로서의 그림예배를 제시한다. 그림예배를 통해 참된 기준인 진리가 예술(미)로 표현되고 삶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이것은 예술가의 그림예배를 통해 실천능력인 선의 측면과 연결된다. 또한 예술가가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절대자의 진과 선, 미는 절대자 그 자체에 대한 묘사가 아니다. 절대자의 존재론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연결하려는 시도이다. 이로써 궁극적 존재인 절대자의 신성한 아름다움을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다. 이는 절대자를 인식할 때,

따라 서사이론을 대서사와 소서사로 구분한다. 근대의 이론들은 대부분 담론의 큰 구조와 형식을 지닌 대서사이다. 반면 포스트모던 시대에서는 점차 작은 구조와 형식을 지닌 소서사가 부각된다. 그동안 거대 담론에서 억압되었던 다양하고 작은 이야기들이 존중되기 시작하며 이는 예술가들의 작품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그들의 작품에서는 자신의 다양한 상상력과 특수한 경험들이 전개되는 소서사가 부상한다. 본 연구에서는 예술가의 예술적 상상력과 특수한 경험들에서 신앙 고백으로서 제작된 예술 작품을 그림예배의 소서사 형식으로 전개한다. 이는 조형적 분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미학적, 철학적 요소와 연계하여 학제 간 연구로 시도하는 바이다.

철학적 관점을 통해 진리(인간의 이성과 지성-인식 능력)와 예술적 관점을 통해 미(감성-심미 능력), 신학적 관점을 통해 선(의지-실천능력)을 총체적 개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이소명, 2015: 148-149). 진리를 인식하면서 나타나는 예술적 행위와 미적 표현은 예술가의 삶에서 일상의 예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작품은 관람자의 상상력의 결합을 통해 재형상화 작업으로 구성된다.

이를 바탕으로 예술에 대한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성찰과 함께 기독교 예술가들의 체화된 미적 경험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기독교미술의 역사적 뿌리와 한국의 기독교미술에 대한 시대와 영역별 단계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런 과정을 모두 다루기보다 ‘절대자를 만나는 예배로서의 미술’에 부합하는 예술가를 선정하여 연구 영역을 제한한다.²⁾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를 공

2) 기독교미술의 역사적 흐름에서 중세시대는 교회와 예술의 황금기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카톨릭 구교회의 우상숭배와 화체설, 면죄부 등의 문제로 인해 기독교와 예술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를 맺어 왔다. 이는 예술이 반종교개혁의 도구로 쓰이는 예술 오용의 문제로 이어졌다. 이에 있어 기독교 예술관에 대해 언급한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루터는 종교 개혁에 앞서 카톨릭 교회와 미술의 남용 및 성상의 오용으로 인한 숭배 문제에 있어 확고하게 지적한다. 성상 사용에 있어 적극적인 모습은 아니었지만, 형상을 선호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중립적인 입장으로 바라본다. 그는 성상과 종들(bells), 성찬의식 제복, 교회장식, 제단의 촛불 등을 가치중립적인 위치에서 바라보고 우상숭배의 필연적 관계로 연결시키지 않는다. 즉 우상 숭배의 성격을 띄우지 않는 그림이나 조각들을 예배의 대상 자체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어떤 형태와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 ‘자연적인 인간 심리 과정의 부분’으로 덧붙인다. 나아가 그는 성경 주석이나 설교집, 기도서, 찬송가 등 프로테스탄트의 종교 문헌들에 시각적 보조 자료들을 넣었으며 교리 문답 집에는 목판화, 삽화 등의 장식들을 넣어 종교 예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정한다(서성록, 2000: 200). 이 밖에도 그는 개신교 교리에 합당한 예술 주제들을 화두삼아 프로테스탄트 교리적 진리와 함께 미술의 전통을 수립한다.

이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재능에 대해 언급한다. 학예와 더불어 어느 한 방면에 대한 인간 재능의 소유에 대해 언급한다. 그는 구체적으로 모든 학문, 예술(arts)과 과학(science)가 선천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God's gift)라고 주장한다(Calvin, J., 1998: IV.2.12-16). 나아가 예술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부터 온다고 설명한다. 칼빈은 예술의 견해를 일반 은혜 가운데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은사적인 측면과 예술의 교훈과 유용성을 언급한다. 하지만 우선으로 기록된 말씀을 중시하며 인간의 감정들과 의사소통 및 교육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명확한 전달 매체를 언어로 본다. 그는 구체적인 것을 선호했으며 비물질적인 신의 존재를 가시화하는 형상에 대해 금한다. 칼빈 이후 시각예술은 교회의 굴레를 벗어나 더욱 확장된 활동 영역을 얻었다. 그러나 교회와 미술의 단절은 예술의 순기능마저 잃어버리게 하는 현상을 야기했다. 이러한 역사는 오늘날 현시대 기독교 내에서 기독교 예술의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을 준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와 달리 기독교미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요청되는 시대에 살

적 예배로서의 미술로 다루기보다 예술가의 창작활동이 예배로서 승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예술가의 개별적인 창작 활동(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절대자에게 응답하는 행위를 전제하는)이 절대자에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연구한다.

이에 기독교 정신의 미학적 승화를 가져온 오의석 작가의 작품 전개와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는 말씀(Logos)이 이미지(Image)로 체현되는 로고시즘(Logos-ism) 작품의 세계를 제시한다. 그의 로고시즘 미술은 단순히 로고스를 이미지로 전환하는 것을 뛰어 넘어 기독교 세계관으로 로고스에 기초한 작품의 표현과 주제를 통해 체현의 미학으로 나아간다. 로고스를 바탕으로 예술가의 감각적 형상화 과정이 작품을 통해 어떻게 가시화되며 소통될 수 있는지 재형상화 작업으로서의 그림예배를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주로 역사적 측면에서 다루어진 한국의 현대 기독교미술에 관한 연구와 달리 기독교미술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근간으로 현장의 소리를 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시 말해 현장에서 작업하는 예술가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며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둔다. 동시에 생존해 있는 기독교 작가의 현주소를 기록하고자 한다. 이는 미술의 조형적이며 미학적 분석을 넘어 한국 기독교미술의 현시대 발자취를 담으면서 동시에 역사적 흔적을 내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한때 논리적이고 윤리적이고 미학적 차원들이 나누어진 채 전승된 기독교미술을 다시금 재조명하는 일에 단초가 될 것이다.

II. 기독교 예술가의 세계관 투사

예술가들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가치관과 세계관, 정체성 등을 예술적 표현을 통해 나타내며 새로운 창조적 행위에 참여한다. 그들은 작품과 제작 행위를 통해 개인의 세계를 다양하게 투사한다(Figure 1).³⁾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는 예술가의 투사방식을 예술가 개인의 예술적 창조와 내면의 정서, 감정의 표현을 넘어 사회 참여

고 있다. 즉, 종교미술이 성행했던 중세시대의 제의적이고, 르네상스와 바로크시대의 장식적 요소가 중시되었던 시대에서 감상과 참여 및 선택이 중시되는 시대로 변화된 것이다.

3) 이소명, 2015: 59.

적인 수행으로까지 연결하였다. 그에게 있어 예술 작품은 예술가의 행위에 의해 은유와 상징, 상상, 표현 등 의미를 담은 세계가 투사되는 것이다(윌터스토프, 2010: 229). 이러한 작품의 세계는 현실적 사물로 존재하는 실재의 특성을 내포하고 나아가 존재론적 본질까지도 함의한다. 예술 작품이 단순히 물리적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 위상을 지닌다. 그는 예술 작품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미적 양상들만을 제시하지 않고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인간의 행위가 작품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그는 삶과 예술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사용 가능한 용도로 예술을 구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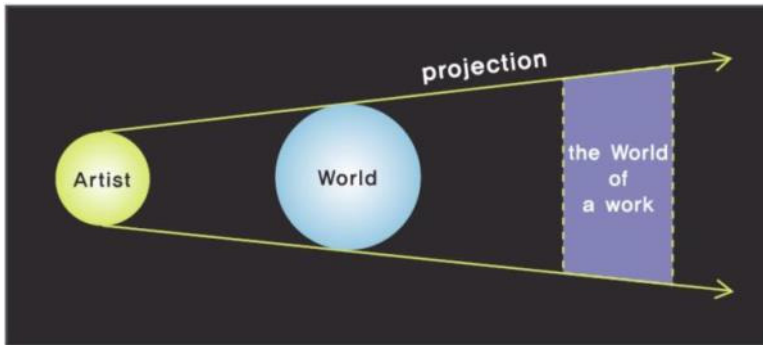


Figure 1. Projection flow of an artist

그렇다면 “기독교 예술은 무엇이며 기독교 예술가는 작품을 통해 무엇을 투사하는가?” 이 질문과 관련하여 기독교적 이미지나 주제를 그렸다고 해서 그 자체로 기독교 예술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적 이미지나 주제는 신자든 비신자든 모두가 채용할 수 있기에 그 자체로 기독교적 작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내는 작품이면 어떤 것이든 자동적으로 거듭난 예술이 된다는 얘기도 아니다. 철저히 기독교 세계관에서 비롯된 예술, 다시 말해 기독교 세계관에 속한 것들을 위해 만들어지고 그 세계관을 해석하고 있는 예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일컫는 기독교 예술이다(Brand, H. & Chaplin, A., 2004: 14-15).

즉 진정한 기독교 예술가라면 내면화된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작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예술가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

는 관점으로 세상과 사물에 대한 신념들의 포괄적인 구조이다. 또한 세계관은 ‘세상에 대한 관점’과 함께 ‘세상을 만들기 위한 관점’을 내포한다(신국원, 2002: 76-77). 이처럼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적 인식의 틀로 세상을 인지하고 지각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독교 세계관에는 기독교적 생각이나 삶의 경험이 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성경적 관점에서 말하면, 창조-타락-구속의 세계관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 예술가는 이러한 세계관에 입각하여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미적 형상화의 작업을 시도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술적 행위는 절대자가 창조한 거룩한 질서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를 경외하는 미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예술적 행위를 예배의 큰 틀로 받아드리고, 그림예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보다 구체적으로 그림예배에 대해 살펴보자. 기독교 예술가는 세상을 조망하는 자신만의 창인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작품을 창작한다. 그리고 기독교 예술은 그 자체가 성령의 열매로서 작가 내면의 감정과 미적인 감각, 상상력 등이 기독교 세계관과 결부되어 표출된다(Rookmaaker, H., 2008: 284).⁴⁾ 또한 기독교 예술가가 작품을 통해 자신의 기독교 세계관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예술적 행위는 절대자에 대한 예술가의 응답이며 절대자를 향한 경배가 되기도 한다. 이에 절대자와 기독교 예술가의 관계가 형성되고 지속되며 유지되는 수단이기도 한다.

4) 기독교 예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실재의 구조에 부합한 예술이다. 실재에 대한 통찰력은 의심스럽고 그릇된 예술로부터 건전하고 정당한 예술을 구별하는데 쓰일 뿐이다.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의 인간성과 작품성을 무효화시키거나 적대적 요소로 간주할 수 없다. 그가 예술의 규범을 존중하는 선에서 그의 온전한 인간성을 발휘하여 작품을 창작할 때, 즉 부정과 불법, 악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때 아름답고 영구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작품을 산출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제작한 작가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기독교미술에 있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작품 자체의 우수성과 함께 “과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서 창조의 가능성인 아름다움을 내포한 예술이 생성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만큼 기독교 예술가들의 소임과 인간적인 창조 결과인 작품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 개인의 정신과 세계관이 중요하다(Rookmaaker, H., 2008: 280-285).

Ⅲ. 신앙고백으로서의 그림예배 이해

이 장에서는 어떻게 그림예배가 가능한가? 즉 개인의 신앙고백으로서의 그림이 과연 예배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림을 그리는 예술 행위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배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 기독교적 세계관이 내재되어야 한다. 그림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먼저 예배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고찰해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 예배에 관한 구약과 신약의 이론을 모두 논할 수 없다. 따라서 예배에 관한 주요 신학자들의 정의를 중심으로 그림예배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기독교 세계관과 예배라는 단어는 시대적인 역사와 그에 따른 문화적 다양한 요소와 밀접하다. 폴 틸리히(Paul Tillich)에 따르면 종교는 문화의 본질이며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 그러므로 예술과 영성⁵⁾의 관계를 잘 드러내는 기독교 세계관과 예배를 이해할 때, 그 시대의 문화적 흐름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배⁶⁾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며 인간은 그에 대한 기도와 찬미로 응답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하며 그로 인해 변화가 일어나는 장”이다(김순환, 2012: 23). 프랭클린 지글러(Franklin Segler)에 의하면 기독교의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격적 계시에 대해 인간들의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성어린 응답이라고 한다(Segler, F. M., 1993: 22-24). 이처럼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절대자와 개인의 대화적 관계는 기독교 예술가의 삶과 작품에 연결 지어 볼 수 있다. 즉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예술가가 성령의 조명 하에서 예술적 창작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예배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칼빈 시어벨드(Calvin Seerveld)는 “예술 그 자체는 언제나 신성한 제물이며, 당황스러울 정도로 교리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누군가에게 영예와 영광, 능력을 돌리려는 대단히 감동적인 시도(Seerveld, C., 1995: 28).”라고 주장한다. 특별히 그는 무엇보다도 예술이 예배의 본질과 흐름을 같이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시

5) 기독교 영성은 신앙의 범주 안에서 기독교를 근거로 하는 기독교적 근본 사고들과 삶의 전체적 경험들을 통합한다. 이는 믿을 만하고 만족할 만한 기독교적 경험의 추구이다(McGrath, A., 1999, 2).

6) 예배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머리를 숙여 경배하다’와 ‘절하다’ 등의 뜻을 지니는 히브리어 ‘사하’로 표현한다. 이는 헬라어로 ‘누군가의 손에 입 맞추다’와 ‘존경의 표시로 다른 사람에 엎드리다’의 ‘프로스쿠네오’로 사용한다. 또한 ‘일하다’와 ‘봉사하다’ 등의 뜻을 지닌 ‘아보다’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 밖에도 예배라는 단어는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다.

말해 기독교 예술가들이 작품을 통해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응답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면 그 예술적 행위는 예술가에게 있어 일상으로서의 예배 범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예술가가 절대자를 향한 개인의 신앙 고백이 감각적으로 형상화되는 과정과 시도를 ‘그림예배’라 칭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예배로서의 미술’은 절대자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며, 그 응답은 몸 감각의 다양한 매개를 통해서 미학적으로 형상화되는 거룩한 예식이다. 이런 측면에서 리차드 해리스는 모든 예술 작품은 영적인 차원을 갖는다는 보다 광의적 정의를 시도한다(리차드 해리스, 2003: 126).

참된 기독교 예술가는 절대자의 구원의 서정 안에 있는 삶을 추구하며 지향한다. 이러한 참여는 작품 제작 과정에서 하나님만을 경배 대상으로 여기며 미적 감흥과 함께 거듭된 인식의 단계로 진리를 추구한다. 이러한 그림예배는 과거 동방교회에서 야기된 성상숭배 논쟁과 차원을 달리한다. 다시 말해서 이콘(Icon)은 예배의 부수적인 수단에 불과했지만, 그림예배는 그 자체가 절대자에게 드러지는 예배인 것이다. 또한 종교의 상업화를 일으킨 예배 수단으로서의 미술과 차별된다.

그림예배를 좁은 의미에서 예술가의 신앙고백이라 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이다. 첫째, 신학적 미학과 미학적 신학의 차이로서의 그림예배. 둘째, 절대자의 존재론적 특성인 진, 선, 미의 통합적 영역에서의 그림예배. 셋째, 관람자의 입장에서 작품을 대하면서 주고받는 대화로서의 재형상화 작업으로서의 그림예배 순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1) 신학적 미학과 미학적 신학의 이해

신앙고백으로서의 그림예배에 대한 이해는 리차드 빌라데서(Richard Viladesau)의 ‘신학적 미학’과 ‘미학적 신학’을 통해 모색할 수 있다. 이는 기독교에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신학과 미학의 양자 간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학문적 성찰을 제시한다. 그는 기독교의 주요 종교적 형식과 가까웠던 ‘미학적 신학’ 이론을 상상적이며 아름다운 담론의 실천이나 그것에 대한 이론들을 신학과 접목시킨 것으로 ‘신성한 시작’(theopoiesis)과 ‘신성한 시학’(theopoetics)의 신학적 결합으로 이해했다(Viladesau, R, 2007: 56). 따라서 종교적 경험을 미학적으로 구체화하며 미학의 개념이나 가치, 방법론을 수용하여 신

학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성경의 진리와 이야기들이 이미지의 세계로 표현되며 재구성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예술로 형상화되고 구원에 관한 은유적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

‘신학적 미학’ 이론은 하나님(절대자)과 종교, 신학이라는 대상을 감각이나 상상력, 감정 등의 감각적 지식과 아름다움, 예술과 연결한다. 신학의 가치나 교리 등을 기반으로 미학의 요소들을 다루는 것이다(Viladesau, R., 2007: 42). 이를 통해 아름다움과 감정, 예술의 측면에 담겨진 신학적 함의를 찾아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학은 합리적이고 정확성을 추구하는 학문의 접근 방식에 종교와 종교적 언어가 지닌 아름다움을 수용하고 미학적 감수성을 끄집어낼 수 있다. 이것은 기독교미술을 바라보는 전통적 시각, 즉 성경에 기록된 일화들을 시각화하며 종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세시대 예술가들의 고전적 알레고리 회화와 상이한 접근방식을 보인다. ‘신학적 미학’은 신앙의 체계에서 상상력과 아름다움, 예술에 담긴 미학적 요소들이 하나님의 계시 통로로 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림예배 역시 신학적인 영감과 함께 미학적 형상화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접목할 수 있다.⁷⁾ 예술의 가시적 요소를 근간으로 절대자의 비가시적 요소를 드러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신학과 미학의 관계에서만 적용되지 않는다. 본래 기독교와 절대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각 영역들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모체의 개념에서 시작한다. 다음 [Figure 2]에서는 기독교를 공통 인자로 하여 학문의 다양한 영역에 연계되어 있는 잠재적 가능태와 연결한다(이소명, 2015: 138).

7) 빌라데서는 기독교 신학의 세 가지 중요한 주제들인 하나님과 종교, 신학 자체와 미학의 대상들인 감각적 지식, 아름다움, 예술의 상호작용을 교섭이 폭넓은 의미에서 신학적 미학이론의 분석 대상으로 다룬다. 그리고 이들은 신학적 미학과 미학적 신학으로 세분화된다. 신학적 미학이 감정과 상상력, 아름다움, 예술과 같은 미학적 요소들에 있어 계시의 신학적 가능성을 열어준다. 반면 미학적 신학은 하나님과 종교, 신학과 같은 신학의 대상들이 어떻게 미학적 요소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Viladesau, R., 2007: 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림예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신학적 미학의 방법론적 접근 방식으로 진행하며, 그 사례로 오의식 작가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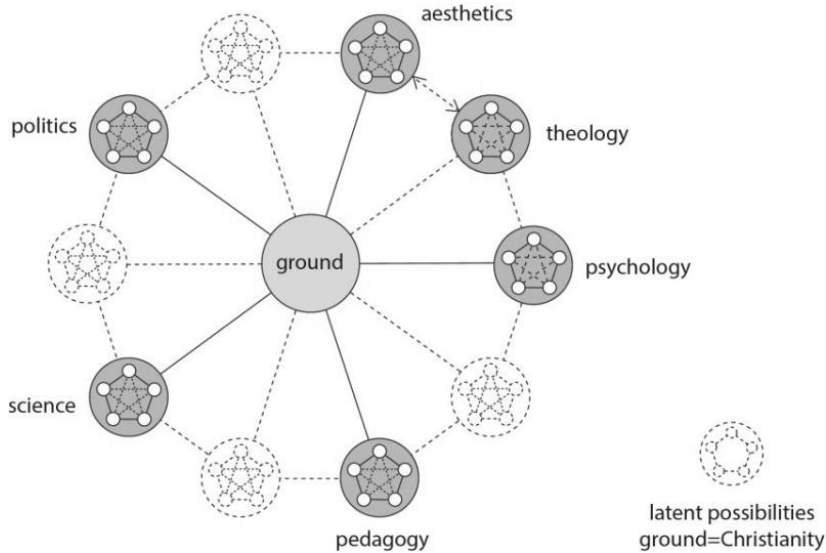


Figure 2. Potential status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Figure 2]에서처럼 학문 간의 잠재적 가능태를 설정하고 ‘감각을 통한 인식의 학문’인 미학에 대해 살펴보자. 본래 미학은 이성적 인식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이는 ‘아름답게 사유하는 기술’로 감각적 인식 아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목적이 있다. 보다 정확하게 미학은 예술적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감각과 감정과 연관된 학문이다. 더 구체적으로 [Figure 3]에서 감각적 양태와 인식에 대한 이해, 범위 등으로 감각과 상상력, 감정, 아름다움, 심미성, 예술 일반 곧 순수 예술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Figure 3].⁸⁾ 이들은 다양한 세부 양식과 형태들로 제시되는데 서로 구분되는 인자들 이면서 동시에 서로가 연관되는 유기적 관계이다. 앞서 살펴본 신학적 주제들을 미학적 연구 방법으로 다루는 ‘미학적 신학’과 미학 안에 담겨진 신학적 요소들을 발견하는 ‘신학적 미학’ 역시 이와 유사하다. 이들의 방법론의 방향성은 서로 다르다. 하지만 각 영역에서 함의되어 있는 신학적이고 미학적인 공통 인자들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서로 다른 다양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서로 비슷한 성질을 띠면서 증식하는 공통 인자가 존재한다.

8) 앞의 책,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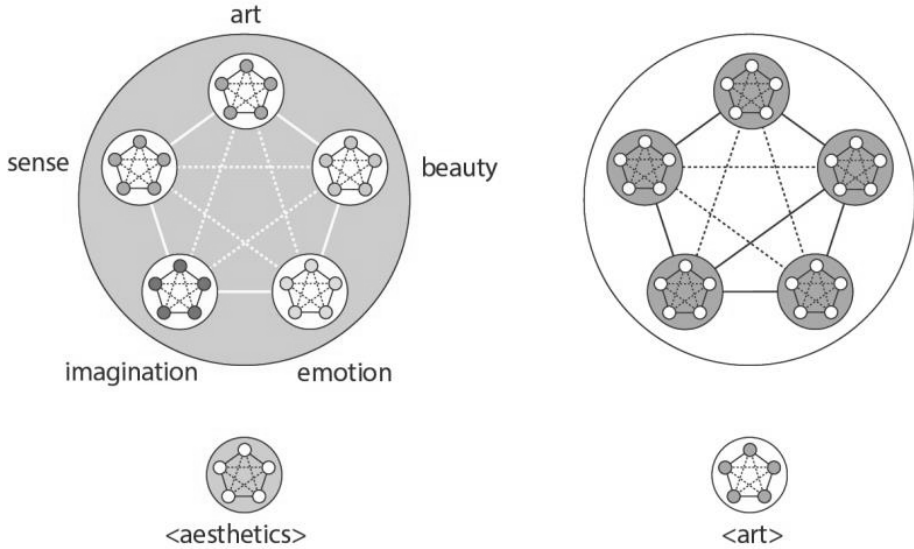


Figure 3. Potential status of aesthetic elements

과거 기독교미술은 성경의 진리를 알리기 위해 종교의 보조적이고 도구적인 수단이 었다. 이러한 기존의 미학적 신학의 개념을 현대 기독교미술의 영역에서 새롭게 재조 명해 볼 필요가 있다. 기독교미술은 종교의 도구가 아닌 그 자체가 하나의 예식이며 절대자를 향한 삶의 고백이 표현되는 장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미학적 신학의 새로 운 조명과 더불어 신학적 미학의 관점에서 기독교 예술가의 정체성 확립과 신앙 고백 을 통한 그림예배의 이해를 시도한다. 미학적 신학과 신학적 미학이 교차되고 확장되 는 가운데 일상의 삶에서 예술신학의 지평을 열어보는 기회를 모색한다. 성경의 진리 가 인간 이성의 영역을 넘어 예술이라는 아름다움의 영역을 통해 새로운 장을 마련하 는 데 의의가 있다.

(2) 진(眞)과 선(善), 미(美)의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본 그림예배

신앙고백으로서의 그림예배를 이해하는 데 있어 신학적 미학과 미학적 신학을 바탕 으로 절대자의 존재론적 특성인 진과 선, 미의 측면들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 이것은 기독교미술을 총체적이면서 다각적 측면으로 바라보게 한다. 근세 이후 절대자

는 비가시적이며 형이상학적 존재가 되는 모든 것을 뜻한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신을 의미한다. 그 영향으로 우리는 이성과 감정, 신학과 미학, 가시적인 요소와 비가시적인 요소 등 각 영역들을 서로 이분법적인 관계로 분리한다. 미학적인 차원들 역시 논리적이며 윤리적인 차원들과 나누어진 채 계승된 것이다. 기독교에서 절대자는 삼위일체처럼 어느 한 측면만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히 절대자의 모습 중 어느 부분적인 측면만을 바라보며 절대화하는 오류를 범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절대자 그 자체에 대한 묘사에 있지 않고 진과 선, 미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절대자의 존재론적 특성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절대자에게 진과 선, 미는 각각의 측면들이 파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각각 독립적인 특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총체적 모습을 띤다.

이러한 절대자의 진과 선, 미에 대한 이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잘 드러내는 ‘페리코레스시스’(perichoresis)에서 비롯된다(이소명, 2015: 148). 다시 말해 통일적 상호관련성을 의미하는 단어인 페리코레스시스와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성경에서 성부와 성자, 성령을 나타내는 성삼위는 본질상 하나이면서 동시에 세 위격으로 등장한다. 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내재하며 침투와 소통, 순환하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 삼위는 각기 독립적인 존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투사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처럼 서로가 상호침투하며 내주하는 특성은 절대자의 진과 선, 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 총체적 관점과 연결된다. 성삼위의 관계처럼 절대자에게는 진과 선, 미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절대자를 진과 선, 미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태도는 기독교 신앙의 진리와 아름다움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시도이다.

궁극적 존재인 절대자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철학적 관점(진)과 신학적 관점(선), 예술적 관점(미)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절대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 철학적 관점을 통해 진의 측면(인간의 이성과 지성-인식 능력)을, 신학적 관점을 통해 선의 측면(의지-실천능력)을, 예술적 관점을 통해 미의 측면(감성-심미 능력)을 접할 수 있다(이소명, 2015: 149). 즉 절대자의 존재론적 특성 중 진의 측면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통한 인식 능력으로 철학적 관점과 연결된다. 다음으로 절대자의 선의 측면은 인간의 의지를 통한 실천능력으로 신학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절대자의 미의 측면은 인간의 감성을 통한 심미 능력이 부각되는 예술적 관점에서 가능하다. 이들은 페리코레스시스의 개념처럼 국한된 영역의 이해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면을 내포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절대자의 진의 특성을 알아갈 때에 예상치 못한 선과 미의 특성이 서로 상호 침투하여 내주하는 것을 접할 수 있다. 각자의 고유적인 특성은 상대에게 자신을 투과하며 예측할 수 없는 면모를 보인다.

기독교 예술가는 보이지 않는 절대자의 존재론적 특성을 그림예배를 통해 구체화한다. 기독교 예술가가 진리를 인식하면서 제작하는 작품의 미적 표현은 결국 예술가의 삶에서 일상의 예배로 이어진다. 그리고 실천능력인 의지를 발휘하여 변화되는 삶의 추구까지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그림예배는 예술가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절대자를 향한 예배를 통해 절대자의 존재론적 특성인 진과 선, 미를 작품에서 접목하는 시도이다. 즉 참된 기준으로써 진리는 예술의 미를 통해 표현되며 삶에서 실천능력인 선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에 의하면 예술의 가능성은 인간 영혼에 있어서 분리적인 기능이 아니라 절대자의 형상에 있어서 연속적 표현이다. 우리는 그림예배에서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성찰과 더불어 예술가의 체화된 미적 경험을 고찰할 수 있다. 작품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적 감흥은 인간의 이성과 감성, 의지가 서로 상호 작용하며 맞물려 나타난다. 페리코레스시스처럼 그림예배는 작품의 부분적인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실천적 행위와 함께 퍼져 나간다. 이는 단순히 예술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과 선, 미의 측면에서 상호 투사가 일어나는 역동적인 장이다.

리처드 해리스(Richard Harries)는 선과 진리, 미가 서로 연합될 때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언급한다. “무한한 선, 완전한 진리 그리고 숭고한 미가 최고도로 연합될 때 우리는 신의 영광을 경험한다(리처드 해리스, 2003: 72).” 그는 신이 미와 진리, 사랑의 숭고한 연합을 통한 영광 그 자체라고 말한다. 참된 아름다움은 진리 탐구와 삶의 영역에서 분리될 수 없다.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 예술가는 앞서 살펴본 기독교 세계관을 근거로 예술적 상상력을 가시화한다. 절대자의 신성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색의 배합처럼 끝없이 생성되는 존재의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정해진 틀이 아닌, 진과 선, 미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절대자를 이해하고자 할 때 끝없는 새로운 변화를 만끽할 수 있다. 결국 기독교 예술가의 작품 제작은 진리 추구와 함께 미의 창조를 가져오며 나아가 실천적 행위로서 삶의 예배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여기에서 진리를 인식하는 가운데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림예배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3) 재형상화 작업으로서의 그림예배

기독교 예술가의 신앙 고백으로서의 그림예배는 앞서 살펴본 예술가의 투사방식과 기독교 세계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예술가의 상상력을 통해 작품으로 형상화된다.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는 상상력을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도구이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지식을 발견하는 통로로 여긴다. 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일차적 미로서 세상의 모든 미의 원천으로 언급하며 인간에게 부여된 상상력을 이차적 미로서 일차적 미의 유비를 발견한다고 주장한다(임성빈, 2006: 12).

상상력은 예술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술 작품과 관람자 사이에서도 이루어진다. 예술가들과 작품들을 살펴볼 때 나타나는 주목할 만한 현상은 상상력이 작품 제작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접한 관람자들의 재형상화 과정을 통해서도 드러난다는 점이다. 예술가에 의해 창작된 예술 작품은 관람자의 상상력을 통해 구체적 실현을 이룬다. 이는 수용 미학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작품을 어떤 의미가 완결된 실체로 인식하기보다 수용자의 능동적 참여에 의해 의미가 새롭게 해석되는 것으로 가변적 특성을 지닌다(볼프강 이저, 1994: 454). 즉 작품을 그 자체로 완결된 실체로 여기기보다 관람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할 때 비로소 작품의 의미가 완성된다는 해석이다. 이를 근거로 작품을 감상할 때 관람자의 내적 반응과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의 대화이론도 문학텍스트와 독자, 작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관점을 언급한다. 대화이론은 작가와 독자의 인지적 요인, 텍스트의 다양한 구성요소 등이 교향악처럼 하나로 어우러지는 대화적 관계를 중시한다(김옥동, 1988: 155). 삶과 예술에서 고정되며 변하지 않는 실체 추구보다 유동적이면서 개방적인 상태에 집중한 것이다. 즉 예술에 있어 고전적이고 완성된 종결 방식이 아니라 열린 상태로 역동적인 관계를 추구한다.

이는 재형상화 작업으로서의 그림예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기독교 예술가는 절대자와의 관계를 작품으로 형상화하며, 관람자는 작품을 매개로 보이는 대상 너머에 있는 비가시적 존재 및 예술가와 역동적 대화를 할 수 있다. 예술가는 객관적으로 제한하여 규정할 수 없는 상상력에 형태를 부여한다. 그리고 관람자는 작품을 보며 관람자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재형상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폴 리코르(Paul Ricoeur)의 경우, 인간의 역사와 행위를 시간적 특성과 함께 재구성

되는 이야기에 주목한다. 작가와 독자는 이야기된 이야기를 다시 나누면서 또 다른 이야기의 확장을 가져온다. 여기서 그는 세 가지 양태인 ‘삼중의 미메시스’(triple mimesis)를 제시하면서 재형상화의 과정을 설명한다. 시간과 이야기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미메시스의 단계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메시스 I 은 실제적인 경험으로 줄거리 구성에 앞서 있으며 과편적 경험의 바탕을 의미한다. 이는 ‘전형상화 작업’으로써 줄거리로 나타나기 이전의 실천 영역이다. 미메시스 II는 ‘형상화 작업’의 과정으로 줄거리를 뜻하며 중개적인 입장에서 줄거리 구성과 배열을 뜻한다. 이 단계에서 화자는 자신의 경험적 요소들을 이야기로 전개하면서 다시금 이야기를 재인식한다. 마지막 단계로, 미메시스 III는 작품과 독자의 세계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다. 여기서 독자가 새롭게 줄거리를 구상하고 등장하는 ‘재형상화 작업’을 모색할 수 있다(폴 리콤퍼, 1999: 125-188). 독자는 자신만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재해석하며 새로운 의미의 이야기 세계를 구성한다. 이때 논리적 언어와 비논리적 언어인 은유와 상징, 비유 등이 사용된다. 이 단계에서 비로소 독자와 줄거리 사이에 융합이 이루어진다. 경험할 수 있는 주관적 시간과 상상력의 결합은 작품과 독자의 관계에 있어 새로운 소통 방식을 제시한다.

이 과정은 작품과 독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으로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그림예배와 적용 가능한 부분이다. 이를 근거로 기독교미술에 있어 작품을 제작하는 행위는 단순히 미적 대상의 창조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작품과 관람객 사이에서 상호적 재형상화 과정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 앞서 살펴본 텍스트의 이야기가 독자의 상상력을 통해 새롭게 재구성되듯이 관람자가 상상력과 함께 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의 재형상화 작업이 각자에게 일어날 수 있다.

예술 작품을 통해 예술가가 누구를 찬미하며 그의 기독교 세계관이 어떻게 작업에 드러나는지 그 상징적 의미를 관람자의 재형상화 과정을 통해 재발견할 수 있다. 카이 퍼에 의하면 예술은 마치 옷의 끝부분에 붙어있는 장식과도 같은 것이 아니며 삶에 제공된 오락물과 같은 것도 아니다. 예술은 삶에서 가장 중대한 힘을 가지고 과학이나 정치, 종교적인 생활이나 심지어 비가시적 계층까지도 드러낼 수 없는 창조의 질서들을 표현한다(Kuyper, A., 1981: 151, 163). 예술 작품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요소를 넘어 보이지 않는 다양한 함의들을 포함하며 예술가와 관람자는 예술적 상상력과 관람자적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구현할 수 있다. 작품을 감상하면서 느끼는 감동

은 구원의 서정을 향해가는 우리의 삶에 푼크툼과 같이 살아있는 시간을 경험하는 구원의 순간을 제공한다. 한 예로 독일 복음주의 운동을 대표했던 루트비히 친첸도르프나 헨리나우웬의 경우 한 편의 그림을 보고 지적인 얇이 깨달음의 순간으로 변모하는 경험을 한다. 한 편의 그림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바꾸며 구원의 순간을 경험한 사례들을 통해 새로운 신학적 미학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헨리 나우웬은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보며 감동을 받고 『탕자의 귀향(포이에마)』이라는 글을 쓴다. 이는 그림 안에 담겨진 메시지들을 재형상화하며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 것이다.

IV. 신학적 미학을 통한 오의석 작가의 스토리텔링

신앙고백으로서의 그림예배 이해를 위한 스토리텔링⁹⁾의 실제적 사례로 오의석 작가와 그의 작품 세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오의석 작가는 조각가이지만, 그의 작품의 창작과정은 그림예배의 한 장르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림예배에서 그림은 단순한 드로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와의 부르심에 응답행위로서 신학적 미학의 형상화 작업을 총칭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토리텔링의 정의와 함께 스토리텔링이 단순한 이야기 전개로 그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접근 방식과 재구성의 잠재적 가능성까지 고려한다. 그리고 하나의 확정된 결정체이기보다 독립적인 변수인 특징을 접목하여 예술가의 상상력을 통한 예술적 서사 방식을 전개할 것이다. 기독교미술은 불변하는 진리를 작품에 담으면서 시대의 문화적 양상을 조형 언어로 표현하는 스토리텔링의 한 방식을 취한다. 이를 위해 참된 기준(진리)에 근거하여 예술가의 삶이 작품으로까지 이어지는 오의석 작가를 직접 만나 인터뷰하며 작품들을 분석하였다. 그는 신앙을 미학적으로 승화시킨 작가이다. 이는 단순히 작품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미술사에서 한 예술가의

9) 최혜실, 문화산업과 스토리텔링 (서울: 도서출판 다할미디어, 2007), 10-12. 스토리텔링은 ‘story’와 ‘tell’, ‘ing’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 먼저 ‘story’는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일정한 줄거리를 뜻한다. 이는 서사 구조로써 말이나 글, 사건, 배경, 인물 등의 구성 요소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tell’은 ‘말하다’의 뜻 외에 시각과 청각, 후각, 촉각 등 다양한 신체적 감각을 내포하며 다양한 형식으로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ing’는 진행을 나타내는 현재성과 상황의 공유를 말한다. 이에 따른 상호 작용까지도 포함하며 복잡적이다.

신앙 고백이 작품 제작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시도이다.

- 오의석 작가 연구

오의석은 1956년 충남 공주 태생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찰흙을 접하며 자연스럽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배경에서 성장했다. 1974년 서울대학교 미대 조소과에 입학했으며 동대학원에서 수학하였다. 현재 작품의 주제들이 등장하게 된 계기는 대학교 3학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다. 그는 국내·외 다수의 개인전과 그룹전을 통해 증견 조각가로 성장했다. 특히 회심 이후로 프란시스 웨퍼와 라브리 책들을 통해 문화에 대한 인식과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점차 선교단체 IVF 모임과 기독교 학술 교육 동역회, 기독교학문연구회 등의 활동을 통해 점차 기독교 세계관을 확장시켰다. 1993-1994년에 걸쳐 연구교수로 미국의 Calvin College 미술학과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하여 작품 제작에 몰두했다. 그 후 오브제를 이용한 다양한 작품 제작에 이르지만 작품의 주제와 삶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 상황에서 2001년 안식년을 맞이하여 연변 과기대 건축학부 연구교수를 지내면서 삶의 안식과 충전을 맛보는 회복의 시간을 보냈다. 그곳에서 조각공원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 점의 공공미술로서의 작품들을 설치했으며 이 과정은 그의 작품 세계에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의 전개에 있어 말씀(Logos)이 이미지(Image)로 체현되는 형상의 작품의 세계를 로고시즘(Logos-ism) 10) 미술로 정의한다. 로고시즘은 사전적 정의로 단정 지을 수 없는 단어이다. 로고시즘 미술은 말씀인 로고스가 작업 제작에 있어 물질과 형태로 체현되는 작품들을 의미한다. 그는 로고스와 이미지의 통합에 있어 끊임없는 연구를 시도했다. 로고시즘 미술이 단순히 로고스를 이미지로 전환하는 작업을 넘어 기독교 세계관으로 로고스에 기초한 작품의 표현과 주제를 통해 체현의 미학을 연구한 것이다. 여기서 체현(embodiment)은 로고스와 이미지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차 말씀이 작품의 형상과 질료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내포한다. 말씀을 보이는 형상으로 제작하는 직접적인 체현과 말씀이 내포하는 정신적 의미를 추상적으로

10) 오의석은 '로고시즘'을 미술의 용어로 한정하여 사용한다. 신학적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인간이 되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인 절대적 개념을 이즘(ism)으로 이념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로 표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체현의 방식을 의미한다. 또한 체현의 로고시즘 미술은 기독교에서의 성육신의 유사 개념으로 성육신의 모델을 추구한다. 그는 기독교미술의 정체성을 찾아보는 시도로 말씀의 체현을 작품 제작에서 삶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한다. 우리의 몸과 살, 감정, 감각을 등한시 하지 않으며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오던 이성과 감정, 로고스와 이미지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도이다(오의석, 2013: 22). 그는 로고스의 체현을 “서구의 정신사 속에서 오랫동안 우위를 점했던 철학적 이성의 진리미학과 함께 근대 이후 힘을 얻은 감성의 미학과 형식미학을 포괄하는 것(한국 현대 기독교미술 50년, 2015: 215)”이라고 주장한다. 말씀과 형상 사이에서 조각과 함께 보낸 그는 작업 노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어느 한 때도 조각을 조각으로 고집하기 보다는 말씀 앞에 열어놓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씀이 아니었다면 어떤 형상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말씀과 형상 사이에 있고 조각은 그 틈새에서 빚어집니다. 이제 다시 말씀의 숲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오의석, <말씀과 형상> 초대개인전, 진흥아트홀 에필로그, 2003: 66).


그는 자신의 신앙고백을 작품으로 체현하며 기독교미술을 하나의 종교적 미술이라는 영역에 국한하지 않는다. 로고스의 다양한 체현의 가능성과 기독교 예술가의 삶에서 말씀의 실천과 참여로 지향하는 모습을 기대한 것이다. 그는 형상의 세계에 있어 로고시즘 미술에 근거한 작품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성경에 기초한 로고시즘 작업을 문자적인 말씀을 시각적으로 이미지화 하는 작업이다. 이는 보편적으로 기독교 작가들이 기독교적 주제를 가지고 작품에서 보여주는 방식이다. 둘째,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엇이든지 주제로 다룰 수 있는 성경의 시각적 작업이다. 창조와 타락, 구속, 회복의 구조인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기독교적 주제뿐 만 아니라 세상의 다양한 주제인 인간과 자연, 역사, 인물 등을 다룬다. 이는 첫 번째보다 좀 더 확장된 로고시즘 미술의 지평을 접할 수 있다. 순수 형상과 매체의 물성 및 질료 등에 대한 연구도 넓힐 수 있다. 셋째,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삶의 소통적인 작업으로 나눈다. 이는 작품을 창작하고 설치, 발표, 감상의 행위 등을 통해 참여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강조하며 구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오의석의 로고시즘 미술의 지평을 예배로서의 미술과 접목한다. 구체적으로 말씀이 체현되어 작품 세계에 나타나는 오의석 작가의 로고시즘 조각의 특성과 창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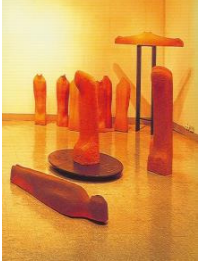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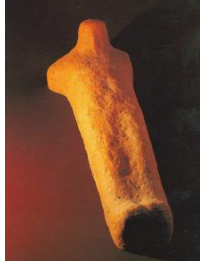





의 실재를 크게 네 단계(선포와 증언의 시대, 성경의 인간관 변증, 실천과 참여의 조형 세계, 환경조형과 로고시즘의 확산)로 살펴보고자 한다[Figure 4].¹¹⁾ 첫 단계로 선포와 증언의 시대에는 말씀에 대한 체현을 고철 오브제와 전기용접을 활용하여 십자가 등의 종교적 오브제를 제작한다. 점차 자연과 문명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사회에 대한 시대적 발언과 참여적 행위가 작품에 전개된다. 이는 개인의 종교적 표현과 함께 사회 정치적 현실에 대한 발언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로 성경의 인간관 변증의 단계에서는 흙을 불에 구워 제작하는 테라코타 방식으로 조형 작업이 변한다. 환경과 시대의 성찰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확립하는 내적 변화를 겪게 된다. 작가의 말씀과 신학에 대한 관심이 창조와 타락, 구원과 회복으로 바뀌면서 기존의 선교명령(마태복음 28:19-20)에서 문화명령(창세기 1:28)으로 확장된 것이다. 성경에서 창조주가 자신의 형상대로 흙을 이용해 인간을 빚는 것을 테라코타 작업을 통해 창조의 원형 제작과 연관시키기 시작한다. 셋째로 실천과 참여의 조형세계 단계에서는 작업의 재료와 양식면에 있어 사진 풀라주로 바뀐다. 지구촌의 문제들인 전쟁과 기아, 분쟁, 환경오염 등의 사진 이미지를 타자기나 종, 주방 기구 등에 붙여가는 풀라주 작업 방식으로 진행한다. 당시의 미술계와 교회, 기독교미술 현장을 다시금 바라보며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개인의 고백적 작업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주변사람을 향한 실질적인 행동과 함께 체현을 중시한다. 즉 그는 실천적 로고시즘 미술을 추구한다. 마지막 단계는 환경조형과 로고시즘의 확산이다. 그는 안식년을 맞이하여 작업과 삶의 일치에 대한 고민과 함께 2001년 중국 연변의 대학으로 떠난다. 그곳에서 조각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회복의 시간을 보내며 귀국 후, 점차 환경조형 창작을 진행하기 시작한다. 다양한 이미지의 형태로 체현된 로고스를 표현하며 조형적인 형태와 매체에 말씀의 선포와 신앙의 고백, 증거, 변증 나아가 실천과 참여의 세계로 말씀의 형상화를 융합적인 모델로 제시한다. 이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작품이 설치되며 점차 공동체 성격을 지닌 환경 작품으로 전개된다.¹²⁾

11) 오의석 (2013), ‘한국 현대미술에 체현된 로고시즘 연구’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12) 오의석 작가는 예배로서의 그림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말씀이며 그리스도인 로고스(logos)를 감각적 형상화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작품에서 절대자 신성의 내재성을 간직하고 있기에 때문에 그림예배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오의석 작가와의 인터뷰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작업 과정을 그림예배로까지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해석의 가능성은 열어 놓았다. 따라서 그는 작품들을 로고시즘의 구분 범주로 소개하면서도 예배적인 요소를 갖는 명제들 중심으로 구분

Period	Oh Ui-Seok's Logos-ism artworks		
An era of proclamation and testimony	Embodiment of religious symbols		
			
	<p>[Figure 1] <For God so loved the world>, Steel, 67×15×102cm, 1978</p>	<p>[Figure 2] <With Love>, Steel, 100×12×71cm, 1985</p>	<p>[Figure 3] <He was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s>, Steel, 55×70×15cm, 1996</p>
	Environmental description of nature and civilization	View of the reality of society	
			
	<p>[Figure 4] <Stone 1984-Seoul>, Filed stone, Steel, 55×55×55cm, 1984</p>	<p>[Figure 5] In the field, Steel, 145×15×160cm, 1985</p>	<p>[Figure 6] <Door of August>, Steel, 110×45×210cm, 1986</p>

하여 재구성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에 연구의 논점을 ‘로고스의 실천과 참여’라는 개념이나 ‘삶의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반영’으로서 그의 예술을 새롭게 재해석 할 수 있다. 첫째, 신앙 고백적 작품으로 ‘인자, 기도, 평화,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둘째, 증언과 선포적 작품으로 ‘이처럼 사랑하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철제 십자가 작품’, 셋째, 헌신과 결단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새 순, 사랑의 종, 목마름, 광야의 울림’ 등 현실 참여적 작품으로 재분석할 수 있다. 작가는 로고시즘이라는 명제로 말씀의 체현을 다루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의 작업에 나타난 예배적인 요소를 찾아 모색할 수 있다.

<p>Demonstration of a view on human in the Bible</p>	Sculpture of Dirt and Fire		
			
	<p>[Figure 7] <Dirt · Human · Fire-People>, Terra-cotta, Steel, 1992</p>	<p>[Figure 8] <Dirt · Human · Fire-Peace>, Terra-cotta, 32×25×56cm, 1992</p>	<p>[Figure 9] <Dirt · Human · Fire-Sleep>, Terra-cotta, 50×35×140, 1992</p>
	<p>Revolt against modernity</p>	Recovery of the scriptures and humanity	
			
	<p>[Figure 10] <Dirt · Human · Fire-Jesus>, Terra-cotta, 40×25×50cm, 1991</p>	<p>[Figure 11] <Dirt · Human · Fire-Pray>, Terra-cotta, 14×24×36cm, 1994</p>	<p>[Figure 12] <Dirt · Human · Fire-Pray>, Terra-cotta, 14×24×36cm, 1994</p>
<p>Formative Art World of participation and practice</p>	Reminiscence of 20th century's global village		
			
<p>[Figure 13] < Retrospection of the tainted world in 20th century>, Terra-cotta, Photo collage, 180×180×30cm, 1999</p>	<p>[Figure 14] <Human, human, human-News 3>, Typewriter+Photo collage, 50×40×25cm, 1998</p>		

Formative Art World of participation and practice	Aesthetics of the 'downward mobility'		Realization of love and sharing
			
	[Figure 15] <Human, human, human-To the lower>, Steel, Photo collage, 75×145×45cm, 1999	[Figure 16] <Seven bells that do not ring>, Photo collage, 20×40×80cm, 1999	[Figure 17]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Synthetic resins, Photo collage, 53×30×23cm, 1999
Environmental Artworks and the spread of Logos-ism	In the wind and soil of the roadside		
			
	[Figure 18] <Echoes of wilderness>, Steel, 630×1450×260cm, 2001, YUST Sculpture Park, China [Figure 18-1] <Hill of suffering>, Timber+cast iron, 530×170×340cm, 2001		
	A series of 'Resonance' and 'Buds'		
			
[Figure 19-1] <Door of resonance, Daegu Bible Megatown, 2003 [Figure 19-2] <Buds-Oh Ui-Seok exhibition>, Kosin University David gallery, 2005 [Figure 19-3] <Resonance>, Stainless Steel, Seoul Yongsan park tower,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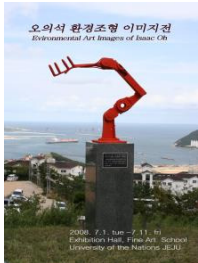

Environmental Artworks and the spread of Logos-ism	Discovery of new subjects and integration		W-zone project
			
	[Figure 20] <Candlestick of revival>, Colored Steel, 100×30×75cm, 2007	[Figure 21] <Thirst>, Colored Steel, 100×30×95cm, 1990	[Figure 22] <Bell of love>, W-Zone, Yang-Phyong, 2011

Figure 4. Logos-ism, the world of Oh Ui-Seok's artworks

그는 한 개인의 신앙 고백적 표현과 더불어 삶의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모습에 관심을 가진다. 로고시즘 미술은 종교적 주제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문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내포한다. 더불어 형상과 재료의 표현 역시 말씀과의 관계에서 해석되는 것이다. 그는 말씀 앞에서 형상 세계의 절대 가치를 부정한다. 말씀의 요청 앞에 반응하는 작품세계의 가변적이고 다양한 특성이 로고시즘 미술이라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말씀의 진리가 가지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특성은 삶의 현장과 미술의 여러 영역을 접목하고 소통한다. 작품의 재료와 양식 및 주제 등이 변해가지만 그 형상의 과정은 결국 작품 안에 내재하는 성경 말씀인 진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독교 예술가의 전인적인 삶의 총체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

V. 결론

본 연구에서 기독교미술의 이해와 지평의 확장은 시대의 흐름을 아우르며 풀어가야 할 과제로서 하나의 문화적 코드였다. 따라서 현대 기독교미술을 과거 종교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성경에 기록된 일화들을 주로 그린 중세시대의 관점이나 도상학적 해석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았다. 이러한 고전적 알레고리 회화의 접근 방식보다 예술

적 상상력을 통한 새로운 신학적 미학의 방식으로 그림예배를 살펴보았다. 그림예배는 종교적 의식이나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에게 보답하는 작업 행위로 연결하는 기독교 예술가의 신앙고백이다. 그림예배는 기독교 예술가의 전인적 행위이며, 절대자에게 받은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답의 행위를 포괄한다. 더불어 기독교 예술가의 일상적 삶이 언약 안에서 매일의 실제적인 예배로 연결되는, 삶과 신앙의 일치가 일어나는 현장이다. 절대자의 통치와 진리가 각 영역과 삶으로 연결되고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참된 예배이기 때문이다. 이에 예술가의 신앙이 삶에서 고백되는 실제적 그림예배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그림예배는 절대자에 대한 존재론적 특성을 이해하고 예술가의 체화된 신앙고백이 작품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담은 연구는 기독교 예술가가 창조의 목적대로 예술을 영위하는 타당한 목적과 당위성을 제공했다. 즉 기독교 예술가가 신앙고백의 형태로 재현하고 있는 예술적 창작활동을 ‘예배로서의 미술’ 곧 ‘그림예배’로 승화시키고자 시도한 연구였다. 이러한 시도는 많은 신학적 논란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기독교 예술가의 입장에서는 그림예배의 체계화를 통해 예배의 다양한 통로의 확장이 필요했다. 이러한 그림예배의 시도는 예술가의 창작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해 절대자의 존재론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의 입체로 들어가는 거룩한 예식에 동참하게 한다. 그러므로 그림예배는 과거의 종교적 수단과 도구적 의미로서의 예술을 넘어 새로운 기독교미술사적 지평을 확장할 수 있었다.

이에 신학적 주제를 미학으로 읽는 미학적 신학과 예술 작품을 신학적으로 읽는 신학적 미학(신학적 영감으로 이루어지는 미학적 형상화)의 개념을 알아보았다. 이를 근간으로 신앙고백으로서의 그림예배에 대해 절대자의 존재론적 특성인 진과 선, 미의 측면을 페리코레스시의 총체적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참된 기준인 진리가 예술에서 미로 표현되고 삶의 실천능력인 선으로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절대자의 진과 선, 미에 대한 통합적 사고를 길러주며 절대자를 이해하는데 새로운 척도를 기대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예술가와 관람자 사이에서 예술적 상상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재형상화 작업으로서의 그림예배를 모색하였다.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어떤 현상학적 이론이나 이미지, 텍스트 분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관람자의 반응까지도 고려했다. 이를 통해 기독교미술을 이해할 때, 보이는 세계에 대한 표현과 작품의 형상화를 넘어 그 안에 담긴 기독교 세계관의 의미와 내

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새롭게 재조명할 수 있었다.

기독교 예술가와의 만남은 융합과 통섭의 자리로써 현시대의 기독교미술과 문화에 대한 소통의 시도였다. 역사적 흐름의 조명 아래 현주소를 기록하고 실질적인 사례인 작가 연구를 바탕으로 기독교 문화와 교회에서 기독교미술의 입지를 세우고자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미술에 대한 동양과 서양의 구분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예술가의 작품을 제시하며 기독교미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왔다. 그 사례로 오의석 작가와 실질적인 만남과 인터뷰를 통해 그림예배의 스토리텔링 사례를 분석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품의 재료와 양식 및 주제 등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상의 과정은 결국 작품 안에 내재하는 성경 말씀인 진리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기독교 예술가의 전인적 삶의 총체적 모습과 함께 로고시즘 미술의 지속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있어 신학자와 철학자, 미학자들과 함께 미학적 신학과 신학적 미학을 근간으로 한 학제 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그림예배(작업의 모든 행위와 사고, 과정, 토론 등)에서 기독교 예술가를 검증할 수 있는 근원적인 장치에 대한 연구도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가 과거의 역사적 자료와 현재를 통해 기독교미술의 미래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계속해서 현시대 기독교 예술가와 작품연구, 이론가, 평론가, 철학자, 신학자, 큐레이터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통합과 통섭의 대화의 장이 필요할 것이다. 기독교미술은 결코 독립적 존재가 아닌 시대 흐름 가운데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며 예술을 통해 절대자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나아가 참된 살림을 회복하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광명 역. (1994). “독서과정: 현상학적 접근.” 『현대문학비평론』. Iser, W. 서울: 한신문화사.
- [Kim, G. M. (1994). Seoul: Hanshin Munhwasa. Trans. Iser, W.]
- 김상구 (2005). **일상생활과 축제로서의 예배**. 서울: 이레서원.
- [Kim, S. G. (2005). *Worship as daily life and festivals*. Seoul: Iraeseowon.]
- 김상구 (2012). **개혁주의 예배학**. 서울: 대서.
- [Kim, S. G. (2012). *Reformational Theology*. Seoul: Daesuh.]
- 김순환 (2012). **예배학 총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Kim, S. H. (2012). *Theology General*.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김옥동 (1988). **대화적 상상력**. 서울: 문학과지성사.
- [Kim, W. D. (1988). *Conversational Imagination*. Seoul: Moonji Publishing Company.]
- 김유리 역. (2008). **현대 예술과 문화의 죽음**. Rookmaaker, H.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Kim, Y. R. (2008). *Death of Modern Arts and Culture*. Seoul: IVP. Trans. Rookmaaker, H.]
- 김유리·오윤성 역. (2004). **예술과 영혼**. Brand, H. & Chaplin, A. (2002). *Art and Soul*.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Kim, Y. R. & Oh, Y. S. (2004). *Art and Soul*. Seoul: IVP. Trans. Brand, H. & Chaplin, A. (2002). *Art and Soul*. Intersity Press.]
- 김이순 외 (2015).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 50년: since 1966**.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 [Kim, Y. S. (2015). *50 Years of Korean Modern Christian Art: Since 1966*. Korean Christian Artists Association.]
- 김종흡 외 3인 역. (1998). **기독교강요**. Calvin, J. (1960).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서울: 생명의 말씀사.
- [Kim, J. H. (1998).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Seoul: Lifebook Publishing Company. Trans. Calvin, J. (1960).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London SCM Press.]
- 김한식·이경래 역. (1999). **시간과 이야기1**. Ricoeur, P. (1991). *Temps et Recit, T.1: L'Intrigue et le Recit Historique*. 서울: 문학과지성사.
- [Kim, H. S. & Lee, K. R. (1999). *Time and Story (1)*. Seoul: Moonji Publishing Company. Trans. Ricoeur, P. (1991). *Temps et Recit, T.1: L'Intrigue et le Recit Historique*. Seuil.]

- 김혜련 역. (2003). **현대인을 위한 신학적 미학**. Harries, R. (2000). *Art and the beauty of God*. 서울: 살림.
- [Kim, H. R. (2003). *Theological Aesthetic for Modern People*. Seoul: Sallim. Trans. Harries, R. (2000). *Art and the beauty of God*. Continuum Intl Pub Group.]
- 서성록 (2000). 종교개혁 미술론, 인문과학연구 제 3집, 안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Seo, S. L. (2000). *Theory of Art the Reformation*, Cultural Sciences Research Chapter 3, Andong National University Cultural Sciences Research Laboratory.]
- 신국원 (2002).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Shin, G. W. (2002). *Shin's Culture Story*. Seoul: IVP.]
- 신국원 역. (2010). **행동하는 예술**. Wolterstorff, N.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Shin, G. W. (2010). *Art in Action*. Seoul: IVP. Trans. Wolterstorff, N.(1980). *Art in Actio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심광섭 (2010). **예술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Shim, G. S. (2010). *Art Theology*.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오의석 (2006). **예수 안에서 본 미술**: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 산책. 서울: 흥성사.
- [Oh, E. S. (2006). *Art in Jesus: Korean Modern Christian Art*. Seoul: Hongsungsa.]
- 오의석 (2013). **한국 현대미술에 체현된 로고시즘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 [Oh, E. S. (2013). *The 'Logos-ism' Embodied in the Korean Contemporary Fine Arts*. Daeg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이소명 (2015). **만남으로서의 그림예배**. 경기도: 한국학술정보.
- [Lee, S. M. (2015). *Art Worship as Meeting*. Gyeonggi-do: Korean Studies Information.]
- 임성빈 외 (2006). **기독교 문화와 상상력**.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Center for Cultural Communication. (2006). *Christian Culture and Imagination*. Seoul: Yeyoung Communication.]
- 최혜실 (2007). **문화산업과 스토리텔링**. 서울: 도서출판 다할미디어.
- [Choi, H. S. (2007). *Cultural Industry and Storytelling*. Seoul: Dahal Media.]
- Kuyper, A. (1981).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Wm. B. Eerdmans.
- McGrath, A. (1999). *Christian Spirituality*. Blackwell: Maiden.
- Seerveld, C. (1995). *A Christian Critique of Art and Literature*. guardian: Toronto Tuppence Press.
- Viladesau, R. (2000). *Theology and the Arts: Encountering God through music, art, and rhetoric*. New York, NJ: Paulist Press.
- Wolterstorff, N. (1996). *Art in action*. Grand Rapids: Wm. B. Eerdmans.

논문초록

절대자를 만나는 예배로서의 미술 : 신학적 미학을 통한 오의석 작가의 스토리텔링

이소명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본 논문은 기독교 예술가가 신앙고백의 형태로 재현하고 있는 예술적 창작활동을 ‘예배로서의 미술’ 곧 ‘그림예배’로 승화시킨 연구이다. 이러한 시도는 많은 신학적 논란을 제기할 수 있지만, 기독교 예술가의 입장에서는 그림예배의 체계화를 통해 예배의 다양한 통로를 확장하고자 한다. 기독교 예술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예술가가 절대자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림예배에는 세 가지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그림예배는 미학적 신학과 신학적 미학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신학적 미학은 신앙의 체계에서 상상력과 아름다움, 예술에 담긴 미학적 요소들이 절대자의 계시 통로로 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둘째, 그림예배는 절대자의 존재론적 특성인 진(眞)과 선(善), 미(美)가 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그림예배는 참된 기준인 진리가 예술의 영역에서 미로 표현되며 삶에서 실천능력으로서 선의 측면인 일상예배와 연결된다. 이러한 절대자의 존재론적 특성들은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서로 상호 침투하고 내주하여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면모들을 나타낸다. 셋째, 그림예배는 예술가와 그의 작품 그리고 관람자가 재형상화 작업으로 이루어내는 또 하나의 그림예배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연구자는 예술가의 삶과 신앙이 작품으로 고백되는 그림예배의 과정이 관람자에게 전달되는 영향과 관람자에 의해 완성되는 소통의 관점 등을 고찰할 것이다. 즉 관람자는 예술가가 표현한 절대자의 특성(진과 선, 미)을 발견하고, 그분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작가와 작품, 관람자가 통합된 또 하나의 그림예배가 된다. 예술가는 예배로서의 미술 작품을 통해 절대자 그 자체를 표현하거나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자의 존재론적 특성을 진과 선, 미의 영역으로 연결하고 관람자의 상상력을 통해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그림예배를 바탕으로 오의석 작가의 작품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오의석 작가는 말씀(Logos)이 이미지(Image)로 체현되는 로고시즘(Logos-ism) 작품을 제시한다.

그의 로고시즘 미술은 단순히 로고스를 이미지로 전환하는 것을 뛰어 넘어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로고스에 기초한 작품의 표현과 주제를 통해 ‘체현(embodiment)의 미학’을 보여준다. 그의 작품에는 진리를 인식하면서 나타나는 예술 행위와 미적 표현이 거룩한 예배로 이어지며, 관람자의 예술적 상상력과 결합하여 재형상화 작업으로서의 그림예배를 만들어 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그림예배는 예술가의 창작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해 절대자의 존재론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의 임재로 들어가는 거룩한 예식이다. 그러므로 그림예배는 과거의 종교적 수단과 도구적 의미로서의 예술을 넘어 새로운 기독교미술사적 지평을 확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예배로서의 미술, 그림예배, 스토리텔링, 오의석, 로고시즘, 신학적 미학, 미학적 신학

4차 산업혁명 시대, 코딩 기술과 교회 교육

Coding Skills and Church Educat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이영미 (Young-Mi Lee)*
이윤석 (Yoonseok Lee)(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In this paper, we discussed how to use coding, a key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n church education. In the ag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oding education is becoming important worldwide. Coding education is highly emphasized in Korea, and it is mandatory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since 2018. The spread of this coding education is due to the emergence of readily available coding programs with significantly improved performance over the past. Using new coding tools such as Scratch and Entry, even children can easily make programs. Accordingly, various attempts have been made to apply coding to school education. However, unlike the trends in public schools, Korean churches rarely use coding in church education. However, FMnC's pioneering attempts to use coding skills in the Bible education will be a good model for Korean churches to apply coding to church education. In this case, students create animations and games with stories from the Bible. This will improve their coding skills and deepen their understanding of the Bible. The use of coding in church education is now the beginning, but it can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effectiveness of future church education.

Key Words :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ding, church education, Scratch, FMnC

이 논문은 이영미의 2018년도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인
“코딩 기술을 이용한 교회학교 성경 교육 - 코딩 성경 캠프 프로그램 개발 사례

*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석사(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7600 Glover Road, Langley, BC V2Y 1Y1, Canada, zerome111@naver.com

** 독수리기독교학교 기독교학교연구소장(Eagle Christian School),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88, yoonseoklee@naver.com

2018년 05월 14일 접수, 06월 11일 최종수정, 06월 25일 게재확정

(Bible Education Using Coding at Sunday School - A Case of Coding Bible Study Camp Program Development)”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1. 들어가는 말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기는 장면을 목격한 우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이미 도래한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언론 매체에서는 연일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논의하고 있고,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이 선진국에서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혹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재육성을 위해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소개하는 일들이 빈번하다.

2016년 초,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를 대대적으로 사용하며 한국 사회에 알려진 새로운 산업혁명은 기술과 시장의 변화 양상에 있어서 그 ‘속력’(velocity), ‘범위와 깊이’(breadth and depth), ‘시스템 충격’(system impact)이란 세 가지 면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Schwab, 2016: 12-13). 그리고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무인 운송수단, 3D 프린팅, 첨단 로봇공학, 신소재 등의 ‘물리적 기술’(physical technology),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블록체인, 공유경제, 플랫폼 비즈니스 등의 ‘디지털 기술’(digital technology), 유전학, 합성생물학, 바이오 프린팅 등의 ‘생물학 기술’(biological technology) 등 세 개 범주의 기술들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Schwab, 2016: 36-50).

그런데 이러한 주요 기술들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데이터’와 어떤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코딩’이라고 한다. 최근 이 코딩이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가는 사례로 잘 알려져 있는 에스토니아는 2000년에 ‘인터넷 접속권’을 인권으로 선언한 세계 최초의 국가이며, 디지털 국가를 꿈꾸며 소프트웨어 교육에 국가적으로 매진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 학생에 이르기까지 소프트웨어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코딩을 통해 알고리즘과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한편, 실제 물리적 객체인 기계나 로봇이 작동하도록 하는 코딩을 배우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등도 배운다(KBS <명견만리> 제작

팀, 2017: 274-279).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한국도 2018년부터는 초·중·고 교육과정에 코딩이 정규과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 2015: 4). 바야흐로 어떤 전공을 가지는 기술에 대한 이해, 특히 코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코딩에 대한 강조는 단지 ‘코딩’이란 하나의 정규 교과목이 추가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 모든 교과들에 코딩이라는 방법론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실로 전통적인 교과목을 학습하는 방식에 있어서 코딩이라는 기술이 수단으로 사용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문제해결력과 데이터 관리 능력을 갖춘 소프트웨어를 가진 인재를 길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시대이기에 교회 교육에 있어서도 역시 아이들에게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면서 한편으로는 시대에 맞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교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주요한 핵심 역량 중 하나인 코딩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한 기술인 ‘코딩’을 교회 교육에 접목할 수 있을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탐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물론 지금까지 교회 교육에서 코딩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일반 학교에서 코딩 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상황에서 교회도 교육의 수단 또는 방법으로 코딩을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비록 이 방법이 기존의 방식을 크게 대체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교육에 어느 정도 적용할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최근까지 한국에서 발표된 문헌들을 고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코딩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IT와 관련된 문헌 고찰을 통해 한국의 교회 교육에서 넓게는 IT, 좁게는 코딩을 적용하고자 한 시도들을 살펴보고 코딩 교육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현황과 한국 교회들의 현황으로 구분하여 논의할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에 한국의 교육계에서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코딩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찬찬히 논구해 보고자 한다.

II. 한국의 코딩 교육 현황

1. 4차 산업혁명과 코딩 교육의 대두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로봇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 곁에서 살아가는 미래를 그린 영화는 대부분 사람보다 더 뛰어난 힘으로 무장한 로봇이나 더 뛰어난 지식으로 무장한 인공지능이 인간들을 지배하려 한다는 스토리로 되어 있다. 함께 더불어 잘 살게 되었다는 스토리는 훨씬 적다. 이는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기술의 발달로 지식이 더 집중되고 통제는 더 쉬워지고 이를 몇몇 소수의 권력자가 쥐고 흔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술을 멀리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이 모든 일들이 컴퓨터를 통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므로 사람이 컴퓨터에게 일을 시킬 때 사용하는 컴퓨터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필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코딩은 컴퓨터에게 시킬 일을 컴퓨터 언어로 지시하는 것이다. 일단 사람이 원하는 일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시킬 수 있으면 컴퓨터는 그 일을 끝없이 반복해서 수행할 수 있다. 전원이 차단되지만 않는다면 혹은 하드웨어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컴퓨터는 사람이 시킨 일을 반복해서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이든 컴퓨터에게 맡기기 적당한 일을 찾고, 코딩을 통해 그 일을 적절하게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면 본인의 일을 수월하게 만들거나 생산성을 높이거나 새로운 효과를 만들 수 있다. 공장 자동화나 자율 주행 같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요즘은 자동차에도 소프트웨어가 많이 들어가 IT 업종이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란 것은 결국 코딩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에스토니아는 이러한 기회를 매우 잘 포착하여 활용한 국가 차원의 사례로 꼽힌다. 에스토니아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획기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사례로 잘 알려져 있다. 인구가 130만 명 정도인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는 구소련에서 독립 후 1인당 GDP가 1995년 \$3,044에서 2016년 \$17,727로 20여년 만에 6배로 성장했다. 에스토니아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1996년부터 ‘호랑이의 도약’이라는 이름의 코딩 교육 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2012년부터는 ‘프로지 타이거(Proge Tiger)’라는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앞선

코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¹⁾ 에스토니아의 이러한 사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초·중등학교 교육에 요구되는 핵심 사항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에스토니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코딩 교육에 큰 관심을 갖고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영국은 2014년 9월부터 컴퓨터과학을 5대 필수 과목 중 하나로 지정하였으며, 모든 7학년 학생들에게 마이크로비트라는 소형 컴퓨터를 무료로 보급하여 코딩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안인회, 2016: 80-81). 미국은 2000년에 개발된 K-12 컴퓨터 과학 커리큘럼을 2011년에 3단계로 조정하면서 ‘컴퓨팅 사고력’을 강조하도록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모두를 위한 컴퓨터과학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안인회, 2016: 81-82). 이 외에도 프랑스는 2016년부터 소프트웨어 과목을 중학교 정규 과정에 포함시켰으며, 이스라엘은 1994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이 정규 과목에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과 고등학생들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3년간 450시간 받도록 되어 있고, 일본도 2012년에 중학교에서 ‘정보’ 과목을 55시간, 고등학교에서 ‘정보’ 과목을 70시간 필수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인도도 2013년에 초·중등학교에서 프로그래밍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고 있는 등 여러 나라에서 코딩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안인회, 2016: 84).

Table 1 Top 10 global company ranks²⁾

Rank	1990		2012		2017	
1	IBM	Tech-H/W	Apple	Tech-H/W	Apple	Tech-H/W
2	Hitachi	Tech-H/W	Exxon Mobil	Energy	Google	Tech-Internet
3	Panasonic	Tech-H/W	Petro China	Energy	Microsoft	Tech-S/W
4	Alcatel	Tech-H/W	Microsoft	Tech-S/W	Amazon	Tech-Internet
5	NEC	Tech-H/W	ICBC	Finance	Facebook	Tech-Internet
6	SONY	Tech-H/W	Wal-Mart	Retail	Berkshire Hathaway	Finance

<continued>

- 1) 에스토니아는 여러 경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잘 맞이하고 있는 나라로 소개되고 있다. 에스토니아의 사례는 우리가 특별히 참조할 만하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67661> (2018. 2. 16. 검색).
- 2) 기업가치 기준으로 세계 10대 기업의 순위를 나타낸 표이다. 이 순위는 참조한 웹사이트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세 개 년도의 10대 기업 명단은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0vkDTiCU3w>와 <http://platum.kr/archives/82094> (검색일 2018. 2. 17.).

Rank	1990		2012		2017	
7	Fujitsu	Tech-H/W	IBM	Tech-H/W	Exxon Mobil	Energy
8	Nintendo	Tech-H/W&S/W	China Mobile	Telecom	Johnson & Johnson	Health Care
9	Fuji film	Film	General Electric	Electronics	Tencent	Tech-Internet
10	Sharp	Tech-H/W	AT&T	Telecom	Alibaba	Tech-Internet

코딩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나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순위 변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Table 1은 기업가치 즉 주가 총액 기준으로 세계 10대 기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1990년에는 세계 10대 기업의 대다수가 전자산업의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이었다. 그러나 2012년에는 전자산업 제조업체는 2개로 줄고, 에너지, 소프트웨어와 통신, 유통, 금융서비스 기업 등으로 다양화된다. 그런데 5년 후인 2017년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새로운 플랫폼을 제시하는 기업들이 대거 10대 기업 안에 포진한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텐센트, 알리바바 등 무려 5개의 기업이 상위 10대 기업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요한 기술 분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성장 유망한 시장이 어떤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새롭게 세계 10대 기업으로 부상한 이러한 기업들의 핵심 기술은 코딩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추구하기 위해 코딩을 강조하는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기업들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은 코딩만으로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침으로써 아이들이 컴퓨터 언어를 이해하고, 컴퓨터를 활용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경험하게 해 주는 것은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 또한 코딩을 하면 논리적인 훈련을 받게 된다. 순차적인 진행, 조건에 따른 분기, 반복 조건, 종료 조건 등을 논리적으로 빈틈없이 설계해야만 컴퓨터가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내므로, 프로그래머는 논리적인 흐름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거듭되는 디버깅 과정에서 논리적인 사고를 훈련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가 주어지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작은 단위로 쪼개고 전체 흐름을 설계해야 하고, 컴퓨터에 입력되는 자료와 처리 과정, 출력되는 자료가 가지는 연관성과 흐름, 자료의 저장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하므로 치밀한 논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훈련을 과거에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실시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대개는 전산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되어서야 알고리즘을 배우고 본격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도구 자체가 바뀌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도 코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개발된 코딩 도구들이 다양하게 개발된 것이다. 이러한 간편한 코딩 도구들의 개발은 초·중·고 학생들이 일찍부터 코딩에 눈을 뜨게 해 준다.

코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코딩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Teacher Vision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코딩 프로그램들을 어린이용과 십대용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³⁾

Table 2 Top 5 free coding tools for kids

Name	Age	Environment	Characteristics
1.The Foos Free Hour of Code	5+	iPhone, iPod, Android, Fire phone, Kindle Fire, Windows Phone	Uses visual code blocks, drag-and-drop coding puzzles. The puzzles grow increasing more difficult as the game continues. Includes monster characters.
2.Kodable	6+	iPad	Focuses on the concepts needed for computer programming. Provides parent section to help parents.
3.ScratchJr	6+	iPad, Android	More basic version of Scratch, designed to give younger kids.
4.Daisy the Dinosaur	7+	iPad	Simple, free introduction to programming. Drag-and-drop to make the dinosaur move.
5.Hopscotch	10+	iPad	Drag-and-drop style. Character-based design. Provides a community section where kids can upload their programs and view other programs.

3) 코딩 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제시하기 위하여 Teacher Vision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참조하였다. 어린이용은 <https://www.teachervision.com/top-5-free-coding-tools-kids>에서, 십대용은 <https://www.teachervision.com/top-5-free-coding-tools-teens>에서 (검색일 2018. 2. 16.) 찾아볼 수 있다.

Table 3 Top 5 free coding tools for teens

Name	Age	Environment	Characteristics
1.Alice	13+	Desktop / Windows, Mac, Linux	Developed by Carnegie Mellon. Teaches the fundamentals of programming in a 3D setting. Programming concepts are learned while students create animated movies and video games.
2.App Inventor	13+	Website	Cloud-based tool by MIT. Drag-and-drop style. Includes all methods, functions, and coding elements to create an Android app. Ideal for middle school kids and up.
3.Codecademy	13+	Website	Interactive online tool that teaches coding fundamentals (Ruby, PHP, jQuery, Python, JavaScript, etc.). Suited for older students, middle grade and up.
4.Khan Academy	13+	Website	Interactive online tool for middle grade students and above. Teaches coding fundamentals using JavaScript and ProcessingJS. Learn how to create animation, games, and drawings.
5.Kackety Hack	13+	Downloadable App	Downloadable app where kids write simple programming code. Learn Ruby. Designed to enhance students reading, logic, and critical thinking abilities. Ideal for teens.

국내의 코딩 교육에서도 여러 프로그램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것은 ‘스크래치’와 ‘엔트리’이다. 스크래치는 scratch.mit.edu 사이트에, 그리고 스크래치와 유사한 형태의 프로그램인데 국내에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 엔트리는 playentry.org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코딩 프로그램들이 대체적으로 갖는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김민정·정희진, 2017: 25-26). 첫째,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딩 프로그램들은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드래그-앤-드롭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점이다. 따라서 예전에는 포트란, C, C++ 같은 언어로 전공자들이나 코딩을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아이들도 쉽게 코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각적 언어에 걸맞게 미디어 요소들의 수정과 조정이 매우 용이하다. 그래픽, 배경 그림, 캐릭터의 추가, 애니메이션, 음향 등의 요소들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셋째, 단계별로 진전되는 스토리텔링 구조를 기본 형식으로 갖는다. 간단한 스토리를 따라서 코딩을 하도록 유도하든가 아니면 전

체 스토리 자체를 개발자가 자의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코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런 구조가 개발자의 상상력과 창의성이 발휘되도록 한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코딩 프로그램이 개발자의 머릿속 생각을 실제로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스토리는 간단한 게임으로도 쉽게 구현된다. 넷째, 주요 코딩 프로그램들은 개발된 프로그램들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 플랫폼을 이용하여 각 개인은 고립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각자의 지식을 공유하며 서로를 자극하며 발전해나갈 수 있다.

2. 한국에서의 코딩 교육 적용 방법들

코딩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초·중·고 학생들, 더 넓게는 유치원생과 대학생들을 위한 코딩 교육이 봄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식의 코딩 교육이 시도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시도들을 몇 가지 살펴본다.

먼저 한국에서 강조되고 있는 코딩의 기본 철학과 관련된 것을 살펴보자. 근래의 코딩 교육에 있어서의 최대 화두는 ‘모두를 위한 코딩 교육’이라는 점이다. 컴퓨터과학 전공자만 코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자 하는 전공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초적인 논리적 도구 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도구로써 코딩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학습자들은 ‘비전공자’로서 코딩을 배운다. 예전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비전공자들도 시각적 코딩 도구를 이용해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이민정의 논문은 비전공자들이 코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전공자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의 교육 과정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논문은 비전공자들의 경우 현실 문제를 컴퓨팅 환경의 문제로 변환시키는 훈련, 규정된 문제를 순서도나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해서 시각화하는 훈련, 시각적으로 정의된 자료를 바탕으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훈련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장한다(이민정, 2017: 1316-1317).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학생들 대다수는 비전공자이므로 코딩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관점의 접근이 타당하다. 중요한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가 아니라 각자의 영역에서 대두되는 실제 문제를 어떻게 알고리즘 형태로 만들어내어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코딩 교육이 교육적 성과 지표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논문을 살펴보자.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이연승·성현주의 논문은 코딩용 로봇인 비봇(Bee-Bot)을 활용하여 수학적 문제 해결력(수연산, 대수, 기하, 측정, 통계 등 5개 영역) 증진 교육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이 대수, 측정, 통계 등 3개 영역에서 비교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얻었다(이연승·성현주, 2017: 173-274). 유아들의 경우에도 코딩은 논리적인 사고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Kim의 논문은 내용상으로는 동일한 한 종류의 게임을 두 가지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일반적인 보드 게임 방식에 비해 코딩 기술을 이용한 컴퓨터 게임 방식으로 수행한 경우에 6가지 범주 중 ‘게임 재사용 의지(game reuse will)’와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 의향(recommendation around)’, ‘만족도(satisfaction)’, ‘코딩 후 학습(learning after coding)’의 네 가지 범주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의 편리함(game usability)’은 일반적인 보드 게임 방식이 더 높았으며, ‘재미(interest)’는 두 가지 방식에 별 차이가 없었다(Kim, 2017: 65). 이 연구는 같은 내용의 게임이라도 코딩 기술을 이용한 컴퓨터 게임이 일반적인 보드 게임 방식에 비해 게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확산시키며 학습 효과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

위 두 논문은 코딩이라는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 교육적 성과 지표들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코딩을 교육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여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도와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대표적인 적용 방식 중 하나는 바로 ‘스토리텔링’이다. 우리나라에서 코딩은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란 분야와 연관되어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토리텔링이란 이야기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교육 수단 중 하나다. 이 스토리텔링이 IT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여러 가지 디지털 미디어 기술에 의해 강화되어 소위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졌다. 마치 과거에 무성영화 시대에 한 사람의 변사가 배우별로 목소리를 달리하며 음향 효과를 내던 것과 같은 시도를 이제는 발전된 미디어 기술을 활용하여 영상 효과나 음향 효과를 손쉽게 그려나 수준 있게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스토리의 구성 요소(예를 들어 인물, 사건, 배경,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등의 흐름)에 더하여 디지털 스토

리는 추가적인 구성 요소 즉 시각적 자료, 음향 효과 등을 갖는다. 디지털 스토리가 일반적인 스토리에 비해 갖는 추가적인 요소 때문에 디지털 스토리는 시청자와 상호 작용 면에서 우수한 효과를 낼 수 있으며 교육적인 면에서도 보다 효과적이다(김민정·정희진, 2017: 27).

이러한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코딩 교육과 접목되면 코딩 프로그램을 이용해 어떤 스토리를 자신이 주체가 되어 전개해 나갈 수 있고 이러한 스토리의 개발 과정에서 각종 미디어 요소를 개발자가 임의로 적용하면서 창의적인 자신만의 디지털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김민정·정희진, 2017: 29). 그렇게 되면 전통적인 스토리텔링에 비해 더 효과적인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코딩과 접목된 스토리텔링을 통해 직접 개발하고 구현해봄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논리력과 창의력을 개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또 다른 대표적 방안 중 하나는 코딩으로 게임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다. 최근 초등학교 도덕 과목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코딩을 이용해 교육하고자 하는 시도가 제안되었는데 게임 방식을 제안하였다(방민권, 2017: 158-166). 이 논문에서는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게임형과 블록형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게임형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게임 형식과 같으며 미국의 저학년 코딩 교육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시퀀싱(sequencing)’ 기법과 유사하다. 시퀀싱 기법이란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이 한 단계마다 캐릭터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런 순차적 의사 결정을 통해 최종 단계에까지 성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는 것을 의도한다. 이 게임형 프로그램도 적절한 특정 답안을 요구하는 ‘체화형 프로그램’과 여러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덱카드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한편 블록형 프로그램은 스크래치와 같은 블록형 코딩 도구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다. 이 블록형 프로그램은 학습자가 제시된 가상 상황에 대해 여러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캐릭터로 그곳으로 이동하도록 코딩하는 형태의 ‘선택형 프로그램’, 어떤 이야기의 앞 부분을 제시한 후 그 뒷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만들어보도록 유도하는 ‘서사형 프로그램’, 여러 개발자들이 공동으로 어떤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협동형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런 다섯 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도덕 교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에 대해서라도 코딩이란 도구를 특정 교과 내용의 학습에 어떻게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향을 제시

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의미가 있다.

셋째, 코딩으로 하드웨어를 구동하는 데까지 적용하는 사례이다. 이재호·장준형의 논문은 소프트웨어 코딩 기반의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 논문은 코딩과 함께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메이커 교육을 코딩과 통합시켜 접근하고 있다. 목공이나 전자 조립 등과 같은 메이커 활동은 과거에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메이커 활동은 코딩과 통합되어 수행되면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레고 완구처럼 조립과 분해가 가능한 도구를 이용해 로봇 축구 선수를 만들고 코딩을 이용해 로봇 축구 선수가 작동하도록 할 수 있는 피지컬 컴퓨팅을 시도한다. 코딩에는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이렇게 하여 코딩과 실제 물리적인 객체가 통합되어 객체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저자들은 경기도교육청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 선발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딩과 로봇 축구 선수 제작, 팀별 축구 경기 등이 포함된 교육과정을 적용하였다(이재호·장준형, 2017: 339-342).

이와 같이 한국에서 코딩이 부각된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코딩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이러한 결과물들이 더욱 왕성하게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3. 한국의 코딩 교육 대응 상황

코딩 기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막에 발맞추어 한국 정부도 최근 국가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5년에 발표한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위한 인재 양성 추진 계획’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 2015: 1-16). 한국 정부는 이 발표를 통해 초·중등 교육 과정과 고등 교육 과정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 혁신에 대한 방안과 사회적으로 친소프트웨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정책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 중 주요한 것 하나가 바로 초·중등학교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이다. 2018년도부터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코딩 교육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의무화한다는 것은 정규 교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편성하여 상당한 수업 시수를 학생들이 모두

이수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이다.

기존에도 정보 또는 컴퓨터 과목이 있어서 약간의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이 이루어 지긴 했지만 한국의 초·중등학교에서 정보·컴퓨터 교육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2018년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3월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어 중학교는 ‘정보’ 과목이 선택 교과에서 이제는 34시간 이상의 수업 시수를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과를 바뀌며, 고등학교는 ‘정보’ 과목이 심화선택 과목에서 일반 선택 과목으로 바뀌며, 초등학교는 ‘실과’ 과목 내에서 ICT 단원이 12시간 교육되었으나 이제는 소프트웨어 기초 교육을 17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다(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 2015: 4). 이러한 변화는 양적으로만 보더라도 매우 큰 급격한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한 편에서는 “2018년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라는 선언은 있으나 실제로는 그 기반이 미약하여 선언대로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하면, 전국에 3,209개 중학교가 있으나 정보·컴퓨터 관련 교사는 1,428명에 불과하여 학교당 교사 비율이 0.4명에 불과하고, 초등학교는 전공자가 따로 없이 담임교사가 코딩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가 실제적으로 의도한 대로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 여건이 미흡한 점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라는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코딩’은 중요한 기술이며, 직종을 막론하고 갖추어야 할 주요한 역량에 해당하는 것이란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홍봉희는 “코딩 인력은 사람의 모든 모세혈관에 퍼져 귀중한 산소를 공급하듯이, 모든 산업과 국가 인프라에 퍼져 디지털화, 지능적 능동적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육성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홍봉희, 2017: 65). 그의 이러한 주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한국에 적절한 제언이라고 하겠다.

이주호도 수학, 과학, 기술 교과의 교육에 있어서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4) 『머니투데이』(2018. 2. 6.)의 기사 “[대한민국 코딩교육 열풍 ④] ‘준비 안 된 교실’...중학교 정보과목 교사 0.4명 꼴...초등교사 정보 교육 이수자 4.7%뿐”은 중학교의 경우 정보 과목 교사가 학교당 0.4명 꼴이며,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들 중에서 정보 교육 이수자가 4.7%에 불과하다고 하며 준비되지 않은 코딩 교육 전면 실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8020518327615468&ref=http%3A%2F%2Fsearch.naver.com>에서 검색(검색일 2018. 2. 16.).

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의 교수 방법 변화를 촉구한다. 컴퓨팅 사고란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 문제를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을 가리킨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는 이러한 문제 해결력이 있는 인재이며 특히 IT를 활용하여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인재이다(이주호, 2017: 142-143).

Ⅲ. 한국 교회의 코딩 교육 적용 현황

교회는 일반 사회보다 IT의 도입과 활용이 대체로 뒤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한국 교회들의 교회 교육에서 코딩이 얼마나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좀 더 넓은 범위에서의 IT 적용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회 교육에 있어서 IT 적용이라는 전반적 맥락 속에서 코딩이라는 특정한 기술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1. 한국의 교회 교육에 제안된 IT 활용 방안들

사회 전반적인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한국의 교회들도 여러 종류의 IT를 교회의 여러 사역들과 활동들에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2000년을 전후하여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e-비즈니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교회 역시 각종 IT를 활발하게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사실 2000년을 전후하여 e-비즈니스 시대가 열렸을 때 기독교계에서도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이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다. 2000년대 초반에 발표된 논문들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볼 수 있다.

첫째, 인터넷 또는 IT의 도입과 활용에 대한 개념적인 연구, 탐색적인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의 연구가 많았다. 몇몇 연구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양창삼의 논문은 인터넷 문화가 발전하면서 교회의 사역과 활동, 관리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다방면에서 선구적인 제언을 한 바 있다. 그는 ‘e-교회’, ‘e-목회’, ‘e-심방’, ‘e-선교’, ‘e-교육’, ‘e-상담’ 등의 개념을 제시하며 전통적인 교회가 갖는 강점을 유지하는 한편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디지털화를 적절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양창삼, 2001: 80-118). 2001년도에 발표된 이 논문은 교회라

는 영역에서 당시 유행하던 e-비즈니스의 주요 기술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제안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주장한 대로 모든 것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큰 방향에서는 e-비즈니스 기술들이 도입되는 방식으로 교회의 상황도 변화해 왔다.

홍삼열도 2001년도에 교회의 인터넷 활용을 강조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SMS(단문메시지서비스), 인터넷 메신저, 영상 매체, 현금 전자결제 시스템 등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교회의 교육에서도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게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오프라인 공동체를 자극하고 활성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홍삼열, 2001: 102-114).

한미라의 논문은 기독교 교육 정보화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기독교 교육 정보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있다. 첫째는 기독교 교육에 들어가는 모든 투입물(학습자료, 학습자 정보, 교사 정보, 기자재 등)의 정보화가 필요하고, 둘째는 변환 과정에 해당하는 교육 방법과 교육 수단 등에 대한 정보화가 필요하며, 셋째는 산출물(신앙공동체의 사회화, 기독교적 자아정체성, 신앙과 삶의 통합 등)의 정보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한미라, 2001: 56-65).

전명수의 논문은 일반적인 교회들처럼 정기적인 오프라인 모임이 없이 인터넷 상에서의 관계를 위주로 하는 ‘인터넷 교회’에 초점을 맞추어 종교문화의 변용 현상을 탐구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첫 인터넷 교회가 1999년 12월 15일에 설립된 ‘인터넷 교회’(www.internetchurch21.com)라고 하며 이 교회의 설립과 진행 과정, 특징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 교회는 2002년까지 약 2년 반 동안 지속되었으며 기존의 교회와는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지속 가능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전명수, 2003: 98-99).

정종훈의 논문은 인터넷 문화에 대한 교회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넷 문화가 건전한 방향으로 펼쳐지도록 해야 하며, 교회 자신이 인터넷을 긍정적으로 잘 활용하는 사례가 되어야 하고, 건전한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정종훈, 2003: 207-208).

홍윤선의 논문은 인터넷 문화가 갖는 특징으로 ‘현실 세계의 나를 뛰어넘는 초월성’, ‘내가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의식’, ‘뭔가가 있을 것 같은 호기심과 기대’,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감과 소통’, ‘클릭하면 바로 나오는 즉각성’,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익명성’, ‘육체를 벗어난 영적 경험’ 등을 말한다(홍윤선, 2003: 124-130). 이러한 인터넷 공간의 특징은 그 전 세계와는 상당히 다른 생활양식과 삶의 방식이 나타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전한 기독교 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 논문은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온라인 게임을 제작하고 사용하도록 할 것과 메신저나 채팅 같은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교회가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의 올바른 기준을 교회가 앞장서서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홍운선, 2003: 133-138). 이런 주장은 참신한 견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의 상황은 온라인게임의 경우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게임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의 바람직한 기준을 기독교계가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일도 아주 미미하다. 그래도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같은 SNS의 활용에서는 기독교계의 노력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

오진곤의 논문도 교회교육의 수단으로써의 인터넷 매체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논문은 “신속하고 경제적인 교회 지도자와 성도간, 성도와 성도들 간의 교제”, “성도들에게 신학과 성경에 관한 지식 제공”,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선교 활동” 등의 적용 가능성을 제안하며 적극적인 활용을 주장하였다(오진곤, 2003: 89-92).

이러한 논문들은 대개 2000-2003년도에 집중적으로 발표되었으며, e-비즈니스라는 새로운 개념이 급속하게 확산되던 초기에 교회와 기독교 관점에서의 입장 정리 필요성에 의해 수행된 연구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인터넷을 도구로 하여 보다 구체적인 학습 모형을 제시하는 연구도 있었다. 다음의 두 논문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김명숙의 논문은 기독교 교육에 웹기반 협동 학습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기독교 교육의 범주를 ‘케리그마’(말씀의 선포), ‘디다케’(말씀의 가르침), ‘코이노니아’(말씀의 교제와 나눔), ‘디아코니아’(말씀의 증거)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케리그마는 인터넷방송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코이노니아는 채팅이나 게시판 같은 기능을 통해서, 디다케와 디아코니아는 웹기반 협동 학습 기술을 통해서 효과적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김명숙, 2000: 341-343).

손원영의 논문은 사이버대학처럼 교회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과 수업에 웹기반 학습 모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제시된 공과 수업 모형은 ‘수업개시판’, ‘단원학습방’, ‘심화학습방’, ‘개별화학습방’, ‘자가진단방’, ‘자유토론폰방’, ‘채팅룸’, ‘검색엔진’, ‘수행평가’ 등 각종 기능을 갖춘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오프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강의를 미리 준비하거나 사후에 과제와 논의를 하면서 입체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모형이다(손원영, 2001: 227-233). 이 모형은 전형적인 온라인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을 갖고 있어서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는 온라인교육의 방식처럼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일반 직업교육이나 일반 학교의 교과 교육처럼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고찰한 문헌들이 보여주듯 교회 교육에 IT가 그다지 활발하게 적용되지는 못하였다고 하겠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로 교회 교육과 IT를 접목하는 연구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제기되기 시작한 근래에 다시 교회 교육과 IT를 접목하는 시도들에 대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김수환·함영주의 논문은 서울 소재 한 대학에서 멀티미디어 개론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의 적용성과 효과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로 스크래치를 가르치고 이것으로 멀티미디어를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강의 수강 전과 후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한 것이다. ‘학습자들이 스스로 느끼는 프로그래밍 능력’과 ‘학습자들이 스스로 느끼는 CT 능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이 있었으나 ‘사용법의 쉬움’과 ‘재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또 기술수용모형(TAM)을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사용성’과 ‘유용성’이 ‘태도’에, ‘태도’와 ‘유용성’이 ‘사용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환·함영주, 2015: 77-82).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선구적으로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적용한 사례이다. 다만 이 논문은 스크래치를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로 인식하며, 추가적인 논의에서도 멀티미디어를 좀 더 잘 활용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스크래치가 갖는 ‘코딩’ 도구로서의 인식은 미흡했다고 하겠다.

정한호의 논문은 교회학교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활용의 효과를 조사하여 교회학교 교사들이 ‘지각된 용이성’, ‘만족감’, ‘지각된 유용성’, ‘소셜미디어에 대한 긍정적 태도’, ‘소셜미디어 사용 의도’ 등의 변수들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정한호, 2016: 193-195).

조문희·김미경은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기독교교육을 하기 위한 스마트폰 앱 모형을 한 가지 제시하였다. ‘오늘의 성경 말씀’, ‘찬송 따라 불러요’, ‘성경 동화’를 주요 메뉴로 하여 성경, 찬송, 성경동화 세 가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설계한 스마트폰 앱이다(조문희·김미경, 2016: 43-46).

신승범은 기독교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스마트폰 중독, 사회성 발달 저하, 사이버 따돌림, 음란물 노출 등 네 가지를 대표적인 부정적 영향으로 설명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독교교육 관점에서의 해결 방안을 세 가지 제시한다. 첫째는 절제라는 성품을 키울 수 있는 성경공부 프로그램의 개발, 둘째는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하여 비판적으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미디어 교육 실시, 셋째는 스마트폰을 통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상태를 단절하고 혼자 있을 수 있는 고독의 훈련이다(신승범, 2015: 257-271).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되면서 교회 교육과 IT의 접목에 대한 연구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속속 더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 한국의 교회 교육에서의 코딩 적용 현황

아쉽게도 한국의 교회 교육에서 코딩을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는 아직 발견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여러 문헌들에서는 코딩을 교회 교육에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없었다. 아마도 이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최근의 일이고 더더구나 교회 교육 현장에서는 IT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더 늦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위한 조사 과정에서 교회 교육에 코딩을 접목하려고 시도하는 사례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FMnC(Frontier Mission & Computer) 선교회에서 ‘와우코딩’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역이다. FMnC 선교회가 주관하여 개최한 ITMC (IT Mission Conference) 2017 대회에서 FMnC 선교회의 와우코딩 사역을 볼 수 있다.⁵⁾ 와우코딩 사역은 ‘와우스토리’라는 어린이 그림 성경을 콘텐츠로 하여 거기에 들어있는 스토리, 배경 그림, 캐릭터 그림 등을 사용해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게임을 만들면서 코딩을 배우도록 하는 사역이다. 수십 가지의 스토리별로 블록형 코딩 프로그램인 스크래치를 이용해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게임을 만들 수 있다. 학생들은 특정 장면의 스토리를 기초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게임을 만들면서

5) FMnC 선교회의 박순화 간사는 “코딩으로 배우는 성경이야기, 와우코딩”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와우성경’을 기본 콘텐츠로 하여 스크래치를 이용해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간단한 게임을 만드는 코딩 교육을 하는 사례를 소개하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WxavDUmeHRA>에서 검색 (검색일 2017. 12. 15.).

그 스토리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게 되며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FMnC 선교회는 와우코딩을 몇 개의 교회에 소개하고 한 학기 과정의 교육을 교회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아직 발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교회의 사례는 아니지만 미국의 산호세에 위치한 한 한인교회에서 시도한 코딩으로 성경을 교육하는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⁶⁾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는 2016년 봄부터 ‘킹덤 코딩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코딩으로 성경으로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 교회에서는 성경 이야기를 기초로 하여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이용해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만들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코딩도 공부하는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교회에서는 초급 과정과 중급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여러 학기에 걸쳐 교육을 진행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초급반은 대략 5~6주 과정으로 운영하며 스크래치의 기본적인 사용법과 간단한 성경 애니메이션 제작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초급반은 요셉 이야기를 기초로 진행한다. 요셉 이야기를 4개로 나누어 한 주씩 다루고 마지막 프로젝트를 요셉 이야기의 한 대목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야곱의 열두 아들 이름을 맞추는 퍼즐 게임, 야곱의 열두 아들 이름을 순서대로 맞추는 게임 등을 해 보도록 한다. 2016년 가을부터 시작된 중급 과정은 매달 한 번씩 만나서 수업을 하고 과제를 내 주며, 수강생들은 각자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간다. 예를 들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주제를 주고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자기 나름대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짜서 스크래치로 그 스토리를 구현한다. 2017년 봄부터는 성인반도 운영하고 있다. 이 킹덤 코딩 스쿨에서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과 게임을 만드는 두 가지를 주로 사용한다. 첫째,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사용한다. 요셉 이야기, 바울의 전도여행 이야기 같은 스토리들을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캐릭터들이 필요하고, 이 캐릭터들이 움직이도록 해야 하며, 소리도 나게 해야 하고, 스토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게임을 만들고 활용한다. 미국의 유명한 퀴즈 쇼인 ‘Jeopardy’나 ‘Wheel of Fortune’을 모방하여 작동하는 프로그램

6) FMnC 선교회의 김인환 간사는 미국 산호세에 소재한 자신의 출석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성경을 컨텐츠로 코딩을 교육하면서 성경과 코딩을 함께 공부하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93GwKrsQCqc>와 <https://www.youtube.com/watch?v=mVIT10OXi14>에서 검색 (검색일 2017. 12. 15.).

을 스크래치로 만들고 이것으로 성경 퀴즈 쇼를 즐기며 성경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 쉽게 해 주는 게임 같은 프로그램도 인상적이다. 킹덤 코딩 스쿨을 주도하고 있는 김인환 간사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1년에 40~50여개씩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사례 역시 FMnC 선교회가 주관한 ITMC 2017 대회에서 소개되었다.

이러한 두 가지 사례는 본 연구가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한 교회 학교 교육과 코딩 교육을 접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아직까지는 교회 교육에 코딩이 활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지만 공립학교에서 코딩 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며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코딩에 익숙해진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회 교육에도 코딩을 활용하는 방안을 보다 더 진지하게 찾게 될 것이다.

IV. 교회 교육에서의 코딩 활용의 의의

1. 교회 교육에서 코딩을 활용하는 것의 기독교 세계관적 의의

한국의 교회들은 교회 내에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성실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용수의 논문은 한국의 4개 교단(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주일학교 교육과정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였는데, 신학적 노선과 성향이 상당히 다른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개 교단 모두 주일학교를 통해 성경의 내용과 여러 신학적 주제들을 교육하는 교회학교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며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용수, 2006: 643-674). 이런 모습은 이 논문이 다룬 4개 교단 외에 다른 주요 교단들의 경우에도 유사하다. 교회학교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성경과 신학적 주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성경과 교리라는 내용을 교육하는 수단에 있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시도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코딩 교육이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은 이미 선진국에서 아이들에게 코딩을 필수교육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한국에서도 2018년부터 정규과목으로 편성된다는 사실로 볼 때 충분히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걸 교회에서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코딩이라는 기술 자체에 대한 반감으로 교회에서 교육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마치 전기나 인터넷을 교회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세상 문물을 등지고 여전히 마차를 타고 다니며 별도의 공동체를 이루는 곳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가 전기나 인터넷 없이 살기 어렵듯이, 이 새로운 시대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이 살기 어려운 시대다. 또한 기술은 가치중립적인 특징이 어느 정도는 있어서 누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의미와 결과가 달라지므로 도리어 교회는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용하는 사례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물론 요즘은 신기술에 대한 막무가내식 반감보다는 ‘왜 교회에서 코딩까지 가르쳐야 하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교회 교육의 주가 코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신기술이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 교육에서도 이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교회는 새로운 기술이 세상에 미칠 영향을 파악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을 입안하는데 의견을 내는 등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악용될 소지가 있는 기술의 사용에 제동을 걸어야 하고,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소외되는 그룹을 대신해 목소리를 높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런 활동은 기술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이 코딩을 통해 이 시대의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여갈 수 있다면 교회에서 코딩을 가르치는 것은 충분히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코딩을 활용한 성경 교육의 의의

본래 코딩은 컴퓨터 언어를 배우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C 언어를 배우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많은 사람이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배우기엔 더욱 어렵다. 그래서 MIT 미디어랩에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블록형 코딩 언어 스크래치(Scratch)를 개발하고 무료로 보급했다. 스크래치는 이미지와 사운드를 다루기도 쉽고 사용할 만한 객체(스크래치의 용어로는 스프라이트)나

배경도 수십 가지나 제공하고 있으며 코딩 직후 바로 실행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므로 누구든지 코딩한 결과를 확인하기가 쉽다. 게다가 어느 단계에서 실행에 문제가 생기는지 파악하기도 쉬워 디버깅이 용이하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스크래치를 활용하면 움직이는 동화책 만들기 같은 프로젝트를 누구든 해 볼 수 있다.

교회에서는 FMnC 선교회의 와우코딩 사역처럼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를 활용해 시나리오를 짜고 이에 맞게 인물들을 그리고 배경을 그리는 등의 활동을 한 후 본인의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고 말을 하는 성경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게 할 수 있다. 교회학교 아이들도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면서 마치 본인이 성경 속 인물이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시나리오를 기획할 때 아이들은 성경 속 인물에 대해 깊이 공감하거나 이해하게 될 것이다. 성경 속 인물이 어떤 사건들을 겪으며 어디로 이동했는지 묘사하고 그들의 말을 본인의 언어로 바꾸면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믿음이 자라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본인도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한편 아이들은 컴퓨터 언어를 통해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잘 하는 일, 못하는 일 등 컴퓨터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보다 친숙해지게 될 것이다. 도구로서의 컴퓨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에 본인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하는 믿음의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이 새로운 시대에 교회학교에서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이러한 기술이 도입되기 전에는 교회에서 성경을 보다 재미있게 가르치기 위해 만화로 그려 코팅한 인물 뒤에 벨크로 테이프를 붙이고 부직포로 되어 있는 판에 붙여 가며 교사가 성경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그 방법이 그 시대 최고의 방법이었다. 혹은 일 년에 한번 정도 연극을 통해 성경 이야기를 보여주기도 하셨다.

그러나 아이들이 스크래치 코딩을 배운다면, 코딩을 통해 스스로 성경 이야기를 꾸며보는 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교사가 배운다면 매주 아이들에게 본인이 만든 자료나 혹은 공유 자료를 이용해 성경 이야기를 보여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나 학생들 모두 성경 인물이나 말씀에 관한 퀴즈를 만들어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번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주요한 이야기와 교리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곱씹을 수 있고, 단순 암기가 아닌 여러 각도에서의 적용과 활용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훨씬 더 입체적이며 심층적인 학습이 가능해진다.

앞서 언급했던 ITMC 2017에서 소개된 미국의 한인교회 사례에서는 성경의 내용을 그려 놓은 명화를 찾아 일부만 보여주고 내용을 맞추는 퀴즈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였고, 유명한 퀴즈 쇼인 ‘제퍼디(Jeopardy)’ 방식으로 성경 퀴즈를 만들기도 하였다. 코딩을 배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내용을 만들어 보라는 숙제를 내 주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놀라운 작품을 만들었는지 모른다. 이렇듯 코딩은 누구든지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해 창의력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코딩은 하나의 방법이지만 아이들에게 성경을 교육하는 것은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한 일이다. 이 시대는 계속해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 질문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사이보그도 출현하고 로봇과 사랑을 나눈다는 사람들도 등장할 것이며, 무엇보다 클론이나 인공지능까지 등장하게 되면 기계와 인간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세계관과 기독교 윤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앞으로 자신을 알게 되어 인간다운 삶을 살 것이고, 통제 편의를 위한 칩 이식과 기술의 비윤리적인 사용에도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코딩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은 성경의 가르침을 알면서 동시에 이 시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기술인 코딩에도 능숙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코딩 기술을 비롯한 IT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V. 나가는 말

본 연구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그 주요 기술 중의 하나인 코딩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매우 부각되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코딩의 중요성과 교회학교 성경 교육에 코딩 기술을 접목해야 할 필요성과 가능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코딩을 교회학교의 성경 교육과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하여 방대한 문헌고찰을 시도하였다. 한국에서는 2018년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코딩 교육이 의무화되는데, 이와 맞물려 코딩 교육에 대한 여러 방안들과 적용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교육에 코딩을 의미 있게 적용하는 사례는 아직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해외 한인교회 한 곳의 사례와 FMnC 선교회의 사역을 통해 코딩으로 성경

을 교육하는 방안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즉, 아직까지 한국 교회에 코딩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생소하지만 이것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교회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코딩은 모든 분야에서 사용될 것이며 그 중요도는 더욱 커질 것이다.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본인의 전공 분야만이 아니라 컴퓨터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는 아이들의 필요와 흥미를 고려한 새로운 방식으로 성경과 교리를 교육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성경을 전달하는 방식으로서 코딩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 인물의 이야기를 스스로 재구성해 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보다 깊은 이해와 기억에 도움이 되며, 지도를 활용한 공간적 이해, 퀴즈를 활용한 재미와 집중력, 소리를 활용한 재미와 동적 활동, 스스로 그려서 할 수 있는 공간 구성력, 상상하는 대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창의력 등 코딩은 성경을 담아내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시대의 필요를 반영하여 만들어진 스크래치라는 코딩 언어는 아이들이 코딩을 쉽게 할 수 있고 또한 만들어진 콘텐츠를 공유하여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성경과 교리를 공부할 수 있는 콘텐츠를 이런 코딩 툴을 이용하여 다룰 수 있게 되면 코딩 공부를 통해 성경과 교리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교회학교에서의 코딩 교육은 아이들이 성경을 통해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기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고용수 (2006). 한국 교회의 교육과정(curriculum) 개관. **신학논단**, 43, 643-674.
- [Koh, Y. S. A Study of Christian Education Curriculum in the Korean Church. *Theological Forum*, 43, 643-674.]
- 교육부 ·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추진 계획.” 2015. 7. 21.
- [MOE · MSIT (2015). “A Human Resource Development Plan for Software-centric Society.” July 21.]
- 김명숙 (2000). 웹기반 협동학습 시스템과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정보**, 1, 316-351.
- [Kim, M. S. (2000). Web-Based Instruction to Support Collaborative learning and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1, 316-351.]
- 김민정 · 정희진 (2017). 디지털 스토리텔링 기반의 아동코딩교육 콘텐츠의 특징과 시사점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3(1), 21-31.
- [Kim, M. J. and H. J. Chung (2017). The Study of Features and Implications of Coding Education Contents for Kids Based on Digital Storytell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Design Culture*, 23(1), 21-31.]
- 김수환 · 함영주 (2015). 멀티미디어 창작을 활용한 기독교교육의 가능성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44, 67-97.
- [Kim, S. H. and Y. J. Ham (2015). A Possibility of Christian Education Utilizing Multimedia Creation.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44, 67-97.]
- 방민권 (2017). 초등 도덕과 내용 기반의 코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 연구. **도덕윤리과교육연구**, 56, 139-176.
- [Bang, M. K. (2017).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coding education program based on contents of elementary moral education. *Moral Ethics Education Research*, 56, 139-176.]
- 손원영 (2001). 디지털 사회와 웹 기반의 교회학교 공과 수업. **기독교교육정보**, 3, 211-238.
- [Sohn, W. Y. (2001). The Digital Society and Web-Based Instruction in Church School Classroom.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3, 211-238.]
- 송경진 역. (2016).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Schwab, Klaus (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서울: 메가스터디.
- [Song, K. J. (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f Klaus Schwab*. Seoul:

- Megastudy. Trans. Schwab, Klaus (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logne/Geneva: World Economic Forum.]
- 신승범 (2015). 기독교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 문제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대안. **기독교교육정보** 46, 251-277.
- [Shin, S. B. Alternatives from Christian Education for Christian Adolescents' Excessive Smart Phone Use.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46, 251-277.]
- 안인희 (2016). 코딩교육의 현황과 미래. **미디어와 교육** 6(1), 76-87.
- [Ahn, I. H. (2016). The Present and Future of Coding Education. *Media & Education*, 6(1), 76-87.]
- 양창삼 (2001). 인터넷 문화와 교회 경영의 방향. **사회이론**, 20, 80-118.
- [Yang, C. S. (2001). The Direction of Internet Culture and Church Management. *Social Theory*, 20, 80-118.]
- 오진곤 (2003). 디지털 시대와 한국 교회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7, 74-103.
- [Oh, J. G. (2003). Korean Church Education in Digital Age: Internet as an Education Medium.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7, 74-103.]
- 이민정 (2017). 비전공자 SW 프로그래밍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 모형의 효과성 탐색 - SW 해결안의 시각적 표현을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18(7), 1313-1321.
- [Lee, M. J. (2017). Exploring the Effect of SW Programming Curriculum and Content Development Model for Non-majors College Students : Focusing on Visual Representation of SW Solutions.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18(7), 1313-1321.]
- 이재호 · 장준형 (2017). 과학영재용 소프트웨어 코딩기반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영재교육연구**, 27(3), 331-348.
- [Lee, J. H. and J. H. Jang (2017). Development of Maker Education Program based on Software Coding for the Science Gifted.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27(3), 331-348.]
- 이연승 · 성현주 (2017). 코딩용 로봇, 비봇(Bee-Bot)을 활용한 수학적 문제 해결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어린이미디어연구**, 16(3), 261-281.
- [Lee, Y. S. and H. J. Sung (2017). Influence of Program Using the Coding Robot "Bee-Bot" on Children's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Ability. *Korean Journal of Children's Media*, 16(3), 261-281.]
- 이주호 (2017).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교육 대전환. **철학과 현실**, 112, 130-154.

- [Lee, J. H. (2017). Great Transformation of Education Responding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hilosophy and Reality*, 112, 130-154.]
- 전명수 (2003). 정보화사회와 종교문화의 변용 - 교회의 인터넷 활용과 그 의의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33, 93-120.
- [Chun, M. S. (2003). Information Society and the Transformation of Religious Culture - An Analytical Approach to Internet of Church and Its Significance. *Studies in Religion*, 33, 93-120.]
- 정종훈 (2003). 인터넷 정보시대의 청소년 문화를 위한 교회의 과제. **신학논단**, 33, 193-209.
- [Jeong, C. H. (2003). The Task of the Church for the Youth Culture in the Internet Information Age. *Theological Forum*, 33, 193-209.]
- 조문희 · 김미경 (2016). 취학 전 유아를 위한 기독교교육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기독교교육정보**, 50, 35-52.
- [Cho, M. H. and M. K. Kim (2016). Development of Smart Phone Applications for Christian Education to Enhance Young Children's Religious Faith.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50, 35-52.]
- 한미라 (2001). 기독교교육 정보화의 가능성과 한계. **기독교교육정보**, 3, 39-71.
- [Hahn, M. R. (2001). Feasibility of Informatization for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3, 39-71.]
- 홍봉희 (2017). 일자리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SW 코딩 교육 제대로 하자. **정보과학회지**, 35(7), 64-65.
- [Hong, B. H. (2017). The Appropriateness of Proper SW Coding Training for Job Creation. *Communica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s*, 35(7), 64-65.]
- 홍삼열 (2001). 교회의 인터넷 활용. **기독교교육정보**, 3, 102-114.
- [Hong, S. Y. (2001). Churches' Internet Use.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3, 102-114.]
- 홍윤선 (2003).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기독교문화의 확산 방안 모색. **기독교교육정보**, 6, 117-142.
- [Hong, Y. S. (2003). Searching for the Ways to Spread the Christian Culture Using the Internet.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6, 117-142.]
- KBS <명견만리> 제작팀 (2017). **명견만리: 새로운 사회 편**. 서울: 인플루엔셜.
- [KBS <Myoung-Gyoun-Man-Ri> Production Team. (2017). *Myoung-Gyoun-Man-Ri*:

A New Society. Seoul: Influential.]

Kim, Nayoung (2017). Game Platform Investigation for Effective Coding Education.

기독교교육정보, 30(3), 59-67.

[Kim, N. Y. (2017). Game Platform Investigation for Effective Coding Education.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30(3), 59-67.]

논문초록

4차 산업혁명 시대, 코딩 기술과 교회 교육

이영미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이윤석 (교신저자/독수리기독교학교)

본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기술인 코딩을 교회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코딩 교육이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코딩 교육이 매우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2018년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코딩 교육이 의무화되었다. 이러한 코딩 교육의 확산은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성능이 향상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코딩 프로그램들의 출현에 기인한다. 스크래치, 엔트리 같은 코딩 도구를 이용해 어린이들도 손쉽게 코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코딩을 학교 교육에 적용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공립학교의 이런 추세와는 다르게 한국의 교회들이 교회 교육에 코딩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FMnC가 선구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코딩을 이용한 성경 교육 사례는 한국 교회가 교회 교육에 코딩을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모형이 될 것이다. 이 사례는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만든다. 이를 통해 코딩 능력도 향상되고 성경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수 있다. 교회 교육에 코딩을 활용하는 것은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앞으로 교회 교육의 효과성 제고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4차 산업혁명, 코딩, 교회교육, 스크래치, FMnC

편집위원회 규정

2001년 1월 28일 제정
2004년 1월 1일 개정
2007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1년 8월 19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 본 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 제2조 편집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칙 제6장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 제3조 편집위원회가 관장하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은 다음과 같은 지침 하에 발행된다.
- (1)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년 4회 발행한다.
 - (2)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 (3) 『신앙과 학문』의 투고, 심사, 발행 등 편집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며, 별도의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장 편집위원 구성

- 제4조 편집위원회는 전공과 지역을 고려하여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을 둔다.
- 제5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질병이나 장기 해외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 제6조 편집위원장은 전공과 기독교 학문에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기독교학문연구회에 5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는 자

- (3)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의 편집위원 경험이 있는 자
- (4) 최근 10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10편, SSCI급 국제저널에 5편 이상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 (5)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경우 (최근 10년 동안 SSCI급 국제저널에 20편 이상 논문을 게재) 1개 이상의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서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거나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편집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 즉 편집위원의 위촉, 학회지 논문의 심사, 편집 및 출판에 대한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제8조 편집위원은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하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혹은 해당분야에 있어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기독교학문연구회에 3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는 자
- (3) 최근 5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5편(SCI급 논문은 3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 (4) 1개 이하의 다른 등재(후보)학술지의 편집위원인 자. 단,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경우 1개 이상의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서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거나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기능

제9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의 체제,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나 투고자와 관련된 연구윤리규정을 지켜야 하며,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투고자의 정당한 이의제기가 있을 때는 편집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제12조 위 제9조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은 이사회에 인준을 거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4장 편집회의

제13조 편집회의는 학회지 발간시기와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 편집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5장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

제16조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제17조 논문의 심사는 개별항목 평가와 종합 평가로 이루어진다.

제18조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 | | |
|--------------------------------------|------------------------|
|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 · 적절성, |
| (3) 결과의 학문적 · 사회적 기여도, | (4) 연구방법의 적절성, |
|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 (6) 문장기술 · 용어 사용의 명료성, |
| (7) 각주 · 인용 · 참고문헌 · 국문 및 영문 초록의 정확성 | |

제19조 종합 평가는 개별항목 평가를 근거로 심사자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평가한다.

제20조 논문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 (1) 접수: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회원과 공동연구를 한 자 및 초청된 기고자도 예외 없이 정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의 접수는 수시로 하며, 게재순서는 논문투고순서 (즉, 논문번호의 순서)로 결정한다.
- (2)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세부전공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논문에 대해 3명 이상의 심사자를 위촉하여 심사의뢰서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 이때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심사위원이 알 수 없도록 삭제하여 보낸다. 심사는 투고 이후 3주 내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 (3) 심사: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그 판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내린다. 특히, 수정을 요하는 논문은 수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논문심사서를

-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은 후 기한 내에 논문심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가. 게재가: 수정 사항이 없거나 아주 사소한 수정 후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
- 나. 수정 후 게재가: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등의 핵심내용과는 무관하거나 부분적인 수정을 하면 게재할 수 있는 논문.
- 다.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어 반드시 수정이 요구되고, 그것의 수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논문.
- 라. 게재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논문.
- (4) 1차 편집회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수합된 후 심사위원장은 1차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심사내용을 검토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교정을 의뢰한다.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논평을 첨부하여 논문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를 불허한다.
- (5) 2차 편집회의: 편집위원장은 수정을 마친 논문들을 수합하여 2차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해당 심사자에게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의 최종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게재가>와 <게재불가>로 나누어 통보해준다. 이 시점부터 투고자가 원할시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 (6) 심사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1<심사규정 세칙>에 따른다.

제6장 부칙

- 제21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200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에 따른다.
- 제23조 본 1차 개정된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 제24조 본 2차 개정된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 제25조 본 34차 개정된 규정은 2014년 1월 20일부터 발효한다.
- 제26조 부록 #1: 「신앙과 학문」 학술지 논문 심사규정. 끝.

「신앙과 학문」 논문 심사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회지 발간규정 제3조 및 제 19조에 의거하여 「신앙과 학문」 학술지 투고논문 심사규정세칙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판정기준)

(1)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 1 심사자	제 2 심사자	제 3 심사자	종합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능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능 (수정요구)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5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6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7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8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9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재심사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10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11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2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3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4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5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6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8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2)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요청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3)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를 보류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 (4)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인터넷 전자메일을 이용한 투표로 할 수 있다.

제3조(심사위원단)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책임성과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야 학자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제5조(원고접수) 원고의 접수는 수시로 한다.

제6조(심사를 위한 서식)

(1) 「신앙과 학문」 제()권()호 논문심사서 : 서식 가

(2) 「신앙과 학문」 제()권()호 논문심사료 신청서 : 서식 나

제7조(개정된 논문심사규정) 개정된 「신앙과 학문」 논문심사규정은 2012년 4월 6일부터 적용한다.

서식 가

「신앙과 학문」 논문심사의견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 부문별 평가: 다음 칸에 표기(v 또는 x)를 하세요.

평가항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족	매우 부족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 · 적절성					
3) 결과의 학문적 · 사회적 기여도					
4) 연구방법의 적절성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6) 문장기술 · 용어 사용의 명료성					
7) 각주 · 인용 · 참고문헌 · 논문초록의 정확성					
최종평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 심사의견서 (수정보완 요구서 또는 게재불가 사유서)는 다음의 별도 페이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심사의견서:

* 저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심사의견을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지시사항의 경우 논문내 구체적인 페이지와 함께 이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게재불가의 경우는 왜 게재가 불가한지를 상세하게 서술하여 주시고, 저자로 하여금 건설적인 수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참고문헌을 제시하여 주세요.

◆ **논문주요내용:**

◆ **수정지시사항 (게재불가 이유 포함):**

서식 나

논문심사료 신청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신앙과 학문』에 투고된 상기 논문심사에 대한 심사료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심사위원	성명	(인)	소속	
	Email		휴대전화	
	심사일			
은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신앙과 학문』 투고 규정

2003년 1월 1일	제정
2008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1. 논문의 투고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2. 저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투고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일 현재 타 학술지에 게재 신청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2) 논문은 본 학술지 심사규정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학술적 가치와 학문적 깊이가 있는 창의성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 3) 타인의 저작물 표절 혹은 자기표절에 해당하는 것, 즉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연구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그리고 자신이 발표한 저술의 내용을 인용 혹은 각주 등 명백한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투고할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4) 위조 혹은 변조에 해당하는 것, 즉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연구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한다.
 - 5) 참고문헌과 각주에 대한 본 투고규정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예 : 본문 인용 시 APA방식 사용 - 투고규정 7~9 참조, 각주는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단순히 자료출처를 밝히는 것은 금한다.]
3. 저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투고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1저자(또는 교신저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앞에 기재된 저자를 제1저자, 뒤에 기재된 저자는 공저자로 간주한다. 단, 교신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교신저자를 표기한다.

- 2)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연구책임자,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 연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자여야 하며, 공저자는 연구에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직접 기여한 자여야 한다. 연구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자가 주저자 혹은 공저자가 되는 것을 금한다.
- 3) '신앙과 학문'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있으며, 저자가 게재된 논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의미 혼동의 가능성이 있거나 인명, 지명의 경우 처음 표기는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명기하며, 그 이후에는 한글로 표기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6. 논문 제출 시 원칙상 영문으로 된 'ABSTRACT'와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을 포함해야 하며, 'ABSTRACT'를 논문의 맨 앞에,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제시한다.
 - ① 'ABSTRACT'는 논문제목과 저자명(영문) 밑에 200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ABSTRACT'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제목,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 연구내용, Key Words를 포함해야 한다. 제목의 첫 단어와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예, The Educational Meaning of Love), 'Key Words'는 고유명사 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alternative education, Christian worldview). 투고자의 이름은 유재봉(Jae-Bong Yoo)으로, 소속은 각주 내 성균관대학교 교수(Sungkyunkwan University)로 표시한다. 각주에는 소속기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를 첨부한다.
 - ②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500자 내외로 작성하며, 5단어 내외의 '주제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과 ABSTRACT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는 편집위원회가 저자의 위임을 받아 ABSTRACT를 국문으로 번역할 수 있다.
7.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편집 규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용지종류 및 여백설정: 용지설정 A4, 여백은 왼쪽 33, 오른쪽 33, 위쪽 33, 아래쪽 33, 머리말 12, 꼬리말 12
 - 2) 논문제목: 휴먼고딕, 글자크기 15, 진하게 가운데 정렬
 - 3) 연구자 및 소속: 신명조, 글자크기 11, 오른쪽 정렬

- 4) 요약: 제목은 휴먼고딕, 글자크기 9, 줄 간격 150, 가운데정렬
요약본문: 신명조, 크기 9, 줄 간격 150, 들여쓰기 10
- 5) 본문 글꼴 설정: 신명조 10, 들여쓰기 10, 줄 간격 160, 장평 95%, 자간 -10%
- 6) 각주: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왼쪽여백 4, 내어쓰기 3, 줄 간격 150
- 7) 긴 인용: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줄 간격 150, 들여쓰기 10, 여백주기 오른쪽 5, 왼쪽 5
- 8) 참고문헌: 휴먼고딕, 글자크기 12, 진하게, 가운데 정렬
목록내용: 신명조, 글자크기 10, 장평 95%, 자간-4%, 여백주기: 왼쪽 8, 내어쓰기 7, 줄 간격 130

8.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

- 1) 본문 소제목: 본문의 구분은 장(章), 절(節), 항(項) 순으로 배열한다.
장은 ‘I, II, III, ...’의 순으로, 절은 ‘1, 2, 3, ...’의 순으로, 항은 ‘(1), (2), (3), ...’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세분화를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세분화된 제목은 ‘①, ②, ③, ...’, ‘i), ii), iii), ...’을 따른다.
- 2) 논문 작성 시 참고한 내용이나 아이디어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 ① 본문 내 직접인용일 경우 큰따옴표(“ ”)를 사용하며, 본문의 인용은 APA 방식으로 한다.
예) 화이트헤드(Whitehead, 1932: 23)에 의하면,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 혹은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Whitehead, 1932: 23).”
 - ② 간접인용이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참조하였을 경우에는 큰따옴표 없이 출처를 밝힌다. ...(Parshall, 2003:23)
 - ③ 3줄이 넘는 긴 인용 시 인용문 앞뒤에 한 줄씩 띄워 큰따옴표 없이 왼쪽 들여쓰기로 별도의 문단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④ 두 자료 이상을 참고 하였을 때는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김철수, 2007: 12; 박명순, 2009: 217)
 - ⑤ 강조문은 따옴표(‘ ’)를 사용한다.
 - ⑥ 성경 인용의 경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 1).”, 혹은 (창 1:1)
 - ⑦ 2인의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희계 · 이희계, 2009: 217-218; Kim and

Lee, 2008: 20)

- ⑧ 3인 이상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철학 외, 2010: 12; Smith et al., 2005: 50)
 - ⑨ 동일 저자의 동일 연도 저술 인용의 경우: (이윤리, 2007a: 18; 2007b: 27)
- 3) 각주는 설명하거나 보충하는 내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단순한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은 각주에 표기하지 않고 본문에 넣는다.
- 4) 그림과 표 제시: 모든 그림(사진)과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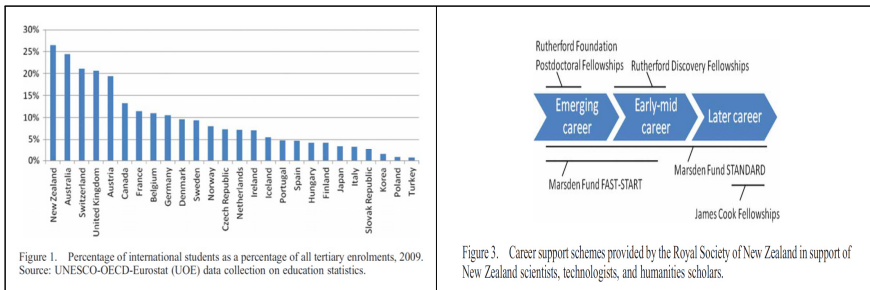
(1) 그림(사진) 제시 방법

- ① 그림을 일련번호를 붙이되, Figure 1, Figure 2, Figure 3...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Figure 1.1, Figur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그림 제목은 하단 중간에 제시한다. 그림은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예) Figure 1. Percentage of international students as a percentage of all tertiary enrolments, 2009. Source: UNESCO-OECD-Eurostat (UOE) data collection on education statistics,

(예) Figure 3. Career support schemes provided by the Royal Society of New Zealand in support of New Zealand scientists, technologists, and humanities scholars.

- ② 제시한 그림의 출처가 있는 경우 그림 아래에 그 출처를 아래 그림과 같이 표시한다.
- ③ 그림(사진)을 본문에 인용할 때는 Figure 1, Figure 2, Figure 3...로 표시한다.



(2) 표 제시방법

- ①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한다. 표의 번호는 Table 1, Table 2 등의 일련

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Table 1.1, Tabl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표 제목은 상단 왼쪽에 제시한다. 표는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예)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the two studies and in the two groups of Study 2, and statistical comparisons

(예)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s bivariate correlations, and effect sizes for Study 1

- ② 표를 본문에 인용할 때는 Table 1 으로 표시한다.
- ③ Table의 크기가 한 면보다 클 경우 각각 별도의 쪽에 작성하며, 가급적 인쇄 후 한 쪽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Table이 다른 쪽이나 다른 Table로 이어지는 경우는 끝에 “continued”를 표기한다.
- ④ Table 밑에 각주(footnote)를 달 때는 Table 내용 중 설명하려는 단어 또는 문장 끝에 아라비아 숫자 1), 2), 3)으로 나타낸다. *, **, *** 표시는 통계분석의 유의확률이 $p < 0.05$ 나 $p < 0.01$, $p < 0.001$ 을 나타낼 때만 사용하며, p 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다중범위 검정에서는 a, b, c, d 등을 사용하고 표 하단에 그 내용을 표시한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the two studies and in the two groups of Study 2, and statistical comparisons

	Study 1	Study 2		Statistical comparisons	
	N = 152	Intervention N = 58	Control N = 58	Study 2 Intervention-control	Study 1 – Study 2
Age range of children in months (M-SD)	48-96 (74.32-12.65)	44-94 (68.18-11.72)	40-96 (71.71-13.50)	$t(114) = 1.50, p > .01$	$t(266) = 2.82, p < .01$
Age range of mothers in years (M-SD)	24-51 (35.95-5.55)	24-45 (34.86-4.17)	27-48 (36.92-5.38)	$t(114) = 2.30, p > .01$	$t(266) = .09, p > .01$
Age range of fathers in years (M-SD)	25-57 (38.02-6.26)	27-47 (36.87-4.46)	26-53 (39.21-6.97)	$t(114) = 2.12, p > .01$	$t(266) = -.01, p > .01$
Gender (% boys)	52	32.2	40.4	$\chi^2(1) = .83, p > .01$	$\chi^2(1) = 7.15, p < .01$
Mothers' mean educational level (SD)	2.57 (.72)	2.75 (.68)	2.66 (.69)	$t(114) = -.72, p > .01$	$t(266) = -1.52, p > .01$
Fathers' mean educational level (SD)	2.39 (.85)	2.57 (.73)	2.36 (.82)	$t(114) = -1.46, p > .01$	$t(266) = -.79, p > .0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s bivariate correlations, and effect sizes for Study 1

	Pre-test M (SD)	Post-test M (SD)	<i>t</i> (151)	<i>r</i>	<i>d</i>
<i>Mothers' report</i>					
Support	4.22 (.34)	4.26 (.34)	-2.05*	.69	.15
Control	2.34 (.40)	2.28 (.39)	2.91**	.82	.25
Self-efficacy	4.12 (.36)	4.10 (.38)	1.14	.78	
<i>Fathers' report</i>					
Support	3.97 (.45)	3.96 (.43)	-.35	.76	
Control	2.34 (.35)	2.29 (.37)	2.28*	.65	.17
Self-efficacy	3.99 (.41)	4.03 (.39)	-1.94*	.80	.16
<i>Children's report</i>					
Support	3.69 (.49)	3.79 (.57)	-2.58**	.63	.22
Control	2.65 (.60)	2.49 (.62)	4.45***	.74	.36

* $p < .05$; ** $p < .01$

9. 참고문헌의 출처는 반드시 본문의 출처와 일치해야 하며, 참고문헌 작성은 원전, 한국 문헌, 중국문헌, 일본문헌, 서양문헌, 인터넷 등 기타문헌 순으로 하며, 가나다/ABC순으로 정렬한다. 책이나 잡지명 영어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한글 제목은 진하게 표기한다.

1) 영문 참고문헌의 경우

① 단행본:

Marsden, G. E. (1997). *The Outrageous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② 번역서:

Meargham, P. (1984). *Wit: Its Meaning*. Trans. George Playe. Boston: Smith.

③ 정기간행물:

Todd, S. and G. Haydon (2001). Guilt, suffering and responsibility.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5(4), 597-614.

④ 편저:

Bloom, B. S. (Ed.)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New York: David McKay.

Oakeshott, M. (1989). A place of learning. in Fuller, T. (Ed.) (1989). *The Voice of Liberal Learning*.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⑤ 2판 이상의 문헌:

Weimer, D. and A. Vining (1992).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2nd ed.),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⑥ 석·박사 학위논문:

Lee, G. H. (200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⑦ 연구보고서:

Lee, H. Y. et al.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⑧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Title", 00II-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⑨ 판례: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⑩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10(1), 231-256.

2) 영문 외 참고문헌은 해당 언어와 영문을 병기한다.

① 단행본:

손봉호 (1994). **고통받는 인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Sohn, B. H. (1994). *Human in Pai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② 정기간행물:

유재봉 (2016). 학교 인성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교육철학연구**, 38(3), 99-119.

[Yoo, J. B. (2016). School education for humanity: problems and directions. *The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8(3), 99-119.]

③ 편저:

박준연. (2005). 이중 언어이론과 영어 교육. 황적륜 (편저). **현대 영어 교육의 이**

해와 전망 (pp. 270-295).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ark, J. U. (2005). Bi-Lingual Language and English Education. In Hwang, J. L., Acock, K. R. & Park, J. U. (Eds.), *Source Book of Family Theory and Research* (pp. 270-295).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④ 석·박사 학위논문:

이광희 (2008). **대학생의 애착, 정서지능,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Lee, G. H. (200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⑤ 연구보고서:

이혜영 외 (2008). **미래학교 모형 탐색연구**. 한국교육개발원.

[Lee, H. Y. et al.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⑥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00일보 2010. 3. 3일자 5면. “기사제목.”

<http://www.dfes.gov.uk/achievementsuccess>. (검색일 2005.11.11)

[“Title”, 00Il-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⑦ 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⑧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손병덕 (2012a).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손병덕 (2012b). 아동의 권리침해현황. **한국범죄학**, 6(2), 157-184.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6(2), 157-184.]

⑨ 번역서:

조흥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역. (2005). **질적연구방법론**. Creswell, J. W.(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서울 : 학지사.
[Cho, H. S., Jung, S. W., Kim, J. S. & Kwon, J. S. (2005).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Seoul: Hakjisa. Trans. Creswell, J. W. (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LA/London/New Dehl/Singapore/Washington DC: SAGE]

10. 심사료 및 게재료 납부 : 논문 투고자는 투고 시 7만원의 심사료(영문논문 심사료 10만원)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가능’으로 통보받은 투고자는 게재료 30만원(연구비 지원의 경우는 4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심사의 결과는 투고 후 3주 이내에 1차 심사 결과가 게재 신청자에게 통지가 되어야 한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38720101-145158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기학연)>
11. 원고량은 위에 제시된 편집 규격에 따른 편집된 매수로 원칙상 20쪽 이내로 하되, 최종 편집된 논문의 페이지를 기준으로 20쪽 이상의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 조판비(두 쪽 당 15,000원)를 부담해야 한다.
12. 원고 제출처 :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 <http://fs.jams.or.kr>
문의전화: 02-3272-4967 (사무실)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장 이메일: faithscholar@naver.com
주소 : 08807 서울시 관악구 과천대로 939 B107호
13.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4차례 발간하며, 투고자는 통상 발간 2개월 전까지 한글 97이상으로 작성하여 직접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 (<http://fs.jams.or.kr>)를 통해 신청접수 한다.
14. 논문의 본문 끝에는 두 줄을 띄워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이라고 표기한다.
15.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항 3절과 3절은 2008년 6월 1부터 적용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1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독교학문연구회 연구윤리 규정

2007년 7월 1일 제정

2016년 4월 1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항. 이 규정은 기독교학문연구회(이하 학회)의 모든 회원이 학술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학회와 기독교학자의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항. 이 규정은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들을 수행한다.

제1항.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제2항. 연구부정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제3항. 제보자와 피조사자 보호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4항. 조사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5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1항. 위원회는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당연직인 위원장은 연구부회장이, 부위원장은 학술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은 편집위원과 해당 연구윤리 심사에 적합한 학회 내외 인사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과 상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편집위원을 포함한 학회 임원들 중에서 지명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항. 조사대상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위원으로 구성 또는 위촉될 수 없다.

제5조(조사 및 회의)

제1항. 조사는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위원장은 조사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2항.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사와 관련한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 외, 별도의 회의를 열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제4항. 조사와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제1항.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3항.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항.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 위반 조사

제7조(부정행위 제보, 접수, 조사)

제1항.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에 방문, 전화, 서면, 이메일 등으로 부정행위 의심자와 그 관련 내용과 증거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라도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서면과 이메일로 제보할 수 있다.

제2항. 논문과 함께 제출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https://check.kci.go.kr/>)에서 10% 이상 유사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포괄적인 유사도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항. 학회 사무국에 부정행위 제보가 들어오거나 포괄적인 유사도검증 결과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사무국은 편집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장에게 그 관련 사항을 <부정행위 제보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에게 부정행위와 관련한 내용과 증거 자료를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다.
- 제4항. 해당 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여부는 사무국의 보고가 있는 지 15일 이내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편집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반에 따라 결정한다. 편집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며,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에게 보고한 후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한다. 편집위원 과반 미만이 찬성하면 제보는 반려되고 반려 이유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보자에게 전달한다.
- 제5항. 고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인 및 연구 집단을 연구부정행위 대상으로 제보한 경우, 학회는 제보자에게 회원자격 박탈, 정지, 제한 또는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8조(용어)

- 제1항. “연구부정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행한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7조 2항부터 8항까지를 말한다.
- 제2항.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항. “변조”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항.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자신이 이미 게재한 연구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자기표절).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게재한 연구를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한 경우를 말한다(이중게재).
- 제5항. “부당한 저자 표시”란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저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6항. “저자 표시 누락”이란 논문에 논문저자 자격이 있음에도 누락시킨 행위를 말한다.

제7항. “이중 투고”란 동일한 연구를 우리 학회를 포함한 두 개 이상의 학회지에 투고하여 두 학회지 이상에서 게재 판정을 받고 우리 학회지에 게재를 포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항. “기타 연구부정행위”란 제8조 제2항부터 제7항 외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항. 학회 연구부정행위 규정 외에 더욱 세부적인 규정은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2015. 11. 3)”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2015. 5월)”를 참조하고 따를 수 있다.

제9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게 위원회에서 진술하기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 자료를 압수, 보관 할 수 있다.

제10조(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거나 노출해서는 안 된다.

제2항.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공표하기 전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3항.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사의 일체 사항은 비밀이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자들은 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기피, 제척)

제1항.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에게 검증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유를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검증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기피신청을 인정할 경우 해당 위원은 검증 과정에서 배제된다.

제2항. 위원장이 조사 과정 중에 위원 중 해당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위원의 위원 자격이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 보장)

제1항. 위원회는 검증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3조(판정)

제1항. 위원회는 조사 내용과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소명 내용을 종합하여 판정을 내린다.

제2항.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장 후속 조치

제14조(제재)

제1항.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 ① 해당 논문에 대해서 제재를 불허한다.
- ② 기 제재 논문의 경우 제재를 취소하고 관련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에 공지한다.
- ③ 학회 회원 및 본 학회와 관련한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④ 경중에 따라 회원 자격을 1년에서 5년까지 정지, 영구적 박탈, 민형사상 법적 조치한다.
- ⑤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경미하거나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는 주의, 경고, 공개사과 조치를 취한다.

제15조(결과 통지)

제1항.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재조사)

제1항.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명예회복)

제1항.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면 위원회는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제1항. 검증과 관련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 제2항. 판정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제19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독교학문연구회

- | | | | |
|----------------|---------------|--------------|--------------------------------------|
| 회 장 | 유재봉 (성균관대학교) | 편집위원장 | 손병덕 (총신대학교) |
| 부 회장 | 문석윤 (경희대학교) | 편집위원 | 김철수 (조선대학교) |
| | 이호선 (국민대학교) | | 손창민 (부산대학교) |
| 감 사 | 류현모 (서울대학교) | | 우중학 (서울대학교) |
| | 임춘택 (경남대학교) | | 이경직 (백석대학교) |
| 총 무 | 이상무 (평택대학교) | | 이상무 (평택대학교) |
| 학회이사 | 강영안 (서강대학교) | | 방명애 (우석대학교) |
| | 권태경 (총신대학교) | | 현은자 (성균관대학교) |
| |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 | 현창기 (한동대학교) |
| | 김승욱 (중앙대학교) | | Paul Lim (Vanderbilt University, 미국) |
| | 김홍섭 (인천대학교) | | Sungmin Chun (VIEW, 캐나다) |
| | 박신현 (고신대학교) | | |
| | 박영주 (은혜샘물학교) | | |
| | 서성록 (안동대학교) | | |
| | 송태현 (이화여자대학교) | | |
| | 양성만 (우석대학교) | | |
| | 윤완철 (카이스트) | | |
| | 장수영 (포항공과대학교) | | |
| | 정희영 (총신대학교) | | |
| | 조무성 (고려대학교) | | |
| | 조성표 (경북대학교) | | |
| | 황호찬 (세종대학교) | | |
| 연구총리위원장 | 문석윤 (경희대학교) | | |
| 연구부위원장 | 이호선 (국민대학교) | | |
| | 손병덕 (총신대학교) | | |

신앙과 학문 제23권 제2호 (통권 75호), 2018년 6월호

발행일/ 2018년 6월 30일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 유재봉 (성균관대학교)

편집인/ 손병덕 (총신대학교)

인쇄/ 진흥인쇄랜드

등록/ 문화 바02789

주소/ 08807 서울 관악구 과천대로 939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 02-3272-4967

팩스/ 0303-0272-4967

전자우편/ gihakyun@daum.net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ISSN/ 1226-9425

정가/ 15,000원